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3월호 통권311호



月刊 建築士 1995년 3월호 통권 311호(매일 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사)라~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March **3**

J
540.5
대 927
311

컬럼
지금 움직이는데 미래는 있다 / 김진애

회원작품
원주지안예술관 / 장석용
일산주택 37 / 송광섭
중주제일신용협동조합 / 김득수
씨티빌딩 / 황일인
아주대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 서울건축

계획작품
주 스페인 대사관 / 장석원
비전시티 / (주)공간+민영식

작품노트
시라저 버린 「달의교회」와 「별의 교회」 / 김기석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이희태(1) / 양승숙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1) / 박효순

연구
도시 환경과 건축문화(3) / 황용주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주해(5) / 김도경+주남철

현상설계경기
부산사하구청사, 중앙대 제2캠퍼스 본관, 부산금정구 문화회관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년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깰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채안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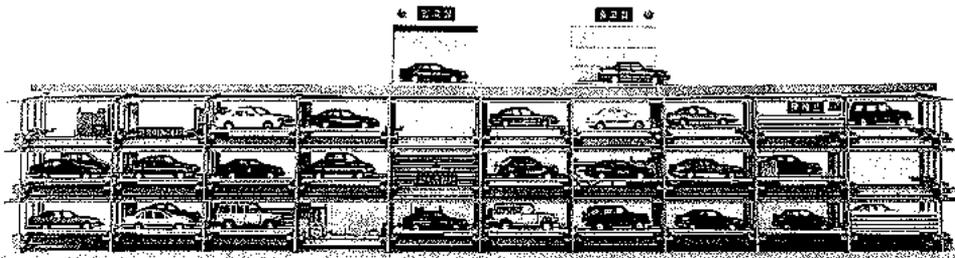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층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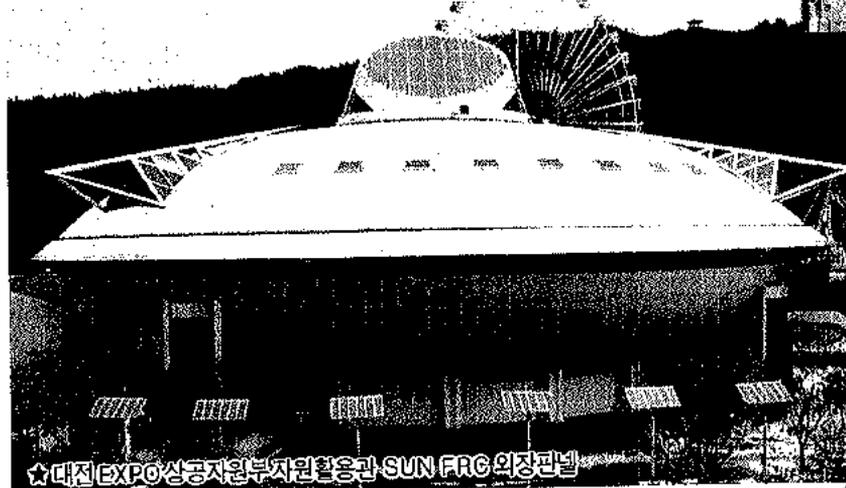
삼성중공업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내연성(a.A 법)	불연성	
인장강도(kg/cm ²)	254	
압축강도(kg/cm ²)	663	
휨강도(kg/cm ²)	407	
충격강도(kg cm/cm ² Charpy)	9.0	
밀도(g/cm ³)	1.762	
흡수율(%)	0.01	
경도(Durometer, H ₀ D)	93	
내열성(100℃, 2hr)	이상없음	
내약품성	• 10% 황산	이상없음
	• 10% 염산	이상없음
	• 10% 질산	이상없음
	•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대전EXPO'86공공지원부지원협용관 SUN FRC의장관빌

★ 한국통신
케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SUN FRC 지주관 세라믹 영상인공폭포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크기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큼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시험 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10"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 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접합 시공이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존,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방지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제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 물가지료 75% 참조



株式会社大陸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366-13 (大陸B/D)
TEL: (02)5555-056(代) FAX: (02)538-3236

★제주도모든 관광단지F.R.C인공폭포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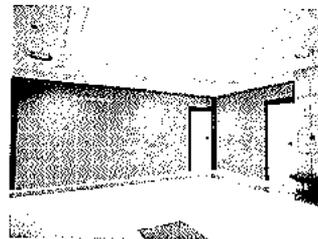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경계성 절대반죽 안전성, 편의성 등 1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방화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도피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방빌 플라자 • 부산 리베리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루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히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간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 · 창호 · 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 · 제작 · 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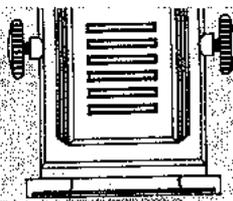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 - 4545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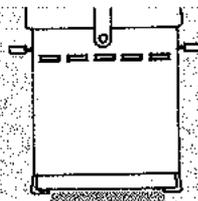
FAX : 838 - 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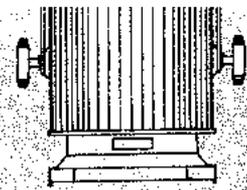
제조원 : **아주셔터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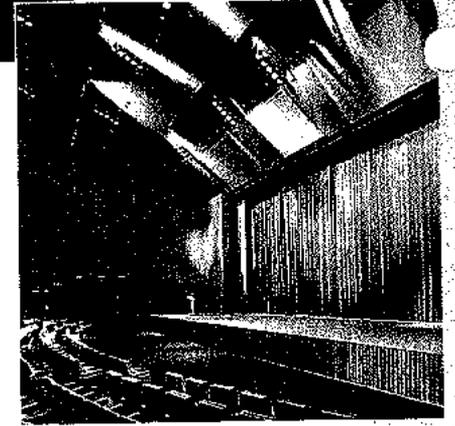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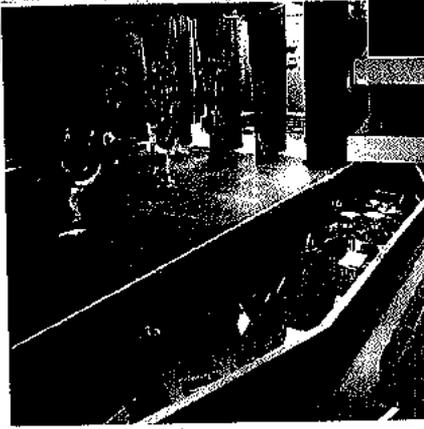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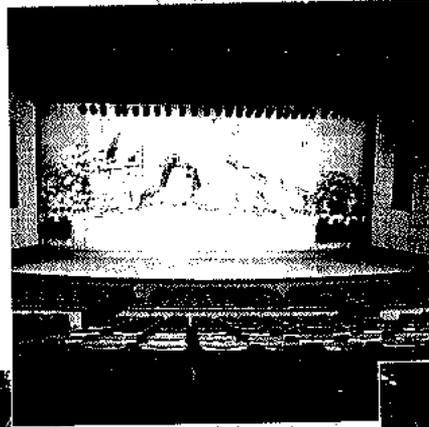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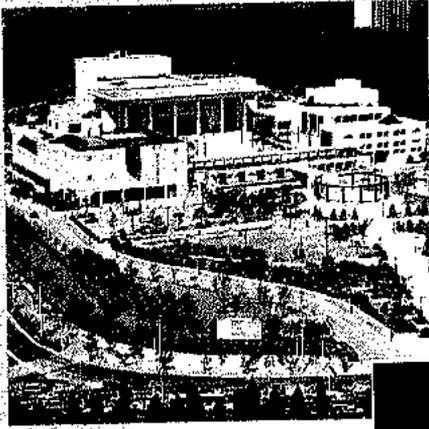
무대기계



무대조명



영상설비



기 획 · 설 계 · 시 공

SSE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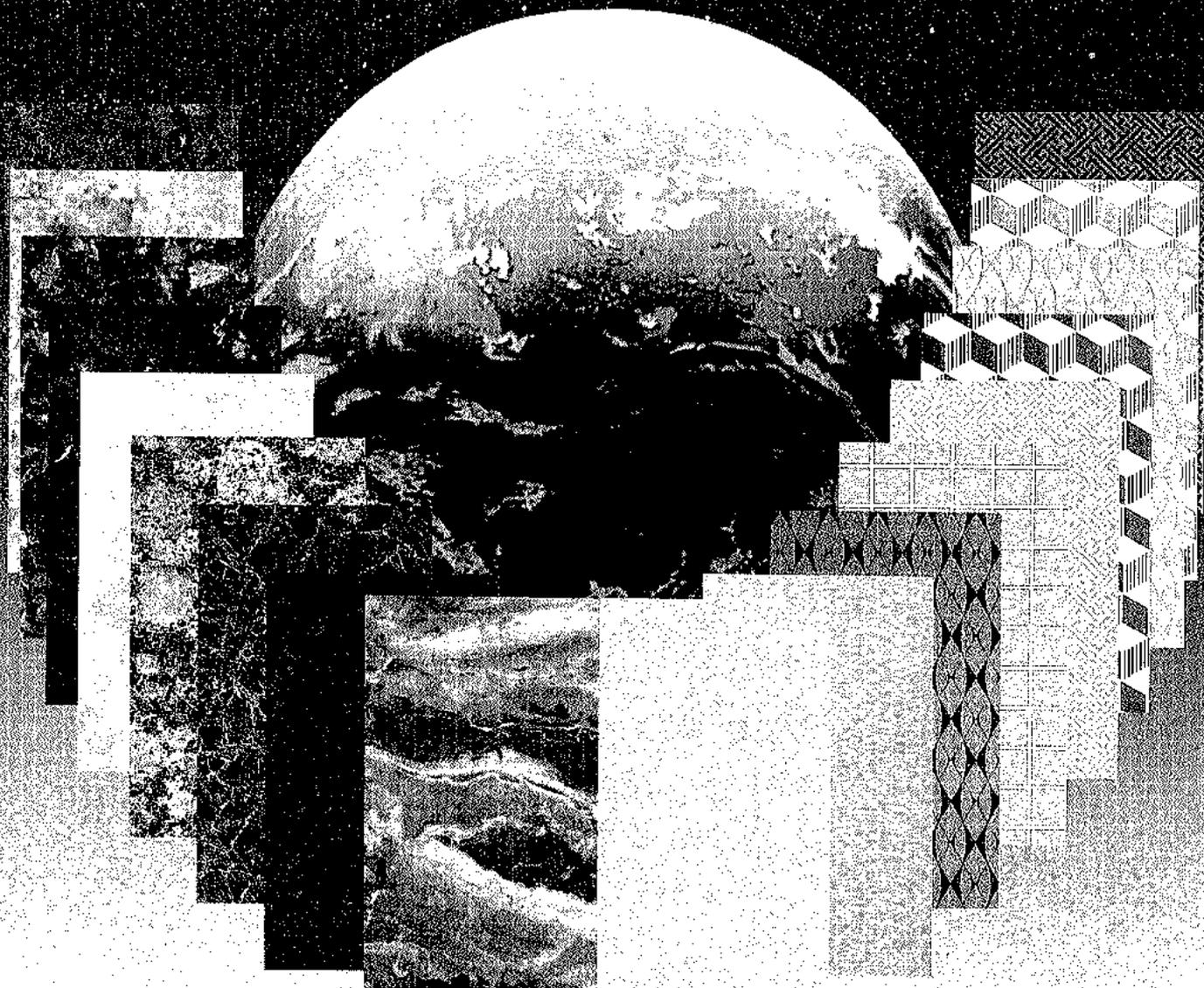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
(시화공단 2나 209)

TEL: (02)855-5373, (0345)499-8100~4

FAX: (0345)499-8105

세계의 내·외장재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차원높은 품격의 건축물에는 아키텍스가 좋습니다.

백화점, 호텔, 병원, 주상복합빌딩, 주차타워 등 보다 아름답고 품격높은 건축물을 완성하시려면 이제부터 아키텍스를 선택하십시오. 아키텍스는 뛰어난 품질, 다양한 색상, 원하시는 사양대로 공급해 드리므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100% 천연대리석 질감의 아키텍스 - 더 이상의 선택은 없습니다.

● 생산품목

- 난연성 PVC 알미늄 복합 패널
- 발포 P·E 알미늄 복합 패널
- 천연 대리석무늬 알미늄 복합 패널
- 금속무늬 알미늄 복합 패널
- 아연도 강판 복합 패널

● 주요용도

- 건축물 내·외장재
- 지하철 벽면 및 천정
- 광고판
-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 고급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든 인테리어 공간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2층
TEL : 대표전화(02)553-0897, 562-1264, 568-3474~6
FAX : (02)568-6238, 566-0856

■ 전국 판매 대리점

- 서울지역 총판 : 홍성공영(주) (02)511-6431~5
- 부산·경남지역 : 대양건업(주) (051)326-5060~6070
- 포항 : 유일테크상사(주) (0562)84-6100
- 전주 : 홍신산업(주) (0652)224-9600
- 티파니 하우스 (051)463-5197~8
- 대구 : 정건설엔지니어 (053)351-1212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진설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건축 지하구조물의
설계, 감리, 시공은
안전제일주의
무지보 역타설 공법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주) 정담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써

1.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가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2. HANGING 장치에 의한 거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자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루 지하굴토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1. 동바리 사용 불필요
2.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3. 거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4. 지하층수 증가할 수록 원가절감 효과 상승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1. 흙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휨, 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2.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3. 임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끼유,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뿜으셨습니까?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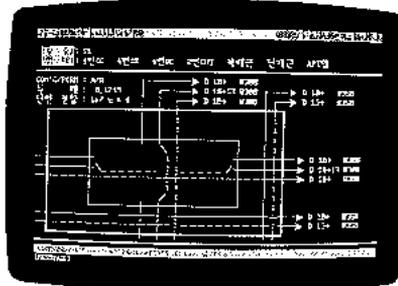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 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 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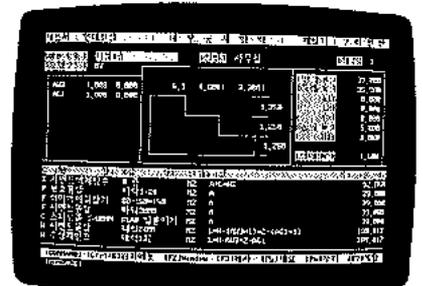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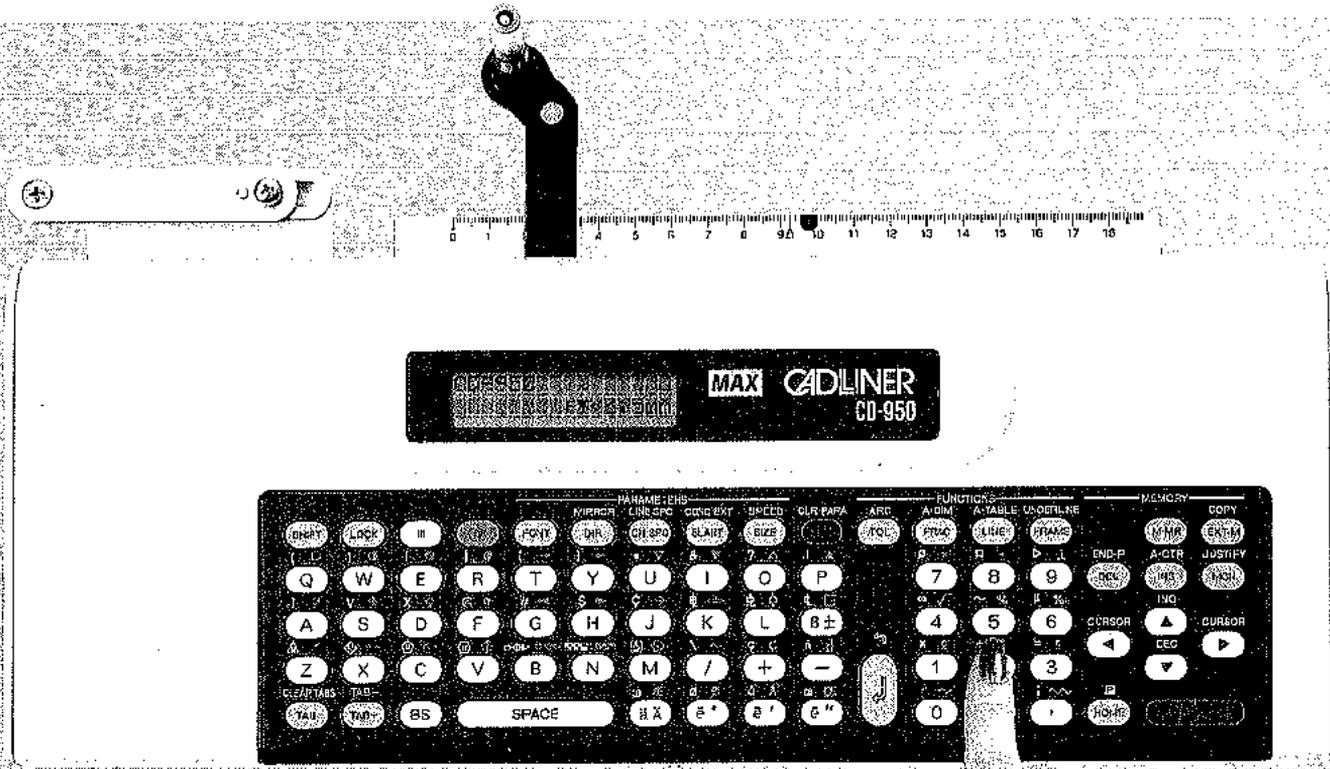
S/W 목록

- EMS-I 내역관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목내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재관리 SYSTEM
- P.M.S 공사관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 (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Type: 950 Max
www.max-cad.com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콤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청우시스템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한글 변환
- 풍부한 심볼 제공
- 편리한 작도와 편집기능
- 철저한 교육지원



QE 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3

입찰견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이번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시스템

Dyna 486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a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6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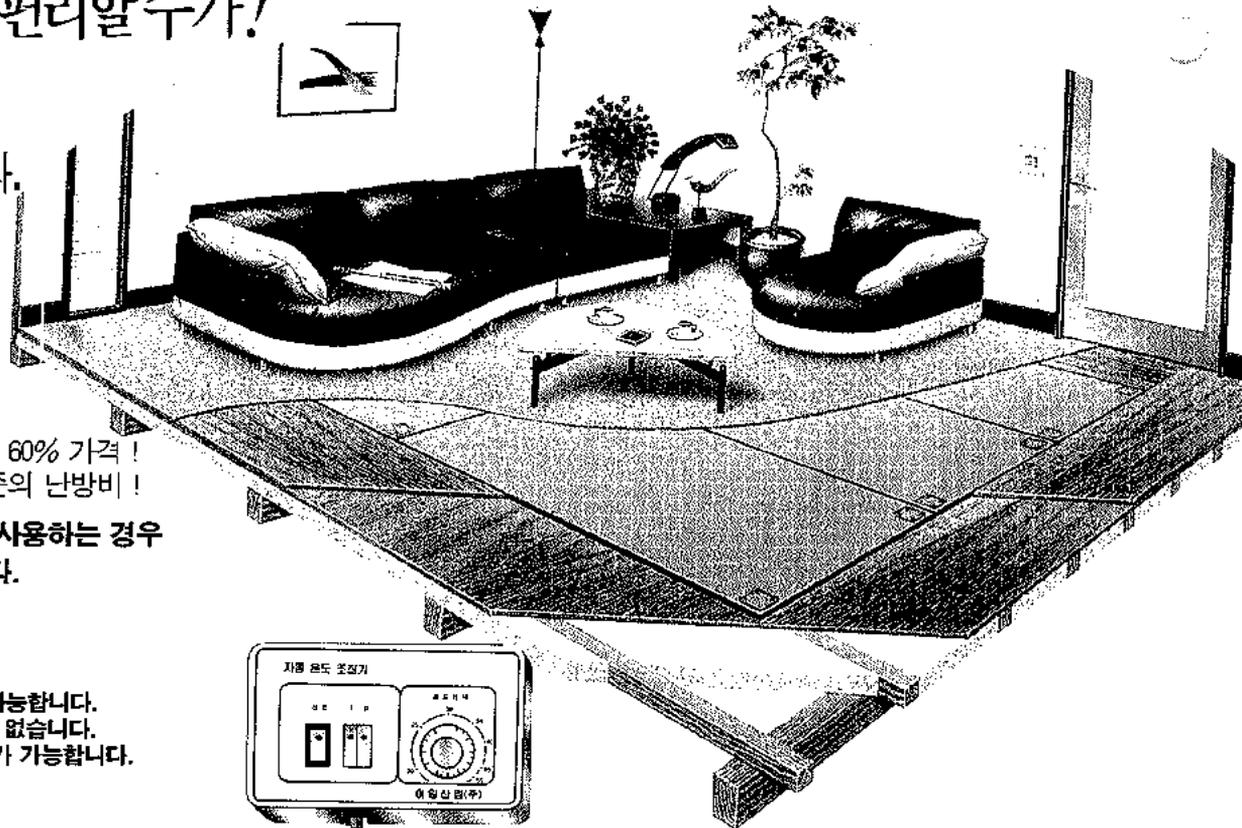


587-5168/9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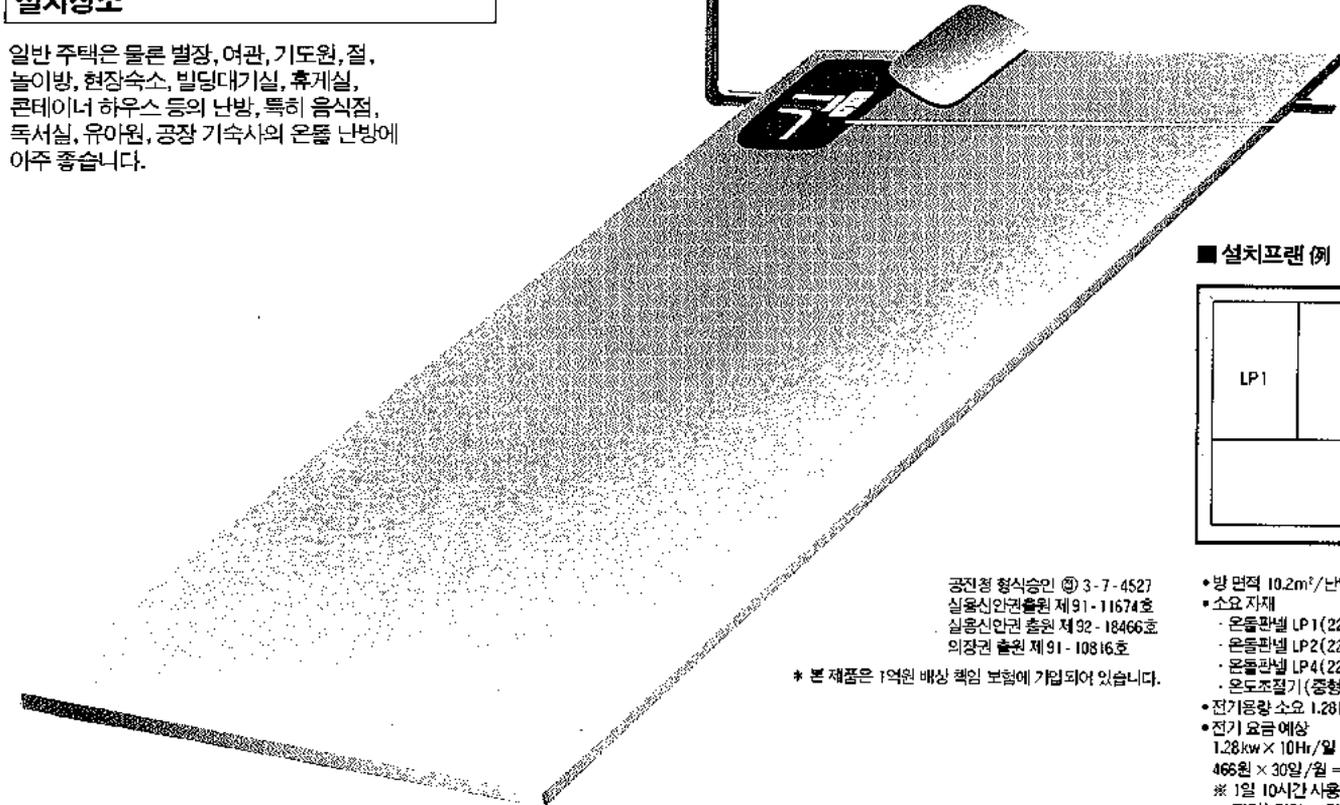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상업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야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LP1			LP2
LP4			

공인정 형식승인 ㉠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 면적 10.2m²/난방면적 7.5m²/부실률 73.5%
- 소요 자재
 - 온돌판넬 LP1(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220V/140W) × 1장
 - 온돌판넬 LP4(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중형) × 1대
- 전기용량 소요 1.28kw
- 전기요금 예상
1.28kw × 10hr/일 × 0.7 × 52원/kwh = 466원/일
466원 × 30일/월 = 13,980원/월
※ 1일 10시간 사용, 충전율 70%, 전기요금(일반 전기) 단가 52원/kwh의 월간 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데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콘크리트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판넬

보이지 않는 곳의 충실함, 보이는 곳의 아름다움 - 서일에이스판넬



서일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타워의 외벽재, 지하이중벽

서일에이스판넬의 특징점

- 얇고 단단하다.
중공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에이스판넬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대)552-0945
공장: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252-3 (0446)877-2916

전화문의 : (대)552-0945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3월호 통권311호

發行人: 金圭泰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俊憲
 委員: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鎭, 金宗植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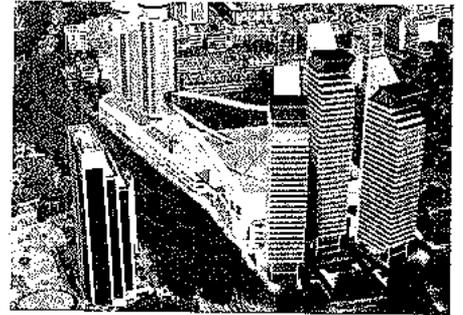
Publisher: Kim Gyu-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Chun-Heon
 Member: C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Registered Number: Seoul P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c(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3월호 통권 311호

시론	지금 움직이는데 미래는 있다 / 金鎭愛	16
특별기획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1) / 黃鏞周	18
특약작품	원주치악예술관 / 張錫雄	20
	일산주택37 / 宋光燮	26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 / 金得洙	32
	싸티빌딩 / 黃一仁	36
	아주대 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 / (주)서울건축	40
시론	주 스페인 대사관 / 姜錫元	42
	비전시티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閔敬植	44
정물	정물 / 安日成	50
	향원정의 봄 / 金錫恒	51
사라져버린 「달의교회」와 「별의교회」 / 金琪碩		52
신 시일야방성대곡 / 盧永煥		58
한국의 건축가 —이희태(1) / 梁勝宿		60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건축(1) / 朴孝洵		68
도시환경과 건축문화(3) / 黃鏞周		78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주해(5) / 金度慶+朱南哲		84
한국의 전통건축(3) / 朴時翼		94
건축, 건축인 그리고 컴퓨터 / 朴贊遠		99
부산사하구 신청사		102
중앙대 제2 캠퍼스 본관		108
부산시 금정구 문화회관		112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4
제6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2) / 趙仁淑, 白敬國		120
1995년도 1월분 전국도시신고현황		124
		126



표지사진/비전시티(설계 : (주)공간+민경식)

CONTENTS

VOL 311. MARCH 1995

COVER	
What the Future Holds is Right Here! / Kim Jin-Ai	16
SPECIAL FEATURE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 Hwang Yong-Joo	18
WORKSHOP	
Wonju Chiak Art Center / Chang Seok-Woong	20
Ilsan Residence 37 / Song Kwang-Sŏp	26
Chung Ju Jeil Trust Corperation / Kim Deuk-Soo	32
City Building / Hwang Il-In	36
Ajou University Energy System Research Center / SAC Internation Ltd	40
WORKSHOP - 2	
Korean Embassy in Spain / Kang Suk-Won	42
Vision City / Space Group of Korea+Min Kyung-Sik	44
WORKSHOP - 3	
Still Life 1995 / An Il-Sung	50
The Spring of Hyangwonjŏng(72.7×60.6) / Kim Sŏk-Hwan	51
WORKSHOP - 4	
Unfinished Work / Kim Ki-Sŏk	52
WORKSHOP - 5	
We Need to Provide the Preparation / Noh Young-Hwan	58
WORKSHOP - 6	
Korean Architect, Lee Hŭi-Tae / Yang Sŭng-Suk	60
WORKSHOP - 7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Park Hyo-Soon	68
WORKSHOP - 8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3) / Hwang Yong-Joo	78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5) / Kim Do-Kyoung & Joo Nam-Chull	84
WORKSHOP - 9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3) / Park Shi-Ik	94
WORKSHOP - 10	
Architecture, Architect and Curputer / Park Chan-Won	99
WORKSHOP - 11	
Pusan Saha-gu Hall	102
Chung Ang University Second Campus	108
Pusan Kumjung-gu Culture Center	112
WORKSHOP - 12	
The 6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ACA-6)(2) / Cho In-Suk, Paek Kyŏng-Kuk	120
	124
	12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8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동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92 · 중랑분회/437-736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6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4-4973~80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직할분회/(0331)43-6662 · 안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61)876-0458 · 송탄분회/(0333)2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이천분회/(0336)635-0545 · 평택분회/(02)694-5845 · 안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8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60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 · 제천분회/(0443)43-6253 · 옥천분회/(0475)33-360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전안분회/(0417)551-4551 · 홍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이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3-3816 · 남원분회/(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3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인동분회/(0571)54-5703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60 · 정촌분회/(0561)53-66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산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통영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892 · 밀양분회/(0527)355-4848 · 거창분회/(0598)43-608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모두가 각기 심란하다

건축인들은 요새 심란하다. 각기 이유는 달라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왜 심란할까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일단 막연히 불안하다. 세상이 어디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달라질 지 감이 잘 안온다. 시장개방이 되면 건축시장에도 계층이 확연히 생길 것 같은데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기도 하다.

외국의 유명건축가라면 껌뻑 죽는 건축주들의 심사를 헤아리는 지라 거센 바람 몰아칠 것 같다. 기술력 확보라는 명분하에 외국업체와의 조인트를 요구하는 공공의 관행이 드세질 것 같다. 외국업체들의 높은 기대치도 부담이 되려니와 그들의 은근한 비합리적 횡포를 알기도 하고 국제업무협력에도 익숙치 못한 터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큰 설계사무실은 대외적으로 과연 외국의 설계업체와 겨루어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된다. 건설업체가 그리 주

장하는 설계권부여 주장이 혹 설블리 이루어졌다가는 대내적으로도 경쟁이 만만치 않게 되지 않을까 싶다. 디자인 능력으로 승부하곤 고공 건축사무실은 과연 그 작가역량을 발휘할 만한 토대가 생길까, 아니면 모든 주요한 건물은, 크기를 막론하고 외국건축가들이 나눠가지 않을까 고민도 된다. 여느 건축사무실들은 그동안 종합/개인이라는 이상망직한 사무실체제 운영으로 부대껴 오다가 올해 상반기면 그런 구분은 없어져서 좋지만, 이대로 작은 사무실로서만 운영하다가는 규모의 경쟁력이란 점에서, 노하우 구축에서나, 수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여야 할 지 고민이 많다.

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규모가 곧 실력'이라는 고정관념에 지배되어 제도개선의 방향을 잡으려 하니 건축인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할 노릇이다. 온갖 숫자들—건축사와 기술사 머리, 수주실적, 자금 동원력 등등—이 있다고 곧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을 터이지만 정공법을 쓸 만큼 그들의 현실파악력이나 조정력이 강하지도 않다. 할 일은 많고 공공재원은 부족하니 손쉬운 민간자본, 상대하기 쉬운 소수의 대형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한편으로는 안스럽기조차 하다. 공공이 꼭 가져야 할 '공적 판단력'에 있어서는 아예 손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다.

기술마인드가 자리잡지 못한 사회에서 기술경영에 관심이 낮으니 속이 탄다. '사업'에는 관심이 많아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경영의 틀이 없다. 고작 부실시공의 책임이나, 감리확대, 입찰제도 개선 등의 행정개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설계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이 없으니 초조하다. 발목을 잡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데 여념이 없다 보니,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직도 '기술'과 '설계'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풍토나, 문화적

지금 움직이는데 미래는 있다!

What the Future Holds is Right Here!

金鎮愛/도시건축PD, 서울포럼대표

by Kim Jin-Ai

외교력이나 리더십이 없이 자본력과 시공기술력만 있으면 된다는 빅게임주의자들이나, 기술시스템의 축적에 관계없이 설계의 지고지순한 기능을 주장하는 고루한 대립구조들도 딱하다. 어느 분야보다 복합적인 경쟁력이 필요한 이 분야에서 서로의 역할분담이나 매트릭스 협력구조를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소송적 이권주의에 매어있으니 짜증스럽기조차 하다.

같이 생산적으로 풀어야

이런 와중에 이 분야의 개인 어느 누구도 심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세상에 일이 너무나 많으니 사는 것 자체를 걱정할 이유가 당분간 없을 것 같으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전문인으로서 전문인답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떠오르니 심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두 자기 혼자 심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같이 풀어나가다 보면 심란함이 덜어짐은 물론 미래를 앞당기는 생산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론은 더이상 그만 두자, 보나 각론으로 들어가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그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궁리하다 보면 미래는 이미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할 일은 정말 많지만 세가지 축이 있다.

■ 정보화

정보화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도대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것이 네트워크화 되어 누구에게도, 이 분야 사람, 관련 분야 사람, 일반사회에서 쉽게 쓸 수가 없으면 이 분야 발전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다. 인적자원, 조직자원, 기술자원, 관련산업자원, 진행업무, 설계인벤토리, 작품인벤토리, 관련 법제도의 내용 등등 정보화 하여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를 국내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공정경쟁과 질적경쟁으로 통하고 경쟁력강화로 통한다. 이미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분야에서 하자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보화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모아서 힘을 키워야 한다.

■ 표준화

예측가능한, 어느 경우에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밟아야 함을 표준화 하는 것은 이 분야의 불투명한, 그래서 부정과 분쟁과 경비낭비와 저급 정치화를 낳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지키다 보면 걱정이움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어느 나라와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는 것은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이미 늦다. 작게는 서식에서부터, 프로젝트관리체계, 각 부분을 수행하는 기준, 평가체계,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체계화, 보물체계, 자재, 가격산정 등등 할 대상은 끝이 없

다.

■ 제도합리화

행정쇄신을 넘어 합리적 제도를 만드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건축관련실무의 소송적 이권주의와 특혜적인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분야간 협력체제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고, 질적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지역마다 도시마다의 땅의 특성을 살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제도는 오죽 많은가? 중앙부서의 기본법 체계는 물론 시행령이며, 규칙이며, 지침들 그리고 지자체 마다 가져야 할 조례들을 만드는 일은 바로 지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자치정부에서도 각종 제도의 틀을 제대로 세우려는 이 때에 제대로 해 놓아야 말 그대로 대계를 기약할 수 있다.

누가 같이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일을 누가 하여야 하는가? 누구보다도 실무를 하는 건축가와 기술건축가들이 리더십을 발휘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도개혁의 압력을 받고 있는 행정인력도, 앞길 가리기에 능한 건설업체도, 실무와는 한발짝 넘어있는 연구직이나, 교육개혁에 더욱 관심있는 교수들 보다도 현장에 있는 설계 건축가, 기술건축가들이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이런 일이 당장의 밤벌이와 무관하다고 생각해도, 당장 하는 일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도, 현실감각과 현장감각을 가장 잘 갖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미래의 틀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코디네이트 하여야 하는가? 그리 크지도 많지도 않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보다 많은 에너지를 모으려면 차체에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가 합해야 한다. '실무'를 '실무'답게,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제대로 미래를 만들려면 말이다.

아마도 이렇게 힘이 합해지면, 그동안 눈에도 안 띄고 목소리도 작았던 여러 움직임들, 제도개선, 관행개선, 문화축진, 세계교류 등등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제대로 된 '건축센터' 같은 것을 가지고 정보화, 표준화, 제도합리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 국민들에게도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환경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분야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분야, 분명 경쟁력이 갖추어질 수 있는 분야, 세계화의 전초분야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 모쪼록 개인이나 단체가 '전문이기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국적이고 실용적으로 힘을 합할 때 실질적 사회기여도가 높아지고, 그 '사회기여주의'가 분야에 녹아드는 가운데 건축분야의 경쟁력도 저절로 커질 것이다.

1. 머리말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해 왔으나 도시의 구조와 기능 등의 변화는 따라주지 못하였다. 오늘날 세계 5대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경우 현대화된 우리사회의 도시문화를 창조하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는 크기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여 시민 생활에 적지 않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대 사회의 국제간 경쟁은 사실상 도시경제의 능률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시구조가 취약하고 관리제도가 경직하게 운영되어 기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는 도시

경영의 비능률성 때문에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합리적인 도시정책 부재로 우리나라 도시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과소과밀 상태로 성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적 도시분포는 대단히 불균형적(不均衡的)인 성장을 하였다.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1)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
- 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

黃鏞周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Hwang Yong-ju

서울 등 과밀지역은 토지(土地)가격의 급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으로 사회비용의 막대한 증가, 무질서한 주거지 확산, 주거환경의 오염, 수질, 대기,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 도시정책(都市政策) 부재(不在)속의 도시성장은 도시사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같은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도시건축이 바로 역사를 창조 한다는 자세로 물질적(物質的) 성장보다 정신적(精神的) 내실(內實)을 채우는 발전정책과 도시문화(amenity) 조성에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관료에만 이같은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특히 기성 건축가들이 중심(中心)이 되어 다가오는 21세기의 도시문화 창조 운동(Urban Amenity Movement)과 같은 사회적 문화운동을 일으켜 시민들의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도시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기성 건축가의 역할증대는 당연한 시대적 요청으로, 한 사회가 산업의 고도화로 직종이 다양하게 발전하면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기능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건축가의 활동영역이 증대하게 된다. 이같은 변화의 원천은 도시사회에서 비롯되며, 오늘날 공업선진국들이 조성한 도시공간의 구성을 관찰하면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찬란한 현대 도시건축의 출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의 소산이다. 인류가 그동안 발견한 모든 과학기술의 지식은 결국 생활문화에 활용하게 되며, 이 과정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상품으로 소비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 따라서 새로운 자재와 부품은 새로운 건축공간을 생산한다. 이같은 도시의 새로운 공간구성과 기능간의 조화는 융합된 도시공간체(Integrated Urban Space)로 발전 되었으며, 최근의 도시건축 경향은 초대형, 초고층의 건축군(Building-Mass)으로 조성된다.

이같은 도시건축이 20세기 후반기에 가능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며, 이때의 건축능력은 초정밀 설계, 초정밀 시공, 초강도 자재, 초고속 교통, 초저온 음식처리 등 모든

첨단 기술이 동원된 현대인류 문명이 쌓아올린 금자탑이다. 그리하여 이 빌딩-시스템의 운영 또한 자체 기능을 가진 유기체적 지능건물로서 최적화 상태에서 관리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활동공간을 도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한국의 도시환경과 건축문화를 창출하여 도시문화의 질적향상을 책임져야 하는 기성 건축가의 획기적인 역할 증대와 위상제고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과 위상의 변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쟁취하여야 함으로 건축가들은 현재 잘못되어 있는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중앙의 획일적인 도시행정 관리체계의 개선 등 현안 문제를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1세기 한국도시의 고유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건축가의 역할 제고와 사회적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발전과 도시성장

도시라는 정주 체계가 사회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도시가 국가발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도시관리 제도는 그 시대의 정치이념에 의한 권력 구조와 도시행정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일부 전문가의 이상이나 기술적 능력에 의하여 도시가 계획되고 건설되며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성장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자원동원기로서 그 후에는 인구함정에서 국가경제를 탈출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산업혁명을 단시일만에 성공시켰다. 그러나 80년대 부더라도 보다 융통성있고 현장 중심의 도시 계획제도와 도시공간을 직접 조성하는 건축가의 자율적인 활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던다면 우리나라 도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메마른 도시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도시행정제도와 단편적이고 독단적인 기능부처의 경직된 도시개발 행정은 토지시장(土地市場) 관리에 매달려 도시의 특성을 무시한 채 20백여개의 법규로 시민과 충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이같은 도시정책 부재(不在)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50% 가량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오늘날 교통체증과 지들은 공해, 품위없는 콘크리트 숲속에서 살아야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마치 외형 성장만을 한 내실없는 덩치 큰 인간상과 비슷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이나 엘리트 공무원들은 경제개발이란 도시성장을 수반하며, 성장한 도시는 사

회발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라는 기본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고도산업 사회로 다양화된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이같은 사회상을 담을 도시공간의 조성과 운영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열심히 다양한 고도산업사회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도시사회를 중심으로 점점 기능이 다양화하고 고도화(시간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사회)하여 다양한 기능공간의 창출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2천년대의 도시사회 발전방향과 도시건축의 창조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의 한국도시는 그 구조나 공간기능이 생활의 질적향상을 증진시키고 품위있고 능률적인 그리고 도시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행정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도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도시문화의 정수(Essential)는 고도의 분업화와 발생하는 협업체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일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계획과 설계와 시공 분야의 긴밀한 협업체제에서만 최첨단 지능을 가진 소위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건축공간의 유기적인 체제(생명력)는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양적증가와 질적 변화)을 스스로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물량적, 기능부처간 협업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한 도시체제는 비능률적일 뿐만아니라 도시사회의 품위 또는 예술성은 결여되고 20세기 후반의 한국도시 문화는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건 도시의 품위 또는 예술성 회복운동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4차공간의 계획과 설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역시 건축분야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가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건축가는 무분별한 외국의 사례도입만이 아닌 우리의 전통문화와 산업화된 가치관에서 새로운 도시문화 창조의 안목을 찾아서 시민과 더불어 도시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끌어나가야 한다. 즉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도시의 개별성(Identity)을 창조해낼 수 있는 도시 건설의 지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 및 기성 건축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성건축가들이 새로운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서구의 사례도입 노력보다는 탈도시화, 탈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감각 및 사회 가치관을 수용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을 하여야만 한다.

원주치악예술관

Wonju Chiak Art Center

張錫雄 / 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eok-Woong



남측전경

위치 / 원주시 명륜동 589

대지면적 / 15,630㎡

건축면적 / 4,408.2㎡

연면적 / 7,807.92㎡

건폐율 / 28.2%

용적률 / 21.75%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 Post Tention공법 + 철골조

Location / 589, Myeongryun-dong, Wonju-shi, Kangwon-do

Site Area / 15,630㎡

Bldg. Area / 4,4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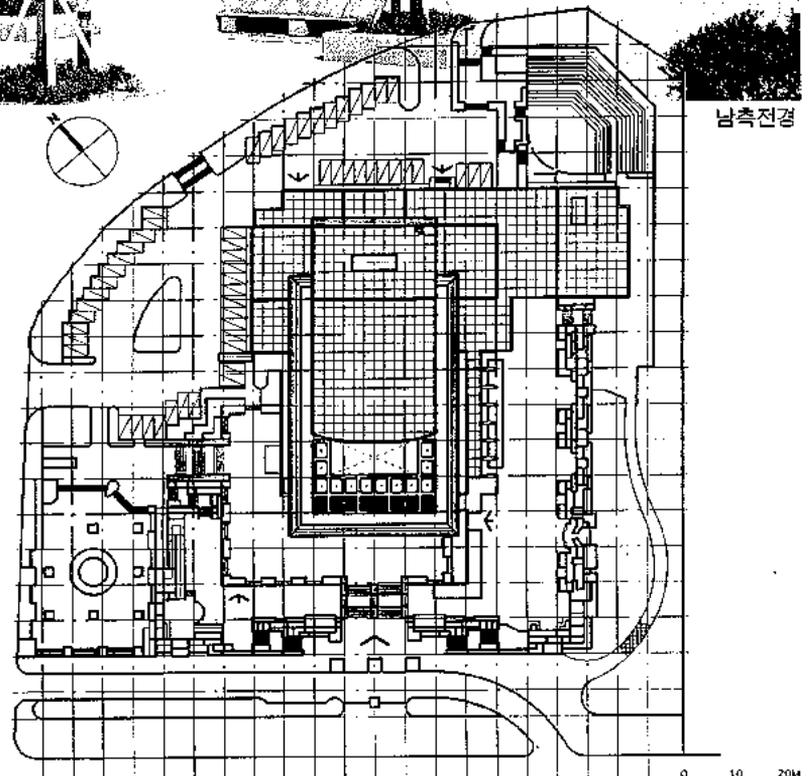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7,807.92㎡

Gross Coverage Ratio /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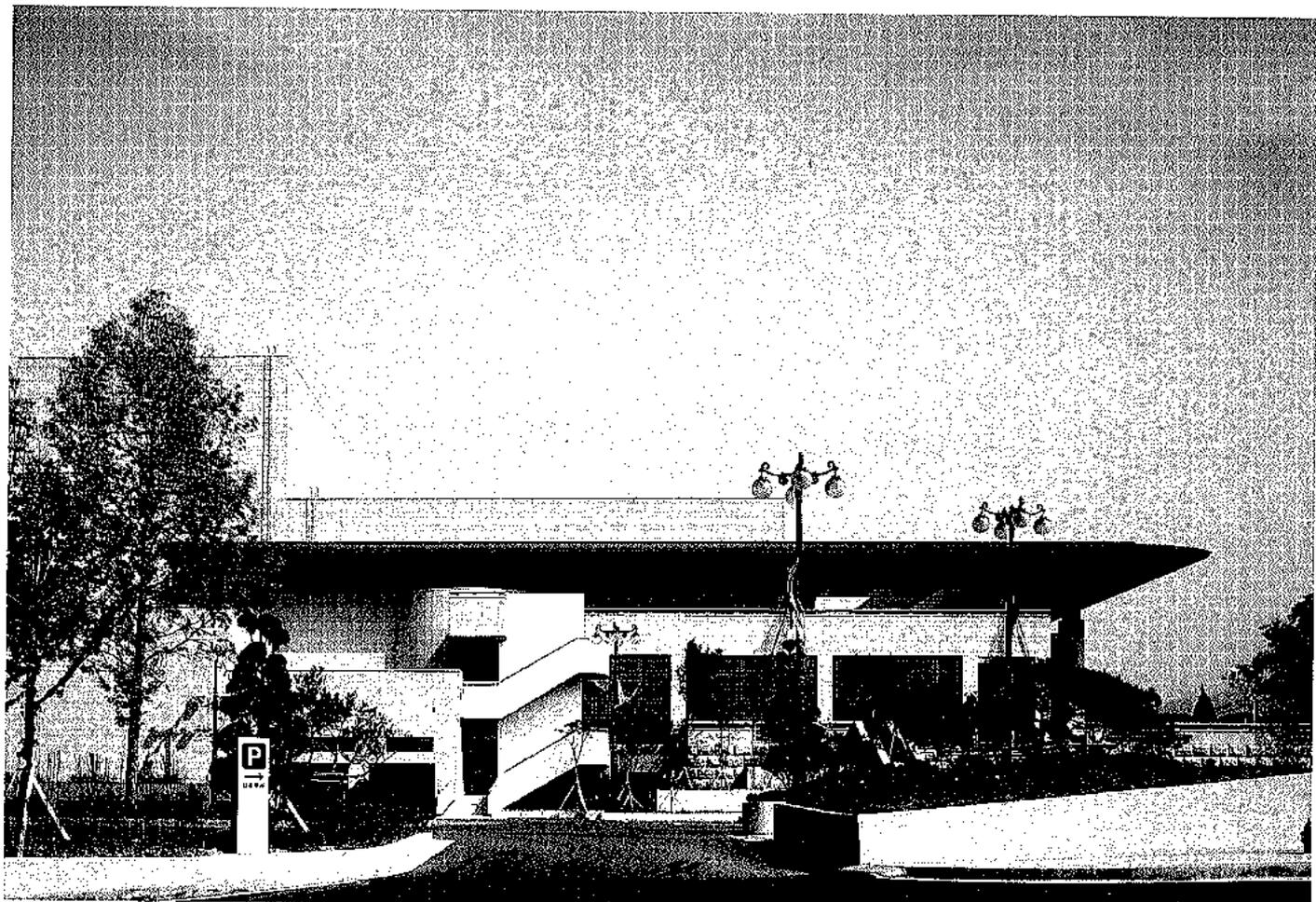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21.75%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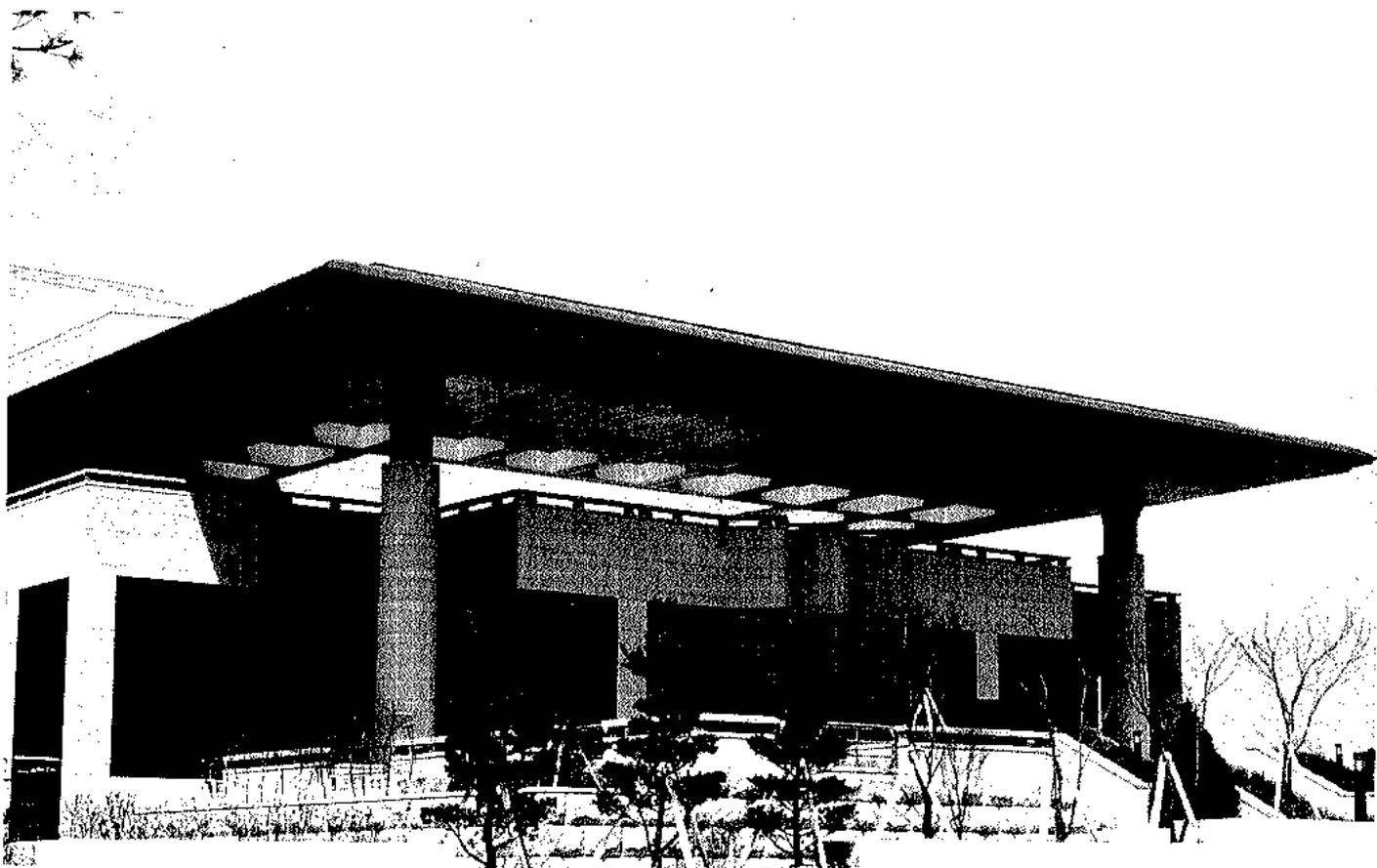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Rigid Frame + Post Tention + Steel



배치도



북서측 전경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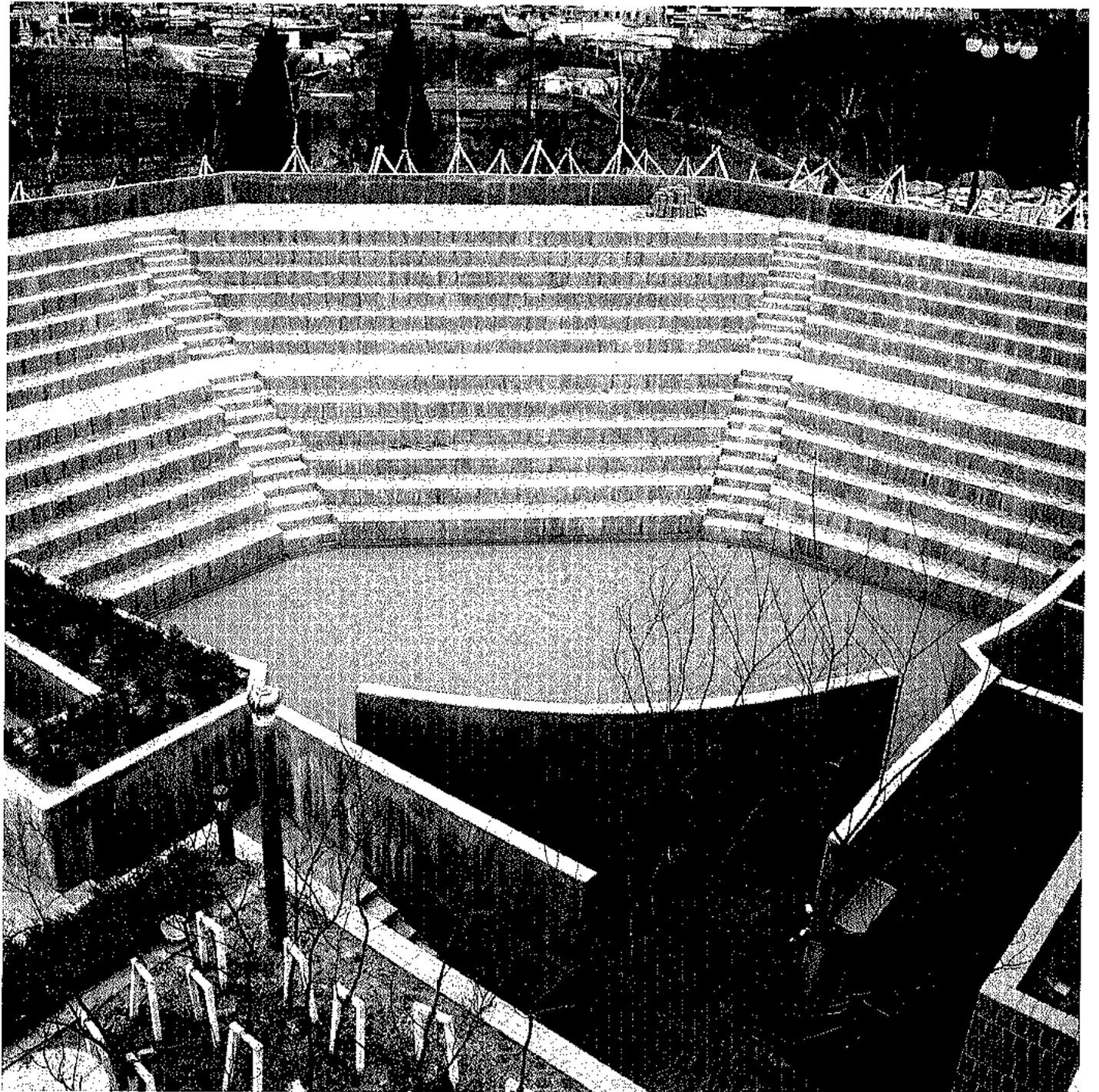
선큰가든



다목적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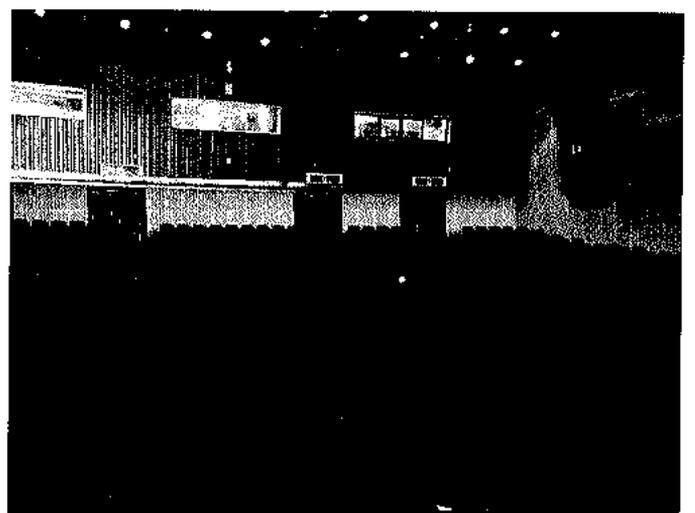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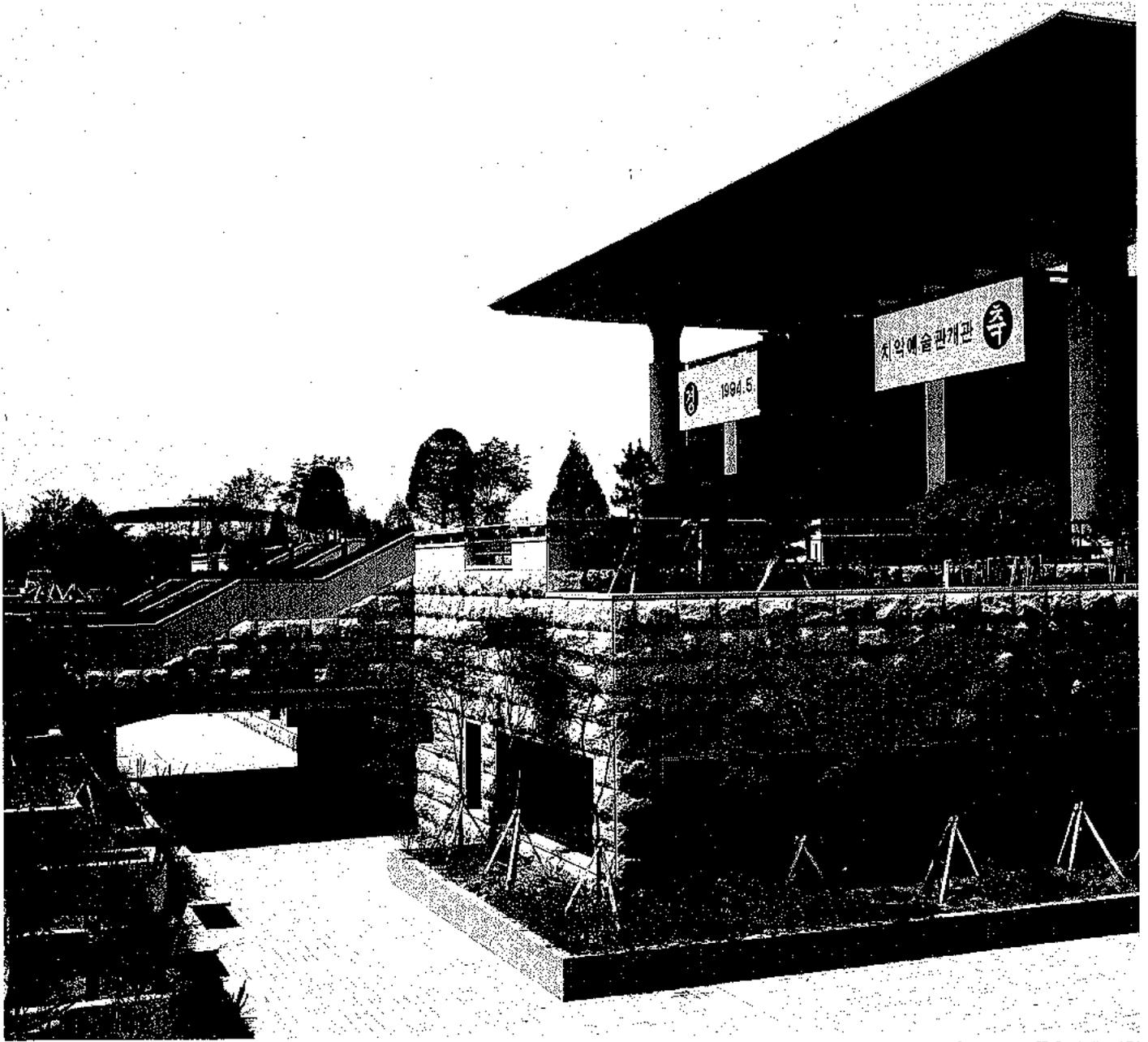
노천극장



아경



객석



남측에서 본 주출입구 전경

원주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문화예술 공간인 치악예술관이 원주시 명륜동에 대지면적 1만여 평 규모로 치악산을 배경으로 들어섰다. 흔히들 관청의 건물이라고 하면 그 거대함에만 치중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갖게 되나 치악예술관의 모습은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 버리게 한다. 제 잘난 맛에 혼자 버티고 있어 주위를 주눅들게 하는게 아니라 앞뒤 좌우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치악예술관의 외형은 편안하고 다정스럽다.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하는 치악예술관 조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건축의 현대화로서 기와지붕의 곡선미를 살린 지붕의 경사처리라든지, 통나무로 세운 기둥처럼 밀등은 굽고 위가 좁은 기둥(엔타시스의 변형), 한옥에서의 기단처럼 집의 터전이 되는 단을 만든 것이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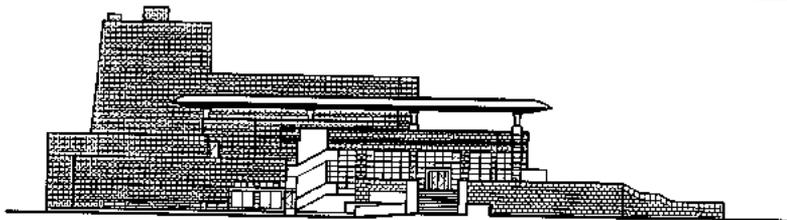
붕의 막히고 뚫린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로서 햇빛, 그림자, 눈, 비 및 바람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문화예술관의 완충 공간으로서 멋을 한층 높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 건축의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응용 됨으로써 이제 막 등장했으나 낯설지가 않은 시민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지상2층에 지하층으로 된 건물에는 객석 7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연습실, 분장실과 부대시설들이 있고 옥외에는 5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 녹지, 야외 전시장 등이 문화예술의 공간과 만남의 공간 및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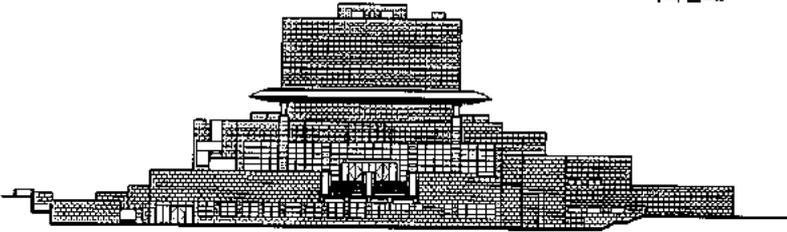
주변 조경은 "자연을 이용한 자연스러움"의 재현에 역점을 두어 나무, 물, 바위 등의 자연 요소들을 도입함은 물론 인공적인 요소에서도

자연적 질감을 표현하고 식재의 형태적,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수림으로는 예술관 앞의 서원 대로에서의 소음을 흡수 및 차단하게 했고, 화단으로는 소음을 흡수하고 계절적 아름다움을 추구 하였다. 선크가든(Sunken Garden)은 지하층의 자연채광과 환기를 원활하게 하며, 옥외 조각공원으로서의 전시 기능과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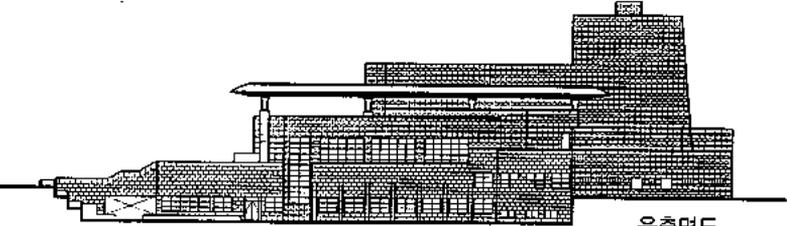
그리고 공연장 좌측과 전시장 입구의 선크가든에 장애자용 램프를 만들어 장애자들의 예술관 이용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주차 시설은 예술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변 체육시설의 기존 주차장을 함께 쓸 수 있어 요즘 심각한 주차난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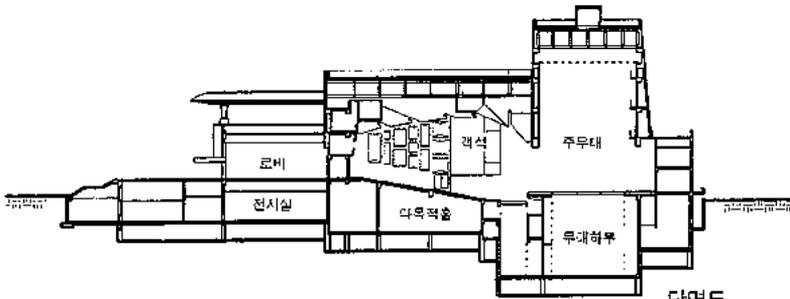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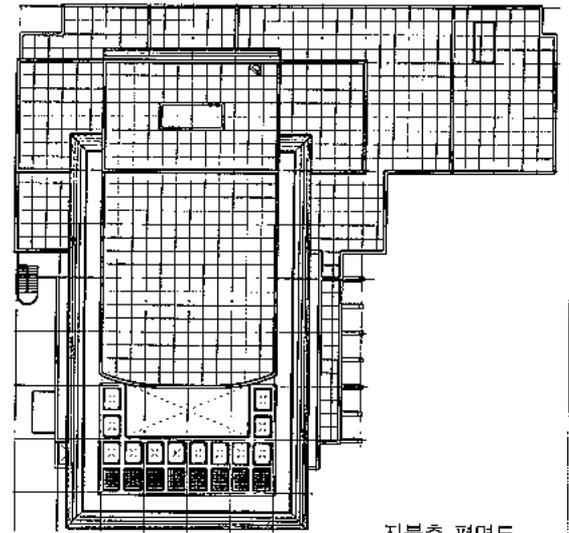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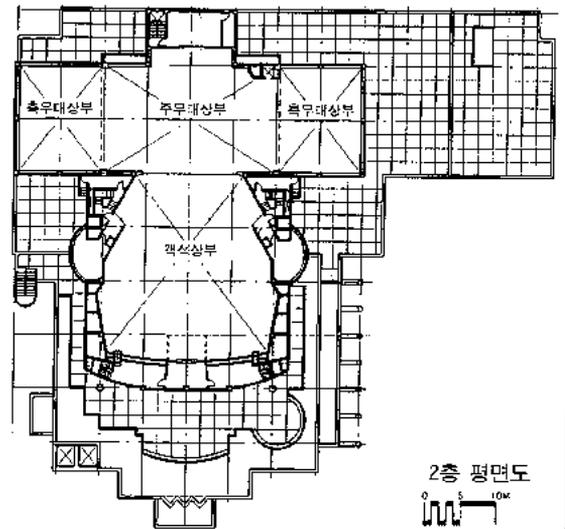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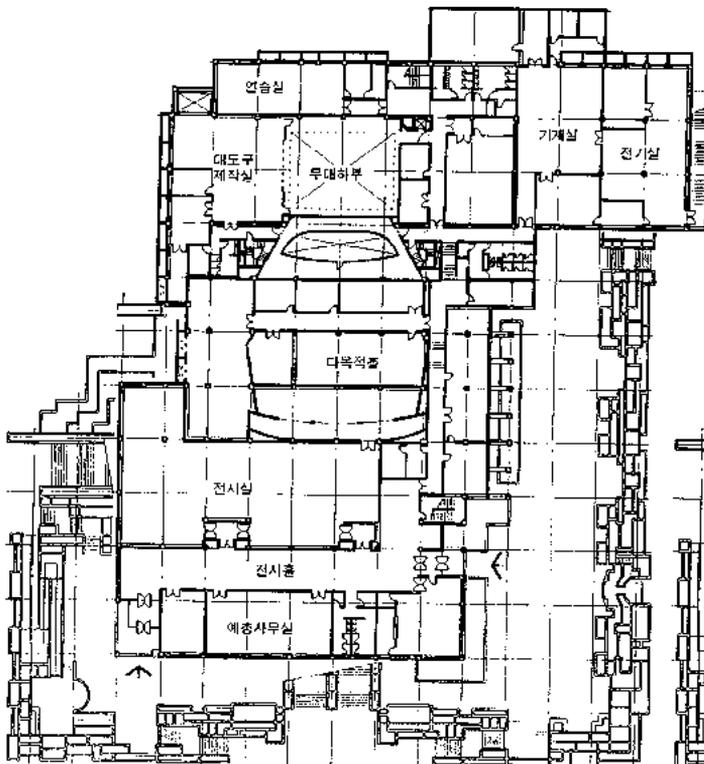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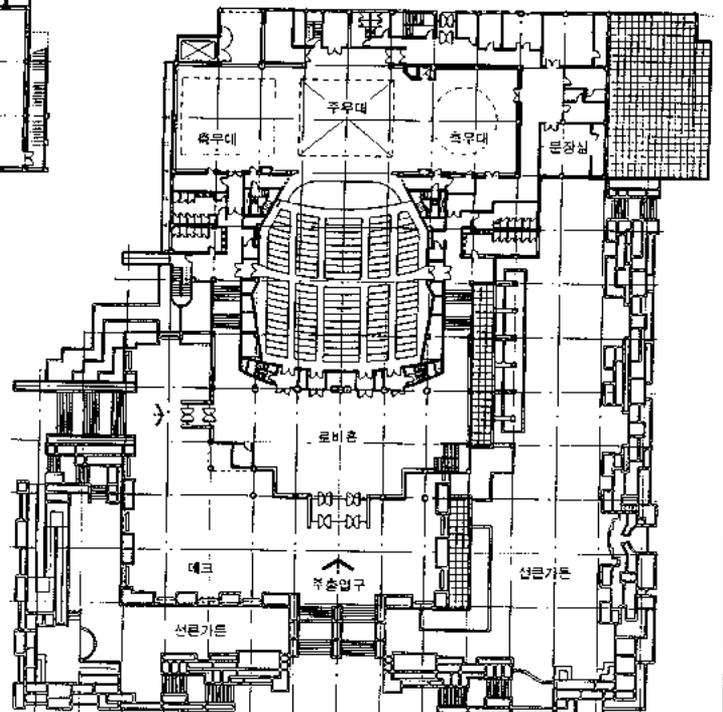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 5 10M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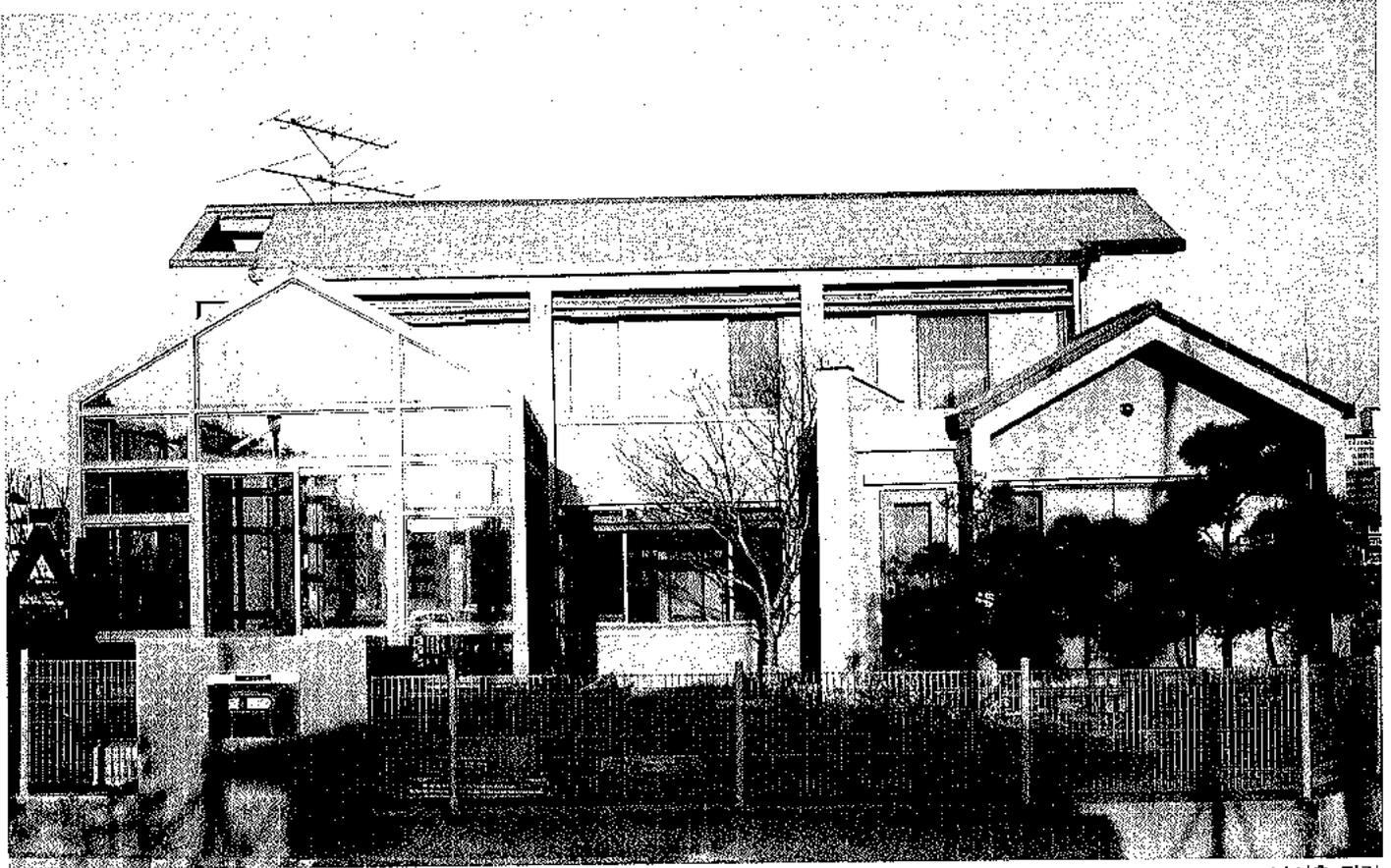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일산주택 37

Ilsan Residenc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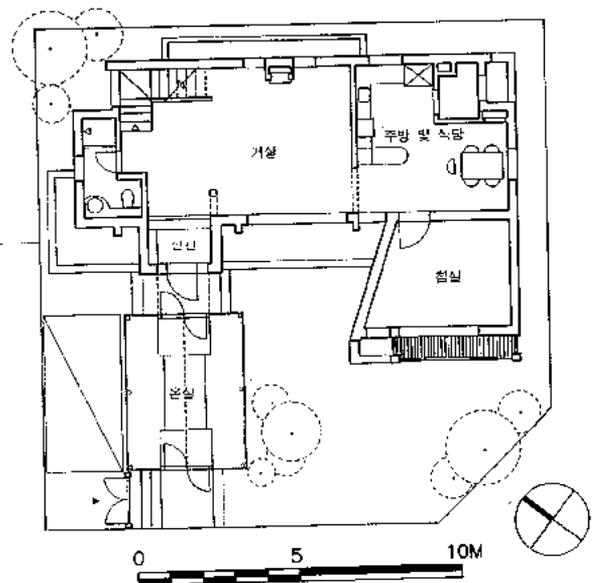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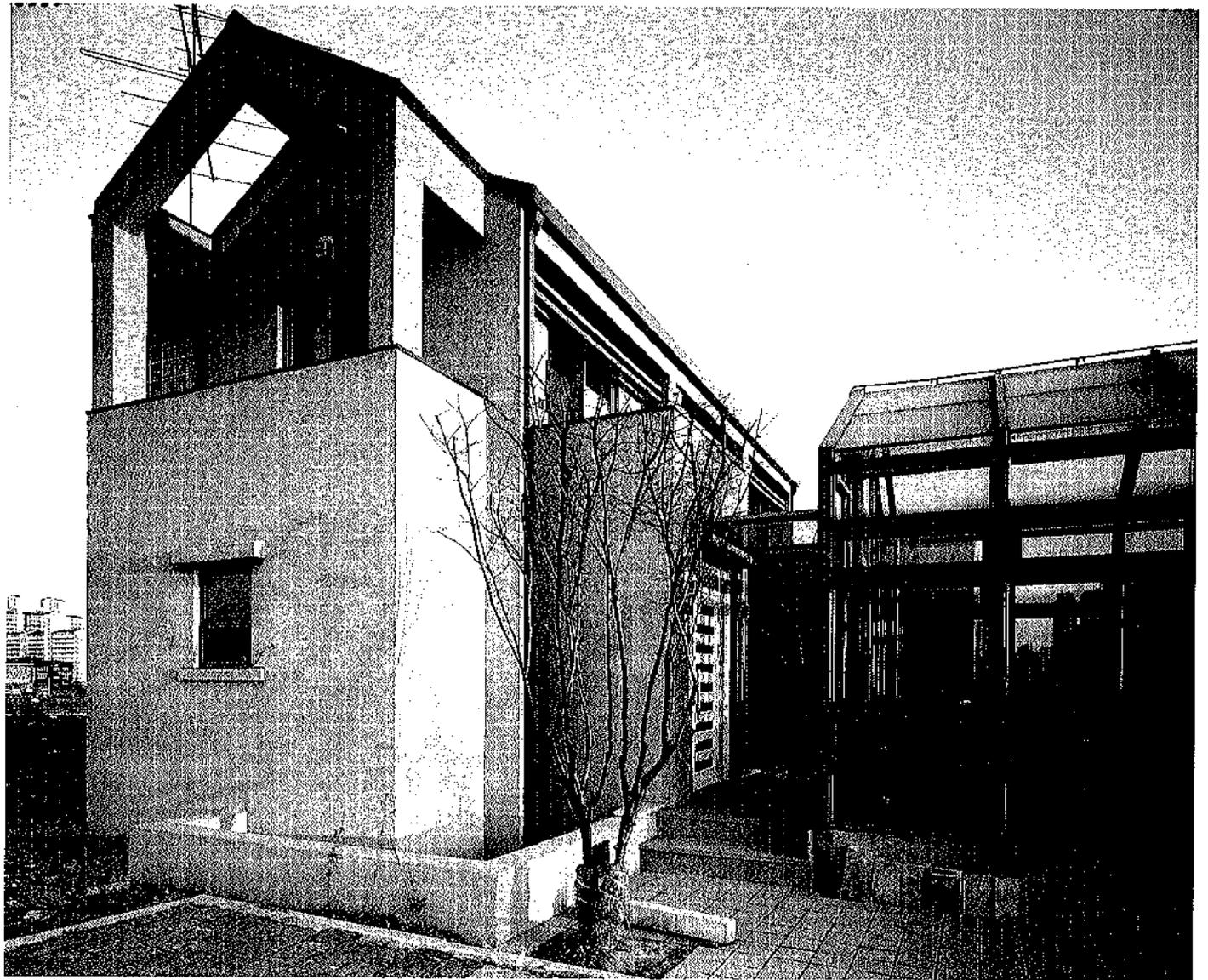
남서측 전경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단독주택용지 22블럭
지역 / 도시계획지역
대지면적 / 232.2㎡
건축면적 / 95.76㎡
연면적 / 199.44㎡
건폐율 / 41.24%
용적률 / 65.47%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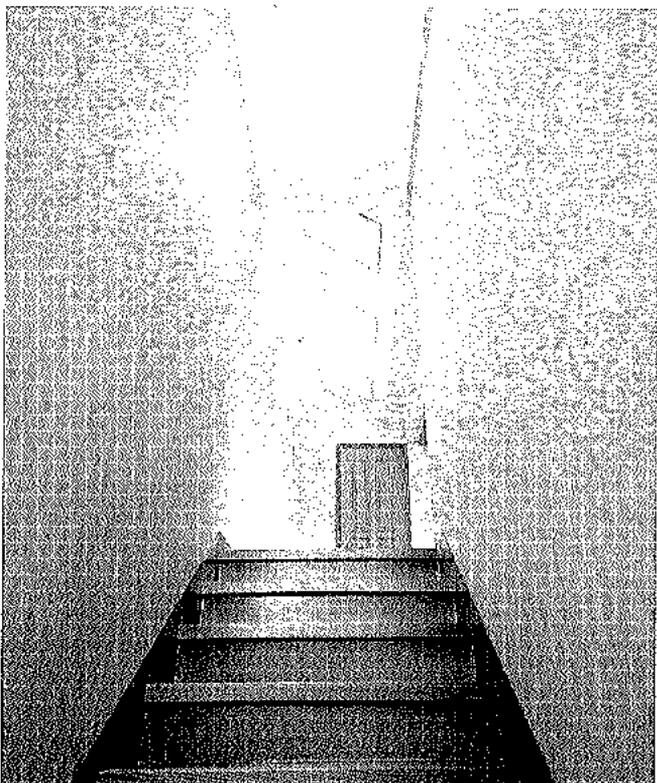
Location / 22-block, Detached House Site, Ilsan, Koyang-shi, Kyonggi-do
District / Urban Design
Site Area / 232.2㎡
Bldg. Area / 95.76㎡
Gross Floor Area / 199.44㎡
Bldg. Coverage Ratio / 41.24%
Gross Floor Ratio / 65.47%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Mason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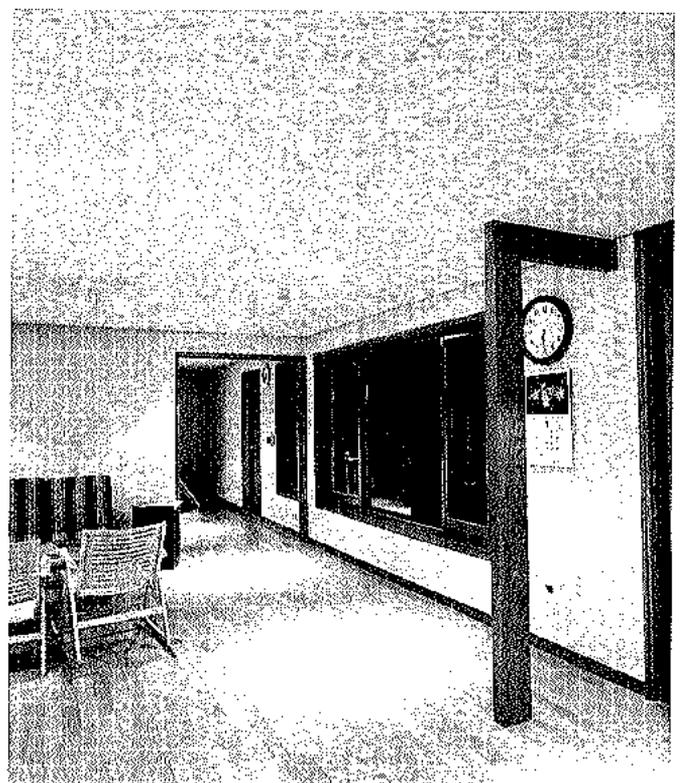
배치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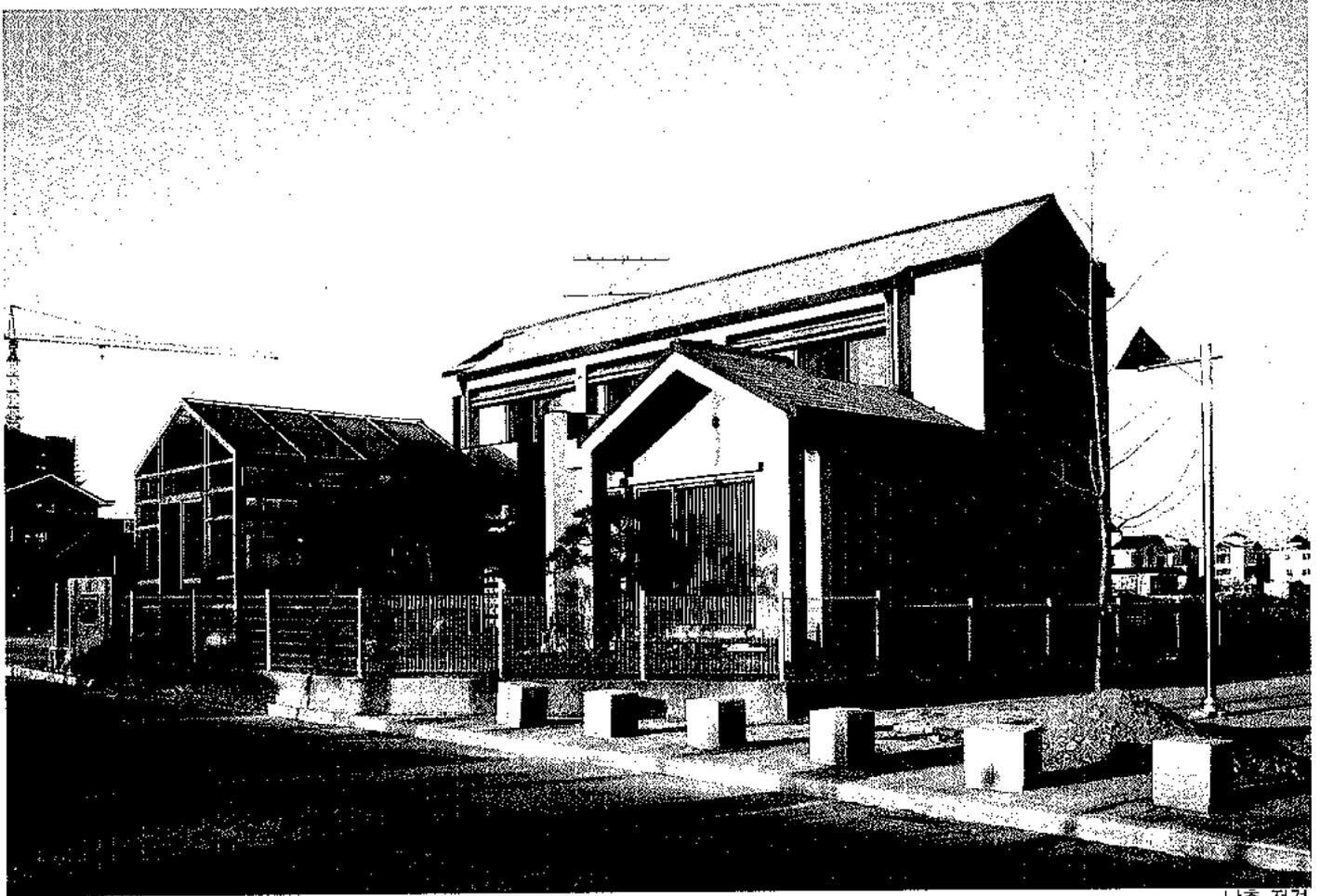
서쪽 벽면 상세



2층 연결계단실



거실



남측 전경



2층 침실



2층 가족실

새로 개발되는 빈주택단지에서 개념설정은 의외로 어렵다. 도시계획적으로 단지화시킨 규제들이 비교적 수궁이 가는 그러한 주택단지이다. 보행자 도로와 공원, 낮게 유도되는 담장, 규제가 전체적으로 통일감만 주어진다면, 좋은 마을이 되리란 예상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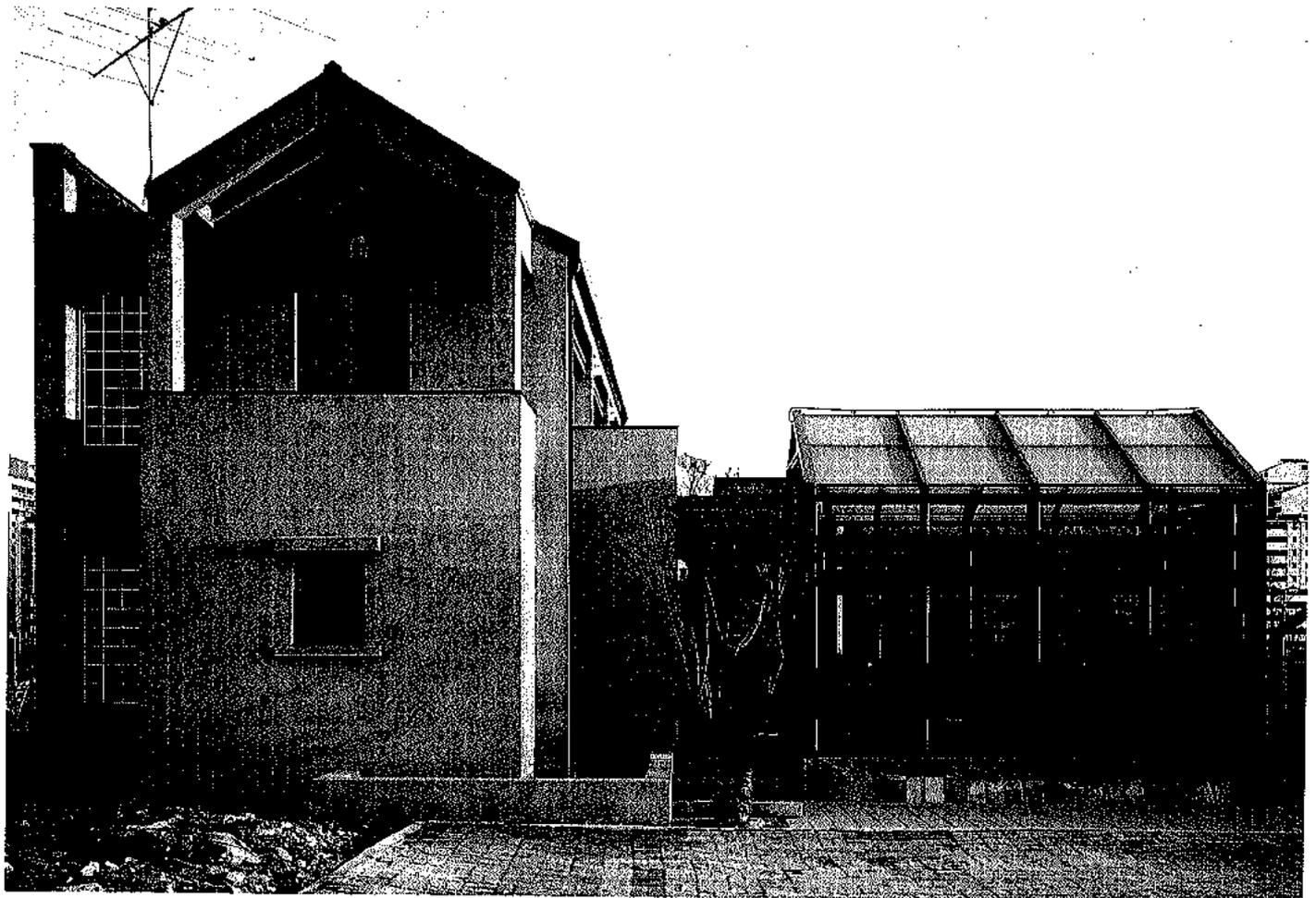
건축주의 수많은 나날의 꿈과 자금지력,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꿈과 이루려는 욕망이 설계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지만, 부족한 자원과 본인의 아낌없는 노동력(?)이 이 조그맣고 아담한 집 한채를 갖는 그의 소망을 이룬다는 생각에 즐겁게(?) 지을 수 있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부모님과과의 생활, 자기 식구에 대한 생각, 재택근무와 차후에 미래지향적인 자기모습을 담

을 수 있는 그만의 공간. 유난히 식물들을 사랑하고 가꾸기 좋아하는 그는 생활과 수경재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전면에 돌출된 녹색공간의 온실을 유도하였다. 그는 그 어린날의 시골동네의 모습을 그곳에 담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집안에 이르기까지 그 녹색공간을 거쳐 현관을 가야 하는 즐거움(?)이 아마도 그 공간을 더



서측 전경



1층 거실



야경 1

활용하고 애착이 가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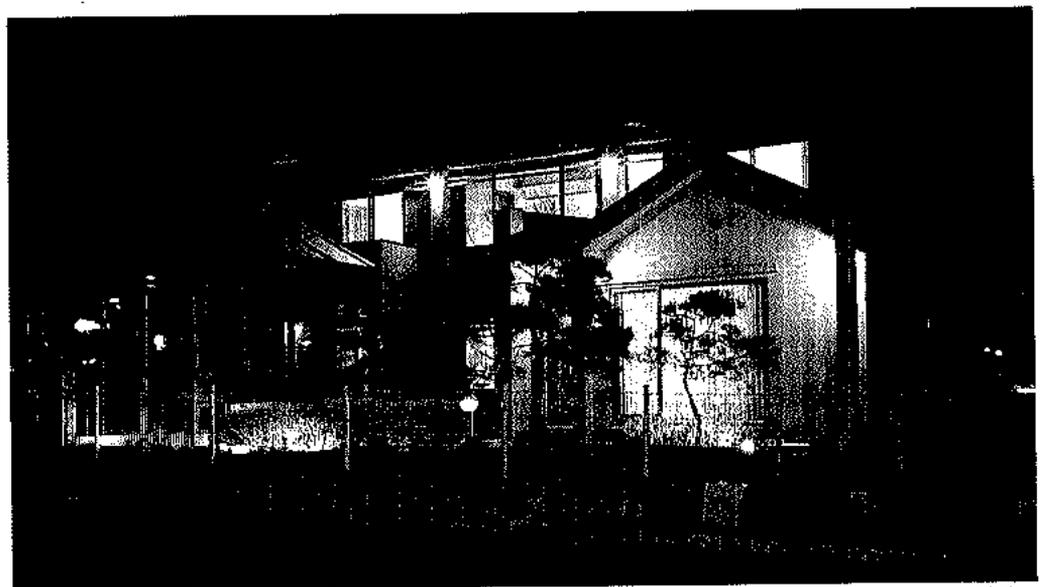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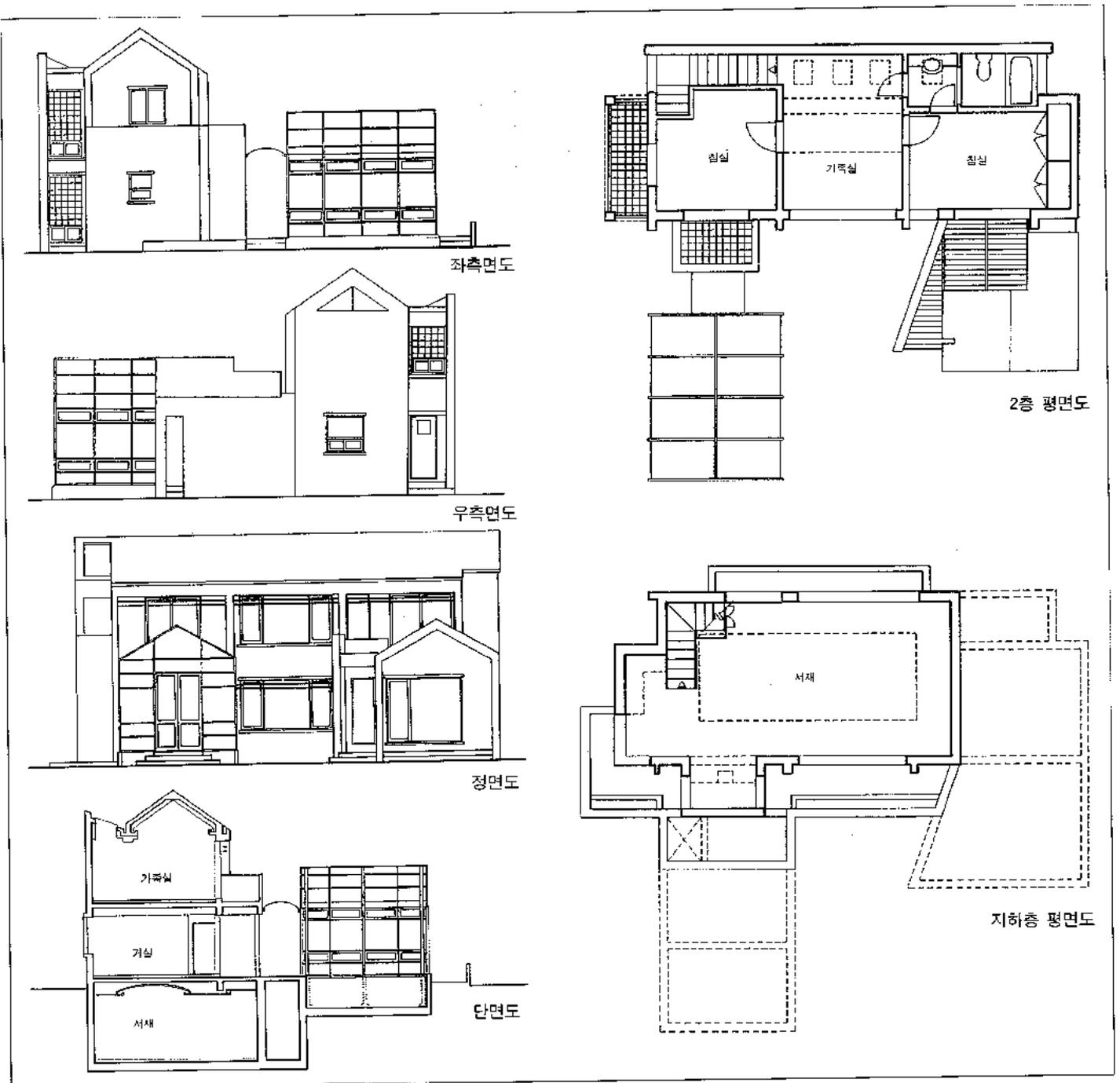
대지의 성격이 좋은 전망과 마당을 갖는 서향집으로 계획되었지만, 약간의 목재루바가 깊은 서양빛을 차단시켜 결점을 보완시켜 줄 것이다.

일층의 부모님의 공간과, 이층의 어린자녀와 그들 공간은 연속된 계단과 홀 공간은 틈리

트가 한층 더 생활을 운치있게 해줄 것이다. 지하층의 예비홀인 커다란 방은 주후에 음악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확보되었고, 공원과 보행자 도로에 맞대어 있는 안뜨락은 주변의 가시적 전망과 더불어 한층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옥외 공간이 될 것이다.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온실은 채의 구분으로 더 밝은 녹색의 투명함과 마당을 이능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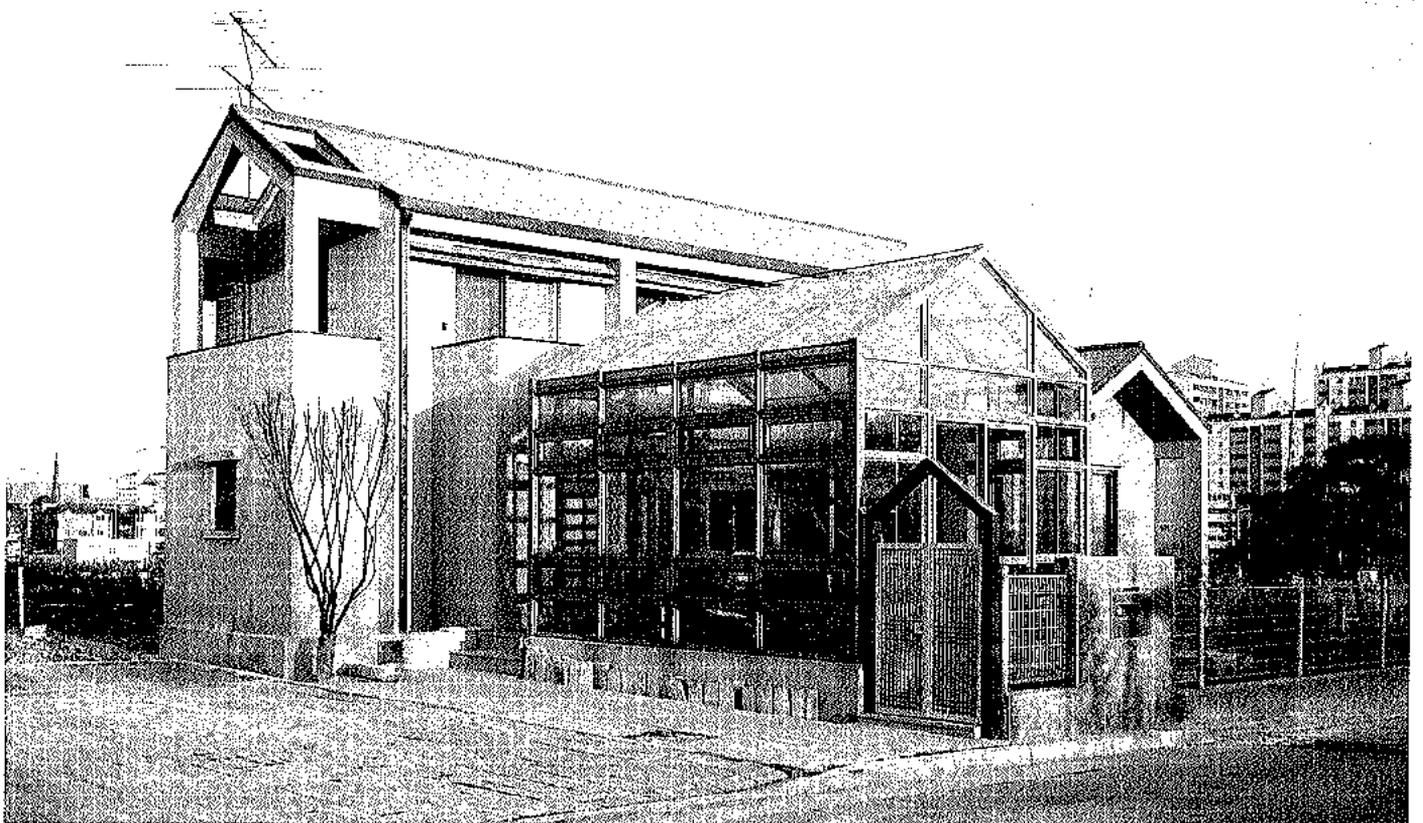
이 조그만 집이 어렵게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 그들만의 좋은 공간과 꿈이 가득한 아담한 집으로 가꾸어지며 사랑받는 집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야경 2



정면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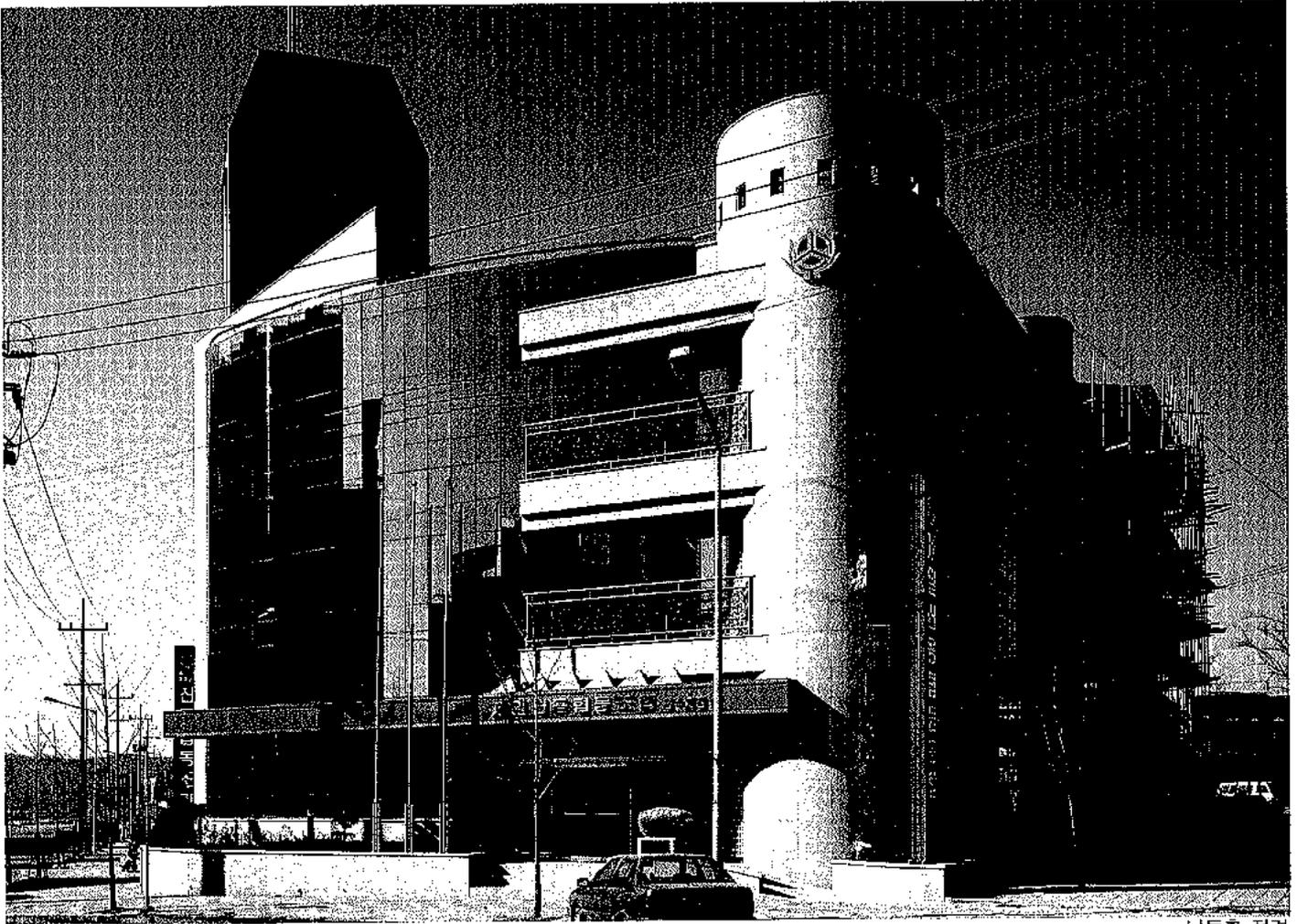


서측 전경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

Chungju Jeil Trust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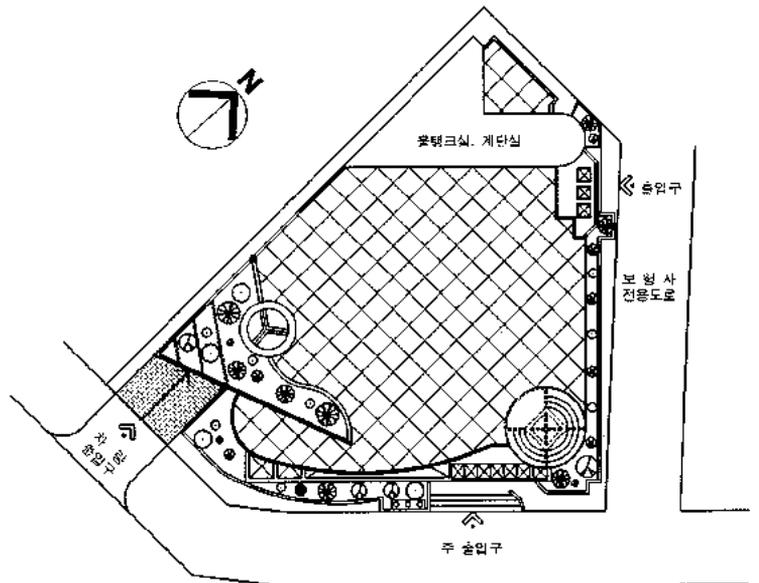
金得洙 /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Teuk-Soo



남동쪽 전경

위치 / 충주시 금제지구 27-10블럭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장비지구
대지면적 / 459.80㎡
건축면적 / 343.76㎡
연면적 / 1,345.76㎡
건폐율 / 74.76%
용적률 / 217.6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Location / 27-10 Block, Keumje Area, Chungju-shi
District / Commercial & Parking Space
Site Area / 459.80㎡
Bldg. Area / 343.76㎡
Gross Floor Area / 1,345.76㎡
Gross Floor Ratio / 74.76%
Gross Floor Ratio / 217.61%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35m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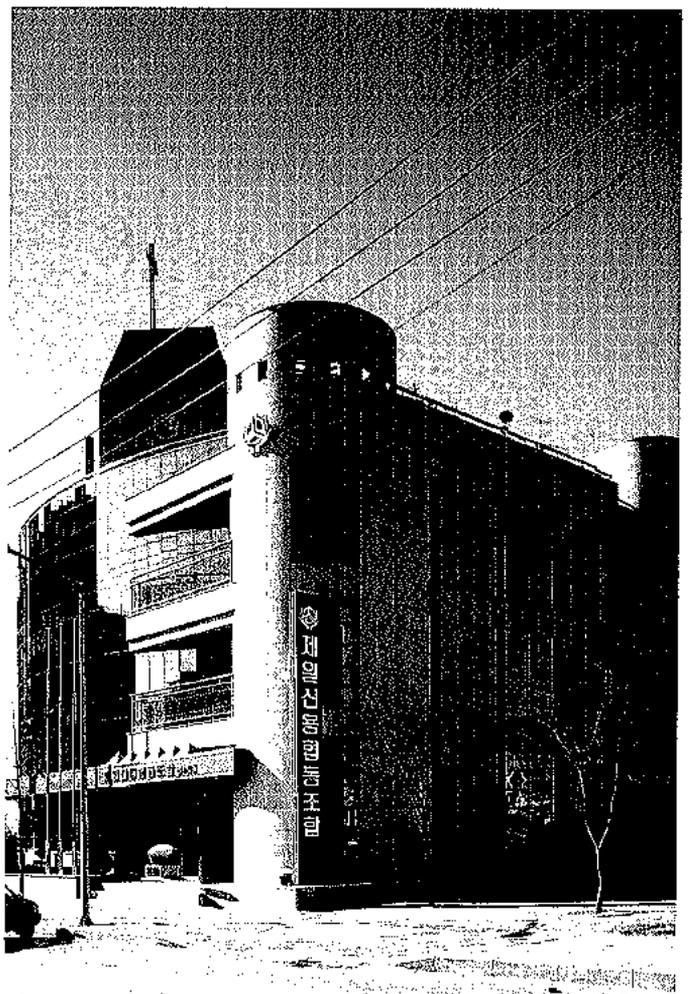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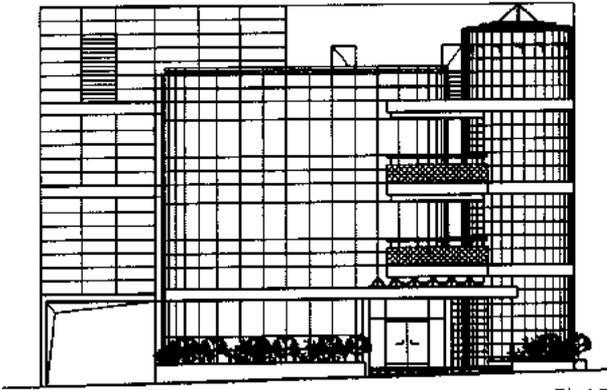
1층 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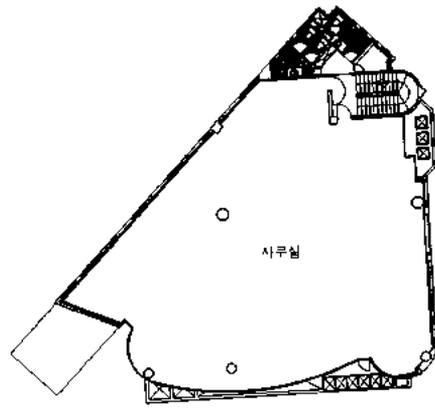
남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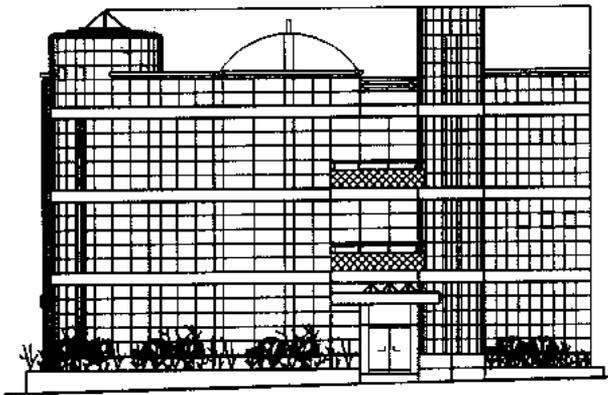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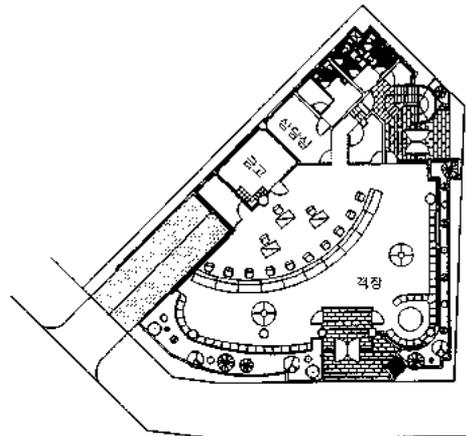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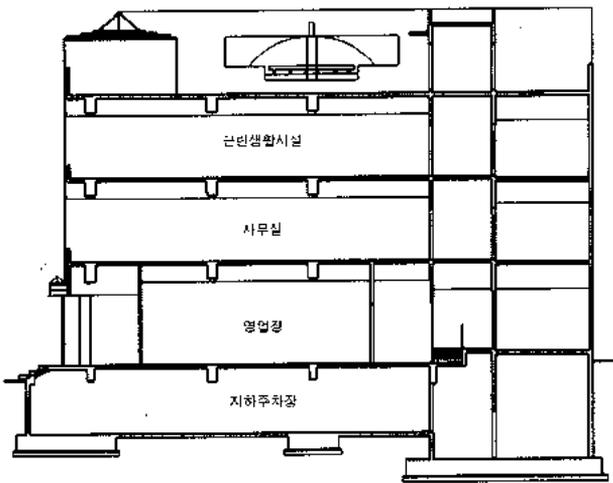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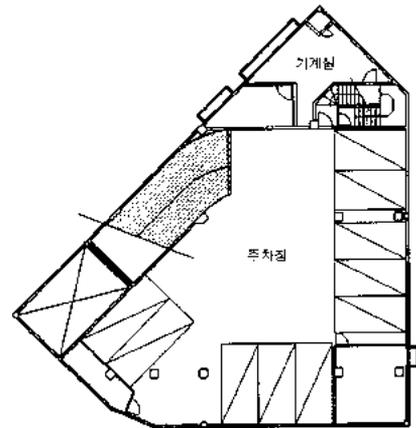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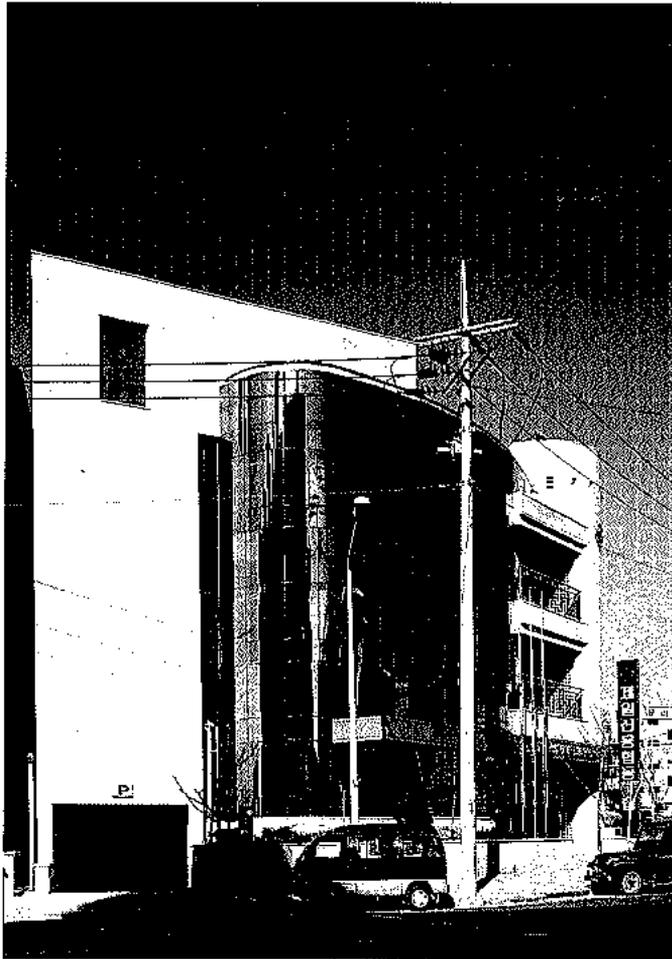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은 전면 35m 도로와 보행자 전용의 8m도로에 접한 교차로의 삼각밭과 같은 5각형 대지의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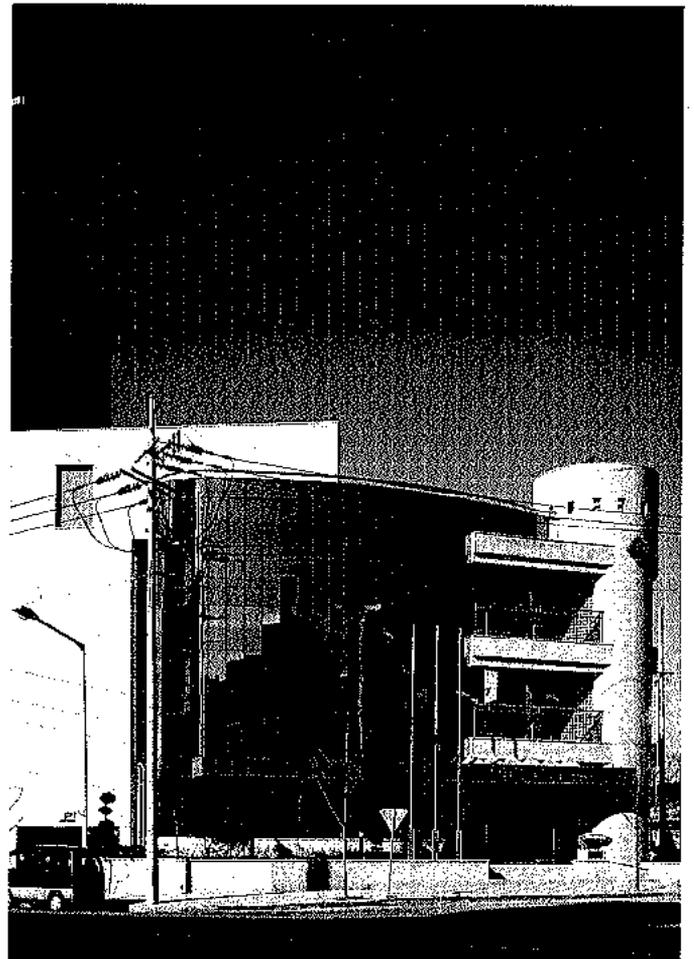
금융권과 임대 Office의 주출입에 의한 첫 행보는 Designer로써는 구축되어진 자연스러움(법적 제한에 의한 8m 보행자 전용도로)으로 시작되어 주차진입구 또한 필연적 당위성으로 해결하였다.

하지만 고민의 시작은 민 주도의 금융권에 부합되는 수평적 친화감과 고객의 심리적 안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수직적요소의 조화를 위한 계획으로 상징적인 정면성을 제안하고자 교차되어진 가로모퉁이에 도심의 랜드마크적 요소 및 중심축 설정을 위하여 원통의 시각적 포인트를 부여한 후 양측면에 무겁게 짓누른 거친 표피를 해집고 나온 정면부 Glass의 속살에

수평을 강조한 띠돌림 밴드의 화장술로 수직과 수평의 조화인 Grid 패턴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내적으로 주차램프에 의한 내부기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산실 및 금고 상부의 문서고 등의 적극적 공간활용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작은 공간에 횃대를 설치했던 수납공간이 그러하듯이 풍요만이 최상이 아닌 적극적 활용만이 최선임을 제안코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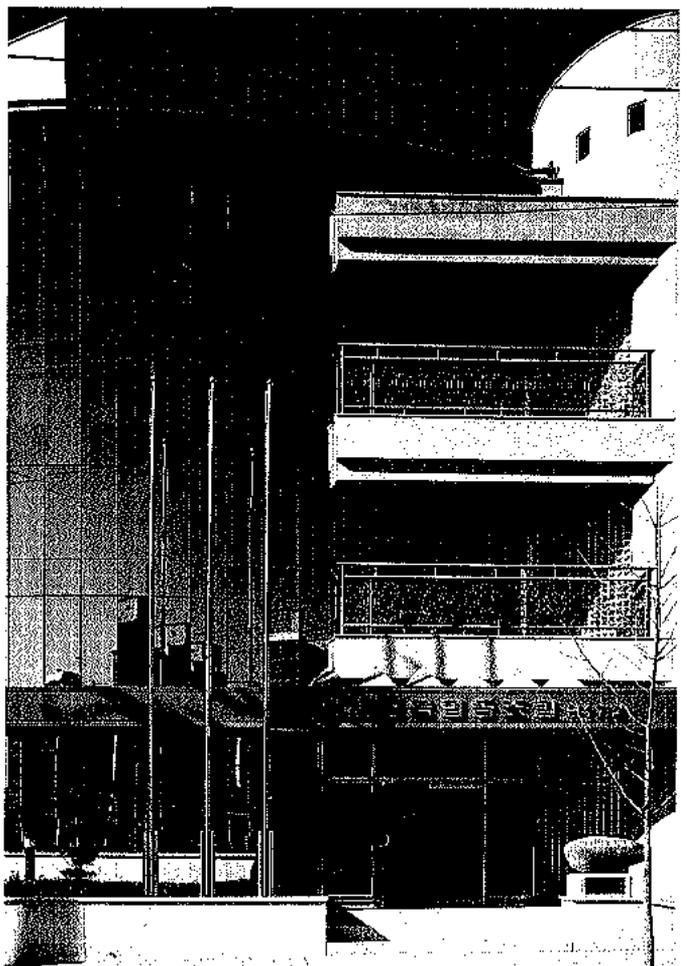
서측 전경



남측 전경



북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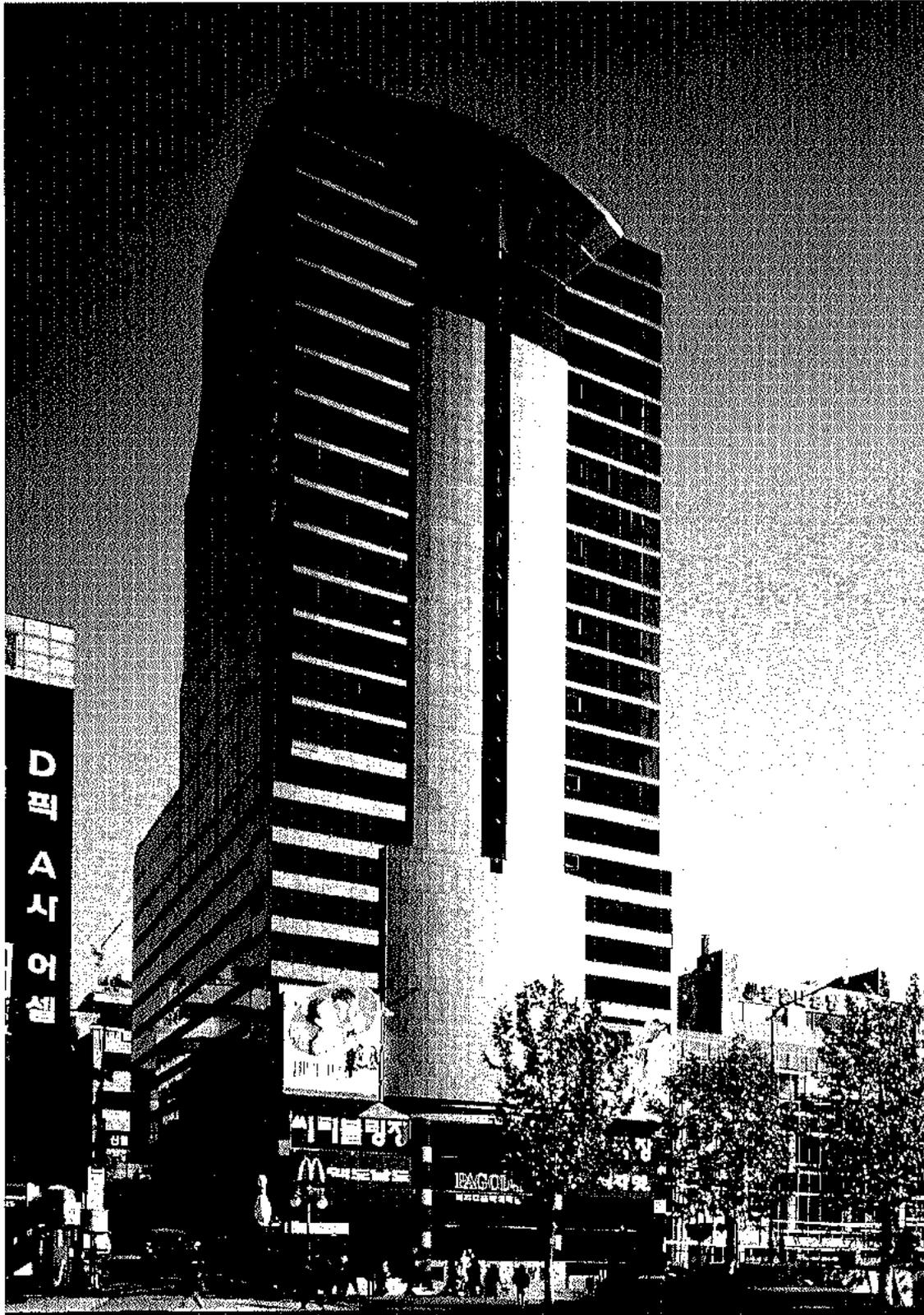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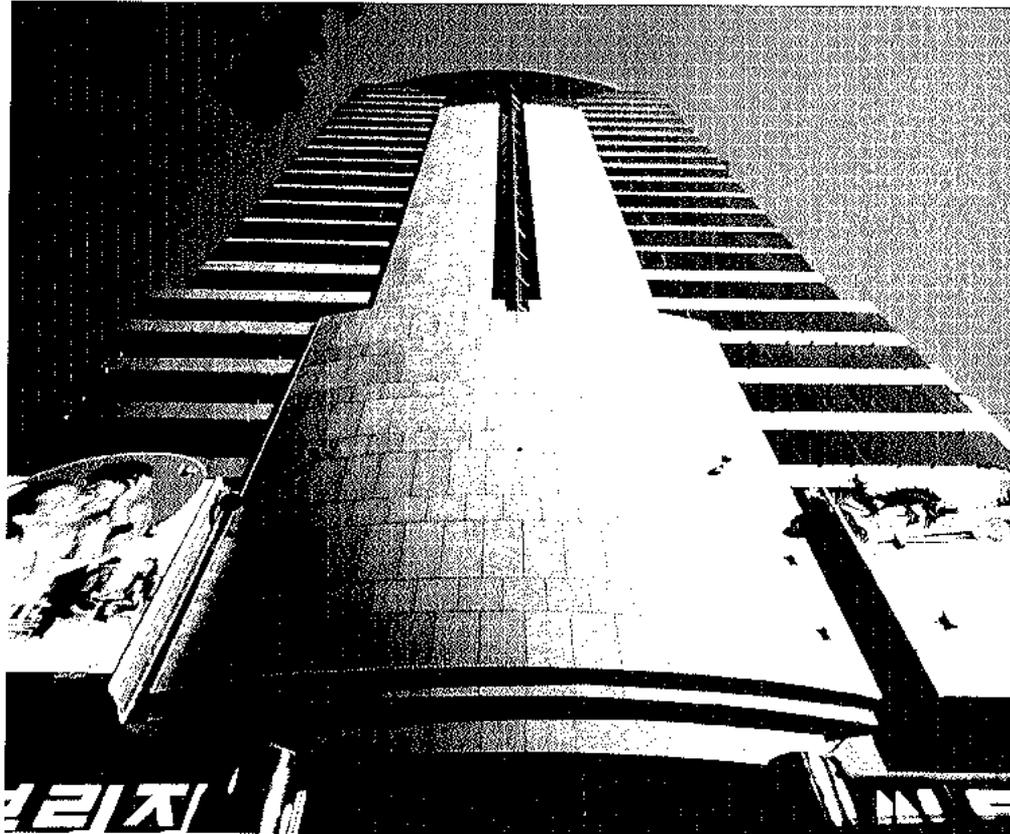
시티빌딩

City Building

黃一仁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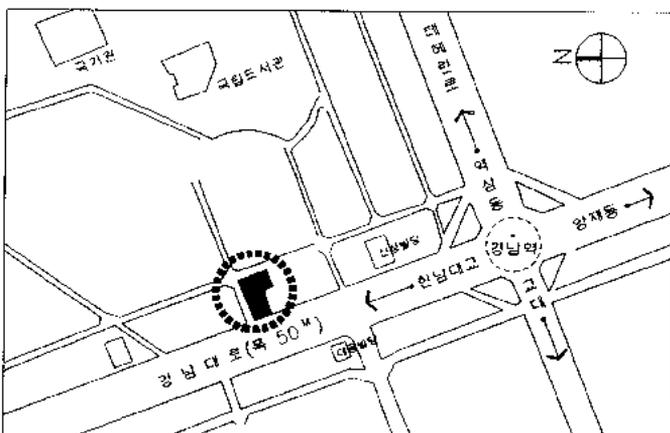
극장앞에서 올려다 본 모습

위치 / 강남구 역삼동 816, 816-7, 816-8
 지역 / 일반상업 및 주거
 용도 / 업무, 편집집회, 운동,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1,225㎡
 건축면적 / 669.49㎡
 연면적 / 7,009.14㎡
 건폐율 / 54.65%
 용적률 / 321.14%
 규모 / 지하 4층, 지상 10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화강석(물갈기)재반시 컬러 유리,
 컬러알루미늄 및 24mm 복층유리
 설계담당 / 유위근, 박원근, 우순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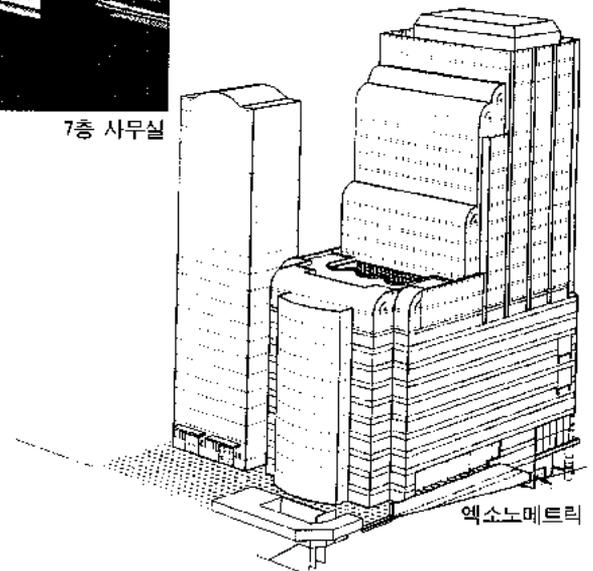
Location / 816, 816-7, 816-8 Yeoksam-dong,
 Kangnam-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House
 Use / Business, Inspection or Meeting Room,
 Sport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Site Area / 1,225㎡
 Bldg. Area / 669.49㎡
 Gross Floor Area / 7,009.14㎡
 Bldg. Coverage Ratio / 54.65%
 Gross Floor Ratio / 321.14%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Low-reflective Color
 Glass, Color Aluminium, 24mm Double Glazing
 Project Team / Yu Wi-Keun, Park Won-Keun,
 U Sun-Kon



7층 사무실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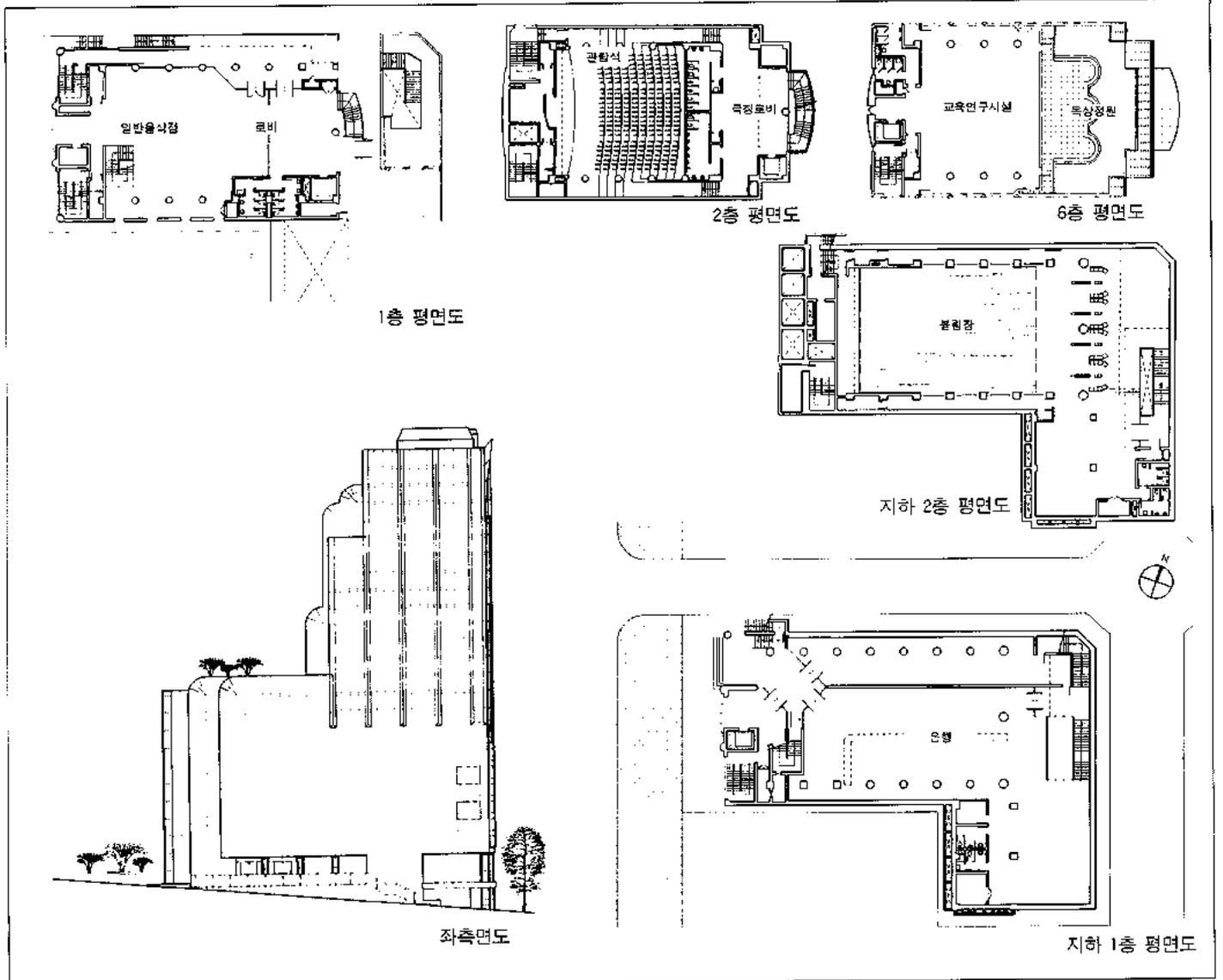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지하 입구에서 올라다 본 극장



극장 연결계단





남동측 전경

씨티극장은 한 건물 속에 극장, 볼링장, 패스트푸드 판매시설, 강습소 등 독립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상업 및 업무시설들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의 계획 포인트는 우선, 기능적으로 각각의 시설들이 가능한 한 길과 직접 연결되는 입구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통합된 건축물로서의 인식성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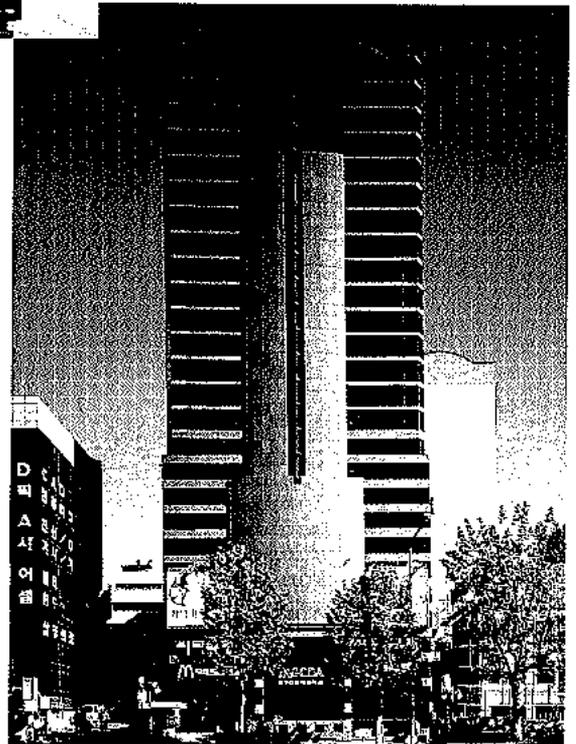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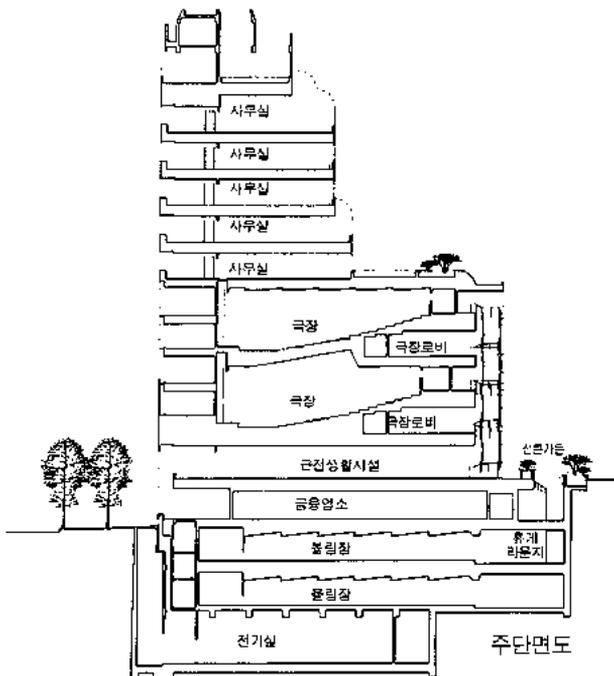
첫번째 목표를 위하여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지형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한남대로에 접한 서측뿐 아니라 동측과 북측 등 3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대지의 서측 도로와 동측 도로 사이에 1개층의 레벨차이가 있다).

주진입 방향인 한남대로 측에는 도로 레벨, 직상층, 적하층 및 고층부와 연결되는 4개의 입구를, 후면도로 측에서는 레벨 및 광정을 통하여 그 지하층과 연결되는 3개의 입구를 만들어 모두 독립적으로 각 영업장에서 3개의 입구를 만들어 모두가 독립적으로 각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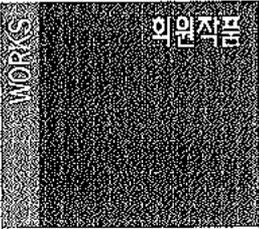
다층화된 인공대지와 이들을 외부 도로에 연결하는 수직 통로(길)가 이 계획에서 채용된 방법이다.

상업 건축에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인식성은 건물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대체로 개방적인 고층부의 외피는 유리, 폐쇄적인 저층부는 광택 낸 검은 돌, 두 가지 재료만으로 외장은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상층부에서는 삼면이 유리로 개방되어 저층부 옥상 정원과 연결되는 동측 언덕의 좋은 경치를 조망하게 한다.

한남대로측의 파시드는 도로에서 연결되는 수직통로를 암시하는 중앙부의 슬릿이 건물 상부에서 햇살 모양의 유리면으로 변하여 야간의 조명 효과와 함께 상업 건축으로서의 독특한 외관을 이루고 있다.



건물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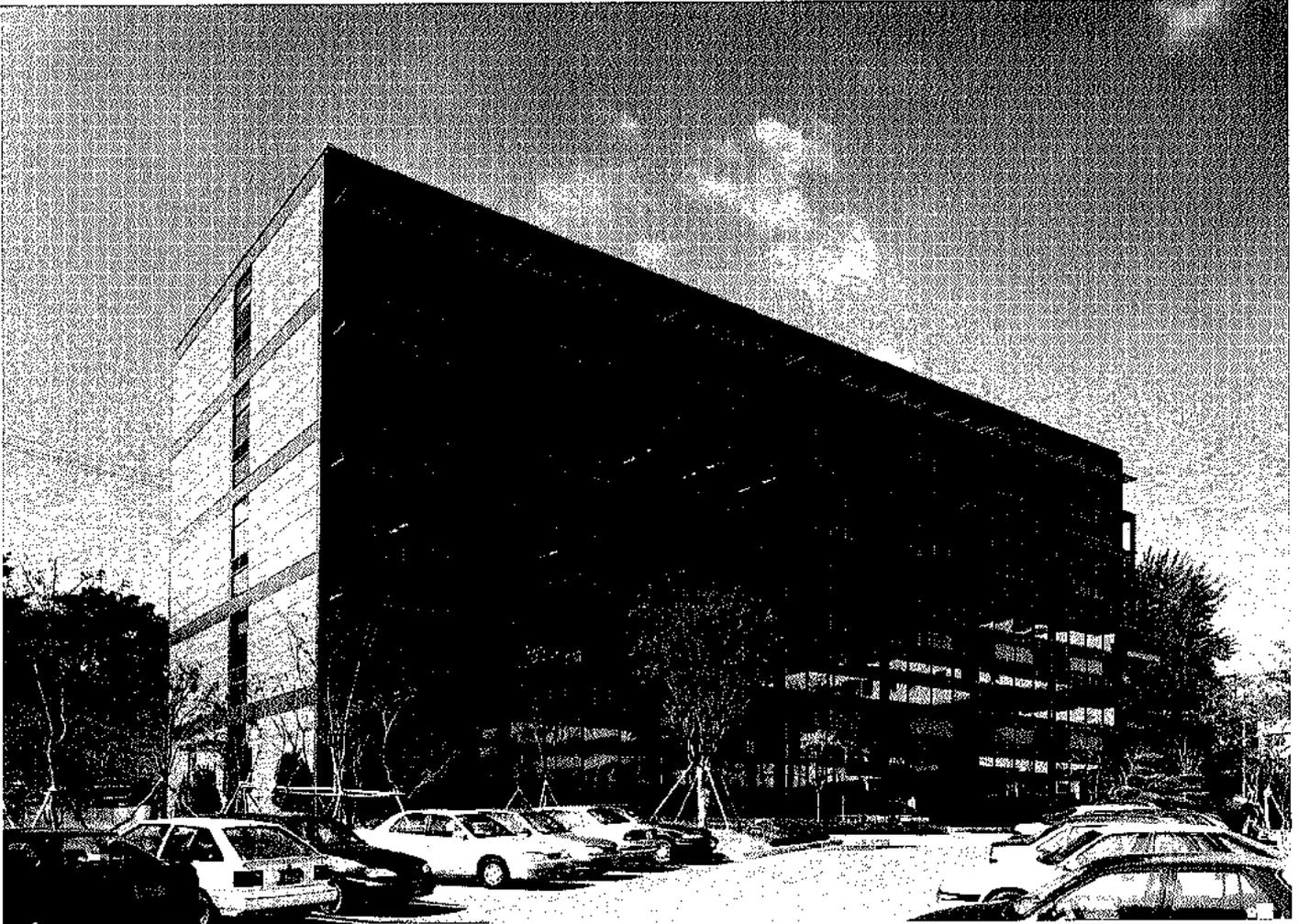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 연구센터

Ajou University Energy System Research Center

(주)서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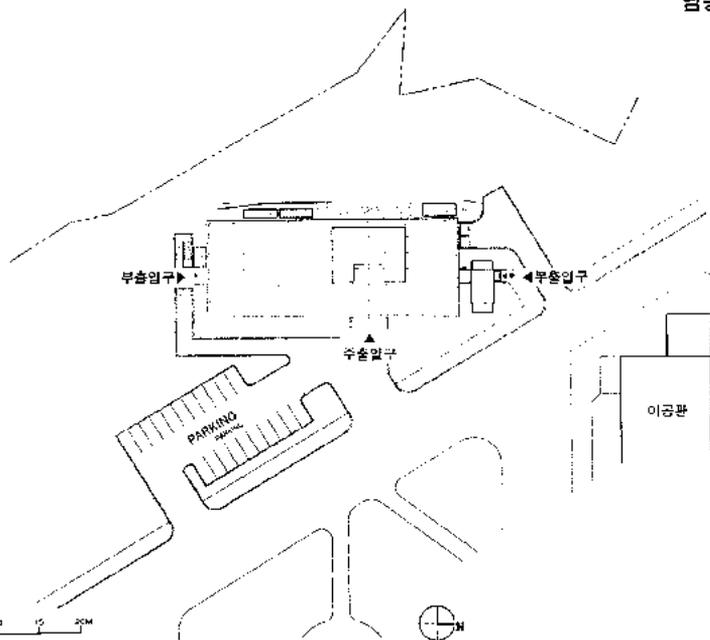
Designed by SAC International Ltd.
Architects-Consulting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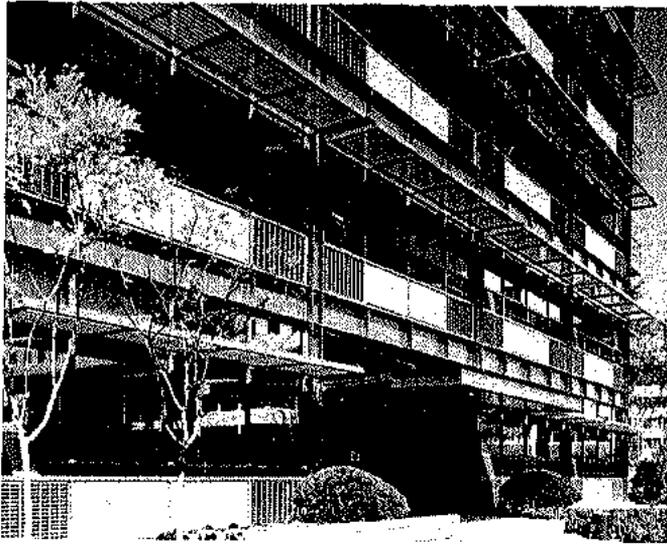
남동측 전경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캠퍼스내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지구
건축면적 / 908m²
연면적 / 5,115m²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노출철골 + SRC
외부마감 / 노출철골위 에폭시 페인트 외
설계담당 / 김종성, 이삼재, 김성대, 최종원, 한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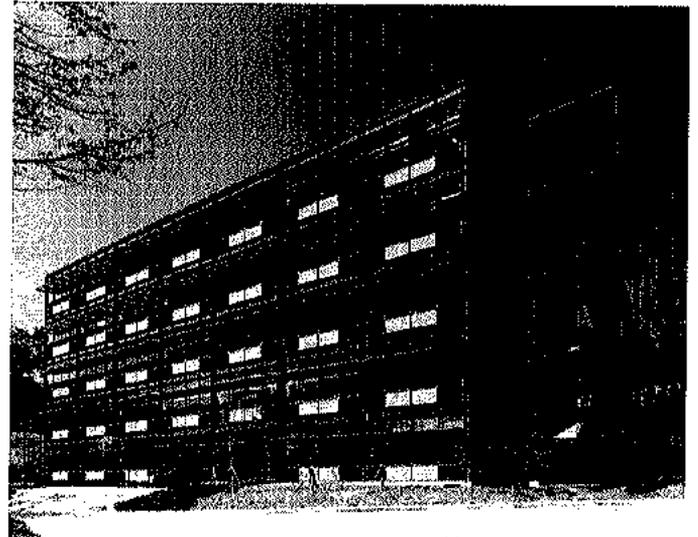
Location / Aju University Woncheon-dong, Paldal-gu, Suwon-shi,
Kyeonggi-do
District / Green, Educatin & Research
Bldg. Area / 908m²
Gross Floor Area / 5,115m²
Bldg. Scale / 1Story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Outcrop Structural Steel + SRC
Exterior Finish / Outcrop Structural Steel + Epoxy Paint
Project Team / Kim, Jong-soung, Lee, Sam-Jae,
Kim, Seong-Dae, Choi, Jong-Won, Han, Kwa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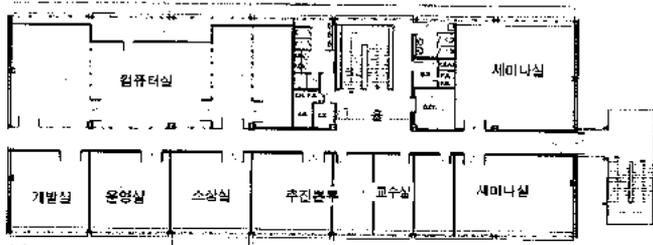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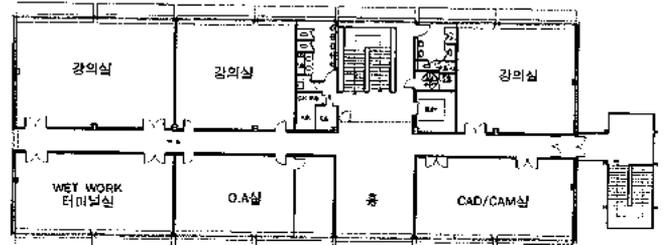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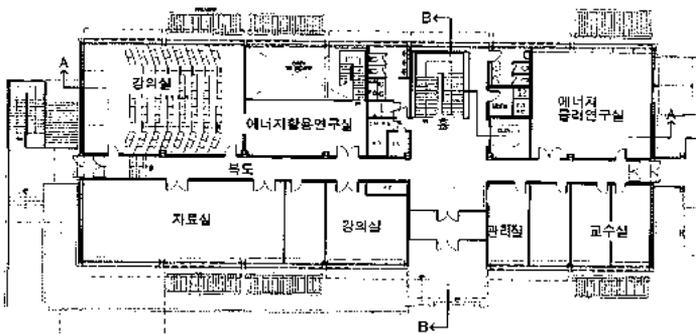
부동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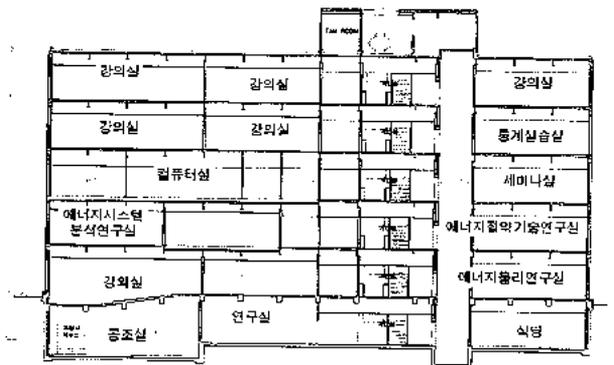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이 건물은 처음 정부의 동력자원부(현 상공자원부) 기금으로 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의 설계가 시작되었다. 건물의 위치는 아주대학교 정문에서 이어지는 주출입로의 서쪽에 구 본관(현 제1이공관)과 직각으로 자리하여, 아주대 캠퍼스의 서측 경계를 구성하는 곳에 정해졌다. 처음 계획안이 지상 2층으로 설계되어 대학교에 제출된 시점에서, 대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수요검토결과 전자계산소와 병합하여 좀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는 한쪽 기능이 장 스패이나 특수한 천정높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까닭에 최대한 계획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로프트(Loft) 공간으로 이

건물이 설계되었다.

아주대학교 캠퍼스내 기존 건물들이 대부분 본타일/수성페인트, 화장벽돌 치장쌓기, 또는 외장타일 등으로 마감된 것과 대조하여, 아주대 병원이 화강석과 스톤코트 외관으로 설계되었듯이, 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전자계산소는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되었다. 본 건물은 노출된 철골 구조체에 동측과 서측 입면에 썬 브레이커(Sun-Breaker)를 부착하고, 제1이공관과 마주보는 북측면에 역시 철골로 구성된 외부계단을 연결한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건물내에 수용된 다양한 기능들로부터 냉/난방의 수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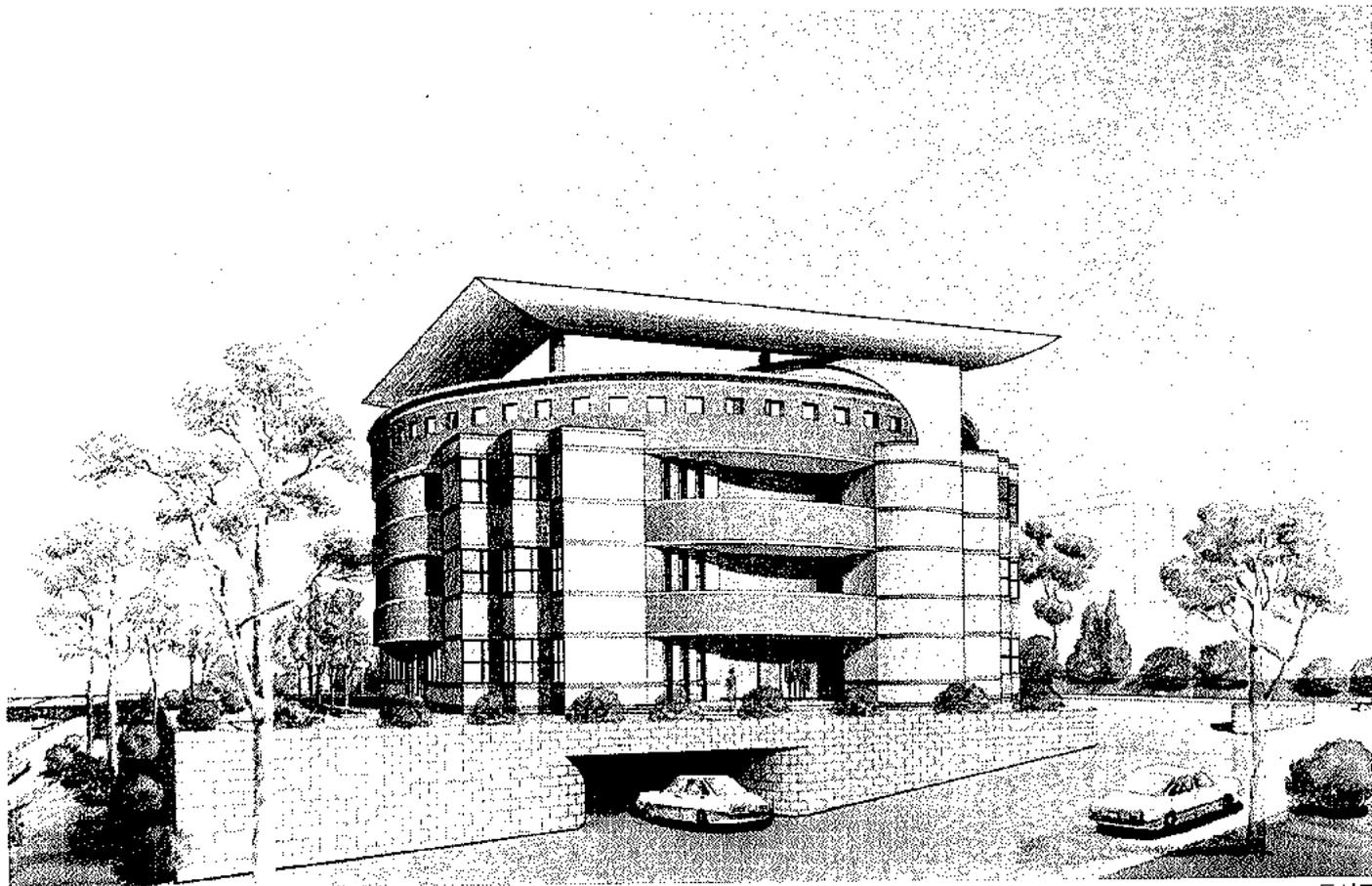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아, 장변방향 입면에 필요시 분리형 냉방기의 실외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투버로 구성된 웨인스코트를 적절히 배열하여 외부벽면의 텍스처가 좀더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노출철골로 마감이 되는 본 건물은 완성 후 외관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여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디테일과 시공이 까다로워 몰달위에 본 타일을 뽐질하는 보편적 마감때와는 달리 시공에 임하는 건설팀의 기본적인 자세와 노력이 한층 더 열성적이어야 했으며, 완성된 본 건물은 설계와 시공이 혼연일치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다.

주 스페인 대사관

Korean Embassy in 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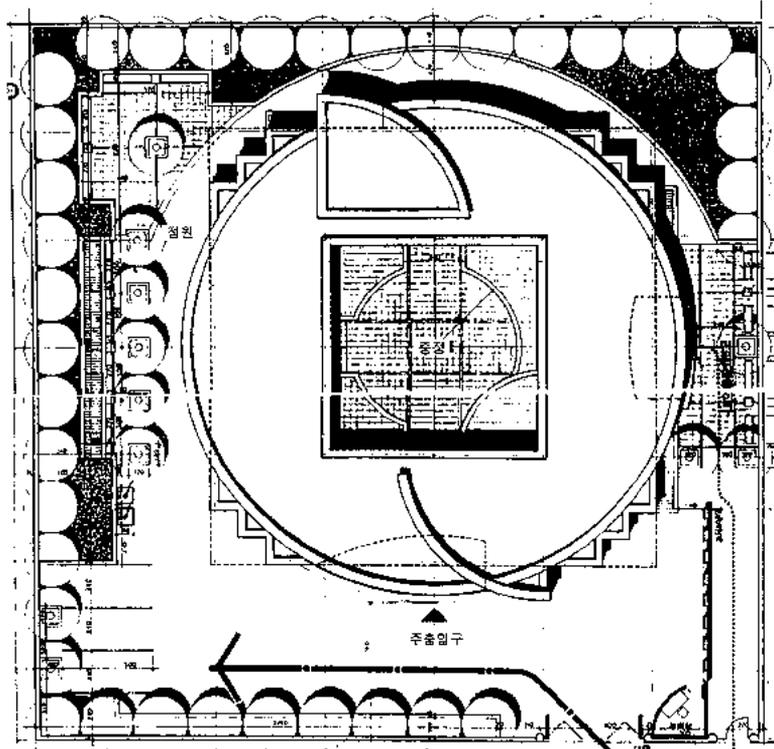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Designed by Kang Sö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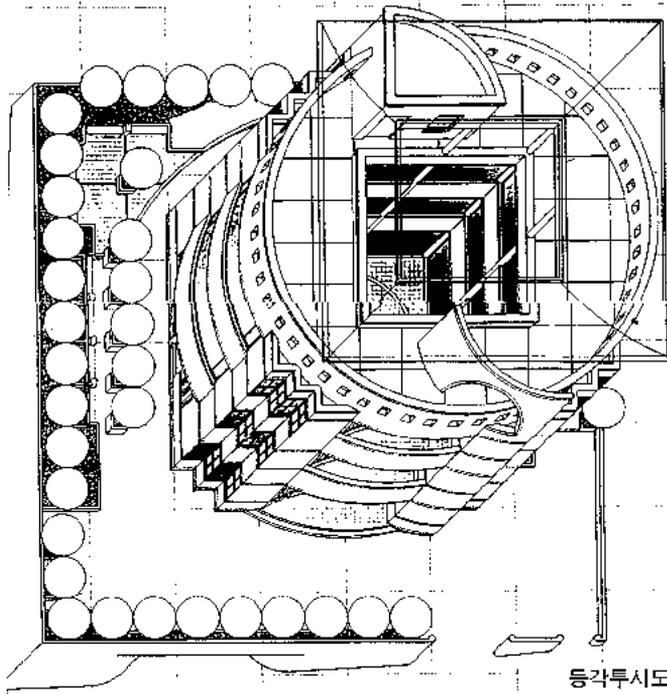
투시도

위치 / C/Gonzalez Amigo 15, Madrid
 대지면적 / 1,600 m²
 건축면적 / 460.30 m²
 연면적 / 1,257.65 m²
 건폐율 / 29%
 용적률 / 79%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 / 적벽돌 및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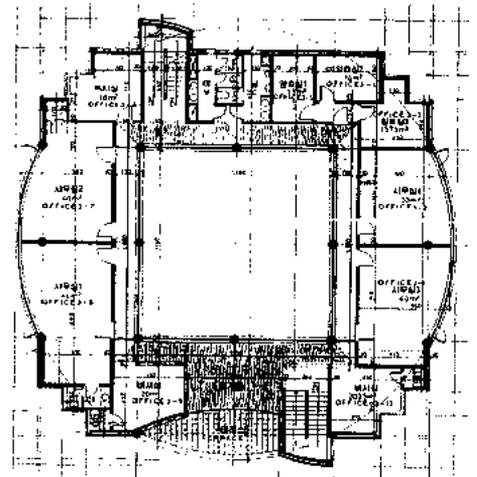
Location / C/Gonzalez Amigo 15, Madrid
 Site Area / 1,600 m²
 Bldg. Area / 460.30 m²
 Gross Floor Area / 1,257.65 m²
 Gross Coverage Ratio / 29%
 Gross Floor Ratio / 79%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d Rigid Frame
 Exterior Finish / Red Brick +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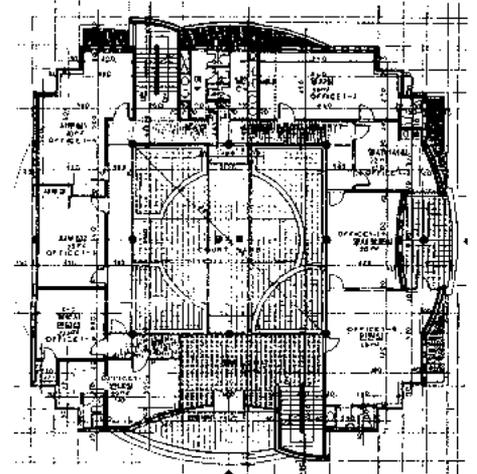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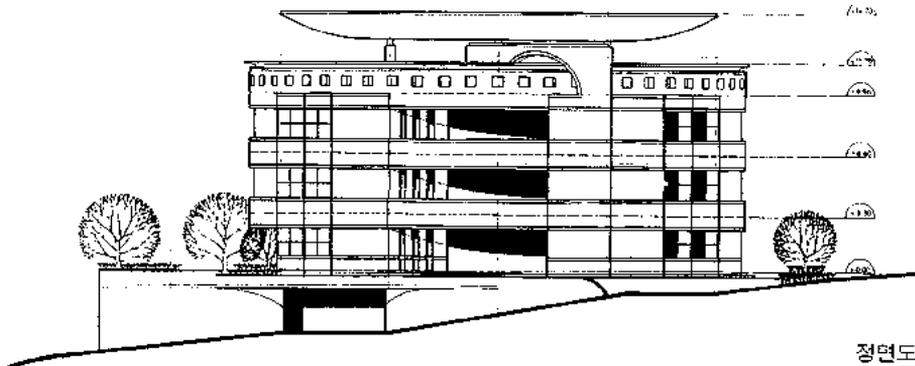
등각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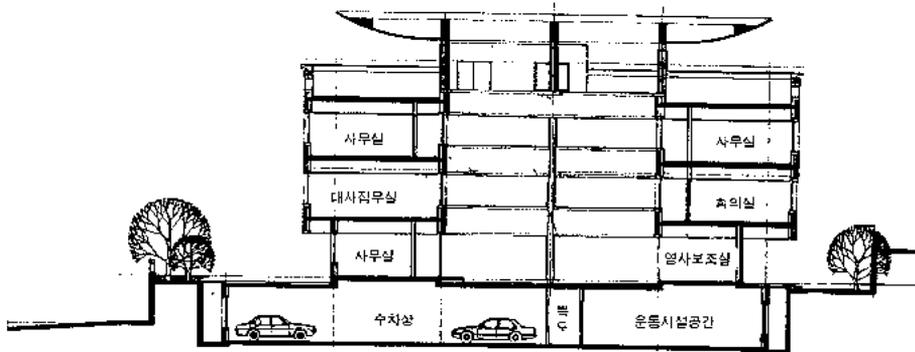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횡단면도

배치계획

- 현황

- 마드리드는 더운지방이다. 여름이 5개월이상 지속되는 고온건조한 풍토를 가진 도시로서 평면형식에 옛부터 스페인식 중정주거 형식의인 파티오(PATIO)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 대사관의 입지는 마드리드시 중심부를 비켜난 곳으로 주변에 저층 벽돌조 건물이 산재해 있으며 대지는 40m크기의 정방형으로서 고저차가 심한 경사지이다.
- 대지의 전면에 20m폭의 진입로가 경사져 있고 이 도로는 대지 서측의 고속도로와 만나 더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 고속

도로는 대지에 대해 소음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m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지 건너편 남측으로는 도시공원이 계획되고 있다.

- 계획

- 대지는 40m×40m의 방향으로 건물배치는 대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제한과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건물 길이 제한과 30m 원내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배치 제한이 법적으로 있다.
- 대지의 중앙에 동서, 남북 축을 설정하고 축에 따라 6m×6m의 모듈을 따라 건물을 배치

한다.

대지에의 진입은 전면 20m 경사도로의 경사도를 이용, 대지내 출입과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대지 주출입구 우단부 경비실을 사이에 두고 민원인 출입과 주출입 동선을 구분하도록 배치한다.

- 외부공간

외부공간은 건물 배치 결과로 생성되는 여지가 아니라 공간으로 성격 되어질 수 있는 3가지로 구분한다.

• 전면 출입공간

전면 경비실 앞을 통과한 출입동선이 처음 만나는 공간으로 출입자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전절차에 따라 필요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성격을 규정한다.

• 민원인 공간

민원인이 출입하는 경비실 우측의 출입로와 민원실 앞의 옥외 대기 휴식공간으로 보안상 대지내 여타부분과 구분한다.

• 녹지공간

대지 좌측의 외부공간은 녹지 휴식공간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곳은 고속도로측으로서 치안을 위해 수목을 밀식하여 소음방지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한다.

비전시티

Vision City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閔敬植



대지위치 /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KUALAR LUMPUR, MALAYSIA)
건축주 / 랫시드후세인베르하드(말레이시아 최대의
증권회사)/(주)대우 합작회사
시공자 / (주)대우건설
설계 / 공사기간 / 4년
전체대지면적 / 46,000㎡ (14,000평)
전체연면적 / 347,000㎡ (106,000평)

Location / Kuala Lumpur, Malaysia
Client / R.H.8 & DAEWOO Co.
Constructor / DAEWOO Co.
Construction Period / 4 years
Site Area / 46,000㎡
Gross Floor Area / 347,000㎡

주요시설물

HOTEL(4 STAR,512객실)

- 연면적: 53,000㎡
- 규 모: 지하3층, 지상34층
- 주요부대시설: 컨벤션(수영인원: 1,200명), 스카이라운지, 야외수영장, 상점가, 식당가, 헬스클럽

SERVICE A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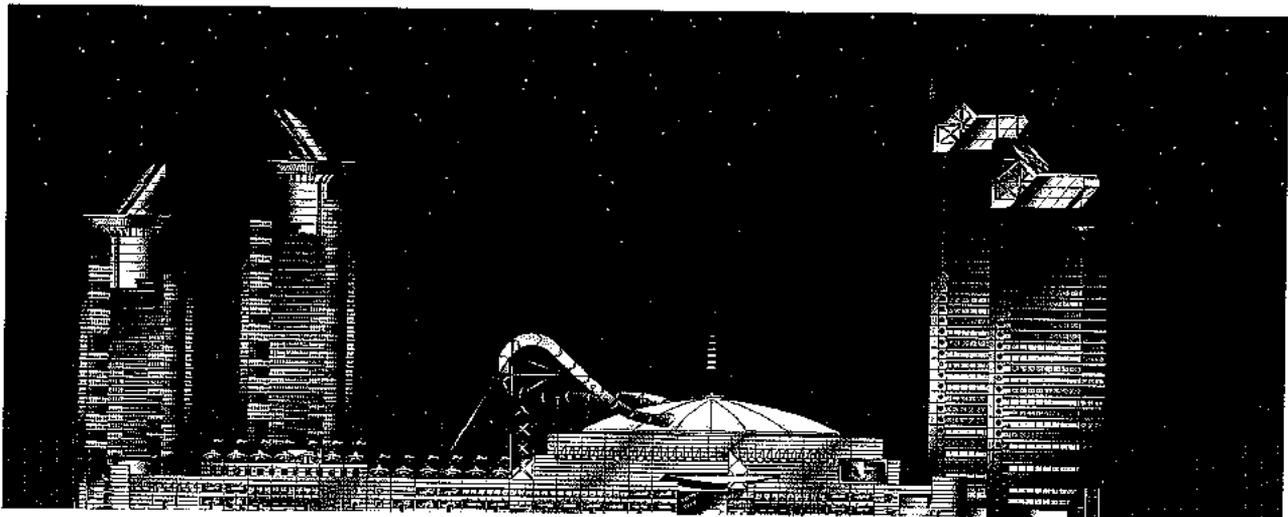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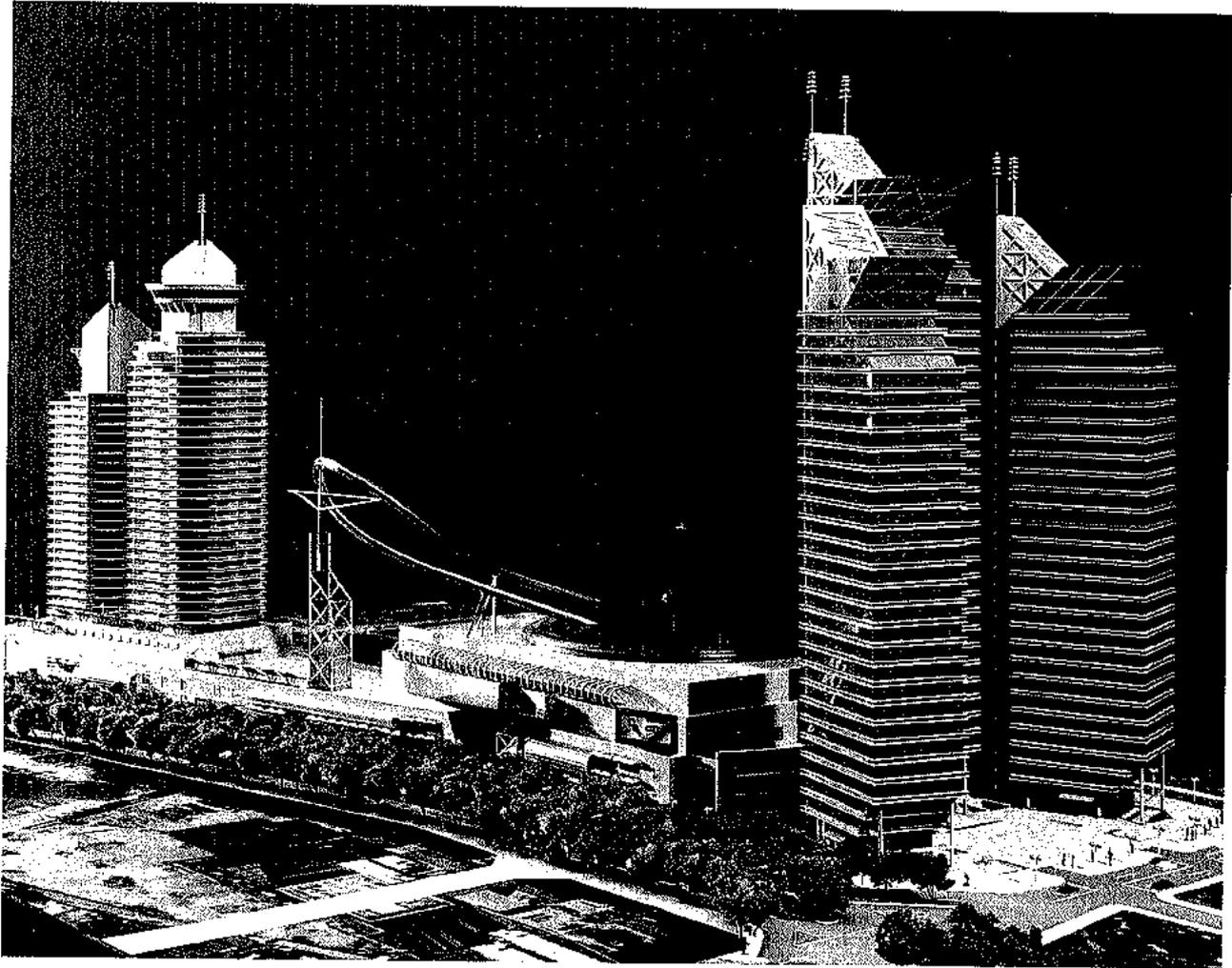
- 연면적: 66,000㎡ (20,000평)
- 규 모: 지하3층, 지상40층
- 주요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야외수영장, 상점가, 식당가

RETAIL/ENTERTAINMENT CENTER

- 연면적: 116,200㎡ (35,000평)
- 규 모: 지하3층, 지상6층
- 주요부대시설: 백화점, 사아가, 식당, 극장, 이기구시설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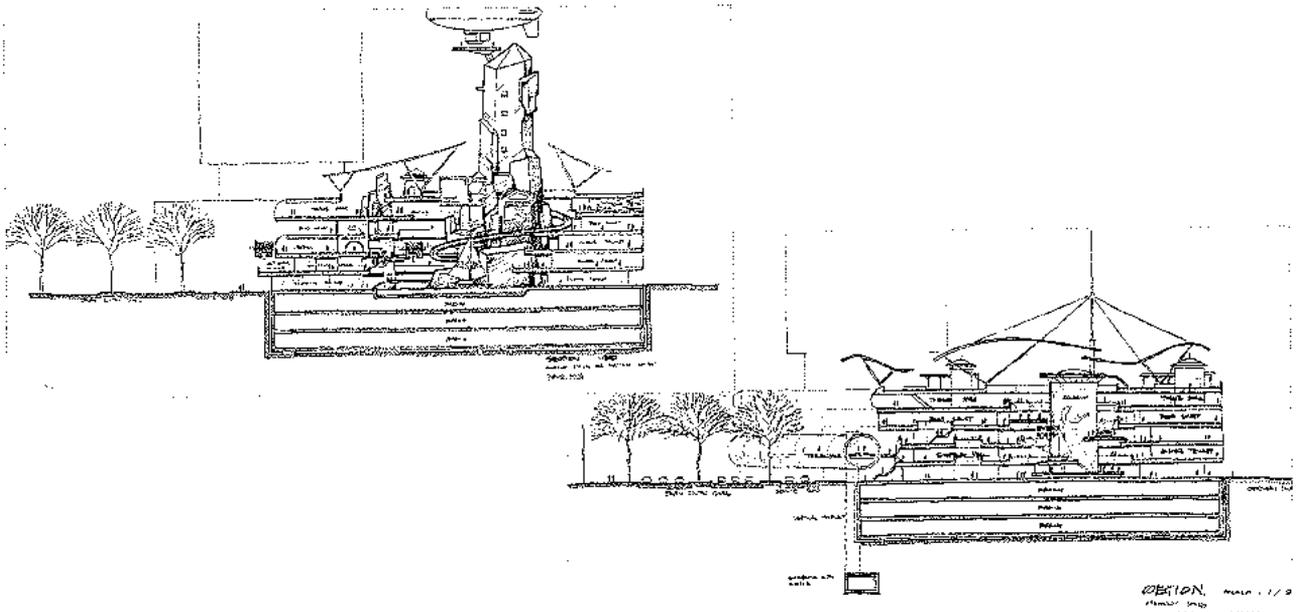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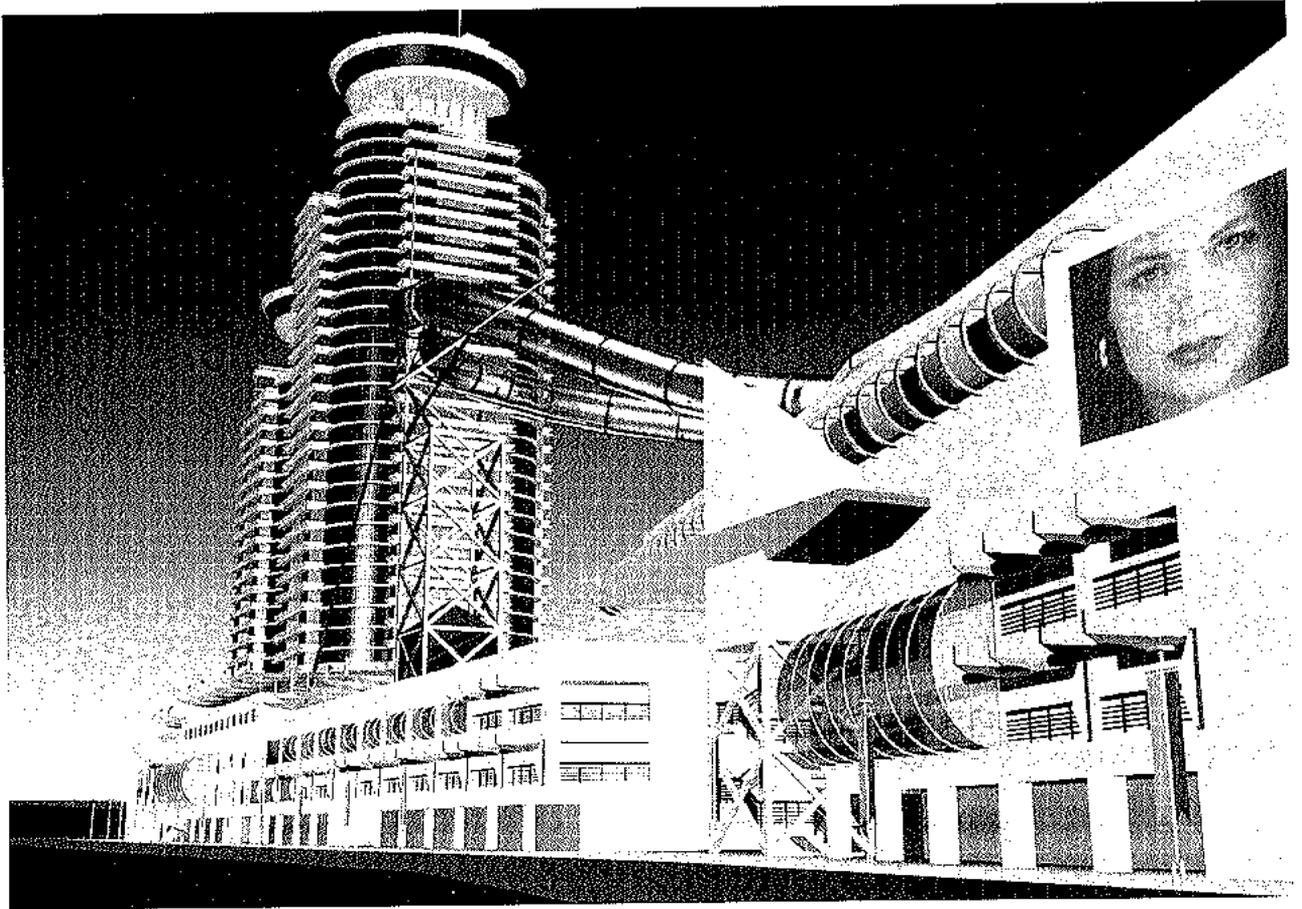
- 연면적: 111,800㎡ (33,900평)
- 규 모: OFFICE - 1, - 3: 지하3층, 지상30층
OFFICE - 2: 지하3층, 지상35층
- 주요부대시설: 상점가



VISION CITY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경제선진국 대열로 합류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창한 "VISION 2020"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회교의 전통 MOSQUE 에서 돌과 철탑을 차용 그들의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내고 하이테크한 이미지구현으로 말레이시아의 현재를 빛나는 미래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비전시티, 쿠알라룸푸르, 서울, 1995년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93년 9월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개발하던 국영프로젝트를 민영화하여 턴키베이스의 지명입찰 형식으로 개발하고자 방침이 정해진 터였다. 이는 94년 6월의 국무회의 승인으로 RHB(랏시드 후세인 베라드/말레이시아 최대의 증권회사)가 개발회사로 확정되었고, 그해 가을부터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공간이 설계자로 본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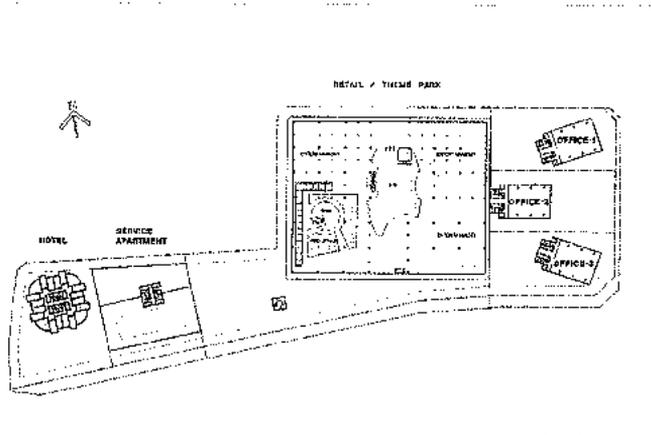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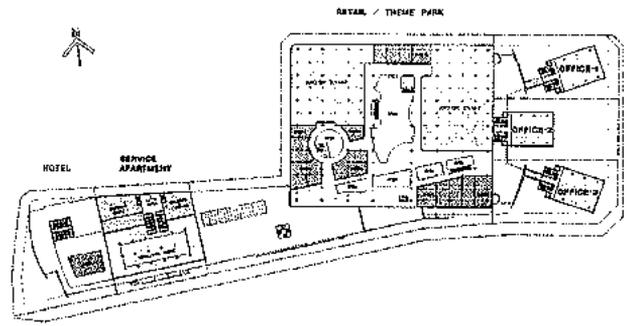
돌이켜보면 말레이시아 비전시티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출에 뚜렷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서도 건축설계 등 고부가가치 부분은 외국업체에 넘겨왔지만 이 프로젝트는 전과정을 국내업체가 직접 담당, 관리한다. 이는 한국의 건축계가 세계로 도약하며, 세계유수의 설계업체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도약대로서 의미 이상일 것이다. 또 나 개인이나 공간의 이름보

다 해외시장에서 한국건축의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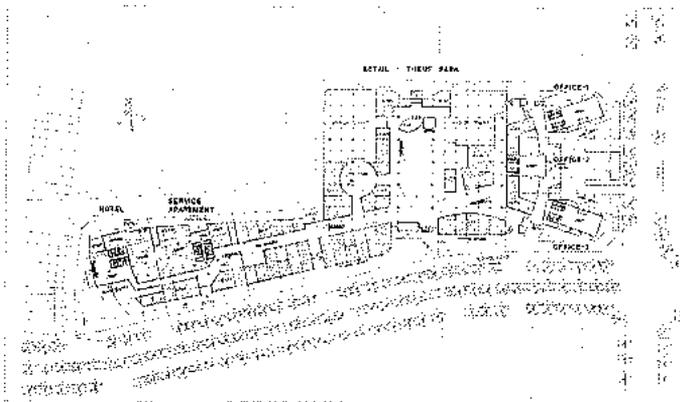
프로젝트의 수주자체를 결정짓는 94년 12월 27일, 말레이시아 수상에게의 프리젠테이션은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다.국내에서는 성수대교붕괴로 한참 어수선 하였고, 또 수상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해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된 세계유수의 건축가들이 열 중에 다섯은 된다고 익히 들어 온 터여서 심적부담이 많았다. 검소한 모습으로 수상이 각료들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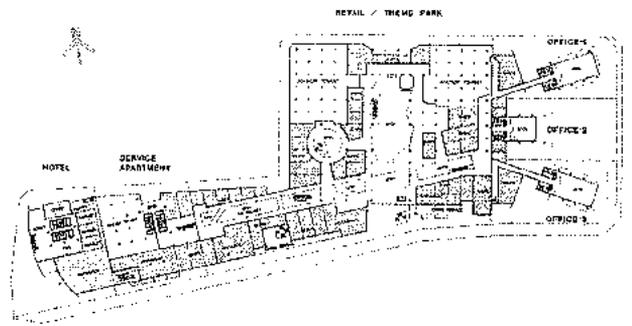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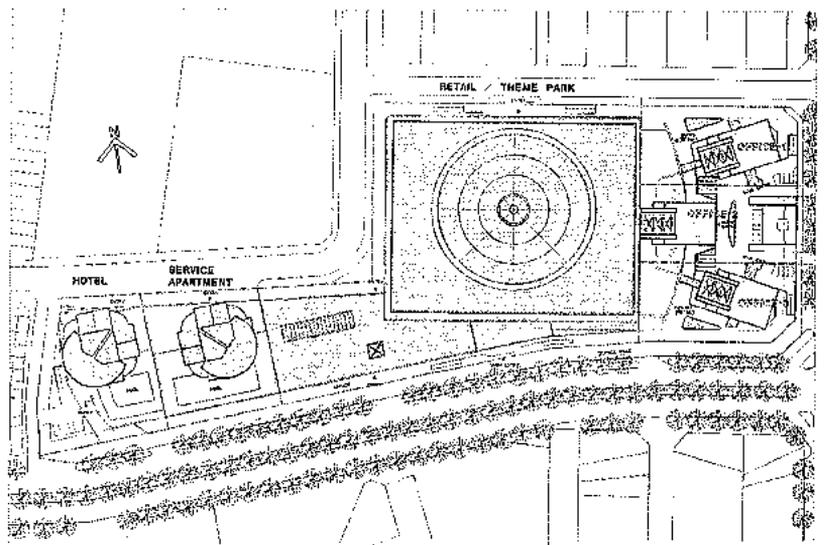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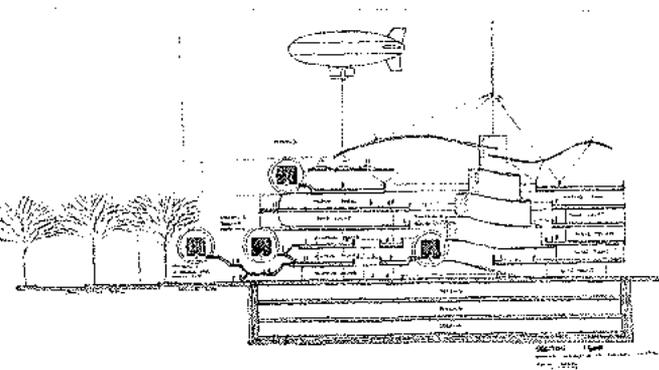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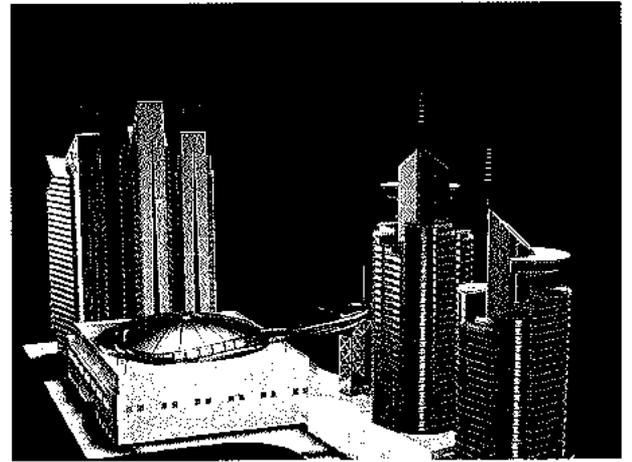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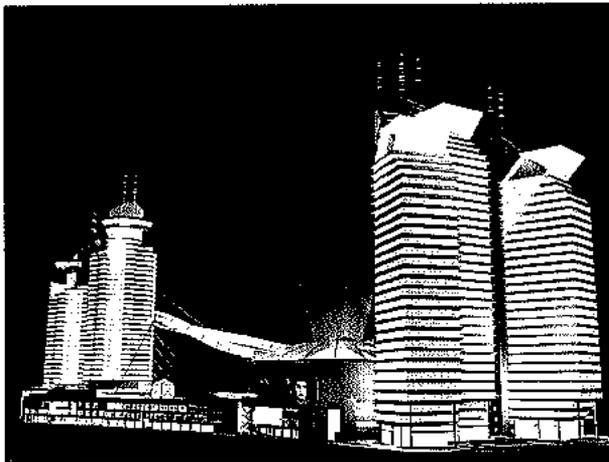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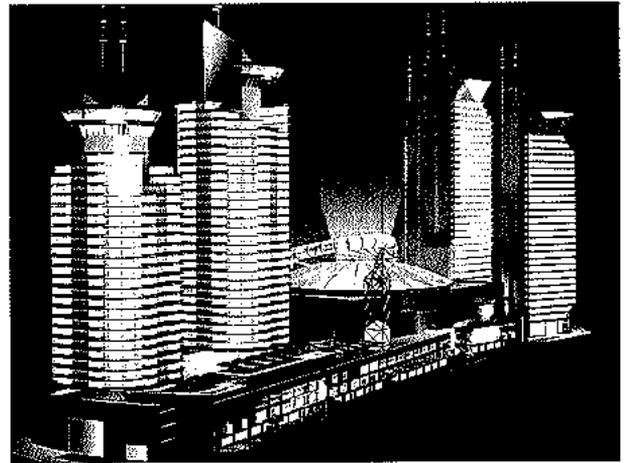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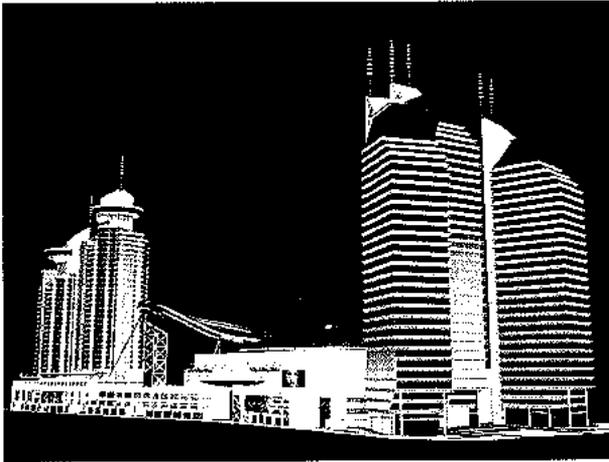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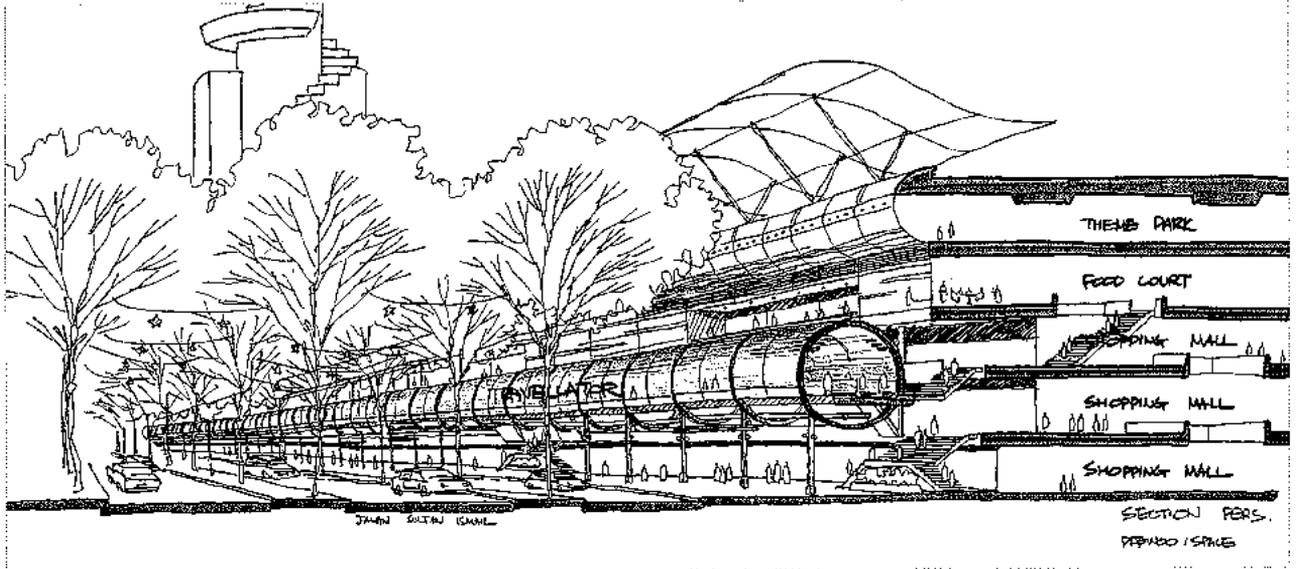
동하고 들어섰고 나의 설명 후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고, 마침내 수상의 입에서 비전시티의 승인이 떨어졌다. 승인 이후 후속된 행정절차를 위해 95년 2월 쿠알라룸푸르시장에게 브리핑을 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초기단계부터 깊은 신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대우의 조직과 정보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반문을 해 본다. 이는 대형 건설업체와 설계업체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었으며, 또한, 서로의 고유영역을 발전시켜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비전시티

비전시티의 디자인은 대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쿠알라룸푸르 도심성장축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대지는 미개발 주거지역인 KAMDONG BARU의 입구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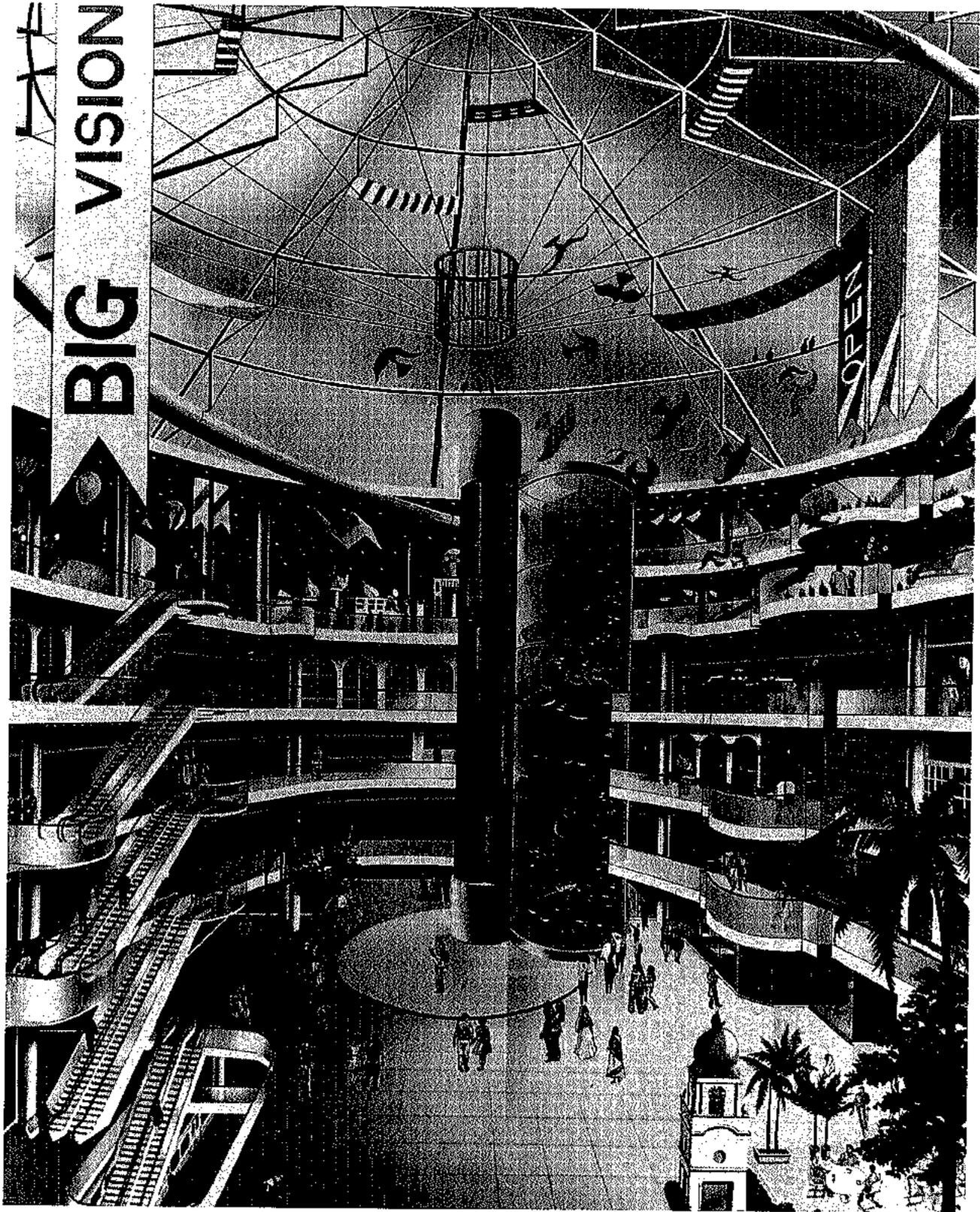


20킬로미터 북서쪽에 공항, 전면도로인 Jalan Sultan Ismail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유일한 가로수로 이루어진 그린터널이 있다. 따라서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할 때 Land Mark로서 북서쪽에 호텔을 위치시키고 반대의 도심쪽에 Office군이 놓여진다. 또 전면의 그린터널과 연계시켜 복합단지개발(MXD)로서 단지 전체가 하나의 보행체계를 이룬다. 건물군은 도시를 향해 대화를 한다. 개개의 건물은 도로에 맞춰 기능적

으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발전을 상징하는 하이테크한 건물들이 도심의 건물들과 대화를 한다. 대화가 있는 따뜻한 발전을, 미래를 상징한다.

비전시티, 공간, 1995년 지금까지

공간은 이미 70년대 초반 고 김수근선생이 수단의 영빈관과 이란의 액바탄 및 알보즈 주거단지를 설계



하는 등 70년대 초반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는 그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공간은 UR 등으로 국내설계시장이 개방되는 등 사회 각 부문에 걸쳐 개방에 대한 시장 잠식의 우려가 고조되는 이즈음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선정, 적

극적인 수주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건축미술 전문잡지 '공간'을 영문판으로 발행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주요 건축가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도 아시아 주요시장의 진출을 위한 발판일구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물 1995, 안일성 건축사사무소 아키안

크게 숨을 들이켜도 갑갑하기만한 가슴
끝없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 왔건만
찬란한 태양의 빛줄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둘러 쌓인漆黑 공간을 벗어나
맑고 투명한 꽃향기를 그리며
숨을 들이켜 본다.



향원정의 봄(72.7×60.6), 김석환/터·울건축사사무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한다. 생물 뿐 아니라 그 생명의 파동이 투영된 공기의 빛깔까지도 달라진다. 진달래의 주홍빛깔도 금방 움터나온 새싹의 연록빛깔도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찰라의 모습들 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의 모든 사물은 고정된 모습을 가질 수 없고, 인간은 사물을 표현할 수가 없다. 나의 그림은 풍경의 기호적 표현일 뿐이다.

어느 봄날 오후 부터 사무실 전화의 한 회선이 불이 붙은 듯 울리기 시작했다. 경상북도 상주근처의 어느 마을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DDD의 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경상도 특유의 억양 때문인지 그 마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 듣기는 어려웠다. “구미”라 했던가? “구니”라 했던가? 좌우지간 그 쪽의 요구는 교회설계일이 있으니 급히 내려오라는 얘기였다. 전화연락은 교회의 집사라는 분이 담당하였고 실제로 일을 주관하는 분은 어떤 장로님이시라는 데, 연락책임을 맡았던 그 분의 성화가 어찌나 숨넘어가듯 다급했던지, 의사를 찾는 응급환자가 있는 것이냐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였다. 건축가가 응급환자 왕진을 가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닌가 말이다.

사라져 버린 「달의 교회」와 「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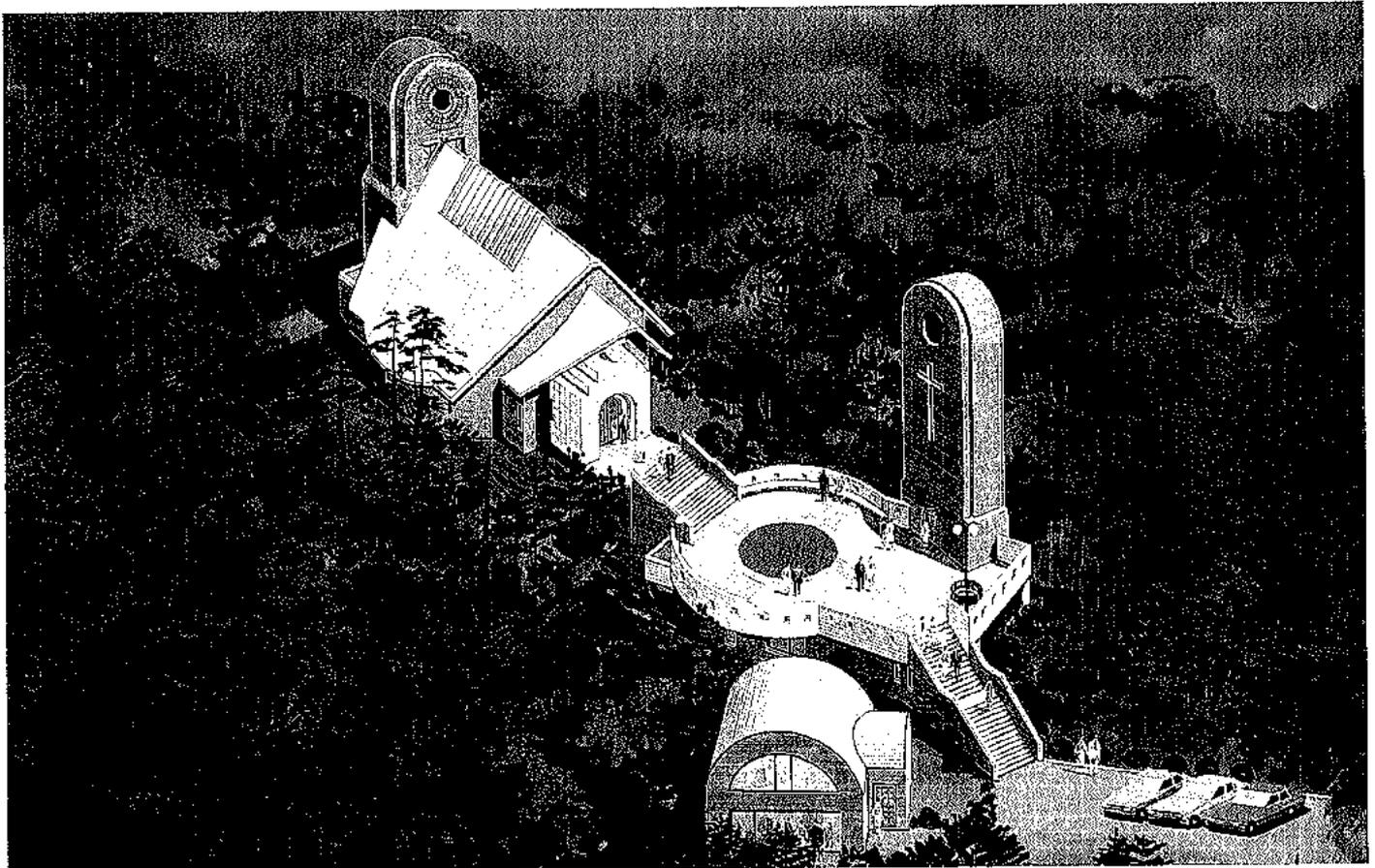
Unfinished Work

金琪碩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by Kim Ki-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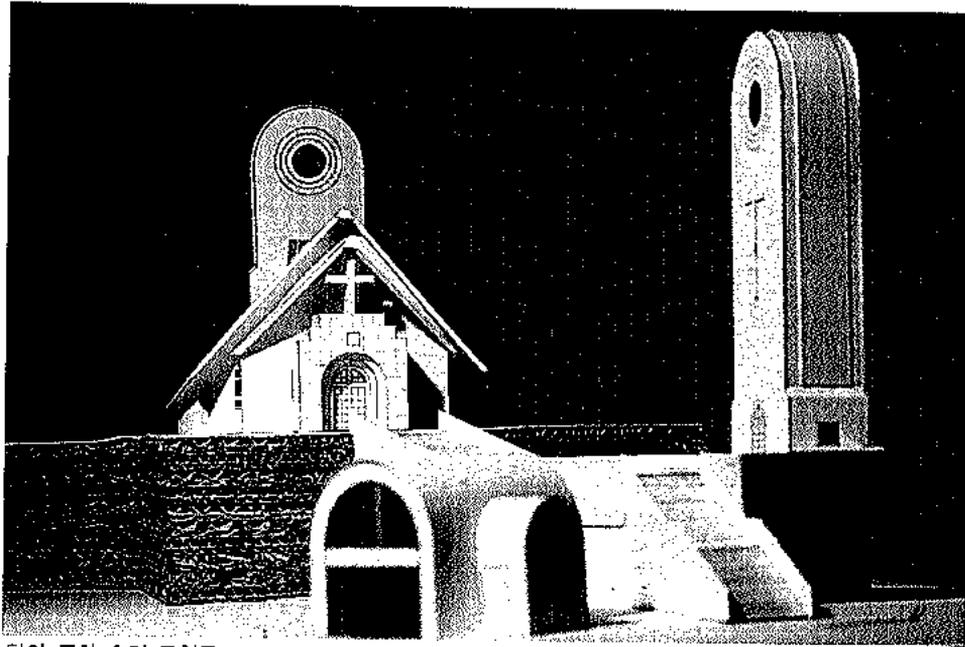
그러나 때는 화창한 봄이었으며, 나는 한참 역마살이 끼어 있던 때라. 연이어 걸려 오는 전화 공세에, 드라이브삼아 한 번 내려가 볼까나 하는 생각이 그만 일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어느새 나는 새로산 신형 쏘나타의 성능을 시험주행하듯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곳은 공단이 있는

“구미”였으나 거기서부터 꼬불꼬불 구도로를 따라 찾아 들어가는 길이 복잡하여 아예 대구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새벽길을 달려 “군위”라는 작은 읍에 도착하였다.

교회건축을 추진하고 계시는 장로님은 상당한 규모의 현대적인 입원실까지 갖춘 내과의원을 경영하는 원장의사선생님으로, 산골 멀리서부터 몰려와서 대기하는 수 많은 환자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서울로 찾아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하여 죄송하



조감도



달의 교회 초기 모형도



스케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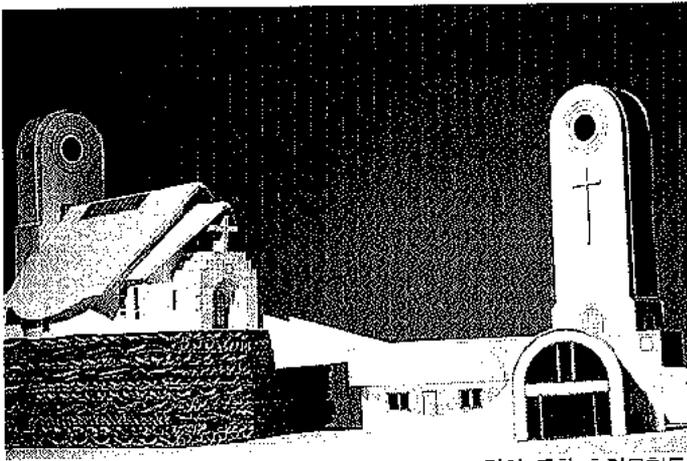
다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었다. “그래야 부지도 한 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수한 경상도 안동 말씨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요가 명상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으나, 초면에 미리 복잡한 사연을 설명하기가 뵈해 아침 안 먹는다는 말을 미처 안한 터인데, 안덕에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차려나온 아침 조반상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겸상으로 식사부터 시작하며 분위기를 조율하였다. 그 분의 부친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열렬한 신앙심을 가지신 분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언제나 안쓰러워, 기념교회를 자그마하게나마 지어 후대에 남기는 것을 필생의 소원으로 삼아왔노라고, 그러던 중 학봉교회 사전을 어디서 보고 나서 꼭 당신을 청해다 교회설계를 부탁하고 싶었노라고 그 분은 내력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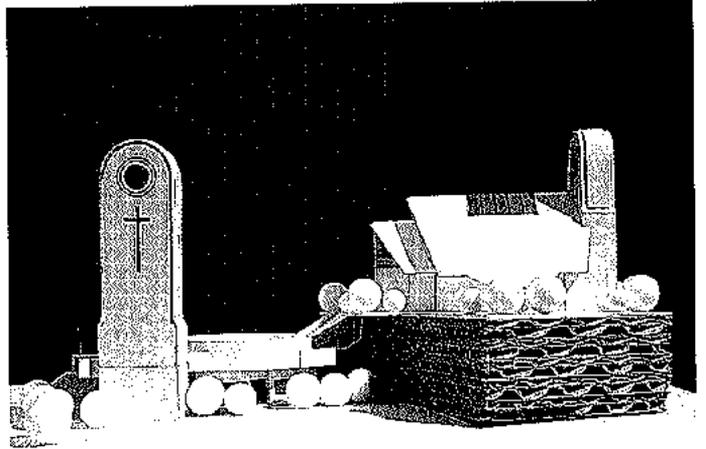
식사를 마치고 찾아나선 대지에는 쓰러질듯한 개척

교회가 좁은 대지를 가득 배우고 있는 “우보”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평지와 이어져 있는 산등성이에 조금 더 넓은 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높은 부지에 성전을 올리고 어찌 어찌 이어나가면 그런대로 물건이 하나나움직한 하여 보였다. 대구에서 안동으로 빠지는 국도로 나가서 부지를 보니, 그 부지의 언덕배기는 뒷산에서부터 그 마을의 중심으로 뻗어나온 명당자리에 있었고, 국도에서 10시방향으로 향하는 시선에 부지의 코가 와 닿는 느낌이 괜찮은 원경을 바랄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이 국도가 장래 중앙고속도로가 될 예정이란다. “역사에 남을 작품을 하나 해주이쇼.” 성전의 크기는 학봉교회와 같은 50평으로 한정하였으나, 울보 아기를 안은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유리창 너머로 예배를 볼 수 있는 별실과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전실이 추가되었고 목사관과 다용도실겸 식당 등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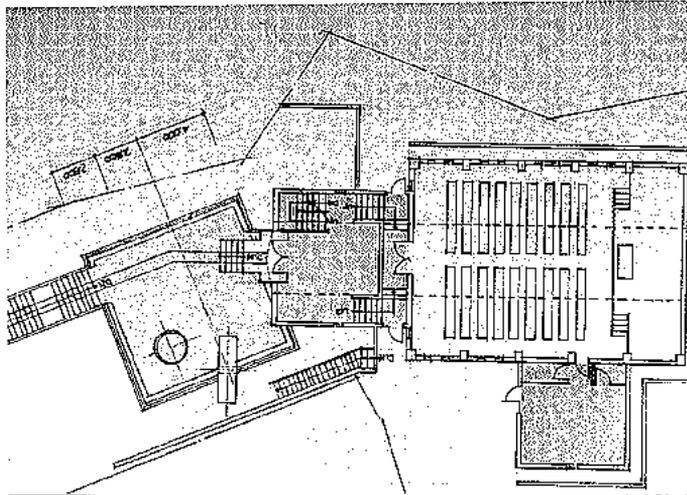
우보마을의 평온한 안식감과 독특한 풍수적(風水的) 이미지는 나로 하여금 원형의 성전을 얼핏 떠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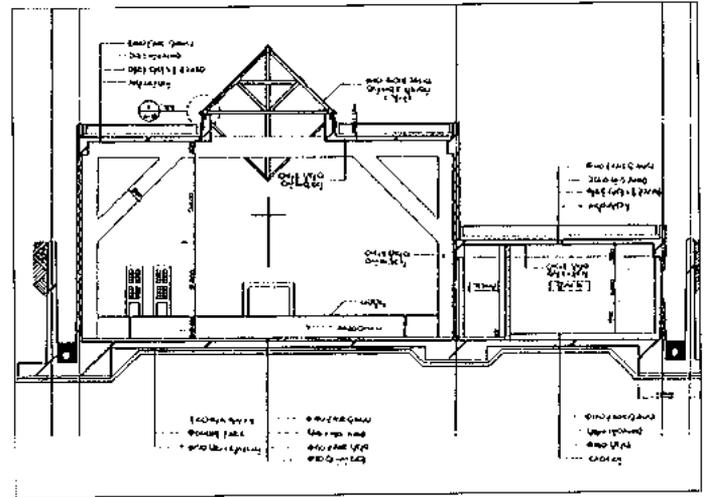
달의 교회 초기모형도



달의 교회 초기모형도



달의 교회 초기계획안



주단면도

리게 하였다. '이런 마을에서 보름달 처럼 둥그런 방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영문없이 그런 생각을 하였다.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어릴 적에 달달거리며 흥얼거리던 동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불야(不夜)천리 우보마을과 서울을 수없이 오가며, 또는 전화로,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수없이 많은 대화와 만남과 통신으로 설계를 윤곽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전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일찌감치 의견이 모아져 있었다.

"원을 써도 괜찮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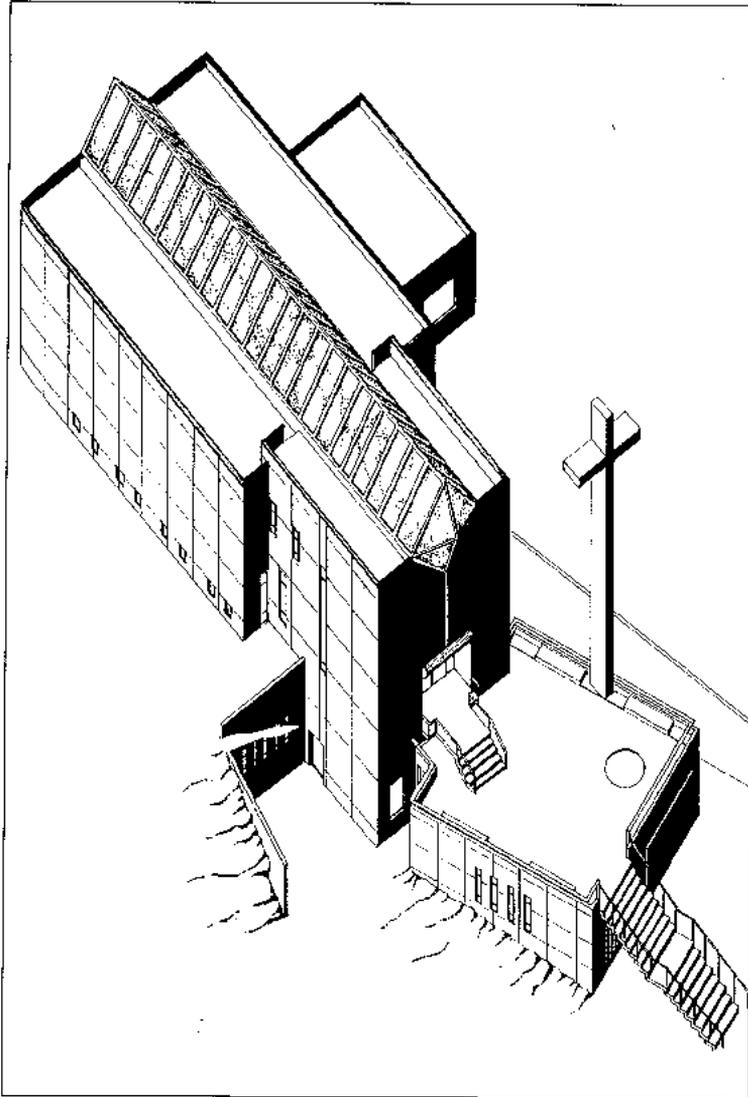
"그게 좋겠능지요? 좋은 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둥그라미는 예상외로 수월히 통과되었다. 기념교회이니 만치 돈이 좀 들어서 명작을 남기고 싶다는 취지가 전해졌다. '달 달 무슨 달이 제대로 돌아 가려나 보다.' 나는 신명이 나기 시작했다. 이 달덩이는 교회의 평면에, 마당에, 종탑에 둥근 그림자를 만들며 새겨지고 구슬러졌다. 걸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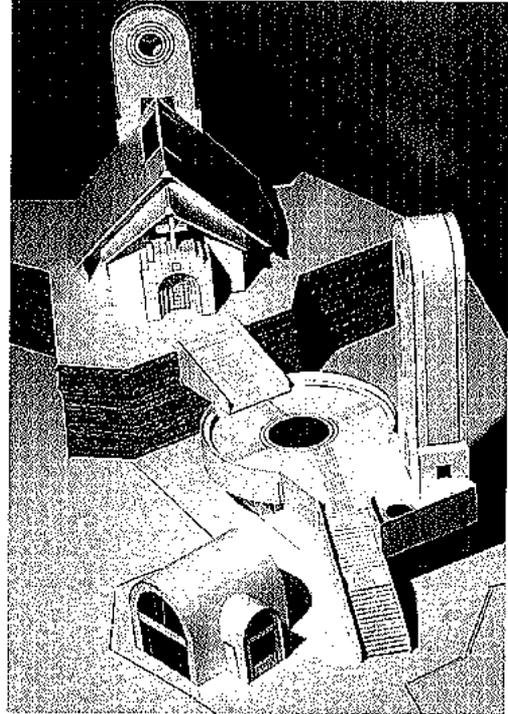
마음에 이 작은 마을의 교회는 이미 "달의 교회"였다. '기독교인들은 달 같은 얘기는 안좋아하니까 입으로 떠들지는 말자.' 나는 침묵 속에서 일을 하였지만, 제도판 위에서는 수많은 달이 그려지고 숨은 월광곡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로써, 천국의 사상을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조형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도 나는 그 둥그라미를 성인의 후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형이 완성되고, 함박웃음과 함께 계획안이 통과되고,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고 교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칼라투시도까지 제작되었다.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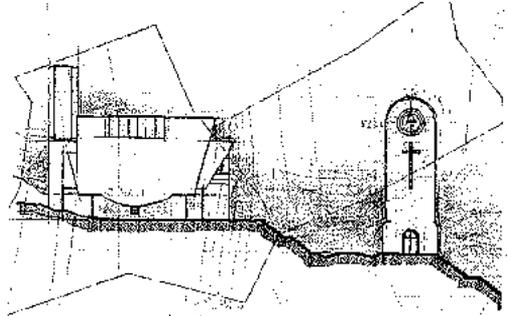
그러나 그 견적은 보름달을 간단히 그름달로 찌고려뜨리고 받았다. 그름달이 되다 못해 나중에는 아예 규겨진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아이고, 못하겠습니까 데이-" 명점은 밤하늘에, 푸르지도 않고 은하수도 보이지 않는 병든 서울의 밤하늘에, 유령처럼 하얀 쪽배가 떠나가고 있었다. 대전발 0시50분에는 기차가 떠



엑소노메트릭



달의 교회 초기계획안



스케치2

나가고, 비내리는 영등포에는 버스가 떠나가듯이, 유행가처럼, 화투짝처럼 입은 “나카리”가 되고, 쪽배는 떠나가고 있었다.

그 양반이 “아이고”라 그랬었던가, “와이고”라 그랬었던가?

그보다 먼저, “결작을 하나 남겨 주이소.”라 그랬었던가. “결신(乞神)이 되게 해 주이소.”라고 하였었던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 속에는 소음이 왕왕거리고 있었다. 쪽박이라는 것이, 만들 때는 공이 들어도 깨어질 때는 단숨인 것이다. ‘잘 가라, 쪽박아- 네 무슨 인연이 있어 나를 만났더라 말이나?’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쪽박과 정중히 이별을 하였다.

그러나 잔인한 것은 사월만이 아니었다. 하룻밤을 꿨으며 지새고 깨어난 다음날, 새 아침 또한 잔인한 것이었다. 겨울을 지낸 고목에서 새순을 돌아내는 봄이 스물거리듯이, 나는 다시 손가락이 스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의 스크린에 있는 숨은 손가락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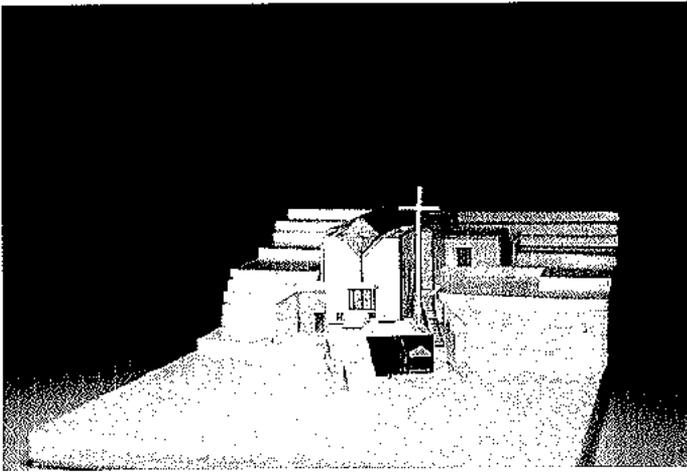
느새 새로운 영상을 그리느라 정신을 잃고 있었다. 다시 새롭게 해 볼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가 속에서 자꾸 터져 나오고 있었다.

잔인한 아침의 기운을 머금고, 나는 군위에 전화를 걸어 유능한 장폴맹이 처럼 제안을 하였다. ‘이때까지 하던 일은 없었던 일로 접어 두겠습니다.’ 새로 안(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설계비는 더 이상 추가 청구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마십시오. 다만 6개월 간의 시간 여유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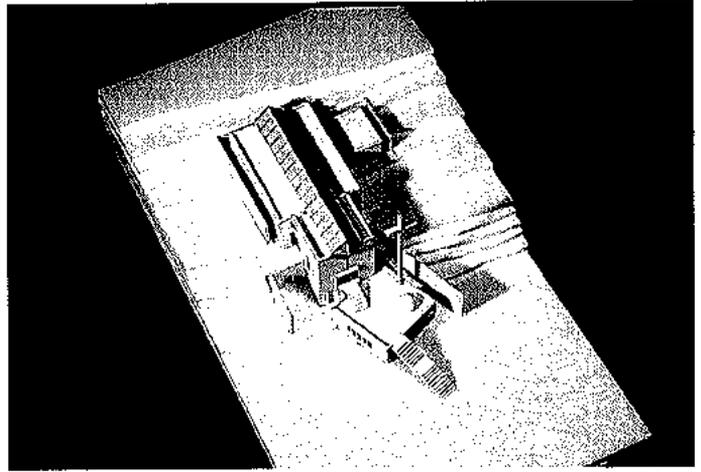
돈을 더 받지 않고 설계를 한 번 더 해주겠다는데 싫다할 바보는 없었다. 침묵의 상태인지 진공의 상태인지 모를 시간들이 지나면서 나는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방침을 세웠다.

첫째, 곡선을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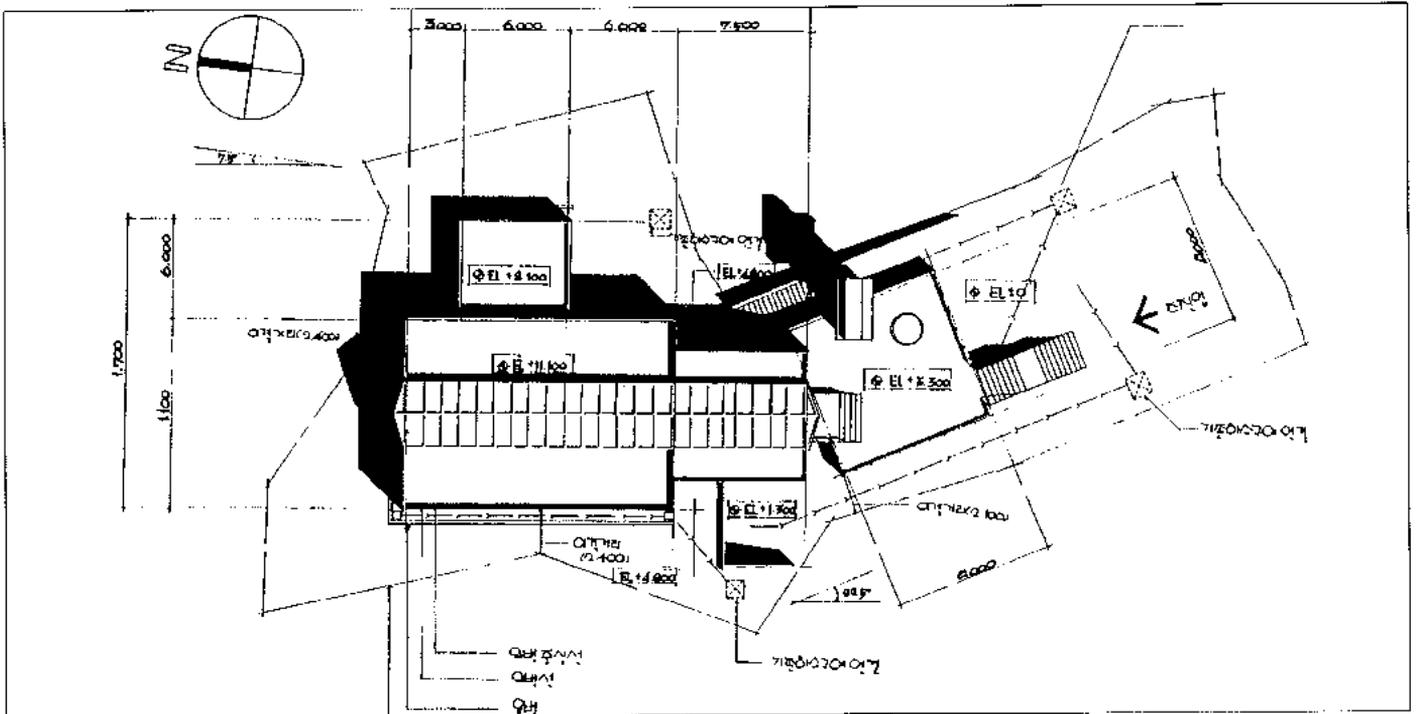
둘째, 전돌(벽돌)도 버린다.



별의 교회 모형도



별의 교회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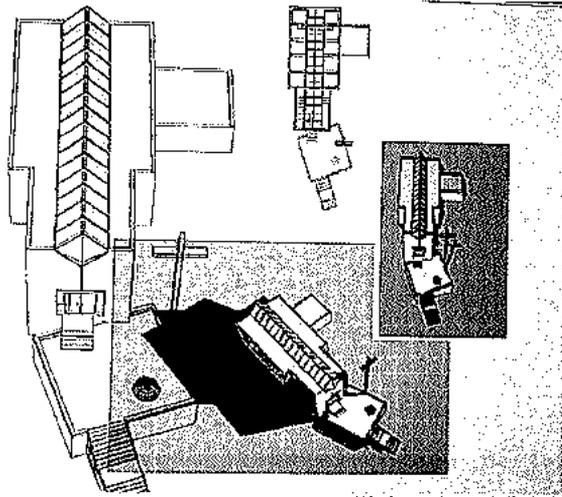
별의 교회 배치도

셋째, 사각형만 가지고 끝을 내준다.
 나는 이 방침을 전화로 전달하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폭적인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보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어떤 접근방식을 택하든, 보기가 좋게 하는 것은 디자인하는 사람 역량에 달려 있지요?” “좋습니다. 김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두번째 원정(遠征)이 시작되었다. 때는 이미 가을로 접어들어 들은지 오래였고, 낙엽이 으스스리는 스산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나는 사각형으로 끝내주는 스케치에 골몰하였다. 평면은 몇개의 정방형과 하나의 장방형으로 구성되었다. 조각조각 이어 붙인 대지의 특성 때문에 마당을 만드는 맨앞의 정사각형은 임의의 각도를 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조금 삐딱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흉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는 듯해서 마음에 들었다. 돈이 많이 드는 종탑들은 사라지고, 종탑의 역할을 대신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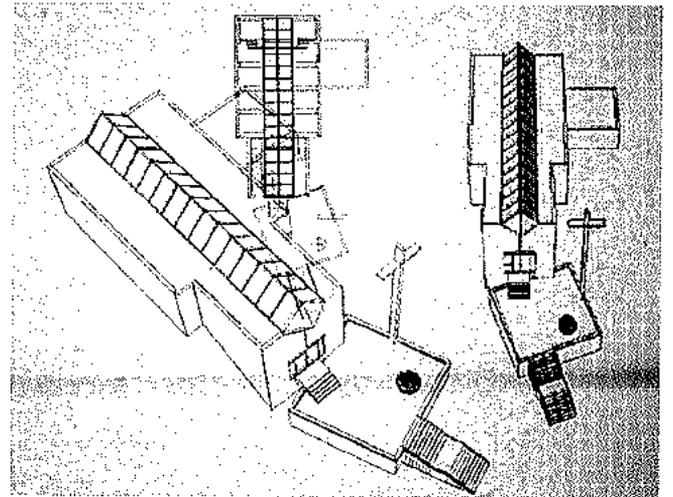
의 거대하고 간결한 십자가가 순교자처럼 외롭게 우뚝 서서 고독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건물의 정면은 단순한 사각형의 본체에, 다이어몬드처럼 대각선으로 박아 놓은 정방형의 유리상자가 별빛모양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나는 별빛의 소리를 들었다. “달의 교회”는 사라지고, “별의 교회”가 자라나고 있었다. “인간의 아들”이 탄생하였을 때, 동방의 도인(道人)들을 외양간까지 인도한 것도 별이 아니었던가!

벽지의 시공여건을 생각해서 가급적 습식구조를 피하고 건식구조가 고려되었다. 그래서 까다로운 디테일이 많이 발생하고 특별한 숙련공을 요하는 벽돌구조가 배제되었다. 그래서 외장은 일차적으로 화강석 판석이 제안되었지만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출된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가지 대체품목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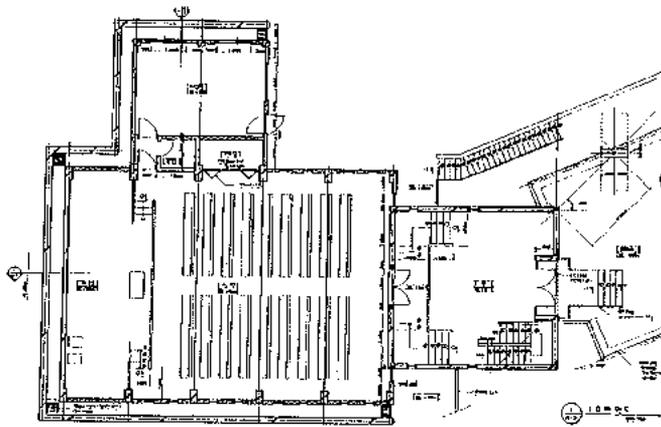
“벽들은 왜 안되겠습니까?”
 “첫째, 이런 형태는 벽들을 가지고는 살려지지를 않습니다. 벽들은 벽들의 형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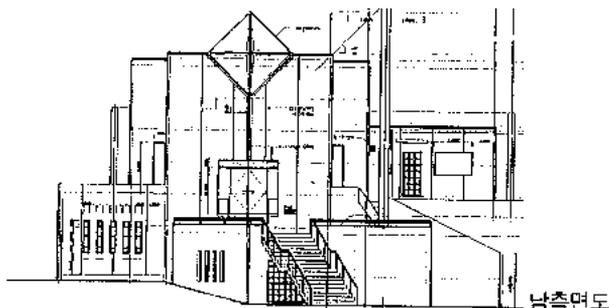
별의 교회 초기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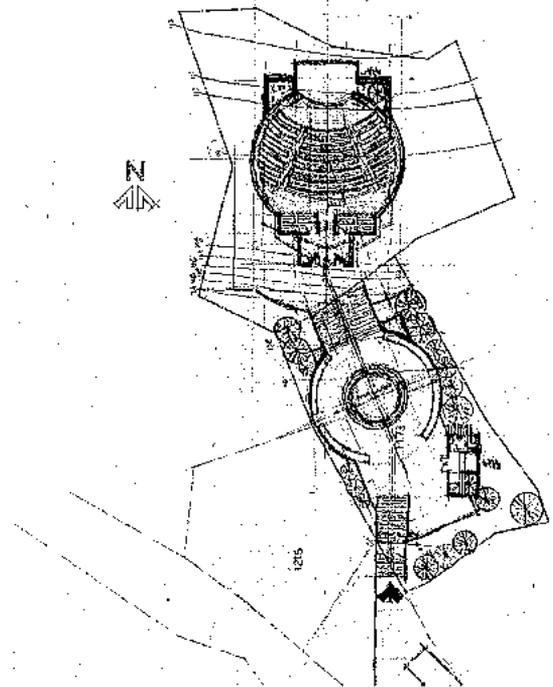
별의 교회 초기계획안



1층 평면도



남측면도



스케치3

입니다. 들쭉, 벽돌로는 해결이 어려운 접속부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벽돌로 만들었다가는 비세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역시 전문가는 다름나데이-”

기계문명의 최면술에 홀려, 당시 수천만원을 들여 마련하였던 메켄토시 컴퓨터 시스템이 이 건물의 조형적 효과 검증과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동원되었다. 많은 부속기계를 구입하였음에도 슬라이드출력은 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서, CAD(Architron)로 작업한 드로잉은 디스켓으로 뽑아서 출력소를 드나들면서 슬라이드로 만들었다.

2차 원정중 현장을 오가는 역할은 주로 사무실 실장이 맡았다. 그러나 그가 몰고 다니던 고물스텔라는 장거리주행에 능숙가 되어 폐기처분되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복잡하게 짜집기한 대지현황이 정리되고 허가 도서도 준비되었으며, 전기, 설비, 구조도를 포함한 상세도도 완성되었다. 건물전체가 주는 간결한 메시지와 조형적인 성취도가 먼저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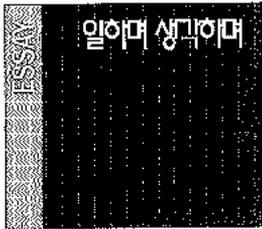
설계에 참여한 직원들도 만족해 하였다. 2차원정은 100%의 출혈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나는 호뭇한 기분으로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군위의 원장님으로부터 느닷 없는 전화가 왔다.

“교회의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건축 외장 재료를 벽돌로 해줍니다, 고만 그리 아이소”

결정적이고 일방적인 통고였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설계도를 집어 던졌다.

이것이 전부였다. 필름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다. 구비구비 온갖 곡절을 겪으며 두 차례의 원정 끝에 도달한 정상에 정복은 깃발을 막 꽃을 찰라에 끝이 나고 말았다. 나는 관객이 보지도 못한 필름을 돌돌 말아들고 영화관을 나왔다. 이 작품의 설계도는 건축 문화에서 간행하는 한국의 현대건축 시리즈 20 “미완의 작품”에 실려있다.



FO

즘에 들어서 이십 수년 전에 배웠던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나의 뇌리를 스치곤 한다. 20C초 일본제국주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선을 약탈하여 마침내는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1905)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에 조선의 수많은 의사, 열사들이 자결과 무력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특히 장지연선생은 황성신문에 크게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백성들의 비분을 만방에 폭로하였던 것이다. 어

찌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 울부짖었던 선생님의 절박한 분노를 헤아리노라면 절로 가슴이 저미어 온다. 원래 세기말적 현상이란 것이 혼란스럽다고 일반상식처럼 스치 말할 하고는 하지만 직접 닥쳐 격고 있노라니 좀처럼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다. 식자(識者)들은 말한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한 세기전의 구한말 시대의 상

황과 흡사하다고.

따라서 운명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비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향후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그 누군들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세계무역질서 개편의 서곡이 울리고 있을 때 우리는 국내 정치상황에만 매달려 급기야 현실로 닥쳐 오고서야 무슨 유행어처럼 떠들어 대고 있으니 한 세기전 우리가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대응력이 미숙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참가 어려운 것인지 세계 역사는 물론 반만년 우리의 역사가 일러주고 있지 않은가? 한 세기전 우리는 자존을 상실하는 처욕을 맛보았으며, 분단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곱씹었고, 굴욕적 자세로 경제성장에 매달려 무수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최근에 이르러 개방은 세계적 추세로 필연적이나 국민 각자는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에 앞장서라는 시대적 요구에 내몰리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그간 빼놓아진 국내 정치의 비도덕성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점이 산적되어 개혁이라는 커다란 과제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이중 역할을 하느라고 더욱 더 어수선하여 자못 혼란스럽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이나 그 준비과정이 엄밀한 연구 검토없이 국제정치에 내몰리어 지나치리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

신 시일야방성대곡

We Need to Provide a New Preparation

盧永煥 / 기관건축사사무소
by Noh Young-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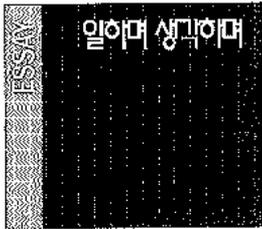
움이 남는다.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자못 의구심이 발동한다. 왜냐하면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원과 예산, 전문성의 결여, 시일의 촉박함, 과중한 업무량, 국내 정치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신속하다던가, 과도하게 이상적(理想的)이라면, 역설적이지만 경솔하다던가, 알맹이가 없는 비현실적일 확률이 다분히 높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는 아무리 심사숙고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대안의 강구가 불필요 하였을까? 좀더 구체적 방안의 수립은 불가능하였을까 등을 생각하여 보면 절로 긴 탄식이 새어 나오곤 한다. 정성스럽게 검토되지 않은 불비한 법과 제도를 국제적 압력과 정치적 특수성에 내몰리어 급박하게 시행하노라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요소가 발생되어 사회적 역작용의 발생은 필연적일 것이다. 세계화와 개혁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처 되지 못한 일반국민에게는 당장의 생존이 더욱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고, 이러한 제도 안에서 생존하려면 고도의 변칙기술을 사용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추상같은 명령에 내몰리어 무지한 국민의 물이해를 타하며, 결국은 특별법 만을 양산하게 되어 더욱 더 우리 사회는 복잡하여지고 행정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의 빈번한 발생은 정책의 불신만 깊게 하고 장차 다른 국가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바로 개혁의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일부 공직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서 비롯된다. 세계화란 국가 역할의 축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단체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여기서 국가 역할의 축소란 의미는 단순히 국가전환의 위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전의 총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체제에서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

도록 국가의 부적절한 관여를 배제한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물리적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개인 또는 전문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물론이고, 더욱 더 정진하도록 안내하고 협조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불간섭이 세계화인 것처럼 오해하여 자칫 국가의 방임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 앞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각 전문단체가 나름대로 정확히 짚고 있는가 확인하여 주는 문제일 것이다. 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무형의 이입요소들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져야 한다. 둘째는 각 전문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흡할 경우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력하는 차원에서 민·관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각 전문단체들이 유기적 체계를 유지하고 종합정보체계를 이루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추세에 신속히 적응토록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부적절한 관여로 역작용이 작용치 않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단번에 완성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옳다하더라도 현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개방 이전에 우리의 소홀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자멸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다소 늦어서 우리가 겪어야하는 피해가 있더라도 적응이 가능토록 점진적인 정비를 하던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소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공동체 인식을 같이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역사적 대응능력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일야방성대곡」이 등장하게 되어서는 결단코 안될 일이다.



FO

즘에 들어서 이십 수년 전에 배웠던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나의 뇌리를 스치곤 한다. 20C초 일본제국주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선을 약탈하여 마침내는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1905)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에 조선의 수많은 의사, 열사들이 자결과 무력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특히 장지연선생은 황성신문에 크게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백성들의 비분을 만방에 폭로하였던 것이다. 어

찌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 울부짖었던 선생님의 절박한 분노를 헤아리노라면 절로 가슴이 저미어 온다. 원래 세기말적 현상이란 것이 혼란스럽다고 일반상식처럼 스치 말들 하고는 하지만 직접 닥쳐 격고 있노라니 좀처럼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다. 식자(識者)들은 말한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한 세기전의 구한말 시대의 상

황과 흡사하다고.

따라서 운명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비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향후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그 누군들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세계무역질서 개편의 서곡이 울리고 있을 때 우리는 국내 정치상황에만 매달려 급기야 현실로 닥쳐 오고서야 무슨 유행어처럼 떠들어 대고 있으니 한 세기전 우리가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대응력이 미숙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참가 어려운 것인지 세계 역사는 물론 반만년 우리의 역사가 일러주고 있지 않은가? 한 세기전 우리는 자존을 상실하는 처욕을 맛보았으며, 분단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곱씹었고, 굴욕적 자세로 경제성장에 매달려 무수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최근에 이르러 개방은 세계적 추세로 필연적이나 국민 각자는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에 앞장서라는 시대적 요구에 내몰리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그간 빼놓아진 국내 정치의 비도덕성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점이 산적되어 개혁이라는 커다란 과제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이중 역할을 하느라고 더욱 더 어수선하여 자못 혼란스럽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이나 그 준비과정이 엄밀한 연구 검토없이 국제정치에 내몰리어 지나치리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

신 시일야방성대곡

We Need to Provide a New Preparation

盧永煥 / 기관건축사사무소
by Noh Young-Hwan

움이 남는다.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자못 의구심이 발동한다. 왜냐하면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원과 예산, 전문성의 결여, 시일의 촉박함, 과중한 업무량, 국내 정치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신속하다던가, 과도하게 이상적(理想的)이라든, 역설적이지만 경솔하다던가, 알맹이가 없는 비현실적일 확률이 다분히 높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는 아무리 심사숙고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대안의 강구가 불필요 하였을까? 좀더 구체적 방안의 수립은 불가능하였을까 등을 생각하여 보면 절로 긴 탄식이 새어 나오곤 한다. 정성스럽게 검토되지 않은 불비한 법과 제도를 국제적 압력과 정치적 특수성에 내몰리어 급박하게 시행하노라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요소가 발생되어 사회적 역작용의 발생은 필연적일 것이다. 세계화와 개혁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처 되지 못한 일반국민에게는 당장의 생존이 더욱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고, 이러한 제도 안에서 생존하려면 고도의 변칙기술을 사용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추상같은 명령에 내몰리어 무지한 국민의 물이해를 타하며, 결국은 특별법 만을 양산하게 되어 더욱 더 우리 사회는 복잡하여지고 행정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의 빈번한 발생은 정책의 불신만 깊게 하고 장차 다른 국가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바로 개혁의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일부 공직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서 비롯된다. 세계화란 국가 역할의 축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단체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여기서 국가 역할의 축소란 의미는 단순히 국가전환의 위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전의 총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체제에서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

도록 국가의 부적절한 관여를 배제한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물리적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개인 또는 전문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물론이고, 더욱 더 정진하도록 안내하고 협조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불간섭이 세계화인 것처럼 오해하여 자칫 국가의 방임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 앞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각 전문단체가 나름대로 정확히 짚고 있는가 확인하여 주는 문제일 것이다. 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무형의 이입요소들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져야 한다. 둘째는 각 전문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흡할 경우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력하는 차원에서 민·관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각 전문단체들이 유기적 체계를 유지하고 종합정보체계를 이루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추세에 신속히 적응토록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부적절한 관여로 역작용이 작용치 않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단번에 완성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옳다하더라도 현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개방 이전에 우리의 소홀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자멸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다소 늦어서 우리가 겪어야하는 피해가 있더라도 적응이 가능토록 점진적인 정비를 하던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소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공동체 인식을 같이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역사적 대응능력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일야방성대곡」이 등장하게 되어서는 결단코 안될 일이다.



李喜泰 (1925~1981)

한국 현대건축사는 그 주류의 근원을 박길룡에서 출발한다. 해방전,해방이후 그와 상관관계를 맺거나 관공서 활동을 한 이들에 의해 현대건축사는 주도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연장선에 김종업,김수근도 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건축인은 종합건축을 이끌었던 이천승, 김태식설계사무소의 김태식, 신건축의 정인국, 이희태건축연구소의 이희태, 그리고 엄덕문, 장기인, 이광노 등이며 이밖에도 여러사람이 더 있다. 이들은 한국 건축사의 과도기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이들의 작업은 그 시대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 그리고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작업량에도 역사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재평가되고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희태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분석된 특징은 그 시대의 한계와 모순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의 명료화를

통해 현재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희태는 정식 교육기관으로는 2급¹⁾ 정도의 수준에 있던 공업기술학교²⁾ 출신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교육을 받은 2세대 건축가³⁾로, 해방이후 활발한 건축활동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전 및 전통요소를 작품에서 현대화 하고자 노력한 작가중의 한사람으로 그의 작품에는 작품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근대성과 고전성이 함께 나타난다. 근대성이 나타나는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기능성을 추구하고 있고, 고전성을 나타내는 건축물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성격적으로도 전통요소를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당대에도 이미 여러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전통이나 고전의 요소가 박제화되지 않은 채 현대화하는 과정으로 남아 있다.

이희태가 건축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16세의 나이로 경성공업 직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한 이후로, 진학 이전에는 조각 등에 관심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1)

Korean Architect, Lee Hui-Tae

이희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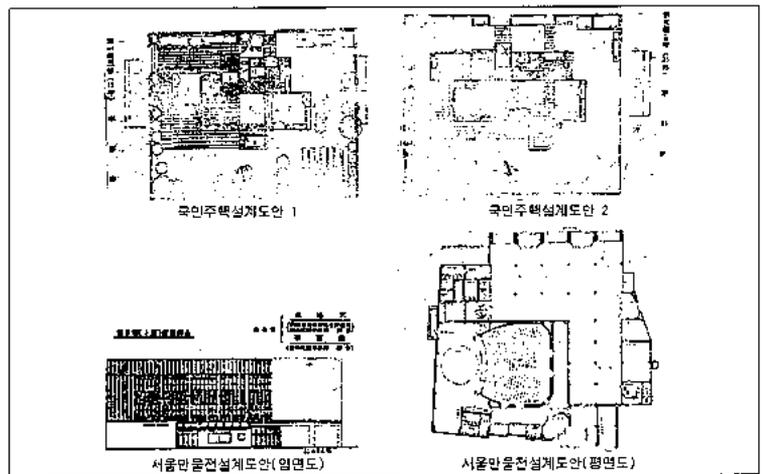
梁勝宿/ 자유기고가
by Yang Seung-Suk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오늘날 한국 현대건축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속에서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해방을 전후한 박길룡, 김종업, 김수근, 이희태 등과 같은 현대건축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건축사의 과도기로 불리우는 해방 전후기를 이끌었던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암울함과 모순을 딛고 많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된 평가조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이희태를 시작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분석·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선각자들의 정신과 업적이 한국건축사속에서 새로이 재조명되어지고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 1)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세대론을 위한 구도, 이광노교수 퇴임 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1993
- 2) 김옥성, 1945년에서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 1990
- 3) 조영부, 한국현대건축의 발전(1-2), 공간, 8007-8008
- 4) 김정동, 건축가 이희태, 대담, 꾸밈, 1977, 9
- 5) 김옥성, 1945년에서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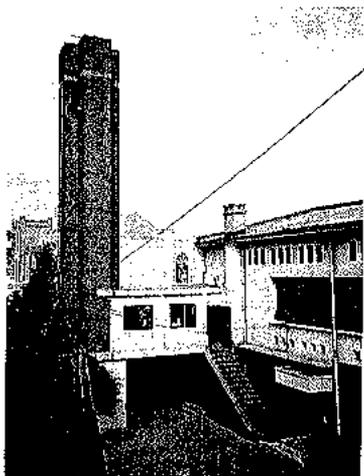
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로 경성공업직업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와시마(川島)라는 선생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건축에 관심을 갖고 몰두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 활동이 체계화되고 '대동아공영'을 주장하던 제국주의 시절로, 우리나라에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기반이 된 공공건축(관공서)과 군수, 산업시설물들이 상당히 진척된 때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모순된 체제 속에서도 정착, 확대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회태가 경성공업직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던 1942년은 태평양전쟁의 확대양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징용과 징병의 대상으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건축인들은 징용면제의 방편으로 전쟁을 피해 조선 비행기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당시 일본 매판자본가로 잘 알려진 박용석이 경영하던 군수공장으로 이천승, 김태식, 김중업, 김명집, 이명희 등의 선배건축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건축계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대다수는 후에 한국건축작가 협회(1957.1) 결성에 중요 구성원이 되었다⁶⁾.

해방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이태올로기가 문화전반에 심화되던 당시에 이회태는 이천승이 주축이 된 '도시계획연구소'를 나와서, '이회태 건축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립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작업을 시작한다. '조선건축기술단'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이회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이러한 것은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였던 '朝鮮建築'지에 기록된 연설과 기고했던 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이회태가 "朝鮮建築" 1947년 6월호에 실고 있는 <신건축의 이념>이라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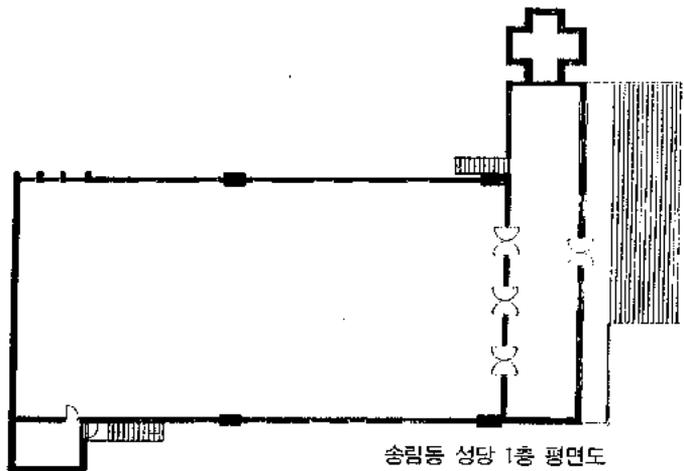
"애굽, 회람, 로마, 비잔틴 등 각 건축의 특징은 각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을 말함이다. 그러면 제2차대전이 세계사에 구획의 선을 건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세계 노동인민의 민주주의운동이 힘

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조선도 이 운동의 일환으로써 민주주의 과업이 날로 성취되고 있는 것은 신세대의 탄생을 말함이다. <건축>이 어느 일정한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이라면 반드시 조선에도 새<건축>이 탄생할 것은 재언을 요(要)치 않는 것이다. ...(중략)... 유기사회전체의 욕망을 대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본질상 <건축예술>은 음악과 무용보다 이상의 고도의 '사회성'을 필요로 하고 그 <집단성>을 그 목적에? 어서와 같이 혹은 그것이상 강력한 하나의 절대명령하에 두는 가장 갈등적인 모든 제요소들을 결합하여?력, 압력, 재료, 지질 등의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여 기후, 계절의 환경이나 로카리타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중략)... 금일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의 탄생 즉 완전한 예술로서의 건축작품은 형식적 완성외에 예술가 건축가 자신의 <이태올로기>적 전제가 있음으로 비로서 나타날 것이다. 제2차대전(人戰)의 종막을 싸고도는 20세기 민주과업기에 세계각국 신진건축가들은 씩씩한 사명을 띠우고 새로운 건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조선의 건축가의 존재는 나라는 없으나 우리조선의 건축가도 예술가인 동시에 과학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장차 전개될 새로운 사회조직하에 건축가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⁶⁾

이 글을 살펴보면 이회태의 건축개념 몇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척 근대적인 입장에 작가가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회태는 우선 건축이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건축의 탄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건축을 <건축예술>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의 기술적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건축가도 예술가인 동시에 과학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가의 사회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송림동 성당



송림동 성당 1층 평면도

6) 조선건축, "신건축의 이념", 1947.6, p.32-33

7) 김정동, 건축가 이회태(대담), 꾸밈 7709

"과난생활이 끝나고 성당과 ... 처음 시작이 흑석동의 명수대 성당입니다. 성당의 기존 이미지를 비꾸는 작업을 했어요. 뾰족탑을 없애 버렸으니까요. 당시엔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8) 김봉렬, 좌절과 성취 - 건축가 이회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410

9) 김봉렬, 좌절과 성취 - 건축가 이회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410

즉 전반적으로 글은 건축에 대한 신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에 거는 기대가 작가의 가슴 속에 설레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해방후 건축인들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실천 의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가 많은 활동을 했던 1950년대초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정치,사회적인 개념에서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의 흐름도 이 흐름과 같이 '1945~1961년', '1961~1972년', '1972~1981년'으로 나눌 수 있다. 해방후부터 1961년까지는 해방공간과 전쟁이 혼재된 시기로, 재건의 깃발을 높이했던 기간이고, 5.16이후의 다음시기는 경제성장과 전통의 논란이 대두되었던 시기이며, 유신이후의 다음시기는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의 폐단이 나타나고,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대두되어 건축에도 북고주의 양식이 요구되던 시기이다. 여기서 정권의 정통성확립의 방안으로 나타난 민족주의의 대두는 건축계에 전통논의를 불러왔고, 북고주의 양식으로 많은 건물을 함몰시켰다. 이회태는 1960년대 후반에 절두산 순교복자기념관(1967)을 통해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과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박물관류의 건축물 등에서 재료와 독자적인 건축어휘를 통해 북고주의 형식을 벗어나고 있다.

문 글 : 이회태 건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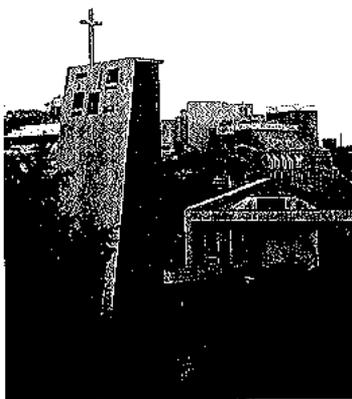
이회태의 전통건축양식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것에 대한 끈질긴 정성"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굵직한 공공건물을 다수 설계해 온 이회태의 건축 입장과 한국 관료건축주들의 관심을 살펴보면 근대화의 과정에서 고민하는 건축인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관료들은 번영하는 조국을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할 근대화 역군으로 '근대주의적 표현'을 요구하고, 정통성의 모범으로서 '한국적인

표현'을 요구했으며, 정권수호의 의미로 '권위주의적 표현'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현방식은 구체적으로 시각화돼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양식'은 주요문제로 부상되었는데, 당시-작가가 주로 활동했던 제3공화국 시기-에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란 극히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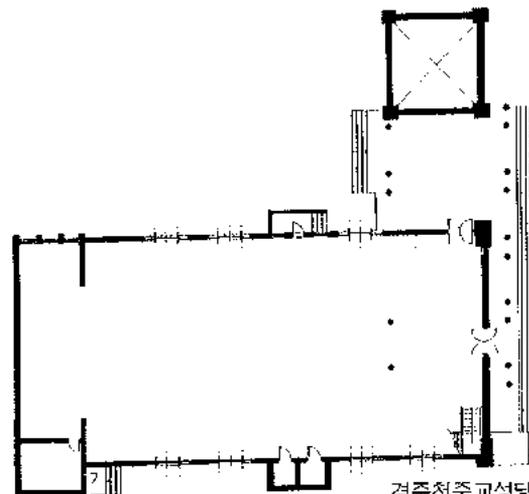
이회태의 작품연혁은 전쟁중에 설계한 '명수대천주교성당(1952)'으로부터 시작한다. 명수대성당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작가의 대담" 내용을 보면 작가가 이 건축물에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건축적인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회태는 '인천 송림동천주교성당(1954)', '진해천주교성당(1955)', '경주천주교성당(1955)' 등을 거쳐 '해화동천주교성당(1955)'에서 독자적인 성당건축 양식을 정립해 낸다. 이 시기는 이회태가 서울대 미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던 때로, 장발과 김세중 등 미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명수대성당에서부터 미술인들과 협력관계를 갖게 되는데, 후에 '해화동성당', '절두산 순교복자기념관(1967)'에서도 함께 작업하게 된다. 초보적인 건축기술교육만을 받고 기술자로 출발한 그가 건축의 예술성과 사회성에 눈을 뜬 시기는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이 당시 이회태 건축의 특징은 모더니즘계열의 형태로, 성당건축과 함께 건축의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모더니즘의 기술적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적 형태언어를 결합하는 일에 몰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열의 건물로는 세련된 기능주의의 매트르호텔(1955)을 비롯해서, 제동빌딩(1955), 서강대학교 신부관(1960), 명지대학교 본관(1962), 용산 양곡방열창고(1966), 무역회관(1968) 등을 들 수 있다.

그가 한국 건축에 대해 이렇게 나름대로 실험적 시도를 시작하여,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할 수 있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에 그가 추구한 건축의 특성은 근대건축에서



경주천주교 성당



경주천주교성당 1층 평면도

- 10) 이 당시에는 "신종건축연구소"(1947)를 공동 운영하던 시기로 '조선건축 기술단'에서 함께 활동을 하던 시기다.
- 11) 이회태, 여성의 주택교육문제, 조선건축 48(9), p21
- 12) 빈민주거에 대한 관심은 서구건축가들에게도 사회적 책임부분이었다. 이는 CIAM의 회의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있다. 해방직후 급증한 인구증가로 식민지 시기부터 부족했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어 갔고, 당시의 건축가들은 '주거난 해결'이라는 문제를 갖고 많이 고민했다. 조선건축의 특집으로 '주거'가 실린 것은 하나의 실례이다.
- 13) 김정동, 건축가 이회태, 대담, 꾸밈

보여주었던 새로운 형식과 도전이라는 진보적 성격과 고전건축의 추상화 작업이었다. 이것은 한국건축의 고전어휘와 현대어휘의 결합으로,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를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전통적인 것'을 맹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사회에 진취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희태의 고전건축 어휘에 대한 현대화는 전통에 몰입함으로써 다소 복고주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말까지에 해당된다. 즉 '절두산 순교기념관(1964)'에서 전통적 디테일을 선보이기 시작하여 '국립극장(1967)', '국악사양성소(1967)', '국립경주박물관(1972)', '국립공주박물관(1973)', '부산시립박물관(1975)', '부산연암회관(1979)'으로 연속되면서, 전통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다.

당시의 '건축문화풍토' 하에서 한국 건축의 발전적 계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희태의 고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당시 활동중인 대다수 건축가의 교육배경은 식민지 기간 동안 기술자 교육만을 받는 등 현실적인 문화풍토와 유리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구 건축문화의 우월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학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비해 이희태는 이력에도 나타나듯이 학교에서의 정식교육 경험은 건축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건축교육의 장은 '사회'였다. 이러한 측면은 이희태를 토착 건축가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데, 주변의 건축환경을 스승으로 삼아 독자적인 건축언어를 형상화하려고 한 작가에게는 전통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거건축에서 작가의 작품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몇몇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마을계획 등이 있는데, 그의 주거건축은 특이하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집합주거형태에서 작가의 건축 특성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아파트(1968)'와 '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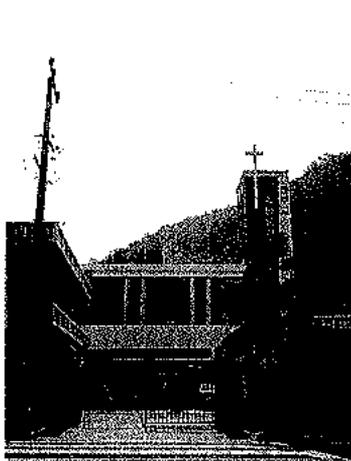
이드아파트(1978)'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성 라자로 마을'(1972-1981)을 마스터플랜부터 참여하여, 마을내의 대다수의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기존형식과는 다른 건축형태를 통해 다양한 형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삶의 형식을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주거건축이 작가의 다양한 건축어휘와 잘 연결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문에서의 작품분석은 시기적인 분류보다는 건축형식의 특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형식은 '건축의 새로운 유형추구'와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 추구'이다. 작품들은 이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 전체를, 두가지의 틀만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기에 분석에서 누락된 건물들이 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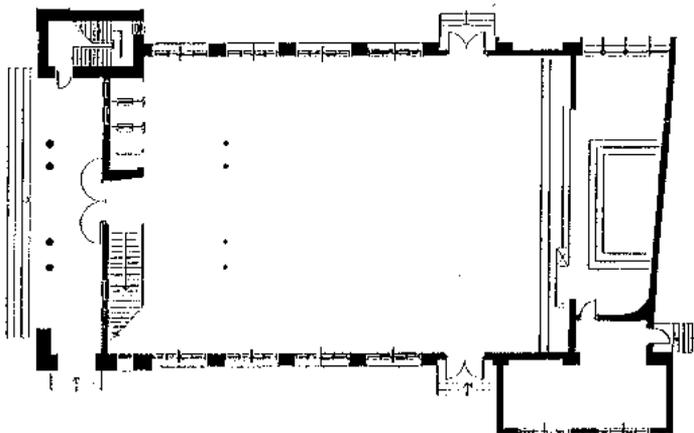
1.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이희태는 1945년 11월 15일에 실시된 '국민주택 설계안' 공모에서 15평형(제1종)에서 3등, 20평형(제2종)에서 가장, 25평형(제3종)에서 3등으로 입선하였다. 이 설계공모는 당시 건축계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되었으며, 1946년 3월 21일부터 중앙백화점 5층 화랑에서 6일간 전시회를 가졌다. 그리고 1947년에는 '서울 만물전 현상설계'에서 성낙천과 공동출품¹⁴⁾하여 3등에 당선되었다. '조선건축기술단' 주관의 '여성의 주택교육 프로그램'에서 행한 강연은 그가 갖고 있던 주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에 대한 개념', '개량주택과 문화주택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난다.

"<주택개선>이란 어구를 쓰는 것은 현하(現下)의 질적,양적 주택란이 극기(極基)해야 극빈자나 귀한동포는 오척여(五尺餘)의 신체하나 디러늘 방한칸 없는 이때 대단히 현실에서 떨어진 이상주의적 것이라고



진해 천주교 성당



진해 천주교 성당 1층 평면도

14)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이희태는 명수대성당(1954), 려화동성당(1960) 등을 통해 입방체형의 근대(modern)성당건축을 시도하였다. 이들 건물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교회건축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15)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16) 1986년에 세토이 주니공

17)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생각될런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재래문인들이 관념론적 또는 피상적으로 주택의 개선을 불러온 것이다. 소위 <인텔리겐차>들이 제창한 문화주의적 생활의 미화가 아니고,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원대한 국토계획 지방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구성하에서의 주택개선을 논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건실하고 긴요한 것도 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 재래의 개량주택을 아는 여성들은 개량주택이란 기능에 대하여 다대한 의문을 가지는 모양인데 그도 필자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재래의 문화주택이라면 대개가 <아메리카니즘>적인 건축가들이 구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적(전체의 프로포손을 무시한 것과 같은) 구조설비를 함으로 마치 벚선밭에다 <센달 슈즈>를 신는 격의 구조의장임으로 자연 조선의 기후풍토를 무시하게되어 우리의 생활엔 적합치 않음으로 개선주택이라면 다 이런 것으로 알고 불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정시 일부의 일본인 건축가들의 현대건축 곡해에서 온 이념하에 주택개선이었다는 것과(그러나 일인자신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건축가는 태무(殆無)하였다는 것이 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 조선의 건축가가 현대건축계로 조선의 완성된 건축이 파리나 가주(加州)에 설립되는 경우에는 전연 사용불능이 되어서 마땅한 것과 같이 머물의 건축양식이 조선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요컨대 이러한 건축이념을 정리한데서 창조되는 주택이라야 비로서 조선의 주택이 되고 따라서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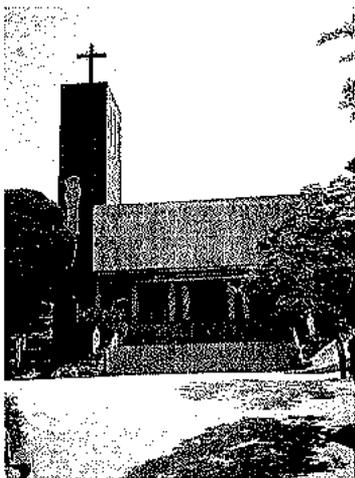
앞의 글을 통해 이회태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조선의 주택’을 ‘...이러한 건축이념을 정리된데서 창조되는 주택...’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맞는 건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주택 개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개

량주택’과 ‘문화주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은 건축가의 나태함에서 오는 것임을 지적하며, 우리삶이 수용된 건축이 필요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국민주택 설계안’에도 반영된 생각으로, 당시의 주거에 대한 관심은 단지 이회태 개인의 관심사는 아니었고, 해방후 국가 재건사업과 연결지어 건축가의 사회적인 의무¹⁹⁾로 받아들이고 있었던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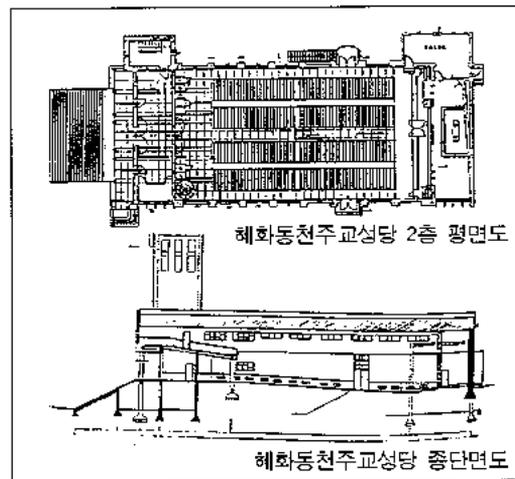
당시 의장과 도학을 서울대 미대에서 강의했던 이회태는 이 기간이 색채학과 디자인 연구에 심취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그의 작품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그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명주대성당(1953)을 들 수 있는데, 전란후 완성된 이 성당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다수의 예술인들이 협력설계를 진행했다는 의의와 종교건축의 형태에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설계되는 ‘진해천주교성당’ (1955), ‘혜화동천주교성당’ (1955), ‘경주천주교성당’ (1955), ‘천주교전주교구주교관’ (1957), ‘아현동천주교성당’ (1958) 등 다수의 성당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²⁰⁾가 되었다.

주거와 종교 건축에 한정되어 있던 이회태의 작업도 국가의 경제발전계획이라는 시대의 요구로 50년대 후반, 60년대 들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1956년의 제동빌딩을 비롯해서 메트로호텔(1955), 서강대학교신부관(1960), 명지대학교본관(1962), 용산양곡방열창고(1966~68), 무역센터(1968) 등의 근대기능을 요구하는 건물들이 이 시기에 설계되었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성격을 보여주는 몇몇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마을계획 등이 있는데, 그의 주거건축은 특이하다. 단독주택-평창동 유씨주택(?)-보다는 집합주거형태에 작가의 건축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외인아파트(1968)’ 두동과 ‘힐사이드아파트(1978)’, ‘렌티드 주택(?)’, 그리고 ‘성라자로 마을’(1972-1981) 등이 있다. 주거의 형식은 기



혜화동천주교성당



혜화동천주교성당 2층 평면도

혜화동천주교성당 종단면도

“이회태와 유화순 등에 의한 근대건축이 성당의 적합한 표현방법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18) 내용은 주로 이 성당의 사무경과의 대답에서 나왔다. 현재는 기념사업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자료자체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흐릿한 사진을 통해서만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종탑의 모습과 성당의 근대적인 형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9) 서울특별시 제5권, p.664-665

“1958년에 혜화동 네거리에 세운 혜화동성당은 이회태의 작품으로 전면의 상부를 무창의 광활한 면으로 하고, 거기 부조를 넣었으며, 하부는 쌍과 홀수로 된 기둥열로 그것을 받쳤고, 좌측의 붉은 벽돌의 종탑은 백색의 부조벽면과 대조되어 수직 율면체로 서 있어서 근대적인 비대칭구형미를 나타내

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작가의 다양한 어휘가 잘 나타나고 있다.

1) 흑석동 명수대 천주교성당(1952)¹⁹⁾

해방직후, 전쟁기간, 휴전후에 지어진 성당건축은 일제시대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조잡하고 일률적이었다. 다만 50년대 말부터 몇몇 근대적인 성당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교세의 양적인 팽창으로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유와 건물을 짓는 비용 대부분을 외국의 교회와 신자단체의 원조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건축을 주도한 성직자 지도급이나 신자들의 건축에 대한 양식부족, 건축가들의 인식부족이 원인이었다. 이 시대의 성당건축은 3개의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양식변형의 양옥성당이고 다른 하나는 탈양식의 근대주의적 성당이며, 나머지 하나는 형태의 토착화를 추구한 절충식 성당들이다.²⁰⁾ '흑석동 명수대 천주교성당'은 3개 유형중 탈양식의 '근대주의적 성당'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이회태의 성당 형태에 모체가 된다. 본 성당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1952년, 전란중에 완성되었으며, 현재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²¹⁾. 본 성당은 다수의 예술인들이 '협력설계'를 진행했다는 의의와 현대 종교건축의 '형태'에 새로운 인식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²²⁾는 두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예술인들이 협력설계를 진행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계획단계에서 성당 계획의 총책임은 장발교수가 맡고, 건축설계는 이회태, 성수그릇은 이순석, 글은 장우성, 성상은, 김세중, 14처는 권순형, 김교만, 모자이크는 남용우 등이 담당하여, 다수의 예술인들이 함께 건물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건축의 형태에 새로운 인식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은, 이 당시 종교건축물의 디자인 양식이 천편일률적으로 구미의 복고적인 형식에서 빚어온 고딕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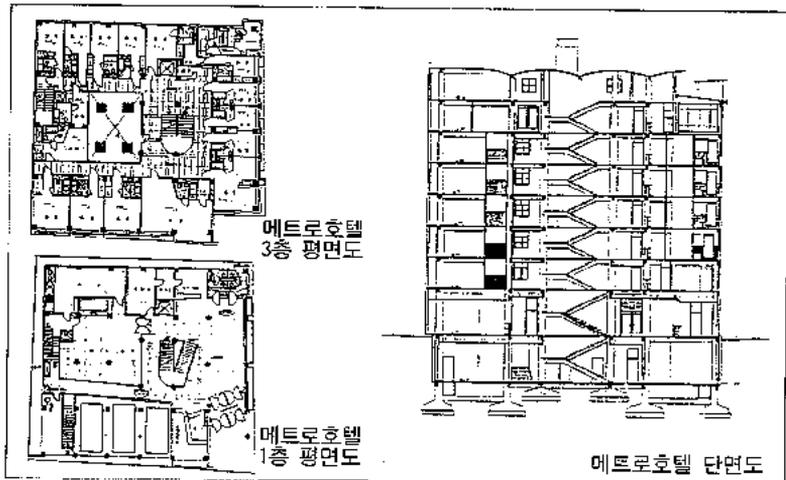
탑을 답습하였는데,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일대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 모더니즘 건축이론에 근거한 기하학적 형식구성과 단순화에 착안한 종탑의 현대화²³⁾는 오랫동안 보편화되어 왔던 교회건축의 양식주의 또는 절충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합리성과 기능성, 창의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종탑의 형식은 이후에 설계되는 성당건축의 디자인 어휘에 있어서 중요 모티브로 작가의 건축물에 사용되는데 본성당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혜화동 천주교성당(1955)¹⁹⁾

혜화동 성당은 작가의 특성 중 새로운 유형추구라는 측면이 가장 잘 나타난 건축물로 작가의 성당건축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입면의 전반적인 특징은 기하학적 단순화와 반복적인 율동이 입면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형식적 구성감각의 세련미를 보여 주고 있다. 작품전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하학적 단순화 과정과 추상화 작업, 재료의 질감과 색채대비를 통한 적절한 조합은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벽돌, 콘크리트, 돌 등의 재료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작가의 재료에 대한 감각은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필요이상의 장식을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은 근대주의계열의 청교도적인 건축성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명수대성당'에서 추구된 근대적인 성당형식은 경주성당(1955), 진해성당(1955), 인천 송림동성당(1955)을 통해 혜화동성당에서는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이 된다. 전체 형식을 살펴보면 전체가 철근콘크리트조의 장방형 평면을 가진 육면체의 근대적인 건물로 '내부공간의 분절'이 없을뿐만 아니라 '아치나 보울트의 구성'도 없다. 의장적 요소인 종탑의 독특한 형태나 창의 모양, 그리고 구조, 재료의 사용에서도 탈양식적으로 '근대건축의 정신-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1962~65)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작품을 전반적



메트로호텔



메트로호텔 3층 평면도

메트로호텔 1층 평면도

메트로호텔 단면도

고 있다.

20) 이회태의 건축철을 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 성당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한 빛의 차단이나 세로로 긴 창을 뚫어서 공간을 강조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미지의 공간 형성에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사진 참조)

21) 입면요소중 광동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제단옆의 측면에 콘크리트바를 세로로 길게 세워서 3개까지 4개의 세로로 긴 창을 구성하고 있다.

22)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9

으로 살펴보면, 입면상의 비례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고전적 의미의 형식 규범을 일탈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종교 건축 양식이 아닌, 새로운 유형을 창출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성당건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종교건축에 미친 영향으로 보았을 때, 해화동성당의 역할은 명수대성당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당의 평면형식은 유축형, 유심형, 방사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성당은 열주가 없는 일방형으로 앱스(apse)가 없는 장방형의 유축형이다. 제단 옆으로는 보조공간이 부속되어 있고, 내부는 열주나 공간의 분절이 없는 단일한 강당형태이다. 공간이 장방형으로 좁고 길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능성과 공간성을 추구한 결과이다. 여기서 공간성의 추구²³⁾는 내부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제단의 측면²⁴⁾을 통해서 빛이 길게 들어온다. 그리고 회중석 창으로 부터 들어오는 빛은 가능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빛의 조절은 제단을 더욱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천장의 마감에 있어서 선의 흐름이 사람들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로 모아 제단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종교적인 분위기의 내부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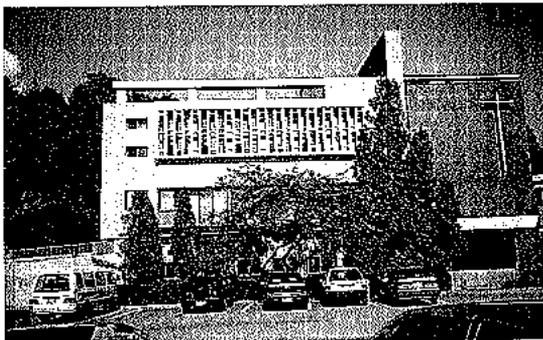
단면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형식²⁵⁾ 이었다. 성당내부 구성은 배면의 일부만이 중층-gallery나 triforium-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희태가 설계한 성당 단면의 공통점²⁶⁾이다. 건물이 단층을 이루는 것은 지어진 연대가 6.25직후인 1954년, 1955년인 것으로 보아, 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이 일차적인 이유인것 같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찰건축을 모방²⁷⁾했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성당건축과 사찰건축은 실질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기능이 배치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찰 건축은 한 건물이 한가지의 기능만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기능의 집적이 아닌 분산현상으로

기능은 배치를 유도하고, 배치상의 외부공간은 주변의 건축기능에 따라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해화동성당도 본 건물은 예배공간으로 단일 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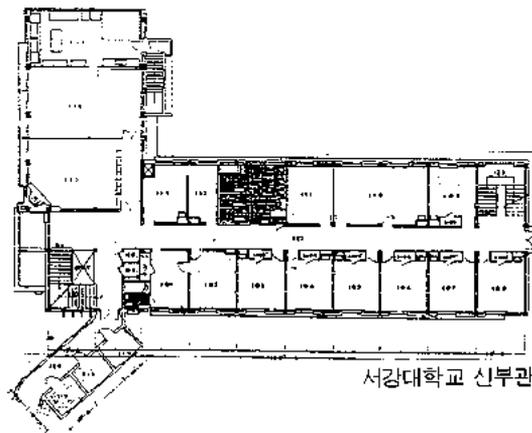
평면구성의 변화와 함께 건축의 입면 형태도 다양해지고 자유로와지는데, 우선 지붕형태가 훨씬 다양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당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었던 정면의 종탑이다. 종탑은 이희태의 건축에서 성당 전체의 일부-경주성당(1955),진해성당(1955)-나 독립된 탑-인천 송림동 성당(1954)-으로 조형요소로 자유로와지고 조형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입면은 '종탑(有無를 포함해서)', '지붕', '출입구', 그리고 주로 벽면을 구성하는 '창문' 등이 주요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우선 종탑의 형태를 분석하면, 이희태의 성당건축을 가장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로, 명수대성당에서 최초로 나타난다²⁸⁾.

종탑의 특징은 첫째, 종탑을 기하학적으로 디자인하였다는 것으로, 해화동 성당의 경우 정면에서의 비례관계는 약 1:2이다. 둘째는 종탑상부의 디자인인데, 상부는 창문과 같은 형식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있다. 구멍을 낸 형식은 기하학적으로 만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성당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그리고 진해성당이나 경주성당은 종탑의 모양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경주성당은 경사진 형식이 성벽을 연상시킨다. 이곳의 상부도 정사각형 모듈속에서 각방향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다. 마치 몬드리안의 구성을 보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셋째는 종탑의 부조로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데, 이 부조는 입면을 경건하게 한다. 이런식으로 종탑은 작가의 성당건축에 근대성과 명증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지붕형식으로 해화동 성당은 좀 특이한 형식을 하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박공형식인데, 외부에서 가벽 형식으로 지붕을 에워싸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지붕이 박공형식-다른 여타의 성당들은 박공형식으로 노출되어 있다.-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게



서강대학교 신부관



서강대학교 신부관 1층 평면도

23) 경주성당, 진해성당, 인천의 송림동성당 등에서 같은 형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송림동성당은 중축을 하면서 철거를 했다.

24) 불교는 우리나라에 뿌리내린지 오래된 종교로, 종교행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은 그 역사와 삶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신종교를 나타내는 기독교건축물들은 삶의 표현방식에서 모방하게 되었을 것이다.

25) 김정동, 건축가 이희태(대담:김정동), 꾸민 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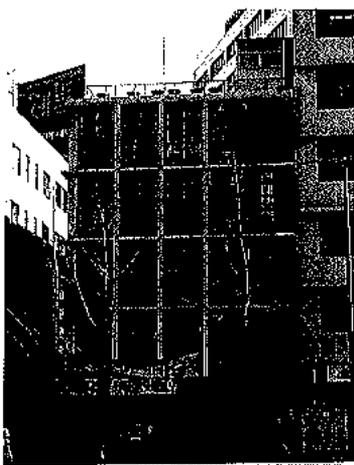
보축탑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 자가 스스로 '과격적인 발상'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26) 화계로 골조만 남아있지만 창문의 형태는 경주성당, 진해성당 등의 도면을 통해 상상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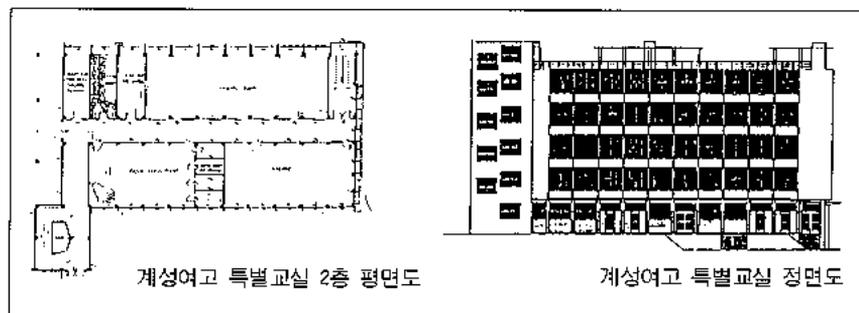
한다. 이 상부로 확장되어 올라간 벽은 성당의 본래의 크기보다 확장되어 보이게 하고 매우 근대적인 양식으로 느끼게 한다. 비례를 살펴보면 성당 출입면의 2배(입면 참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종탑과의 비례와 상관이 있었으리라고 보아진다. 출입구 형식은 이회태가 이미 경주성당이나 진해성당 등에서 사용했던 양식으로 출입문 앞에 전정(지붕으로 덮인 공간)을 두면서 쌍기둥-절두산 복자기념성당과 국립극장, 국악양성소 등에서 변형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작가의 건축어휘로 나타난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성당에서도 경사진 대지를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출입문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쌍기둥이 놓여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필요성 보다는 종교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마치 사찰건축을 들어갈때 그 절을 지키는 사천왕상이 서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벽면을 이루는 '창문형식'인데, 창의 요소는 천정의 바로 아래-보 밑에-에 위치하는 고창과 강당측면의 창, 그리고 제단 측면의 세로로 길게 세워진 창 등 3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창들은 각각의 비례를 말하고 있다. 송림동성당의 경우에는 고창과 측면창의 높이가 1:2의 비례를 갖고 있고, 측면창은 내부적으로 정사각형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경주성당²⁷⁾이나 다른 성당에서도 나타나는 관계이다. 이러한 정비례는 입면을 기하학적으로 보이게 하고 안정되어 보이게 한다. 즉 벽면은 장식이나 양식적인 상제는 없으나 격자창에 의한 입면 구성과 고창을 통해 내 외부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제단 옆의 길게 세워진 창은 구조적으로 뚫었다는 표현보다는 창대를 세우고 그사이를 유리로 끼어넣은 형상으로 당시 학교건축의 루바양식과 흡사한데, 출입구부분과 함께 양단으로 세워짐으로 해서 입면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3) 제동빌딩(1960)



제동빌딩



계성여고 특별교실 2층 평면도

계성여고 특별교실 정면도

사무소건축의 출현은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인 건축가의 등장²⁷⁾과 무관하지 않다. 1920년 회사령의 폐지는 한국인 기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자신들을 나타낼 건물의 디자이너로 한국인 건축가를 필요²⁸⁾로 했다. 1960년대의 사무소건축도 같은 맥락인 경제발전이라는 물질 도대 속에서 만들어 졌는데, 제동빌딩은 당시 현대인들의 삶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이 건물의 입면과 평면에서 '자유로움'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입면을 분석하면 전면이 전창으로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근대건축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미스의 '파빌리온'을 연상케한다. 물론 현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커튼월이나 전면창과는 다르지만 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처리된 것이 '커튼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입면은 스라브뚜께가 선으로 얽혀지고 나머지 창은 면으로 얽혀져 몬드리안의 '구상'을 연상케 하는 명징성과 투명성이 느껴져서, 데스틸의 디자인규범을 연상시킨 이러한 것은 구조재료와 표피재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근대적인 개념에서 출발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다시 평면에서도 명쾌하게 읽혀지는데, 기둥밖에 벽면이 위치하여 구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특히 계단실을 일자형으로 측면에 위치시킴으로써 입면의 명징성을 높이는데, 즉 계단창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측면이나 정면의 창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건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서 계단옆으로 넓은 복도(로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용면적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내부공간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면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건물내부에 깊이까지 끌어 들임으로써 전면에 비해 측면이 긴 건물의 내부공간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자계단이 끝나는 지점을 둥글게 처리함으로써 계단의 이용시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을 덜어주고 있다.

27) 송을,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3

28) 송을,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3

1. 개요 및 역사

암석이 많은 산기슭에 건축된 대성당은 타른(Tarn)강의 좌안 위로 우뚝 서 있어 전망이 매우 좋다. Rodez로 향하는 길로 가다보면 강에 가로 놓여 있는 다리의 끝에서 대성당의 전경을 볼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면 11세기에 건축한 “옛날다리(le pont vieux)”와 교회 참사회의 물레방아 그리고 대주교의 옛날 저택에 달린 정원의 방어공사를 한 두꺼운 벽이 보이고 타른강 쪽 내리막에는 모양이 다른 집들이 들어서 있으며 맨 끝에는 엄청나게 쌓아올린, 40m높이의 벽돌로 세워진 장식없는 간결한 벽과 건축물이 발산하고 있는 위력으로 처음보는 순간부터 방문객을 압도하는 대성당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니교와 유사하며 완화된 이원론을 주장했던 기독교의 이단종파로 12세기에 생긴 알비종파는 공식적인 가톨릭과 프랑스에서 왕의 통치를 반대했으며 1244년 어렵게 진압되었다. 십자군에 대항하였던 직후였기 때문에 가톨릭의 권위를 확실하게 만회해야만 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주교로서 또 영주로서 프랑스 종교재판소의 부판사였던 베르나르드 까스타네(Bernard de Castanet)는 하느님의 권위와 확고

한 신앙, 잘 근절되지 않는 이교인 카타리파에 대적하는 엄격한 정통성을 선포할 수 있는 대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다. 1265년 베르나르드 콩브레(Bernard de Combret)주교는 주교의 저택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1282년 베르나르드 까스타네(Bernard de Castanet)는 대성당 건축을 시작했다. 신앙은 때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증명된 직후였으므로 대성당은 가톨릭의 다시 찾은 권세와 힘의 상징이어야만 했다. 그래서 대성당은 성채처럼 구상되었다. 대성당은 서쪽의 소탑때문에 덜 육중해 보이며 두 탑은 고고하고도 방어적인 모습이다. Bernard de Castanet는 거의 무사와 같은 특색을 지닌 성당을 원했고 1383년 대 건축물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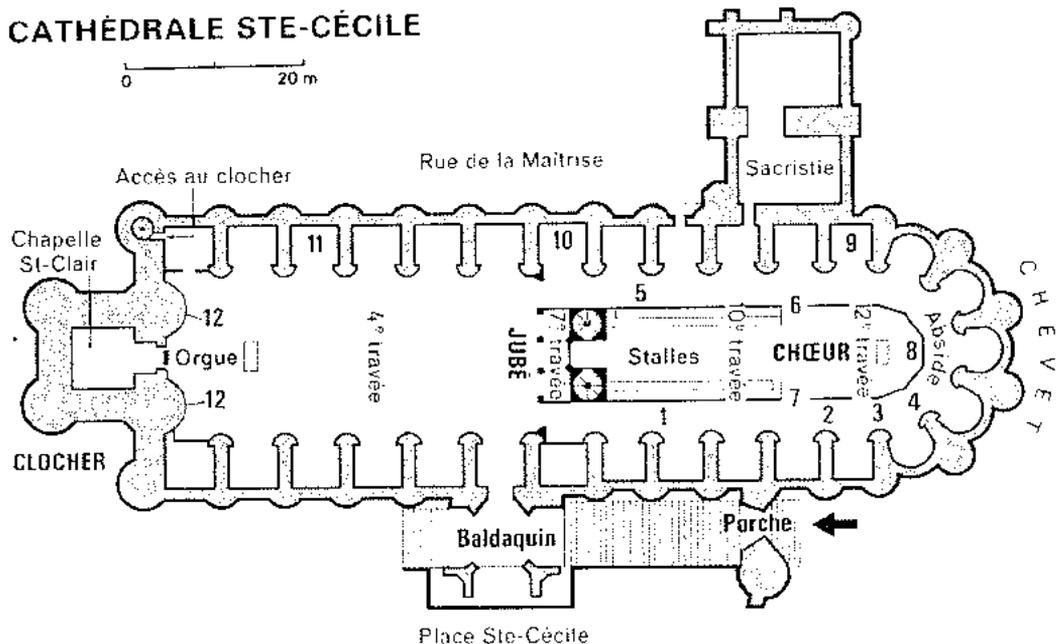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1)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ALBI의 Sainte Cecile 성당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CATHÉDRALE STE-CÉCILE



평면도

될 때까지 백년동안 그의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대를 이은 후임자들 역시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고 끝까지 이어 나가므로써 성공적으로 대성당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2. 외부

2-1 외벽과 창문

외벽을 중간 중간에 반원형으로 나오게 건축하여 경직된 느낌을 완화시켰고 이 반원형 부분들은 궁륭을 받치기 위해 내부에 연장되어 있다. 창문들은 밑에서부터 20m높이에 있으며 길고 좁다. 창문 홍예의 벽 처리는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15세기말 건물 내부를 더 밝게 하기 위해 벽돌을 제거하고 더 낮은 창문을 만들었다. 창문 위쪽에는 1851년부터 1857년 사이 Victor Pyanet가 제작한 흰색들의 석누조가 있다. 석누조의 위쪽 부분은 다른 곳보다 더 밝은 색의 벽돌로 처리를 하여 건물 둘레를 띠처럼 장식했다. 이 장식의 높이는 7m이며 중북된 아케이드 모양의 장식이 떠받치고 있는 순찰로로 마무리를 지었다.

2-2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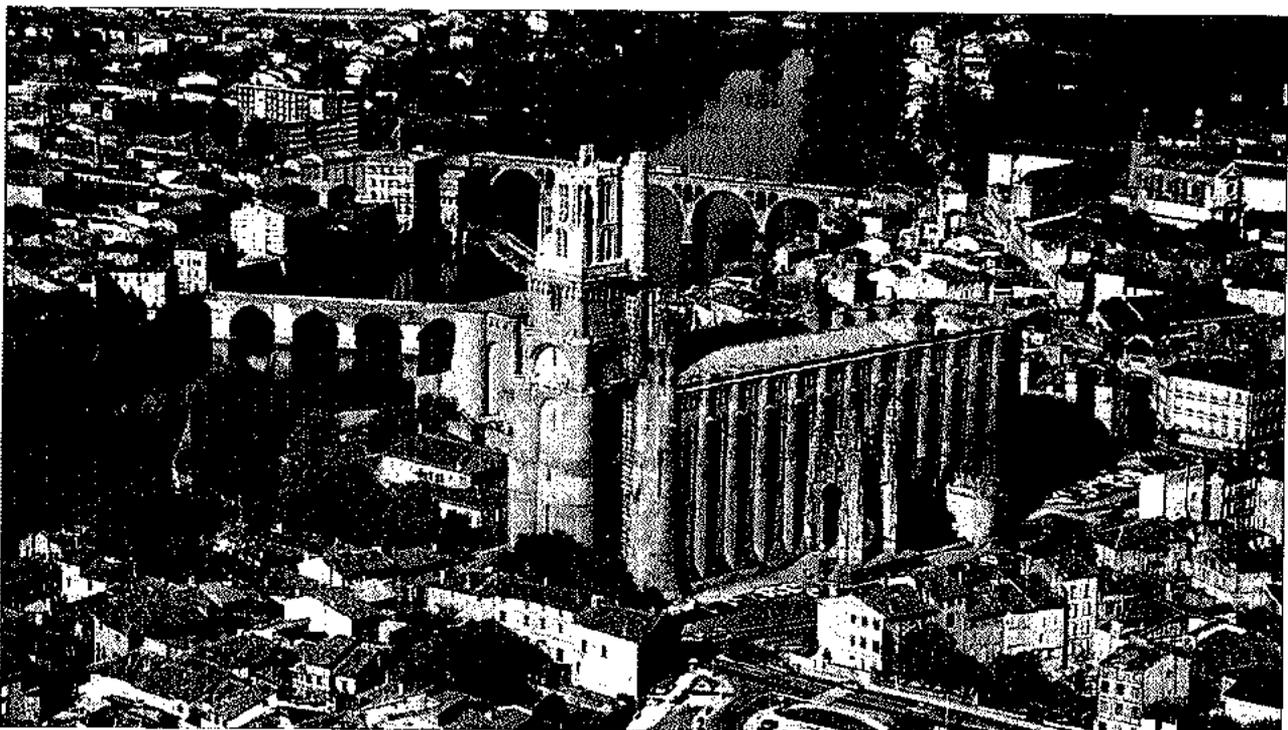
1849년 대성당을 복원한 Cesar Daly는 대 건축물의 꼭대기를 장식하고 지붕을 다시 만들기 위해 건물 윗부분을 높이 올리고자 했다. 그때까지 지붕은 창문의 위쪽에 툇 튀어나와 있었고 지붕의 하중이 궁륭의 홍예허리에 가해져 무너질 위험도 있었다. 건축가는 매우 가벼운 골조를 세우게 하여 아름다운 랑그독지방의 기와로 골조를 덮고 물이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개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공사로 작은 계단들에 물이 스며들어 그림들이 손상되었다.

2-3 종류

군데 군데 있는 작은 종루들로 인해 꼭대기 장식의 딱딱한 분위기가 경감되고 단조로움이 없다. 종루는 단단한 4개의 탑위에 얹혀 있으며 1485년부터 Louis lerd' Amboise가 건립한 3층으로 높이는 78m에 이른다. 정방형 탑 위의 첫번째 층의 서쪽은 두 소탑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나머지 세 층은 동쪽에 있는 두 소탑에 기대어 건축했다. 대 건축물의 특징적인 모습인 활모양으로 흰 윤곽은 여기서 기인한다. 50계단의 아래에 있는 문은 1392년에서 1410년 사이 Dominique de Florence가 건립했다. 오늘날에는 없어졌지만 대성당의 주변을 감시하던 위벽속에 출입구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계적인 기능으로 문의 꼭대기에는 총안과 적에게 들따위를 굴러 떨어뜨리기 위한 들출총안의 방어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며, 옛날에는 감옥으로 사용했던 탑이 문을 받치고 있다. Daly는 1865년에서 1870년 까지 5년간 문의 복원공사를 했으며 정문 상부의 아치와 합각벽의 조각을 다시 제작했다. 합각벽의 중간에는 마들렌느(Madeleine)성녀와 도미니끄 드 플로랑스(Dominique de Florence)에 둘러싸인 세실(Cecile)성녀가 있다. 물매지게 깎은 텅빈 벽감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상처를 볼 수 있다. 15세기 초에 매우 섬세하게 제작된 요한 성인의 입상만이 비어있는 벽감에 생기를 주고 있다. 상부 아치의 교차점에서 성모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축복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2-4 정문과 담집

주 입구는 남쪽 측면 가운데에 있다. 15세기 초에 건축된 문을 지나서 주 입구에 닿을 수 있다. 이 문은 오래된 방어탑과 대성당을 연결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완전히 돌로 제작된 담집 형태의 주 입구에 도달한다. 이 작품은 루이 1세(Louis ler d' Amboise)의 창의력에서 나왔다(1520년). 성당의 벽에 기대어 세워



성당 원경

진 단집은 돌로된 식물규으로 덮혀 있고 튼튼한 두기둥이 중심을 받쳐주고 있으며 단집의 삼면은 첨탑, 연결된 아치와 화려한 홍예로 되어있고 꽃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도 풍부한 장식은 정면의 수수한 벽들 배치와 매우 대조적이다. 구피에(Gouffier)와 뒤프라(Duprat)주교들의 문장에서 단집이 1535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자르 달리(Cesar Daly)가 복원한 대성당의 입구문은 세자르의 스타일을 많이 지니고 있어 합각벽은 육중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처리를 했고 단집의 궁륭은 뾰족 아치를 다양하게 이용했다. 그리고 입구 정문은 19세기에 행한 내공사 때 복원되었다. 이 대성당은 많은 벽돌을 사용해서 지은 흔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13세기에는 알비(albi)에서 돌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도로는 안전하지 못했으며 운반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른(Tarn)강가의 점토는 다량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 솜씨좋은 장인들은 신앙의 빛을 위해 이것을 이용하여 벽돌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2-5 성당의 규모 및 평면

1) 성당의 외부규모

- 건물전체의 길이:113.5m
- 건물전체의 폭:35m
- 벽의 높이:40m
- 아랫부분의 벽 두께:25m
- 종루의 높이:78m

2) 성당 내부규모

- 중앙회중석의 길이:97m
- 중앙회중석의 폭:19.2m
- 작은 제단들을 포함한 중앙회중석의 폭:28m
- 중앙회중석의 높이: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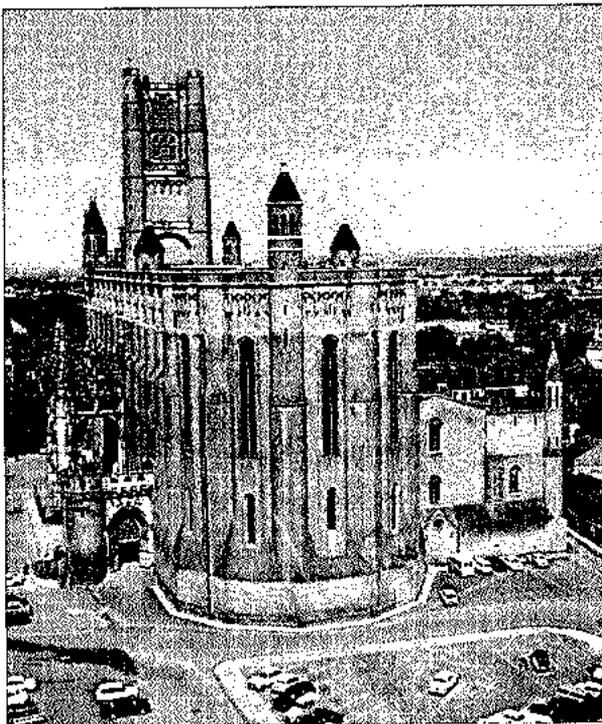
3. 내부

외부와 매우 대조적인 내부는 인상적이다. 건축재료의 붉은 색외에 다른 매력이라고는 별로 없는 견고한 벽만이 있는 외부에 비해 내부는 세심하게 공들인 흰색의 돌들이 곧게 뻗어 있고 신비스러움이 가득하며 흥미로움을 자아내는 공간과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색상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크게 다르다. 푸른 빛 천장의 안쪽은 넓고 성당의 후진은 다각형이다. 대형 파이프 오르간 아래에 중앙회중석이 있고 리브와 뾰족 아치, 대들보와 이어져 있는 두꺼운 벽위에 궁륭이 얹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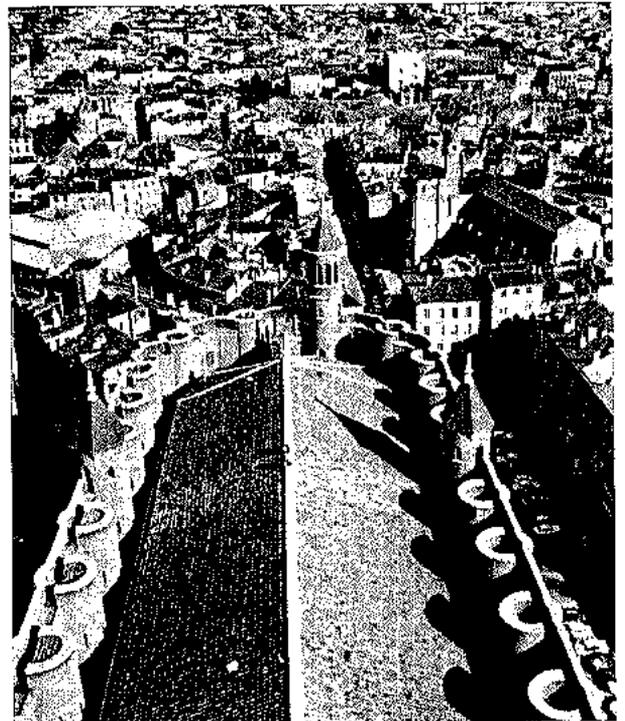
3-1.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

1480년 대성당을 축성했을 당시에 루이 1세 (Louis ler d'Amboise)는 높은 주랑으로 막힌 내진의 건립을 결정했으며 이 내진과 중앙 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은 말기의 플라브와이양 양식 예술의 기법사용으로 자주 레이스에 비유되고 있다. 내진과 중앙 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입구의 위쪽 궁륭 높은 십자고상의 뒤쪽입구에는 한손에는 휴대용 파이프 오르간, 다른 한손에는 순교의 종려나무 가지(순교의 영예를 의미한다)를 들고 앉아있는 세실(Cecile)성녀가 한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려한 금색 옷을 입고 구불구불한 머리는 화관으로 장식을 했으며 아래로 시선을 떨군 순진한 얼굴 표정이다. 음악의 수호성녀인 그녀는 천사들의 내진의 조용한 찬양을 주관하고 있다.

높은 주랑은 성서를 낭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석을 말한다. 성서를 낭독하기 전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이라는 축복을 구했다. 중세기에는 거의 모든 대성당에 내진과 중앙 회중석 사이에 높은 주랑이 있었으나 18세기에는 미사를 간편하게 하기위해 없애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



대성당 외부



대성당 지붕

다. 알비대성당은 이 주랑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존되었던 것이다. 마음을 사로 잡는 이 아름다움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옛날 채석장에서 나왔을 때의 부드러웠던 석회암을 이용하여 제작한 뛰어난 조각술과 금은 세공술에서 기인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연푸른 색과 붉은색 바탕위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섬세하고도 무한하게 다양한 모티프, 생생하고도 독창적인 장식은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문 아래 흥여머릿돌들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가운데는 세계의 출입구가 있는 문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출입구는 후진주위의 회랑과 통한다. 문의 위쪽에는 삼단으로 된 띠의 모티프가 가로로 뻗어 있다. 아래에서 위쪽을 보면 들쭉 찢어진 천장이 있는 뾰족아치들과 작은 난간들 가운데와 양쪽 끝이 연결된 아치로 되었고 나머지는 두조세공을 한 살문을 볼 수 있다. 성당내부의 아름다움은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वाद 같이 예술가의 지혜와 정신을 돌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 주랑에는 93점의 입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십자고상의 오른쪽에 성모마리아, 왼쪽에는 요한 성인의 나무 입상, 그 아래에 아담과 이브의 다색들 입상만이 남아 있다. 십자고상은 18세기의 작품이며 아름다운 천사는 15세기의 작품이다. 아담은 15세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아담의 의기양양한 모습과 이브의 우아함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어 있는 벽감위에는 성인들과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의 입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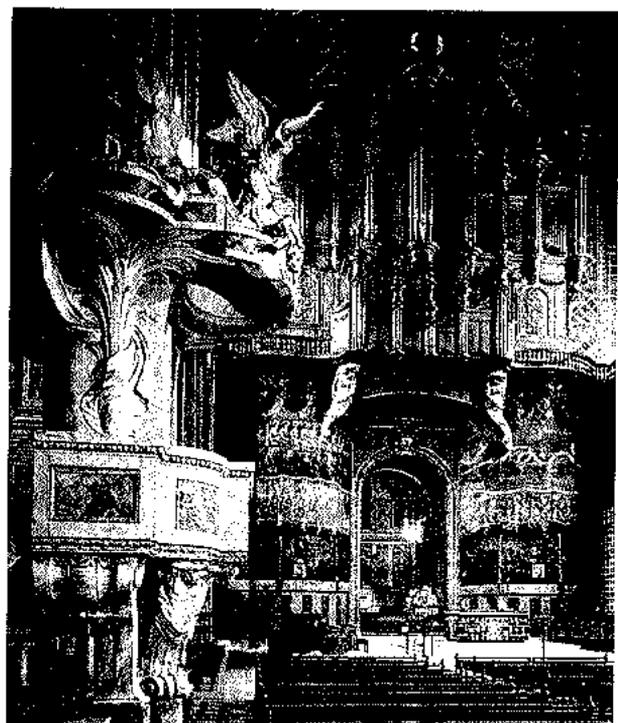
3-2 후진주위의 회랑

오른쪽 부터 내진을 돌아보면 내진 외부에는 구약성서의 인물들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기전 예언자들을 통해 인간들은 대대로 구원을 준비했다. 기다림(대림)과 소망의 시기였던 것이다. 내진과 중앙 회중

석 사이의 높은 주랑처럼 회랑 간막이는 순수하고 부드러운 돌로 만들어졌다. 가장 아름다운 다색들 입상으로는 중세기 말에 제작된 입상들을 들 수 있다. 이상한 옷을 걸친 인물들의 이름은 받침돌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들은 전언이나 예언이 씌여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문을 지나 몇 발자국을 가게 되면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에는 국왕의 왕기를 들고 무릎을 꿇은 한 천사가 성모마리아에게 "아베마리아(Ave Maria)"라고 말을 하고 있다. 가톨릭 의식에서 성모 마리아는 자주 새로운 이브(Eve Eva)로 불리워지는데 Eva를 꺼꾸로 하면 아베(Ave)가 된다. 문위쪽에는 성침괘 위에 손을 얹고 미소짓고 서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다. 아름다운 얼굴은 긴 머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녀는 천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의 태어남과 함께 오래된 약속은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첫번째의 잘못을 보상하는 새로운 이브가 되었다. 주위에는 구약 성서의 인물들 즉, 요나와 늑은 고행자의 얼굴을 한 에스드라 등이 있다. 가느다란 눈을 하고 매우 화려하게 옷을 입은 유닛은 신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녀의 얼굴뒤에 숨겨져 있는 신비는 홀로페르네스를 죽이고 그녀의 민족을 해방시킬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빛이 새어들 수 있게 된 내진 문밖의 자물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철물제조 장인의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문을 지나면 이상한 모자를 쓰고 단정한 주름옷을 입은 B.C 7세기의 유대의 12명의 예언자 중의 한사람인 소포니(Sophonie)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는 받을 정벌을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사야의 얼굴은 매우 인상적인 사실주의의 작품이다. 반쯤 감긴 눈꺼풀과 고통스러운 얼굴 등 그는 그의 민족의 고통을 그 자신이 지니고 있다. 그의 민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바참하게도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과 푸른 색조의 궁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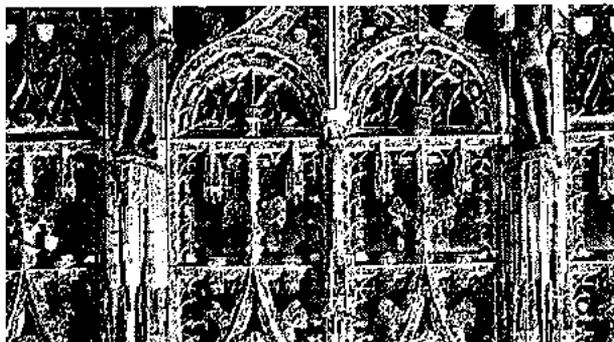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

그 옆에는 다가오는 빛을 향해 멀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예레미야가 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앙상한 얼굴은 근엄한 표정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입상은 걸작품으로서 예술가는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 예레미야의 몸에 꼭 맞는 드레이프(옷)은 표정과 잘 어울리며 특히 그의 눈은 살아 있는 것 같고 표현이 풍부한 자세는 펍 인상적이다. 내진의 뒤쪽에는 두 천사에 둘러싸인 시메온이 있다. 마리아가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할 때 그는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플것입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었다. 시메온의 왼쪽에 자카리가 있다. 그는 “아가, 너는 하늘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시메온의 오른쪽에는 야곱이 위엄있게 서 있으며 곁에는 하프를 들고 있는 유대 민족의 위대한 왕이었고 예수의 선조였던 다윗이 있는데 그는 시편의 시인으로 머리에는 둥근 챙없는 모자를 쓰고 있다. 한쪽으로 약간 기운 머리는 그가 받은 신비한 영감을 전하고 있는 것 같다. 다윗 다음에는 예언자 아모스가 있다. 유태의 목동이었던 그는 고관들과 세력가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위정자들의 부정함과 호사스러운 사치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느님의 힘이 그와 함께 있듯이 그는 매우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진에 들어가기전 조엘, 에제키엘, 요나의 입상이 있다. 우아한 얼굴을 한 에스델의 입상도 있다. 수줍은 그녀는 아has에로스왕에게 그녀의 민족을 위해 자비를 구하러 가서 왕앞에서 기절을 했다. 내진으로 통하는 북쪽문의 화려한 장식 한가운데 아름다운 천사가 있으며 투조세공을 한 담집과 예언자 왕들 이 모두는 돌로된 화려한 레이스속에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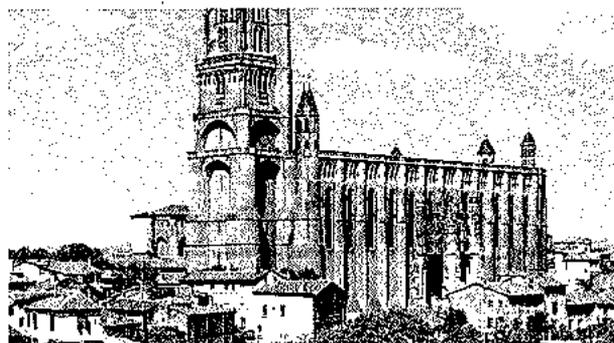
3-3 내진

내부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진은 매우 웅장하다. 회랑간막이는 회반죽의 연결형 광호 아치로 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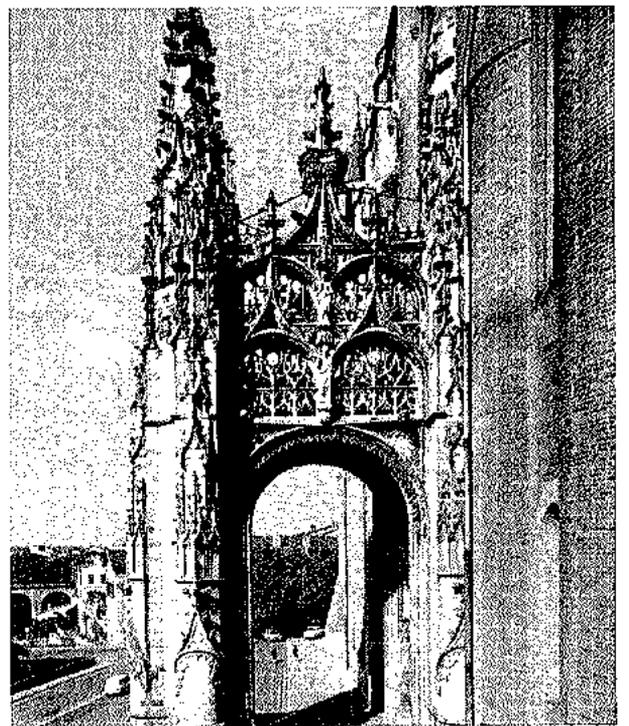
으며 이 아치들을 나누고 있는 각각의 기둥에는 구약 성서의 인물을 나타내는 입상이 있다. 이 입상들의 조상술을 보면 고딕양식의 자연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의 사실적인 묘사와 약간 무거운듯한 옷의 주름, 인물들의 땅딸막한 외모 등에서 부르고뉴 지방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특히 궁륭의 금빛, 푸른빛, 그림과 조각속의 인물들이 들고있는 두루마리를 펼친 모양의 띠와 문장들, 어린 천사들의 포동포동한 얼굴, 이 모든 것은 신앙이 바탕이 된 예술의 엄청난 힘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성당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눈에 들어온 장식없는 수수한 건축물은 구약성서의 무서운 하느님, 시나이의 하느님을 상기시켰으나 여기서는 “가슴에 와 닿는” 하느님, 부활의 하느님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아름다움은 화려한 금과 레이스의 시편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다. 제단뒤 상석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다. 오른쪽에는 바오로, 왼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다. 양쪽으로 가면서 대부분 머리를 풀고 맨발인 열두제자들이 한손에 두루마리를 들고있다. 각각의 두루마리에는 사도신경의 짧은 문귀가 적혀 있다. 이미 내진의 외부에서 정묘하게 표현된 예언자들을 감상했지만 내부의 예언자들은 사도신경을 알리고 확고하게 하도록 준비했다. 오른쪽에 있는 베드로 성인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라는 문구를 들고 있고 기둥의 다른 쪽에는 예레미야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께 구원을 빌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있다. 인물들 각각을 대조해 본다면 옛법과 새로운 법 사이의 대화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구약은 신약을 준비했다.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구원의 문제 즉 알리고 준비하고 마침내 인간들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으로써 실현되었던 문제가 예술적인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어 있다. 순례자의



아담과 이브의 다색 입상



대성당 외부



담집

큰 외투와 넓직한 모자를 쓴 자끄(Jeques)성인을 볼 수 있다. 그의 옷에 있는 수많은 조개껍질 때문에 쉽게 그를 알아볼 수 있다. 콩포스텔(Compostelle)로 가는 길에서는 이 조개껍질들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교좌 바로 가까이 독선적인 늙은이의 얼굴을 한 유다가 있는데 형벌의 도구였던 톱을 들고 있다. 뒤통으로 몇발자국을 더가면 성모 마리아와 바오로성인을 지나게 된다. 또 십자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드레아 성인이 있고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있다. 예술가는 신의 뜻을 아름다움과 섬세함속에 표현하려고 했다. 요한의 한손은 축복을 하고있고 다른 한손은 두꺼비와 뱀이 나오는 독이 든 잔을 들고있다. 그의 발에는 상징적인 독수리가 있다. 토마, 순교의 칼을 쥐고있는 바르텔레미(Barthelemy)와 시몬(Simon)이 있다. 주 제단 주위에 성모 마리아와 사도들이 모여 있으며 그리스도는 새롭고 영원한 창조의 중심처럼 보인다. 1483년 루이 1세(Louis Ier d'Amboise)가 파리의 금은 세공사에게 주문을 해서 만들었던 은과 청동으로된 제대를 무거운 청동의 가지 달린 촛대가 갖추어진 현대리석 탁자로 비교적 최근에 바꾸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제대를 화폐와 대포로 만들었다. 제단의 오른쪽 조그만 탁자위에는 18세기에 제작이 된 촛대가 있는 향아리 모양의 감실이 있다. 내진의 서쪽 부분을 향해 내려오면 왼쪽에는 모방할 수 없는 보배인 주교좌가 있다. 8개에 달하는 뾰족탑은 섬세하고 우아하기 이룰데 없어 보이는 이를 감탄케한다. 가운데에는 동물들과 작은 입상들 그리고 앙부와즈(Amboise)가의 방패꼴의 가문들이 섞여있다. 내진에는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성직자석이 120석이 있다. 성직자석의 위쪽으로는 돌에 색칠한 번화무쌍한 아라베스크 무늬 가운데 70개의 작은 천사 입상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천사들은 방패꼴의 문장이나 두루마리를 펼친 모양의 띠, 여러가지 도구

들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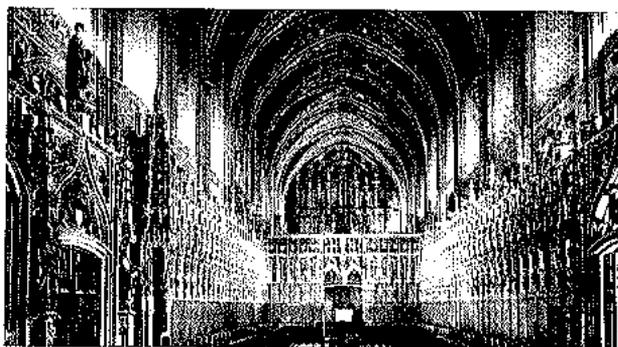
3-4 내진의 입상 상세

내진내에 있는 입상들을 평면에 외거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유딧(1), 예언자(2), 이사야(3), 예레미야(4)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에스더(5)의 입상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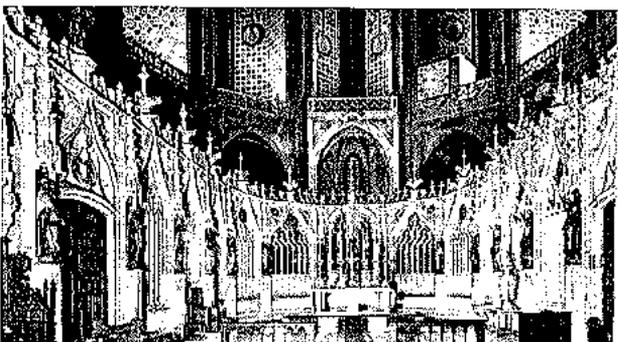
내진의 내부에는 샤를 대제(6)와 콘스탄틴 대제(7)의 입상이 양 측면의 문 위쪽에 있다. 내진 가운데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안고있는 성모 마리아(8)"가 있고 양측의 기둥에 열두제자들이 있다. 주 제단의 앞쪽에 아름답게 조각한 성직자석이 두 줄로 놓여 있다. 성직자석 위쪽으로 어린 천사들이 있는 장식띠가 아라베스크 무늬로 색칠한 돌위에 부각되어 있다. 후진에 있는 높은 창 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4세기에 제작되었으며 19세기에 복원되었다. 측면에 있는 작은 제단들도 매우 흥미롭다. 내진의 북쪽 입구(10)에 있는 "크로와 성녀의 작은 제단"(9)에는 16세기의 성가족 그림이 있으며 "로스리오의 작은 제단"(11)에는 시엔나 학파의 세폭 병풍이 있다.

3-5 궁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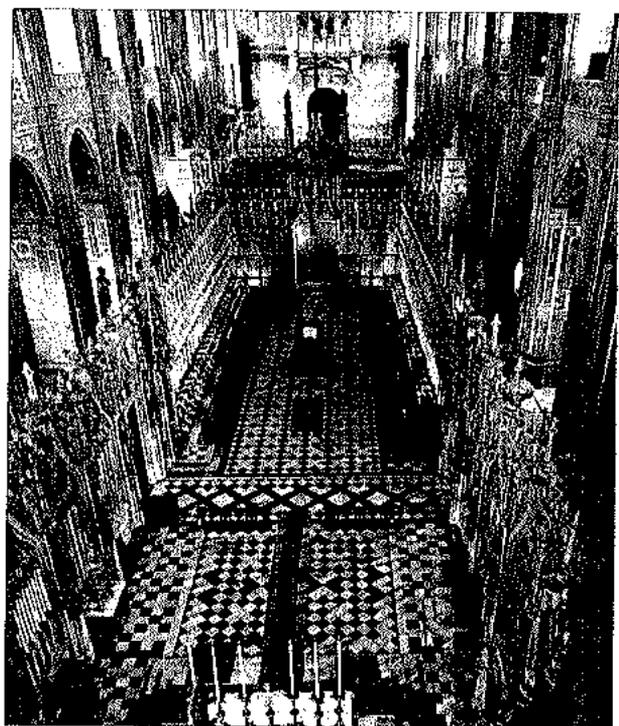
이 궁륭은 모든 색과 빛의 거대한 벽화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탈리아의 도시인 불로냐의 화가들이 극히 짧은 시간동안(1509-1512)에 그린 것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다시 손질하지 않았다. 궁륭의 색은 선명하면서도 빛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금색과 푸른색의 바탕 위에 흰색과 회색의 당초무늬, 두드러진 금색으로 전개된 아라베스크 무늬의 숲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궁륭은 구약성서의 인물들과 많은 성인들로 장식했다. 대부분의 고딕양식의 건축물에서 정문 합각벽의 조각들 즉, 예수의 탄생, 성령강림, 마지막 심판 등은 그리스도교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알비 대성당에서 화가들은 영광에 둘러싸인 그리스도, 승리의



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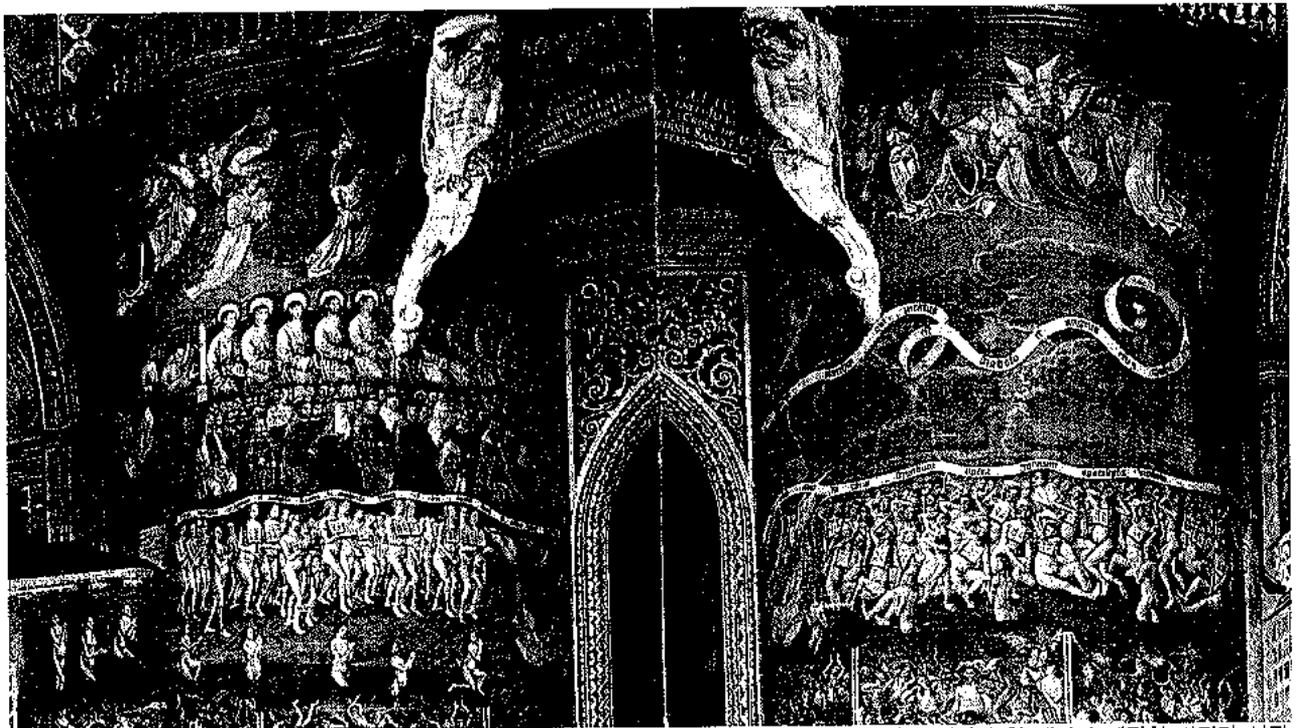
주제단



내진

성모 마리아, 성인 성녀들, 선택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들 등 성당 내부에도 이미지가 풍부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후진에는 다채로운 색조로 이루어진 빛의 천국이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는 위엄있게 손을 들고 있다. 그는 천사, 독수리, 사자, 황소 이렇게 상징적인 형상을 한 4명의 복음사에게 둘러싸여 있다. 발코니에는 박식한 복음 주해자인 제롬(Jerome), 오귀스탱(Augustin), 앙브로와즈(Ambroise), 그레고와르 르 그랑(Gregoire le Grand)이 있다. 그들의 발아래에 원죄의 장본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다시 구원된 아담과 이브가 있다. 궁륭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이 열둘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공간에는 오목한 삼각형면이 넷씩 있다. 여기서 원근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술가들이 극복해야했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열 두 공간 가운데 두번째 공간은 여성들의 얼굴로 힘, 정의, 절제와 신중함을 상기시킨다. 종루에서부터 네번째 공간은 주목할만 하다. 서쪽에는 그리스도가 토마에게 그의 상처를 보이고 있고 동쪽에는 예수의 현성용이 있다. 좀더가면 그리스도가 왕관을 씌어준 마리아와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그들의 황홀한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의 가족도 볼 수 있다. 요아킴(Joachim)과 안느(Anne), 요셉, 세례자 요한 등이 있으며 조금 멀리 일곱번째 공간 서쪽에는 세실(Cecile) 성녀가 있다. 세실(Cecile) 성녀는 그의 남편 발레리앙(Valerien)과 시동생 티뷔르스(Tiburce)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편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을 신에게 귀의시켰다. 동쪽에는 성모 영보가 있다. 그리고 열번째 공간은 가장 풍부하게 장식을 했다. 서쪽에는 현명한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가 있고 동쪽에는 그리스도가 빛속에 싸여 성모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우고 있다. 후진쪽에 있는 열두번째 공간에는 양결에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는 그리스도가 상징적인 4대 복음사 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외에도 몇몇 인물들이 방문객의 시선을 끈다. 또한 음악을 의인화시켜 한 천사가 송풍장치를 움직이게 하고 젊은 여인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다. 음악가들의 수호 성녀에게 봉헌된 대성당에는 음악을 위해 상석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아홉번째 공간에서는 의심 많은 토마를 볼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상처속에 손을대고 있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영광속에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무수한 군중, 그리스도의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성인 성녀들 등 낙원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신교회(현세에서 악을 극복한 천상의 성자들)의 시기이고 영원한 승리의 순간이다. 그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이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은 커지고 있다. 내진을 지나 문을 넘으면 콘스탄틴과 샤를대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후진 주위의 화랑속을 먼저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보면 왼쪽에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벽화가 있다. 조금 더 가면 콘스탄틴 대제와 엘렌느(Helene)성녀의 이야기를 그린 “크로와(Croix)성녀의 작은 제단”이 있다. 분묘용의 작은 굴에는 세바스티앙(Sebastien) 성인의 아름다운 입상이 있다. 계속가면 “미셸(Michel) 성인의 작은 제단”이 있으며 이곳의 궁륭은 낙원의 새들과 이상한 짐승들로 장식을 했다. 후진에는 마리 마죄르(Marie Majeure) 성녀의 작은 제단이 있다. 18세기에 복원이 되었고 베르니스(Bernis) 추기경이 로마에서 보내온 네 점의 그림이 아직도 있다. 계속 가면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의 작은 제단, 자끄와 디오클레리앙 성인의 작은 제단, 마들렌느와 까뜨린느 성녀의 작은 제단, 로랑과 블레즈 성인의 작은 제단이 있다. 로랑과 블레즈의 작은 제단은 작고한 대주교들의 작은 제단으로 이곳에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전한 15세기의 머



1480년 중세기의 한 대가가 제작한 마지막 심판

리에 가지관을 쓴 예수의 상이 있다.

3-6 마지막 심판(평면도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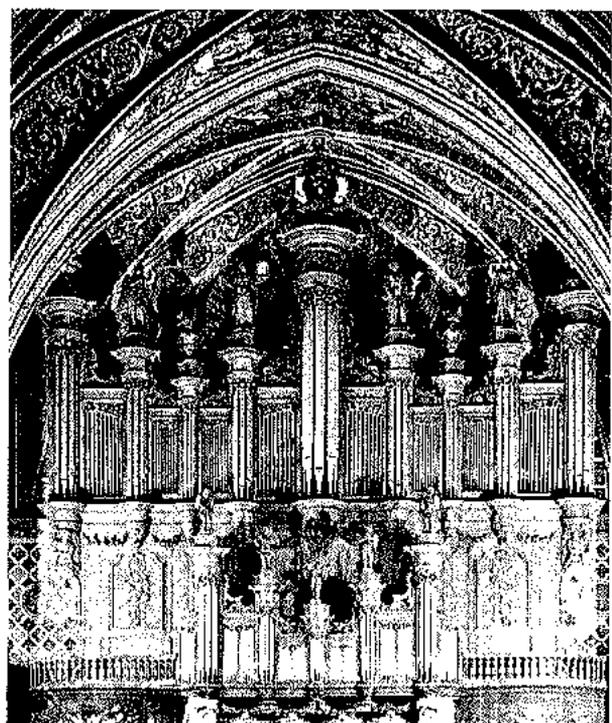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대형 파이프 오르간 아래의 서쪽벽을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다. 불행하게도 1693년 클레르 성인의 작은 제단을 종루 아래쪽에 만들면서 그림의 가운데 부분 특히, 그리스도의 얼굴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림의 수법은 물감을 계란 노른자와 풀에 타서 사용하는 데트랑프화의 기법을 이용했다. 작품이 그려진 벽돌벽에 빛이 작용하여 경쾌하고도 명료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대성당의 정면에 마지막 심판이 조각되어 있으나 이 벽화는 서쪽 정면에 조각이 없는 것을 보충하고 있다.

성당 제대쪽의 이 거대한 그림은 세 부분의 가로 모티브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략적으로 그 뜻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맨 윗부분은 천사들의 모임인 천국을 나타내는 가운데 부분에서 없어진 그리스도의 오른쪽(관람자의 왼쪽) 맨 윗줄에는 흰옷을 입고 금빛 후광으로 둘러싸인 사도들인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그 아래부분에는 이미 천국에서 심판을 받고 입장이 허락된 모든 성인들이 있으며 세번째 줄에서는 선택되어 새로이 부활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향해 서 있는데 그들 앞에서는 일생의 책이 열린 채 있음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관람자의 오른쪽 그림에는 저주받은 이들이 어두운 지옥속에서 버둥거리고 있으며 빈 공간은 저지른 죄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느님과의 단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맨 아래 세번째부분 모티브는 일곱가지 대죄와 관계되는 징벌을 받는 지옥을 묘사했다. 깨어난 자들이 받는 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삭제되었다. 악이 사람들의 삶을 타락시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왼쪽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거만한 자들, 시기심 많은 자들, 성 잘내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자들, 게걸스러운 자들과 음란한 자들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마지막 심판”앞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고는 대성당은 떠날 수가 없다. 이 그림은 종루를 받치고 있는 두 큰탑의 내부면을 메우고 있다. 내진과 중앙 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이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계시한 창조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이곳은 인간 각자의 개인적인 운명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첨언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예술가는 마태오 복음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영광에 싸여 올 것이다” 파이프오르간의 난간 아래에 천사들이 모여 있다. 불행하게도 17세기말부터 하느님이 없다. 그림의 가운데는 크고 쓸모없는 공간이며 영감과 상상을 비교하므로써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의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두루마리를 펼친 보양의 흰색 띠 아래에 트롬펫 소리에 잠을 깬 여자, 남자들이 땅에서 부터 일어나고 있다. 왼쪽 그림의 사람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오른쪽 그림의 사람들은 두 팔을 벌린 채 땅에서 솟아오르듯 나오고 있다. “그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 때 그는 그의 오른쪽(관람자의 왼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오라고 할 것이다.” 그들의 평온함과 차분함을 살펴보자. 그들 가슴위의 일생의 책은 그들의 자선 사업을 증거하고 있다. 왼쪽은 벌받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성한 이들은 하늘(천국)로 간다. 두루마리를 펼친 모양의 흰색 띠 위에 있는 천국은 열두 사도들이 가지런하게 있는 줄로 표현했다. 열두 사도들은 모두 흰색 옷을 입고 머리주위에는 영광스러운 후광으로 싸여 있으며 붉은 등판이 있는 의자위에 배



후진의 남쪽



대형 파이프오르간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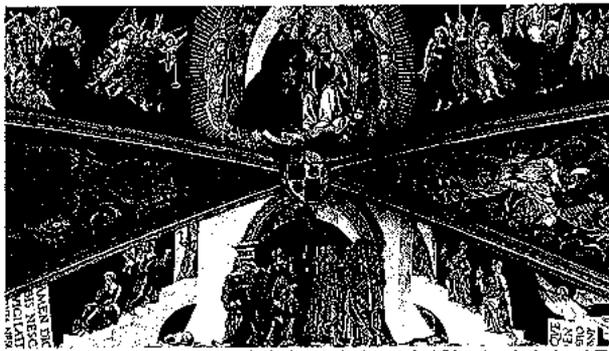
석자들처럼 앉아있다. 천국은 이미 밀집한 군중으로 가득차 있고 첫째줄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샤를대제, 루이 성인, 블랑슈 드 까스티유(Blanche de Castille), 이상한 얼굴, 수도사들, 수녀들을 볼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의 전형으로 천국을 상상했다.

그는 왼편(관람자의 오른쪽)의 사람들에게 “이 저 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말할 것이다. 왼쪽 맨 아래 오일어(중세에 르와르강 이북에서 사용되던 말)로 된 글은 보는 이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위쪽의 그림들은 일곱가지 대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는 징벌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즉 각각의 모티브는 지옥을 나타낸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자세히 보면 거만한 자들이 받는 고통, 시기심 많은 자들이 받는 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받는 벌을 표현하고 있다. 게으른 자들이 받는 벌, 탐욕스러운 자와 재갈스러운 자들의 징벌 그리고 끝으로 음란한 자들의 형벌이 묘사되고 있다. 각 부분의 아래쪽에는 설명이 있다. 사실적인 장면, 잔인한 고통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악마를 정묘하게 묘사한 것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조화된 구성이나 고색창연한 색상의 명암 조절은 감탄할 만하다. 가로 18m 세로 10m인 이 벽화는 매우 인상적이다. 벽들이면서 불룩하고도 불균형한 면에 그림을 그리고 칠하는 어려움을 극복한 예술가의 솜씨는 가히 천재적이다. 뿔은 가루, 풀, 지방질과 계란 노른자로 제작한 이 벽화에는 서명이 없다. 어쨌든 알려지지 않은 이 화가는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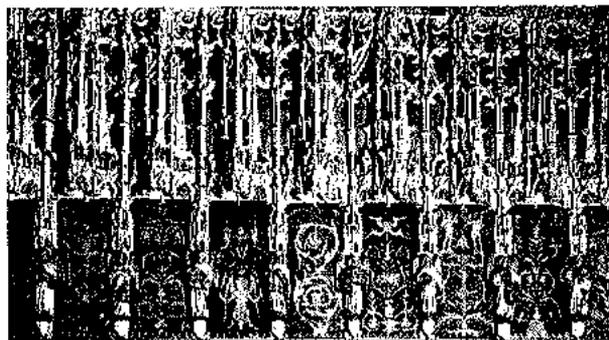
3-7 대형 파이프 오르간

궁륭과 마지막 심판 사이에 조화롭게 삽입되어 있는 대형 파이프오르간의 틀은 대성당의 안쪽을 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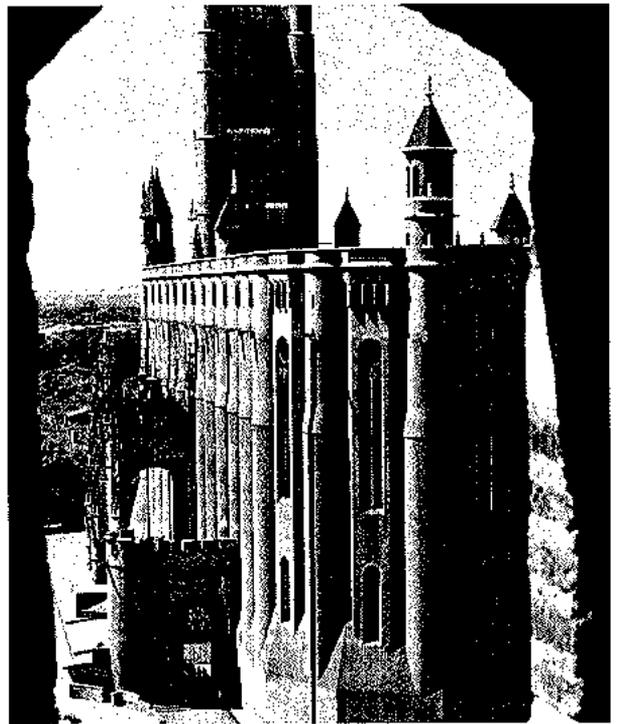
하게 장식하고 있다. 난간은 수수하고도 절도 있는 악투에 연결되어 있다. 1734년에서 1736년까지 크리스토프 무슈렐(Christophe Mouchere)이 제작한 작품이다. 아래면에는 5개의 작은 탑이 있고 각각의 탑 위에는 악마천사가 있다. 길이 16.4m 높이 15.6m인 이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프랑스에서 가장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에 속한다. 손 건반과 페달 건반은 1747년 이에 핀느(Iepine)와 1777년 이스나르(Isnard)가 제작했다. 대형 파이프 오르간 아래에는 1980년 봉헌된 장 폴 프로와드보(Jean-Paul Froidvaux)가 제작한 검정대리석의 주제단이 있다. 주 제단의 뒷면에는 세실 성녀가, 나머지 세면에는 포도나무가 매우 강렬한 색채의 범람으로 장식되어 있다. 제단주위 전체에는 성체 성사의 신비를 상기시키는 마태복음의 구절들이 있다. 종루 아래에 클레르(Claire) 성인의 작은 제단이 있다. 현재는 성체의 작은 제단으로 사용되며 명상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작은 파이프 오르간 다음에 있는 로사리오(목주)의 작은 제단 속에는 장식 병풍이 있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모마리아는 꽃이 점점이 있는 짙은 푸른색의 낙낙한 외투를 입고 보석이 박힌 브로우치로 가슴을 여미고 있다. 성모마리아의 매우 가느다란 손가락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붙들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한 의자의 왼쪽 발치에서 1345라는 년도를 읽을 수 있다. 왼쪽 모티브에는 마리아의 일생을 묘사 했으며(성모영보, 성탄, 동방박사들의 경배, 성모 승천) 아래쪽 모티브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묘사했다. (최후의 만찬, 유다의 배신, 채찍질을 당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그림의 근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14세기 시엔나학파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단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태두리에 사용한 쿠파문자(회교기원 4세기 이전의 아라비아 문자)와 대다수 인물들의 윤곽이 아랍인을 닮은 것으로 보아 스페인계 회교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이탈리아



궁륭의 세부 - 성모마리아의 대관식과 현명한 열 처녀의 비유



내전의 성직자석 위쪽 부분



성당 외부

아인 마제티(Mazetti)와 마데르니(Mederni)가 1776년 제작한 설교단은 이 장식에서 쓸데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매우 인상적이며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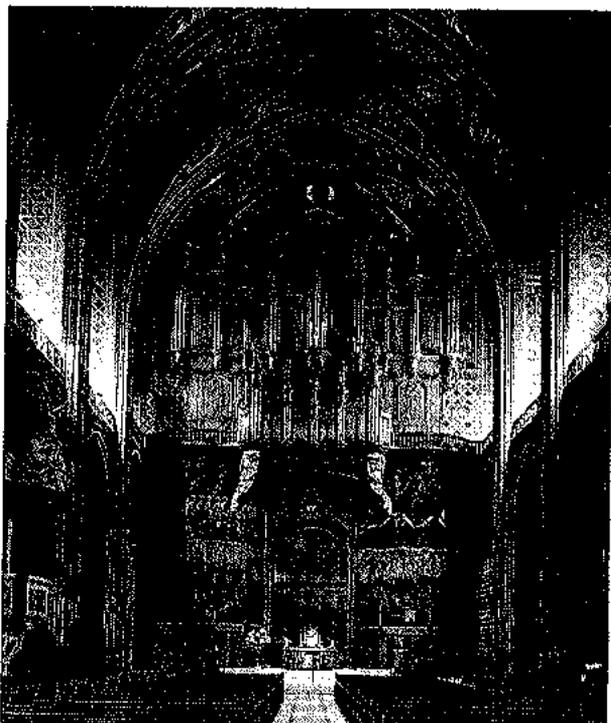
4. 뱃음말

ALBI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붉은 색의 거대한 대성당은 정도로 40m 높이로 세워진 장식없이 간결한 벽과 건축물이 발산하고 있는 위력으로 처음보는 순간부터 방문객의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압도하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고딕식 성당은 석재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건축되어 이러한 건물과 재료, 그리고 색채에 익숙한 방문객에게는 경이롭게 보여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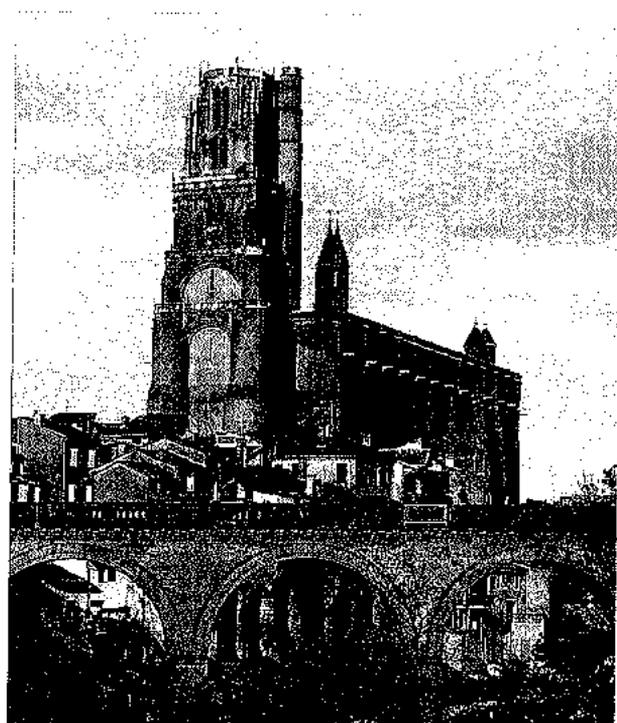
사실 대성당은 건축재료의 붉은색 외에 다른 매력이라고는 별로 없는 견고한 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벽을 중간 중간에 반원형으로 나오게 건축하여 경직된 느낌을 완화시켰고 이 반원형 부분들은 궁륭을 받치기 위해 내부로 연장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군데군데 있는 작은 종루들로 인해 꼭대기 장식의 딱딱한 분위기가 경감되고 단조로움을 없게 하였다. 아울러 합각벽은 육중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처리를 했고 단집의 궁륭은 뾰족 아치를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반면에 내부는 매우 웅장하고 좌우익량이 없으며 거대한 첨두형 궁륭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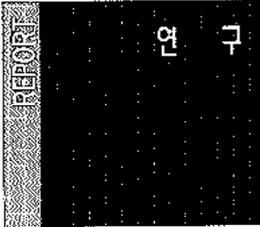
세심하게 공들인 흰색의 돌들이 곧게 뻗어 있고 신비스러움과 흥미로움을 자아내는 공간과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색상으로 가득차 있어 외부와는 전혀다른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것은 궁륭을 금색과 푸른색의 바탕위에 전개된 아라베스크 무늬의 숲으로 이루어지게하여 선명한 가운데 색조가 나오게 하였으며 또한 성당의 벽에 기대어 세워진 단집은 돌로 된 식물군으로 덮였고 튼튼한 두 기둥이 중심을 받치게 하고 단집의 삼면을 첨탑, 연결된 아치와 화려한 홍예로 설계하여 여기에 꽃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은 말기의 플라브와이양 양식 예술의 기법을 사용하여 레이스로 비유될 정도로 아름답게 하였으며 물감을 계란 노른자와 풀에 타는 데트랑프화의 기법으로 그린 클레르성인의 작은 제단 그림은 벽돌벽에 빛이 작용하여 경쾌하고도 병묘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였다. 아울러 성당내의 입상들의 조상술은 고딕양식의 자연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궁륭과 마지막 심판 사이에 조화롭게 삽입되어 있는 대형 파이프오르간의 틀은 대성당의 안쪽을 웅장하게 장식하고 있어 건축과 예술, 모든 조화가 알비성당의 신비를 나타내는데 한치의 손색도 없어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성당의 내, 외부외에도 주제단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종루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타른(Tarn)강 계곡과 근처의 전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내진



대성당 외부



2.4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건축가

도시에 대한 건축가들의 역할과 건축가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중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계몽주의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시기 이후로 보는 것이 좋겠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고 있을 즈음에 근대건축국제회의(CIAM)⁸⁾의 선언과 활동은 당시로서는 도시건축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925년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이 활동은 당시의 스템화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와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은 인간성, 지역성 등을 상실케하고 획일적인 개발로 도시의 성격과 구조를 파괴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 후 1962년경 결성된 팀텐(Team 10)¹⁰⁾의 활동과 선언은 파괴되어 가는 도시조직을 회복시켜보려는 젊은 건축가들의 시도로 그 결성의의를 찾아 볼수 있다. 코르뷔제(Le Corbusier)는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1930)를 제안하였으며, 옹거스(OM Ungers)는 '새로운 건축에 관하여'를 통하여 기능주의 건물에 대한 비판과 도시공간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도시에 대한 선언과 비전을 제시한 솔레리(Paolo Soleri), 아키그램(Archigram)등의 건축가 또는 건축가그룹은 미래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하였고, 독시아디스(C.A. Doxiadis)의 에키스틱스(Ekistics)¹¹⁾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구조물 등의 성격과 관계를 규명하고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를 통하여 도시의 구성요소를 언어로서 분석하고 재조합하여 도시에 적용하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¹²⁾ 크리에(Rob Krier)는 도시조직을 통하여 재발견하고, 파괴된 도시공간(urban space)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회복시키고 창출해 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¹³⁾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3)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黃鏞周/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o

이렇듯 도시를 진단하고 해석하며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도시건축에 대한 제안과 선언과 처방을 시도한 많은 건축가들의 노력은 근대건축운동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건축가들의 제안과 시도가 기존의 도시 성격과 조직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활력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이 있다. 니마이어(Oscar Niemeyer)가 설계한 브라질리아 신도시계획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많은 실패사례에 위축되어 우리 건축가들은 이제 도시에 대한 제안과 선언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러한 실패를 우리 마저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난립상태의 도시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

8) 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 근대 건축운동으로 Walter Gropius, Le Corbusier, S.Giedion, M.Breuer 등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한 근대 건축국제회의(1925-1956)

9)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703쪽

10) 1962, CIAM에서 활동하던 젊은건축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됨

11) 인간의 정주공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Ekistics의 그리스어인 Oikos로서 'setting down'(인간정주)의 의미를 지님.

12) Christopher Alexander, The Timeless Way of Building(Vol. 1), A Pattern Language(Vol. 2), The Oregon Experiment(Vol. 3)

13) Rob Krier, Urban Space

라고 내 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이미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를 생각하고 해석한 것과 같이 보다 영역을 넓혀서 도시를 건축과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서 해석하여 도시성을 회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농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도시로 몰려들어 삼시간에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 지난 3~40년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다. 토지와 함께 삶을 꾸려온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이제 도시에서 오갈데 없는 미아가 되어 떠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서구의 도시문화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아무런 여과없이 밀려드는 가운데 우리의 도시는 크게 다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농촌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는 폭발하듯 확장되고 엄청난 양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터도, 쉬는곳도 늘어나고 부정적인 도시시설도 생겨났다. 혼잡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쾌락을 부추리는 다른 매력이 도시에는 가득차게 되었다.

세계의 도시인들이 뉴욕을 선호하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교통, 공해, 소음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의 불쾌함때문에 도시에 사는 일이 힘들다고는 하여도 도시는 도시대로의 분위기와 문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는 일터와 집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의 발산지로서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도시의 속성을 이해하고, 도시적 삶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건축가의 몫이다. '하나의 건물은 작은 도시이며 하나의 도시는 커다란 건물이다.' 라고 말한 알도 반 아이크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건물이 보여 결국 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에 엄청난 양의 건축물이 세워졌을 뿐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도시의 환경개선은 건축가가 선도하여 나가야 할 영역이다. 더이상 경제행위의 수단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문화와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건축을 세워야 한다.

80년대 우리는 올림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환경성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문화의 중심으로 재 창조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배양된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을 살리고 우리의 도시적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 분야는 디자인 산업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도시설계디자이너,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5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일본은 전세계의 제

일선에서 활약하는 이른바 '스타' 건축가들의 설계 경연장이 되고 있다. 거품경제의 영향탓도 있지만 특히 상업건축과 업무시설의 설계에 수많은 외국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진출하였고, 일본은 일본대로 이들의 진출을 다가올 국제개방을 대비하여 충격을 줄이는 완충적인 과정으로 삼았다. 오사카 칸사이(關西)공항을 맡은 피아노(R.Piano), 센추리빌딩의 포스터(N.Foster)를 비롯하여 루시(A.Rossi), 벨리니(M.Bellini) 등의 유럽건축가, 그레이브스(M.Graves), 홀(S.Holl), 게리(F.Gehry) 등의 미국 건축가들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참가하여 도시의 이곳 저곳에 그들의 문화를 심어놓고 있다. 물론 대규모의 공업 단지나 토목시설의 기술적인 분야에는 전문엔지니어링 회사가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건축은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가들의 영역이다.

진출하는 것은 외국의 건축가 뿐 아니라 탄계(丹下健三)나 쿠로카와(黒川紀章), 이소자키(磯崎新), 마키(槇文彦)와 안도(安藤忠雄)와 같은 일본의 대표건축가들도 일본 정부와 현지 문화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의 문화시설에 일본의 디자인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도 21세기의 세계 건축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 사상이거나 일방적인 저자세가 아닌 상태에서 외국건축가와 활발한 교류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건축사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리더건축가 집단을 형성하는데 관, 민 모두가 힘을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일변도 이거나 물량을 동원하는 '건설' 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문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3. 사회와 건축

건축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용도, 기능, 효율성과 함께 인간을 둘러싸는 문화, 사회, 역사의 영역의 문제를 빼고서는 정의가 불가능하다. 건축에는 인간의 문제와 문화적 요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가지 생활과 활동은 물론 생존을 위한 환경으로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건축가는 건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정신적 환경까지 광범하게 다루게 된다. 건축가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바로 이 두가지 환경 요소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기후와 풍토, 땅과 재산, 재료와 기술의 문제에서 문화적 가치관, 장소적 의미, 경관문제까지 다루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건축가의 미래는 감당하기에 벅하다.

3.1 전문업으로서의 건축행위

가. 전문화의 과정

역사상에 기록된 최초의 건축가는 과연 누구일까? 기독교적 세계사를 통해 보면 에덴 동산을 하느님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최초의 조경가이고 토목기술자이지만 건축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건축물이 없어도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을 낳았고 받아들인 카인이 농사꾼이었으니 어쩌면 그가 최초의 건축가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건축물다운 최초의 건축물은 벽돌과 역청으로 쌓은 바벨탑이었을 것이니 이때 무리를 지도하여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야기는 객적은 소리가 아니라, 원시시대에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경하여 인공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건축, 토목, 조경 등이 미분화된 상태로 진행되었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넓은 뜻의 건축가, 즉 공인들의 우두머리인 architect이었다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대에 오면서 건축가의 역할은 점차 전문화되면서 건축행위 자체가 전문업으로서 자리잡게 되어 위상이 확고해진 반면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세분화되고 각각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건축가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어 버린 감이 없지않다. 또 건축물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각 유형별로도 전문화되고 있어 건축가 자신들이 건축가라는 직업의 위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나. 직업과 전문업

일반적으로 전문업(profession)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직업(occupation 또는 vocation)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선언된(prefessed)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에만 해당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직업은 선사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노동의 분화에서 발생했지만, 전문업은 근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문업은 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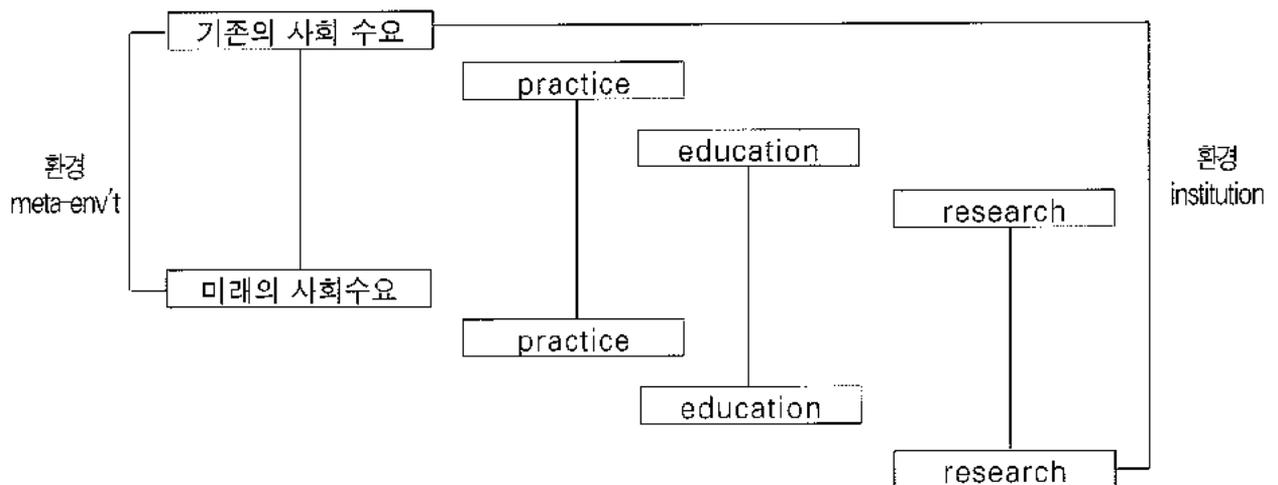
변동에 따라 그리고 전문업 내부의 요구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 현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은 직업이 전문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문업의 장래를 사회적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벨(Daniel Bell)의 예측처럼 "탈공업화 사회에서 뛰어난 직업집단"으로 부각, 성장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수요가 재화의 생산보다는 인간에 의한 서비스 전달로 점차 질적, 양적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업 내부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추보존' 및 '증식'의 본성과, 사회적 수요와 대사회봉사에 대한 높은 '활인율' 때문에 점차 특화,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메이휴(Lewis B. Mayhew)와 포드(Patrick J. Ford)의 주장을 빌어 보면, 어떤 평범한 직업이 하나의 전문업으로 정착, 진화하자면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 사회적 수요(social needs): 먼저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충분하여야 하고,
- 개별성(uniqueness): 이 수요에 대응하여, 일단의 직업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직업과 뚜렷이 구별될 뿐 아니라,
- 우월한 능력의 선언(competence & profession): 다른 직업의 전문가보다 더 잘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공인(social acceptance): 그러나 이 선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 체계적 지식(systematized body of knowledge): 전문업은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 제도(standard procedure): 아울러 실무 수행에 있어 공인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 직업윤리(ethical principle): 사회적 안정에 대응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 집단(group): 그 뿐 아니라, 개개 전문가가 전문가



[그림 3-1] 전문업의 발생과 발달과정

로서의 사명감과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업의 발생과 발달 과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의 건축계가 전문업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는 어떠한지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3.2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

건축물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가? 건축가인가, 시공자인가? 건축가는 자기의 창조적 행위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그 주역으로 생각한다. 공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생산품을 만드는 입장에서서 자기가 그 직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건축주는 어떤가? 아마도 그는 설계와 건설행위를 자기의 의지와 자본을 동원하여 구체화하는 수단이라고 여길 것이다. 또 건축이나 동시행정을 다루는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하나의 건축행위는 이미 정해진 도시의 전체상(像)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간주할 것이고, 계획적인 경제운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행위란 사회자본의 조달과 고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건축은 문화적, 공학(工學)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존재이다. 건축을 만드는 것은 그 사회인 것이다.¹⁴⁾

1992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축생산고는 134조원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12.7%에 해당한다. 건축업계의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수 있다. 이와같이 전 국토에 걸쳐 엄청난 물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이루어내는 일을 건축생산이라고 할 때 그 주체는 건물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기획,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에 나타난 것을 실제의 건축물로 실현하는 '공사업자'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물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관청이 개입하고, 설계자와 협동하는 전문컨설턴트로 영역이 나누어진다. 공사업자도 '전문공사업자'와 '기자재업자'로 세분된다.

가. 발주자(건축주)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관청, 단체, 기업 혹은 개인으로서 건축주¹⁵⁾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자원(재정, 토지, 사람)을 제공하고, 설계자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공사업자를 선정하며, 설계자와 공사업자가 제안된 여러 문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며, 대체로 건설후의 건물유지관리까지 수행 한다.

나. 설계자(건축가와 컨설턴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건물의 기능과 성능에 알맞도록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설계의도를 공사업자(도급업자)에게 전달한다.

공사중에 설계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건물이 설계도서에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설계자는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에서 양자의 계약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행되는 지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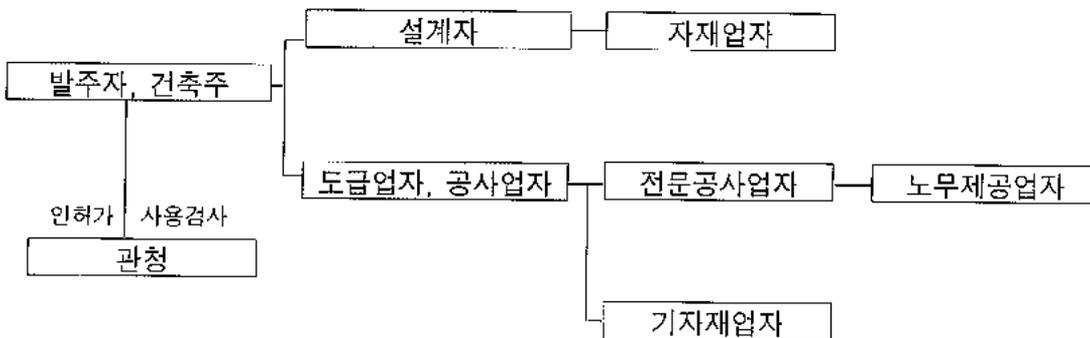
설계자의 협력자로서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로서는 조정자, 구조전문가, 기계와 전기설비전문가 조직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화가,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이 참가하기도 한다. 실내디자인, 실내장식을 위하여 디자이너와 협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색채나 조명, 음향 디자이너까지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 공사업자

건축물 공사는 보통 단일의 도급업자가 맡게 되지만 다수의 하도급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3-2). 단순한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공사는 여러 직종으로 나누어지고 직종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설계와 공사 두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는 디자인-빌더(design/builder)¹⁶⁾ 시스템에서는 주로 공장이라던지 로 코스트 주택(low-cost house)의 건설에서 두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종합공사업자(general contractor)¹⁷⁾도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수행하기도 하지만,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림 3-2] 건축 생산업계의 구성

14) 林島二, 建築概論, 앞의 책 69쪽

15) 설계업무, 가구, 기구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owner라 칭함(AIA Architect's Handbook). 그러나 영국에서는 client라고 부른다(RIBA Handbook)

3.3 건축가의 영역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기도 힘들고,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기란 더 더욱 어렵다. 그저 도시계획적 제한 사항을 겨우 만족하고 건축주와 개발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용적이나 맞추는데 그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이념을 펼치는 건축가의 모습은 전혀 요원하다.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직시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동하여 새로운 도시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경제논리에 급급하여 지내온 지난 몇 십년 동안,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땅 투기로 부유해진 건축주, 정치와 결탁한 개발사업자, 대기업 등의 새로운 발주자에게 봉사하면서 건축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 개방을 빌미로 대형 건설회사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꺼번에 수행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일부 건축가들이 스스로 사회적 지도자임을 포기하고 건설회사나 대기업의 하청설계업자로 협력하면서 얻은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건축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축가의 영역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건축생산체제가 양산(massproduction)과 프리페브(prefabrication)경향을 띄면서 상대적으로 건축가의 손을 빌리는 부분이 줄어들고, 반면에 일반적인 설계과정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조기술이나 설비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새시나 커튼월 처럼 전문 분야가 아니면 아예 그릴 수도 없는 경우도 흔하게 되었다. 분업화에 따라 건축가의 역할이 점차 기술자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건축가의 역할이 줄어들어 든 것이다.

그러나 건축 프로젝트 자체가 복잡 다양해지고 초대형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 영역의 기술자와 컨설턴트들이 실제 업무에 참가되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건축가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 십년씩 단일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도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 소비자사회, 탈공업사회에서는 그 수명(life cycle)이 짧아지고,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와 개발방식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거시설과 쇼핑센터, 병원이 하나의 콤플렉스에 수용되는 단지규모의 사업에서는 도시와 건축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개체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한블럭을 개조하거나 개발하는 단위의 프로젝트로서 도시설계적(urban design) 접근방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오히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디자이너, 설비계획전문가 뿐 아니라 음향, 조명, 그래픽 등 각종의 전문직이 모여 팀을 이루고 건축가의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4. 건축과 기술-시스템으로서의 건축

유럽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까지만 해도 건축가는 본질적으로 예술가라고 일반에게 여겨졌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설계대상도 중요한 건축물이거나 기념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날 건축가들은 예술적 활동보다는 기술, 과학을 도입하여 스스로 설비, 구조, 재료, 공법의 상당한 부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술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profession)으로서 설계, 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조인자(adviser)의 역할까지도 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건축의 실무는 과거처럼 예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나 기술도, 혹은 사업만도 아니다. 건축가는 단순한 건설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의 역할도 맡아야 하며, 건축가는 전문적 기술 지식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학과 역사까지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축가는 건축설계, 구조설계, 설비설계, 감리 그리고 조직의 운영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지도성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직능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 건축조직을 운영하는 건축가 자신이 모든 영역을 다 소화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조직의 운영만을 책임지게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건축가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건축가 자신이 디자이너라면 모든 디자인의 기본방침부터 직접 결정을 내리게 되고, 구조에 밝다면 구조시스템을 우선하는 설계쪽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건물시스템 설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나 담당 디자이너가 구조나 설비부분에 능통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건축설계라는 작업은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적인 재능을 전제로 한다. 대규모 설계조직에서는 팀워크로 업무가 실행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지만 건축설계의 본질은 개인적 서비스이다. 그것은 의사, 변호사의 업무와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설계자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일단 건물이 세워지면 사회성을 갖게 되는 점이 의사, 변호사업무와 크게 다른 점이다. 충분한 경제적 기반위에서 조직의 중심이 되는 건축가가 사회적 시야를 갖고 건축의 기술적-예술적인 면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면 훌륭한 건축 설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4.1 다양한 사회의 요구

탈공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다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건설생산의 과정에서 건축가는 사회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광범위한 주변 관련사업과 복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하나 하나의 건축의 차원이 아니라 도시시

16) 디자인-빌더, 7항 <건축가의 서비스>참조

17)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직종의 전문공사업자(sub contractor)를 참가시켜 시공조직을 편성하고 현장을 총괄, 관리하며 건물용 원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설로서 생산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건축생산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건축가를 비롯한 설계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설계(design)와 공사(constuction)를 연결하는 기술(engineering)조직이 부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기술개발이나 경험축적보다는 모든 논리를 경제에 우선하는 건설 조직의 변향도 큰 장애요인이 되어, 날로 높아가는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가가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곳은 소규모의 일반 설계조직, 대·중형설계조직과 관공서이다. 그리고 사무소의 운영자는 개인 혹은 공동 경영자(파트너)로서 설계직원을 채용하게 되며 조직의 규모나 프로젝트에 따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70년대만 정도까지만 해도 선생(건축가)과 제자와의 관계로 유지되던 소규모 아뜨리에형 사무소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고용, 피고용관계의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노동문제가 노출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사무실을 포함한 일반설계조직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따른다.

공사현장 역시 기술개발과 경험축적에 의하기 보다는 단순한 노동력 동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안이한 자세와,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전가하려는 태도 때문에 바람직한 공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마땅히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조정하며 방법을 찾아야 할 건설당국(관청)도 설계-현장간을 상호견제하며 방관자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건축가의 직능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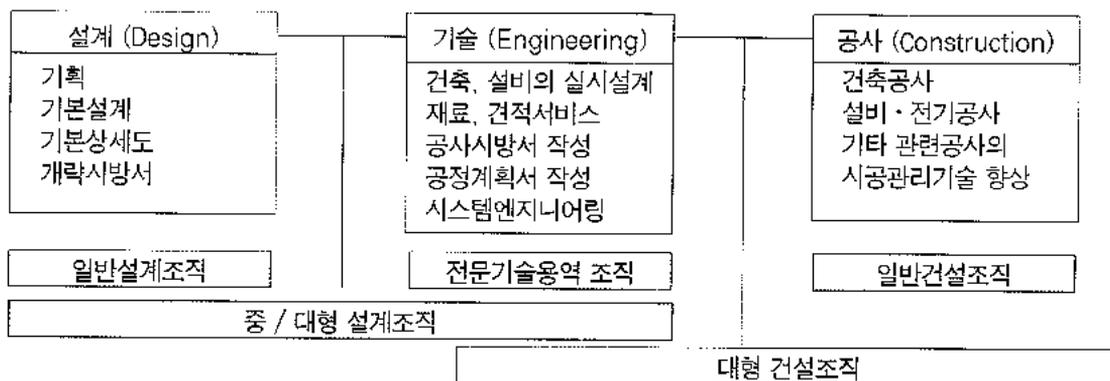
4.2 설계-시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격과 건축주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가의 손에서 구상된 설계는 여러 전문기술조직의 협력에 의해 공사에 필요한 정보로 완성되어 공사로서 꾸며지게 된다. 물론 이 공사도서에는 설계도, 시방서 뿐 아니라 소요자재의 수량과 수급계획, 단계별 공정과 공사비 예산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설계가 자금과 공사를 통하여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수준의 전문기술용역 조직의 영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설계와 기술의 영역을 합친 기능의 중·대형설계 조직과 기술과 공사의 기능을 갖춘 대형건설조직의 육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살리는 건축조직은 사용자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이 완벽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건축, 구조, 설비, 재료, 건적, 시방서, 공사관리 등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기술(engineering)팀을 조직하려면 각 부문별로 시스템엔지니어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직은 때때로 일반설계조직의 계획안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며 협동하기도 하고, 일반 건설조직과 연계하여 기술-공사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텔같은 외국조직은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러한 기술조직을 주체로 조직되어 있다. 전문가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또는 사회발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트릭스의 결합으로 부문간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설계와 시공, 양 영역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설계 - 기술 - 공사의 조직과 영역

1-7. 平坐

平坐 其名有五：一曰閣道，二曰燈道，三曰飛陛，四曰平坐，五曰鼓坐。

造平坐之制：其鋪作 減上屋一跳或兩跳。其鋪作 宜用重栱及逐跳計心造作。

凡平坐鋪作 若叉柱造，即每角 用櫨料一枚，其柱根 叉於櫨料之上。若纒柱造，即每角 於柱外普拍方上 安櫨料三枚，每面互見兩料，於附角料上，各別加鋪作一縫。

凡平坐鋪作 下用普拍方，厚隨材廣 或更加一掣，其廣盡所用方木。若纒柱邊造，即於普拍方裏 用柱脚方，廣三材，厚二材，上生柱脚卯。

凡平坐 先自地立柱，謂之永定柱。柱上 安搭頭木，木上 安普拍方，方上坐 料栱。

凡平坐 四角生起，比角柱 減半。生角柱法 在柱制度內。

平坐之內 逐間下草楹 前後安地面方，以拘前後鋪作。鋪作之上 安鋪版方，用一材。四周 安鴈翅版，廣加材一倍。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5)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

金度慶 / 고려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朱南哲 /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Do-Kyoung & Jo Nam-Chull

厚四分°至五分°。

平坐

平坐의 명칭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 첫째 각도(閣道), 둘째 등도(燈道), 셋째 비계(飛陛), 넷째 평좌(平坐), 다섯째 고좌(鼓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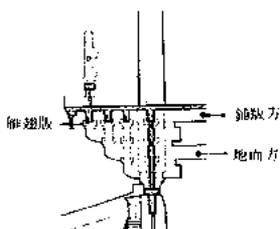
平坐)를 만드는 制度 : 상층의 鋪作을 [하층의 鋪作에 비해] 1

1) 다층건물에서 상층의 기둥을 받고 그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 下層의 鋪作이나 보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栱, 跳, 보 등을 사용하여 平坐를 만드는데, 이 平坐를 '平坐'라 한다. 이 平坐의 상부에는 版을 깔아 상층의 바닥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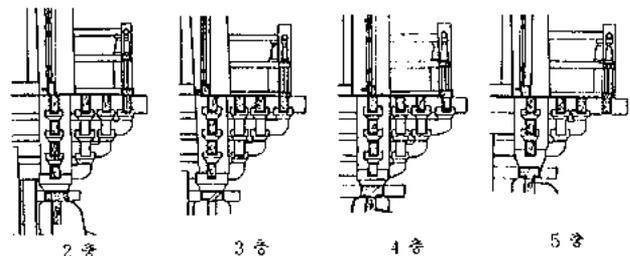
이와 같이 다층건물에서 平坐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天津薊縣의 獨樂寺 觀音閣(遼 統和2년, 984년)<사진.1, 도.1>,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木塔(遼 清寧2년, 1056년)<도.2>, 山西省 大同市의 善化寺 普賢閣(遼 代중엽, 1060년경 추정)<사진.2,3>, 河北省 正定縣의 隆興寺 慈氏閣<사진.4>과 轉輪藏殿(北宋代, 960~1127년)<도.3>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山西省 大同市 華嚴下寺 內部的 大智度藏과 같은 小木作에서도 平坐가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으며<사진.5>, 北京 房山에 있는 遼代의 雲居寺 北塔과 같은 多層塔에서도 목조건축을 보강한 平坐가 사용된 예가 있다<사진.6,7>.

그런데 宋代를 전후한 시기의 회화에서는 平坐가 다층건물이 아닌 地面이나 城壁, 또는 水 위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 地面에 平坐를 구성한 예는 宋代의 「水殿招涼圖」와 「明皇避暑圖」, 「焚香祝聖圖」에서 볼 수 있으며, 성벽에 平坐를 구성한 예는 宋代의 「清明上河圖」와 「黃鶴樓圖」에서, 水 위에 平坐를 구성한 예는 元代的 「金明池圖」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平坐는 다층건물 뿐 아니라 地面이나 城壁 또는 水 위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층건물에 사용된 平坐의 실례만이 남아 있음 뿐이다.

중국 외에 일본에서도 10세기말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奈良 法隆寺 西院의 鍾樓와 같이 多層건물에 平坐를 사용한 경우가 남아 있다<사진.8>.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平坐를 사용한 건물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日本 大恩寺와 西福寺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觀經序品變相圖에서 重層樓閣에 사용된 平坐를 볼 수 있으며<도.4,5>, 역시 일본 西福寺에 소장되어 있는 觀經變相圖에서 水 위의 기단 위에 平坐를 형성하여 건물의 바닥을 삼고 있는 예도 있다<도.6>.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고려시대에는 平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구성은 현존하는 중국의 遼, 宋, 金代에 사용된 平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도. 1> 天津 薊縣 獨樂寺 觀音閣의 平坐 (출처 :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81)



<도. 2> 山西 應縣 佛宮寺 木塔의 平坐 (출처 :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86)

출목 혹은 2출목 줄이고²⁾, 각 출목선상은 重拱을 사용한 許心造로 한다³⁾.

平坐鋪作이 叉柱造⁴⁾인 경우, 건물의 각 모서리에는 주두 1개씩을 사용하며, 이 주두 위에 [상층의] 기둥밑둥(柱根)을 결구한다. 纏柱造(전주조)⁵⁾인 경우, 건물의 각 모서리마다 普拍方⁶⁾ 위에는 기둥선

과 그 양 옆에 주두 3개씩을 놓는다. [건물의 각] 面마다 두개의 주두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한 附角枋⁷⁾ 위에는 각 각 별도의 鋪作 1縫을 더한다. 平坐鋪作은 아래에 普拍方⁸⁾을 두는데, 그 높이는 材의 높이로 하거나 여기에 1契를 더한다. 그 너비는 사용되는 方木의 폭으로 한다. 纏柱邊造인

2) 이와 같이 상층 平坐鋪作的 출목수를 하층 平坐鋪作的 출목수보다 적게 한 경우는 3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목조건축으로는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木塔에서만 그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3,4층의 平坐鋪作을 외3출목으로 하고, 5층의 平坐鋪作만을 외2출목으로 하여 하층의 출목수보다 적게 하고 있다<도.2>.

3) 이와 관련하여 本編의 <總鋪作次序>條에서는 “平坐에는 簷頭만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昂>條에서는 上昂에 대하여 “上昂은 內出目이나 平坐鋪作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總鋪作次序>條의 내용과 모순된다.

이 외에 본 항목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平坐鋪作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는 앞의 1-2. <欂>條가 있다.

4) 平坐에서 상층의 기둥선이 平坐의 기둥선과 일치하는 경우를 叉柱造라 한다. 이 경우 상층의 기둥은 그 하부에 十字형의 흠(柱脚卯)을 과서 平坐鋪作의 주두와 결구시킨다<도.7>. 河北省 正定縣의 隆興寺 轉輪藏殿<도.3>, 天津 薊縣의 獨樂寺 觀音閣<도.1>, 山西省 大同市의 善化寺 普賢閣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보이는 平坐는 叉柱造의 구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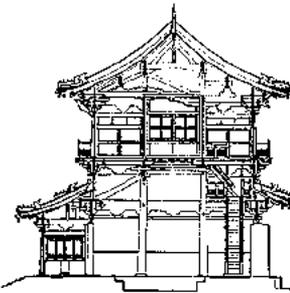
5) 상층의 기둥선과 平坐의 기둥선이 일치하지 않고 상층의 기둥이 平坐의 기둥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纏柱造라 한다. 이때 상층의 기둥은 平坐기둥이나 平坐鋪作의 상부가 아닌 柱脚方위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欂기둥 상부의 주두 양 옆으로 하나씩의 주두를 두어 여기에 鋪作 1縫을 추가하여 庇포를 구성한다<도.8>. 그러나 현존하는 중국의 목조건축에서 纏柱造로 구성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佛宮寺 木塔이나 獨樂寺 觀音閣 등의 경우는 상층으로 올라갈 수록 건물의 폭이 채감되고 있으나, 이는 상층의 기둥이 平坐의 기둥보다 내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平坐의 기둥을 하층의 기둥보다 내부에 위치시켜 건물의 폭을 채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平坐를 纏柱造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6) 다음의 註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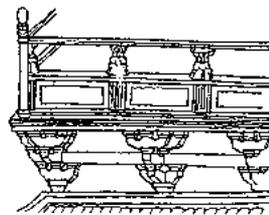
7) 平坐가 纏柱造로 된 경우에 欂기둥 상부의 평방위에 주두 양 옆으로 하나씩의 주두를 추가하여 놓는데 이를 附角(腦)枋이라 한다<도.8>.

8) 기둥 상부를 연결하는 枋(關額) 위에 놓이는 방형의 부재로 鋪作의 하중을 받아 그 하중을 枋방과 기둥에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한다<도.7,8>. 本 『營造法式』에서는 이 普拍方의 단면을 높이는 1材(10分) 또는 1材1契(21分)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너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清代에는 普拍方을 ‘平板枋’이라 하였으며, 우리나라 건축의 ‘平枋’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普拍方’을 ‘평방’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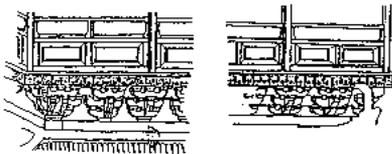
상방위에 평방을 사용한 수법은 山西省 榆次縣의 雨華宮(宋 大中 祥符九年, 1008년)에서 처음으로 보이고 있으나, 金과 南宋이후(약 1150년)가 되어서 모든 목조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梁思成著, 韓東洙·梁錦永 譯, 『圖說 中國建築史』, p.103, 서울:세진사, 1992). 그런데 枋방과 평방이 이루는 단면은 초기에는 ‘T’자형이었으나, 점차 평방의 폭이 줄어들어 清代 工部의 『工程做法則例』에서는 ‘山’자형의 단면을 이루게 되는 변화를 거친다. 따라서 평방과 枋방이 이루는 단면형은 건물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도.9>. 이와 더불어 평방이 처음으로 출현시키는 柱心에만 공포를 구성하는 소위 柱心包係에서 柱脚에도 공포를 구성하는 소위의 多包係로 발전해 가는 공포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평방은 柱心包係를 위주로 하는 唐代까지의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점차 柱脚에도 공포를 사용하는 多包係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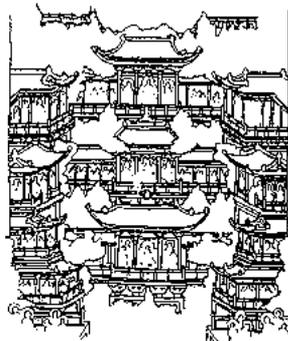
<도. 3> 河北 正定 隆興寺 轉輪藏殿 단면도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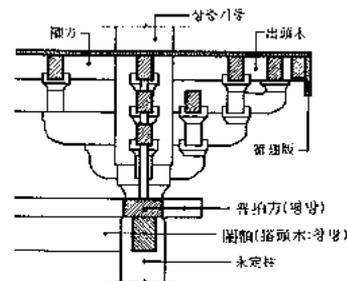
<도. 4> 日本 大恩寺 소장 高麗觀經序品變相圖의 平坐



<도. 5> 日本 大恩寺 소장 高麗觀經序品變相圖의 平坐



<도. 6> 日本 西福寺 소장 高麗觀經變相圖



<도. 7> 叉柱造의 예(河北 正定 隆興寺 轉輪藏殿)
(출처: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p.144)

경우에는 평방 안쪽에 柱脚方⁹⁾을 사용하는데 높이는 3材, 너비는 2材이며, 이 위에 柱脚卯¹⁰⁾를 만든다. 平坐는 우선 地面에 기둥을 세우는 경우, 이를 永定柱¹¹⁾라고 부른다. 永定柱 위에는 搭頭木¹²⁾을 놓고, 搭頭木 위에 평방을 놓으며, 평방 위에 枋栱을 놓는다.

平坐의 건물 네 모서리에 만드는 生起¹³⁾는 隅柱에 비해 半을 줄인다. 귀솟음을 만드는 방법은 기둥의 制度에서 다루도록 한다.

平坐 안쪽에는 매 間마다 草栱 前後에 地面方을 없는데, 前後로 놓여 있는 鋪作을 엮어 매도록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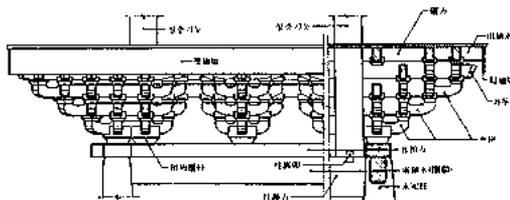
다¹⁴⁾. [이 平坐]鋪作 위에는 鋪版方¹⁵⁾을 놓는데 1材를 사용한다. [平坐의] 네 주변에는 雁翅版(안시판)¹⁶⁾을 설치하는데, 높이는 材의 1倍를 더하고¹⁷⁾ 너비는 4分°~5分°으로 한다.

2. 卷第五 大木作制度二

2-1. 梁

梁 其名有三 ; 一曰梁, 二曰栿, 三曰櫨.

- 9) 平坐를 纏柱造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재로 평방과 같은 높이에서 건물 안쪽에 수평으로 놓여 상층의 기둥을 받는 역할을 하는 부재이다. 叉柱造에는 사용될 수 없고, 纏柱造에만 사용되며, 귀포에서는 45°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8>. 그러나 현재 平坐를 纏柱造로 하여 柱脚方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 柱脚方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135, 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柱脚方은 높이 3材, 폭 2材로 규정되어 평방보다 큰 단면을 지니며, 3:2의 단면비를 지니고 있다.
- 10) 기둥 밑둥을 柱脚方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축, 또는 장부를 말한다<도.8>.
- 11) 여기에서의 永定柱에 대한 해석은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梁思成은 永定柱에 대해 이 앞의 문장과 관련하여, "여기에서의 文義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平坐가 우선 지면에 기둥을 세우는 경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전계서』, p.135). 이에 대해 徐伯安, 郭黛姮은 永定柱를 "① 흙벽(土城)에 사용된 기둥, ② 平坐 아래에 세운 기둥"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宋「營造法式」述語匯釋』). 또한 中國科學院自然科學史研究所 上編의 『中國古代建築技術史』에서도 永定柱라는 용어를 정확히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p.67의 문장에서는 永定柱를 日本에서 말하는 '堀立柱', 즉 기둥의 밑둥을 땅 속에 파묻어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p.84에서는 平坐到 사용되는 기둥으로 그 기둥이 하층 기둥 위의 鋪作이나 보 위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地面까지 그대로 내려오도록 설치한 기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平坐>條에서의 '永定柱'는 그 문맥상의 의미가 아직 불명확하다.
- 12) 平坐에서 永定柱 사이에 놓여 永定柱 사이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이다. 이는 사용위치가 기능에 있어 枋栱과 동일한 부재이다<도.7.8>.
- 13) '生起'는 우리말의 '귀솟음'에 해당하는 용어로 이하 귀솟음이라 번역하도록 한다. 귀솟음에 대해서는 뒤의 大木作制度 : <柱>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14) '地面方'은 기둥하부에 결구되는 수평새로 기둥 하부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하인방'이라 할 수 있다(地面方에 대해서는 뒤의 <闌額>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地面方이 前後에 위치한 平坐鋪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후에 위치한 鋪作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기둥 하부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地面方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인 명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규정처럼 平坐鋪作에서 地面方의 역할을 하는 부재는 河北 薊縣 獨樂寺 觀音閣에서 볼 수 있다<도.1>.
- '草栱'에 대해서는 다음 2-1. <梁>條 참조.
- 15) 樓版을 깔기 위해 사용하는 方形단면의 부재로 우리나라 건축에서 마루를 깔기 위한 귀틀 또는 장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도.1>.
- 16) 平坐에서 樓版의 바깥면에 가로로 둘러 댈 관제로, 滿代의 '滿珠板'에 해당하는 부재이다<도.7.8>.
- 17) 즉 2材=30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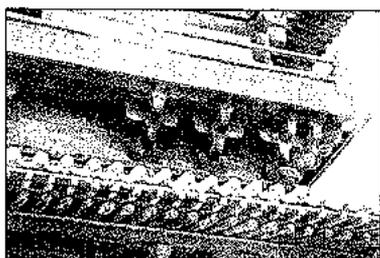
<도. 8> 纏柱造의 平坐구성(6鋪作의 예)
(출처 :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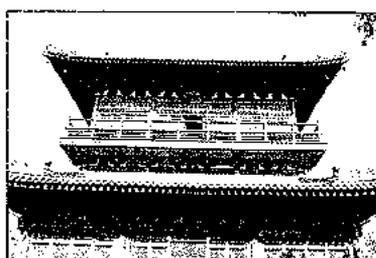
天津 蘇縣 獨樂寺 觀音閣의 平坐



山西 大同 善化寺 普賢閣 平坐



山西 大同 善化寺 普賢閣 平坐鋪作



河北 正定 隆興寺 慈氏閣 平坐



山西 大同 華嚴下寺 薄伽教藏殿內 天宮 平坐

造梁之制有五：

一曰 檐楹：

如四椽及五椽楹；若四鋪作以上至八鋪作，并廣兩材兩掣，草楹 廣三材。

如六椽至八椽以上楹；若四鋪作至八鋪作，廣四材，草楹同。

二曰 乳楹：若對大梁用者，與大梁 廣同。三椽楹，若四鋪作·五鋪作，廣兩材一掣，草楹廣兩材，六鋪作以上 廣兩材兩掣，草楹同。

三曰 筓牽；若四鋪作至八鋪作出跳 廣兩材，如不出跳 并不過一材一掣。草筓牽 準此。

四曰 平梁；若四鋪作·五鋪作，廣加材一倍。六鋪作以上 廣兩材一掣。

五曰 廳堂梁楹；五椽·四椽 廣不過兩材一掣，三椽廣兩材。餘屋 量椽數 準此法 加減。

凡梁之大小，各隨其廣分 爲三分，以二分 爲厚。凡方木小，須繳貼令大。如方木大，不得裁減，卽於廣厚加之。如巖榑及替木，卽於梁上角開抱榑口。若直梁狹，卽兩面 安榑版。如月梁狹，卽上加繳背，下貼兩頰，不得刻剗梁面。

造月梁之制：

明楹 其廣四十二分°。如徹上明造 其乳楹·三椽楹各廣四十二分°，四椽楹 廣五十分°，五椽楹 廣五十五分°，六椽楹以上 其廣并至六十分止。梁首 謂出跳者 不以大小從，下高二十一分°。其上餘材，自料裏平之上，隨其高 勻分作六分，其上以六瓣卷殺，每瓣長十分°。其梁下 當中顛六分°，自料心下 量三十八分° 爲斜項。如下兩跳者 長六十八分°。斜項外，其下起顛，以六瓣卷殺，每瓣長十分°，第六瓣盡處下顛直五分°。去三分°，留二分° 作琴面。自第六瓣盡處 漸起至心，又加高一分°，令顛勢圓和。梁尾 謂入柱者，上背下顛直，皆以五瓣卷殺。餘并同梁首之制。

梁底面 厚二十五分°。其項 入料口處 厚十分°。料口外兩肩 各以四瓣卷殺，每瓣長十分°。

若平梁，四椽·六椽上用者，其廣三十五分°，如八椽至十椽上用者，其廣四十二分°。不以大小從，下高二十五分°。背上·下顛 皆以四瓣卷殺，兩頭 并同，其下第四瓣盡處 顛四分°，去兩分°，留一分° 作琴面。自第四瓣盡處 漸起至心，又加高一分°。餘并同月梁之制。

若筓牽，其廣三十五分°。不以大小從 下高一十五分°，上至料底。牽首上 以六瓣卷殺，每瓣長八分°；下同。牽尾上 以五瓣。其下顛 前後 各以三瓣。斜項同月梁法。顛內去留 同平梁法。

凡屋內徹上明造者，梁頭相疊處 須隨舉勢高 下用駝峯。其駝峯 長加高一倍，厚一材。料下兩肩 或作入瓣，或作出瓣，或圓訛兩肩，兩頭 卷尖。梁頭安替木處 并作隱料，兩頭 造斗頭或切几頭，切几頭 刻梁上角 作一入瓣，與令栱或櫺間 相交。

凡屋內 若施平棊，平闔 亦同，在大梁之上。平棊之上 又施草楹，乳楹之上 亦施草楹，并在壓槽方之上。壓槽方 在柱頭方之上。其草楹 長同下梁，直至檁檐方止。若在兩面，則安丁楹，丁楹之上 別安抹角楹，與草楹 相交。

凡角梁之下，又施隱襯角楹，在明梁之上，外至檁檐方，內至角後楹項；長以兩椽材斜長加之。

凡觀方頭，施之於梁背斗頭之上，其廣厚同材。前至檁檐方，後至昂背或平棊方。如無鋪作，卽至托腳木止。若騎槽，卽前後 各隧跳，與方·栱 相交，開子蔭以壓料上。

凡平棊之上，須隨榑椽 用方木及矮柱 敦栝，隨宜枝椽固濟，并在草楹之上。凡明梁只闔平棊，草楹在上承屋蓋之重。

凡平棊方 在梁背上，其廣厚并如材，長隨間廣。每架下 安平棊方一道。平闔同。又隨架 安椽以遮版縫。其椽 若殿宇，廣二寸五分，厚一寸五分；餘屋 廣二寸二分，厚一寸二分。如材小，卽隨宜加減。絞井口并隨鋪間，令縱橫分布方正。若用峻脚，卽於四關內安版貼華。如平闔，卽安峻脚椽，廣厚并與平闔椽同。

梁

梁의 명칭에는 세가지가 있다. : 첫째는 양(梁), 둘째는 망유(宗廟), 셋째 려(櫺)이다.

梁18)을 만드는 制度는 다섯가지가 있다19).

1) 檐楹20) :

18) '梁'은 '楹'이라고도 하며, 우리말의 '보(양·樑)'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보'라고 번역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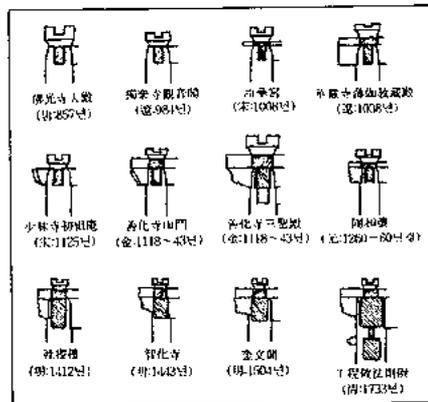
19) 本고에서는 보를 檐楹, 乳楹, 筓牽, 平梁, 廳堂梁楹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섯가지 중에서 檐楹, 乳楹, 筓牽, 平梁은 보가 사용된 위치에 따른 분류인 반면<도.10, 11>, 廳堂梁楹은 건물의 종류에 따른 보의 분류로 볼 수 있다. 또한 廳堂梁楹은 本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 분류기준에 있어서도 앞의 네가지 보와 일관성이 없어 많은 의문을 지닌다. 廳堂梁楹에 대해서는 註33) 참조.

20) 지붕의 하중을 받는 큰 보로 本 항목에서는 4椽楹에서 8椽楹까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平梁을 언급하면서 '10椽'이라는 말이 나오고, 卷第三十과 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에서도 10椽楹으로 된 경우가 圖示되어 있다('×椽楹'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예가 드물기는 하지만 2椽楹 또는 3椽楹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 楹楹은 우리나라 건축의 '大樑', '中樑'을 아우르는 용어이지만, 최상층에 위치한 보, 즉 우리나라의 '宗樑'은 '平梁(2椽楹)'이라 하여 楹楹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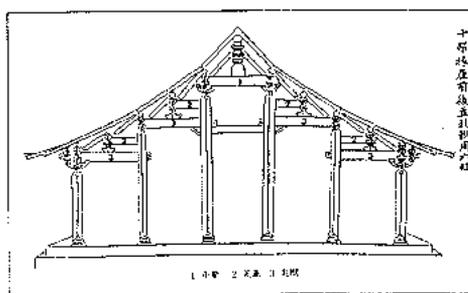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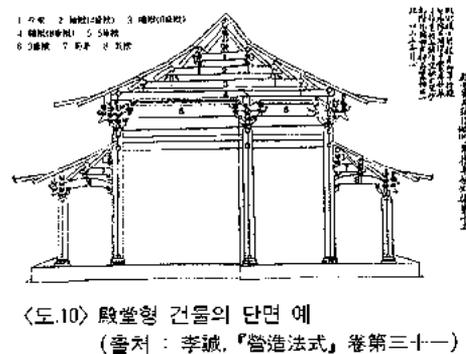
4椽 및 5椽²¹⁾은 4鋪作 이상 8鋪作까지²²⁾ 모두 높이를 2材2槩로 하며²³⁾, 草椽²⁴⁾으로 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3材로 한다. 6椽에서 8椽 이상의 椽은 4鋪作에서 8鋪作까지 모두 높이를 4材로 하며, 草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乳椽²⁵⁾ : 만약 大梁²⁶⁾과 마주 대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大梁과 높이를 같게 한다. 3椽은 4鋪作·5鋪作인 경우 높이를 2材1槩로 하며, 草椽인 경우에는 높이를 2材로 한다. 6鋪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를 2材2槩로 하는데, 草椽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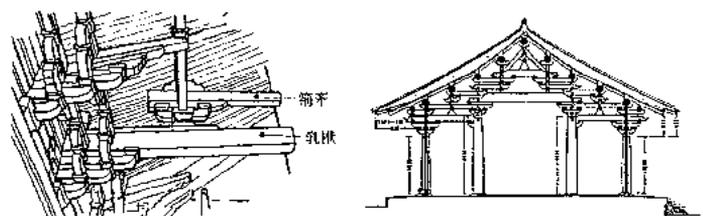
- 21) 4椽은 4개의 서까래, 즉 보 위에 걸린 도리의 수가 5개로 도리 사이의 칸 수가 4개가 되는 보이며, 5椽은 5개의 서까래, 즉 보 위에 걸린 도리의 수가 6개로 도리 사이의 칸 수가 5개가 되는 보이다. 여기에서 '×椽'의 '椽'은 서까래의 架數를 말하는 것이다, 즉 1椽은 인접한 도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건축에서는 그 보가 받고 있는 서까래의 架數를 기준으로 하여 보의 길이를 나타낸다(<도.10.11> 참조). 즉 宋 『營造法式』에서는 보를 그 보가 받고 있는 서까래의 架數를 세어 '×椽', '×架椽'이라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淸代에도 계속되어 清工部 <工程做法則例>에서는 이를 "×架梁" 또는 "×步梁"이라 하였다. 그러나 淸式에서 '步'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雙步梁'은 宋式의 乳椽에 해당하고 '三步梁'은 宋式의 3椽, '單步梁'은 簡索에 해당한다.
- 22) 즉 鋪作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의 檼椽을 말하는 것이다.
- 23) 여기에서 檼椽의 높이는 뒤의 '造月梁之制'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의 높이와는 차이가 있다(뒤의 <表.1> 참조). 따라서 이하 檼椽에서 廳堂梁椽까지 보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보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明椽, 특히 直梁으로 하는 경우의 보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문의 내용에서 보의 높이를 규정한 뒤에 다시 草椽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草椽의 개념은 月梁보다는 明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섯가지 보의 종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외부에 노출되는 明椽이지만 月梁으로 가공하지 않고 直梁으로 하는 경우의 보의 높이를 규정한 것이고, 이 뒤에 草椽으로 하는 경우의 보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4) 平槓, 平閣 상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의 보는 장식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데, 이 장식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보를 '草椽'이라 한다.
- 25) 外陳柱와 內陳柱 사이를 연결하는 보로 한국건축의 退椽에 해당하는 보로 볼 수 있다. 卷第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는 1椽~3椽의 乳椽이 圖示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椽으로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淸式에서는 乳椽을 '雙步梁'이라 하였다. 乳椽은 草椽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천장(平閣 또는 平槓) 아래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므로 장식적인 처리를 한 月梁으로 한다. 乳椽의 모머리는 外陳柱 위에 놓인 鋪作위에 놓인다. 그러나 乳椽의 뒷쪽은 內陳柱의 몸체에 삽입되는 경우와 기둥위의 鋪作위에 올려놓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보의 후미가 놓이는 위치가 다른 것은 內陳柱의 높이와 관계된다. 즉 內陳柱는 外陳柱와 같은 높이로 된 경우(이러한 구성을 卷第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서는 '殿堂'이라 하였다.)와 外陳柱보다 높게 구성하는 경우(이러한 구성을 卷第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서는 '廳堂'이라 하였다.)가 있다(<도.11>). 전자의 경우 內陳柱 위에 鋪作을 구성하여 건물 외 높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乳椽의 후미는 이 鋪作위에 놓이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內陳柱가 外陳柱보다 높으므로 乳椽의 후미는 당연히 內陳柱 중간에 삽입된다.
- 26) 원문에는 '大角梁'이라 하였는데, 大角梁은 우리나라 건축의 추녀에 해당하는 부재로 乳椽과의 관련성이 적다. 또한 바로 다음의 문장에 '大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 원문의 '大角梁'은 '大梁'의 誤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大梁'이라고 고치 게 하였다. '大梁'은 檼椽중에서 가장 아래에 사용된 것, 즉 우리나라 건축에서의 '大樑'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도. 9> 平枋(普拍)과 昌枋(昌額)의 단면 변화 (출처 : 梁思成, 『圖說 中國建築史』)



<도.11> 殿堂형 건물의 단면 예 (출처 : 李誠, 『營造法式』 卷第三十一)



<도.12> 出跳箭率의 예(山西大同 善化寺三聖殿)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譯 卷上』, p.142) <도.13> 浮石寺 無量壽殿의 架構 (출처 :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p.230)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筓牽²⁷⁾ :

4鋪作에서 8鋪作까지 出跳한 경우²⁸⁾에는 높이를 兩材로 하고, 出跳하지 않은 경우²⁹⁾에는 1材1槩를 넘지 못한다. 草筓牽³⁰⁾도 이에 준한다.

4) 平梁³¹⁾ :

4鋪作·5鋪作인 경우 높이는 材의 1倍를 더한다³²⁾. 6鋪作 이상에서는 높이를 2材1槩로 한다.

5) 廳堂梁楹³³⁾ :

5椽·4椽은 높이를 2材1槩가 넘지 못하게 하고, 3

椽은 높이를 2材로 한다. 기타 건물은 서까래의 數를 헤아려 이에 준하여 加減하도록 한다.

보의 크기는 각각 그 높이를 3等分하여 그 2等分을 너비로 한다³⁴⁾. 方木이 작은 경우에는 [부재를] 덧대어 [보의 단면을] 크게 한다. 方木이 크지만 裁減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에 이를 더한다. 만약 [보에] 도리나 替木³⁵⁾을 결구하는 경우에는 보의 상면 모서리에 抱榫口³⁶⁾를 판다. 直梁³⁷⁾이 좁은 경우에는 [보의] 兩

27) 보머리는 乳楹위에 놓인 枋이나 駝峯위에 놓이고, 후미는 대부분 內轉高柱에 삽입되는 보의 일종이다<도.10, 11>. 지붕의 하층은 부담하지 않고, 筓牽머리의 枋이나 駝峯이 이 위에 놓이는 도리의 하층을 받아 乳楹에 전달하고, 筓牽은 부재 사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筓牽의 머리가 柱頭鋪작위에 놓이는 경우를 '出跳筓牽'이라 하며<도.12>. 駝峯위에 놓이는 경우를 '不出跳筓牽'이라 한다. 길이는 1椽架 혹은 2椽架로 하지만 대부분 1椽架이다. 清代에는 '單步梁'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浮石寺 無量壽殿에서 筓牽과 비슷한 부재가 사용되고 있는데<도.13>, 이를 '草枋'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은 불연된 용어라 할 수 없다. 또한 修德寺 大雄殿과 江陵 客舍門 등에서는 이 筓牽에 해당하는 부재가 변화된 형식으로 보이는 牛尾椽이 사용되고 있다<사진.9>. 中國에서도 元代에 건축된 浙江 武義 延福寺大殿에서 이러한 牛尾椽 형식의 筓牽이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도.14>.

28) 여기에서의 '出跳'는 층복의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 原文의 의미를 살려 出跳라 번역하였다. 筓牽머리가 乳楹 상부의 枋과 결구되는 경우, 즉 出跳筓牽을 말한다<도.12>.

29) 筓牽머리가 枋이 아니라, 예를들어 乳楹위의 駝峯위에 결구되는 것과 같은 경우, 즉 不出跳筓牽을 말한다.

30) 천장 상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장식적 가공은 하지 않은 筓牽을 말한다.

31) 목조가구의 최상층에 놓이는 보로 길이는 2椽架이다<도.10, 11>. 平梁의 상부 중앙에는 동자대공(蜀柱)을 세워 종도리(脊榑)를 받는다. 草楹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草楹으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直梁의 형식으로 한다. 清代에는 '太平枋'이라 불렀는데, 우리나라의 '宗樑'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32) 즉 2材=30分°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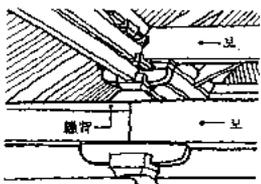
33) 앞에서 언급한 네 종류의 보가 사용된 위치에 따른 분류이지만, 廳堂梁楹은 보가 사용된 위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건물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므로 분류기준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本稿의 설명만으로는 廳堂梁楹이 어떠한 유형의 보를 말하는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 항목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廳堂梁楹은 廳堂에 사용되는 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앞에 설명된 네 종류의 보에 대한 치수 규정은 이들 보가 殿堂에 사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4) 이 규정은 보의 단면을 높이:너비가 3:2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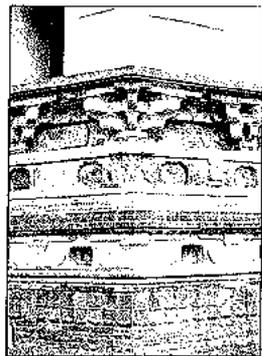
35) 끝도리가 수평으로 연속하여 접하게 되는 부분을 받는 짧은 方形단면의 부재로, 일반적으로 舍檼위에 놓이며, 양단부는 교두형으로 하여 접차와 비슷한 형태로 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단장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6) 보머리에 도리나 替木을 얹어 놓는 경우, 보의 상부에 도리나 替木을 받아 이것이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내는 부분을 抱榫口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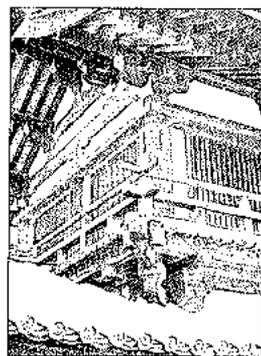
37) 直梁은 月梁과 같이 장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직선형으로 처리한 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마감은 깔끔하게 하여 마감은 하지 않고 대강 치목하여 사용하는 草楹과는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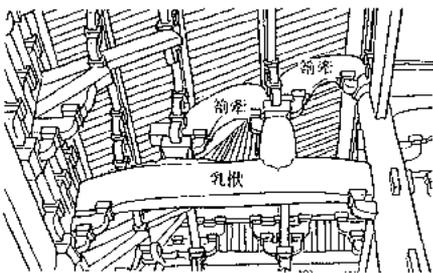
<도.15> 작황의 예(河北 新城 開善寺 大殿)
(출처 : 徐伯安, 龐家珺, 『宋「營造法式」述語匯譯』,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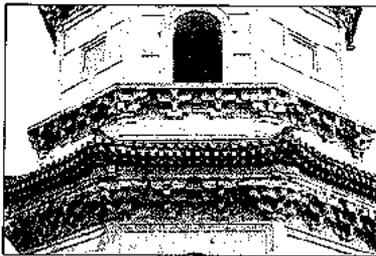
北京 房山 雲居寺 北塔의 1層 塔身下



日本 奈良 法隆寺 西院 鐘樓의 平坐鋪作



<도.14> 浙江 武義 延福寺 大殿의 筓牽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譯 卷上』, p.148)



北京 房山 雲居寺 北塔의 2層 塔身下 平坐



修德寺 大雄殿의 牛尾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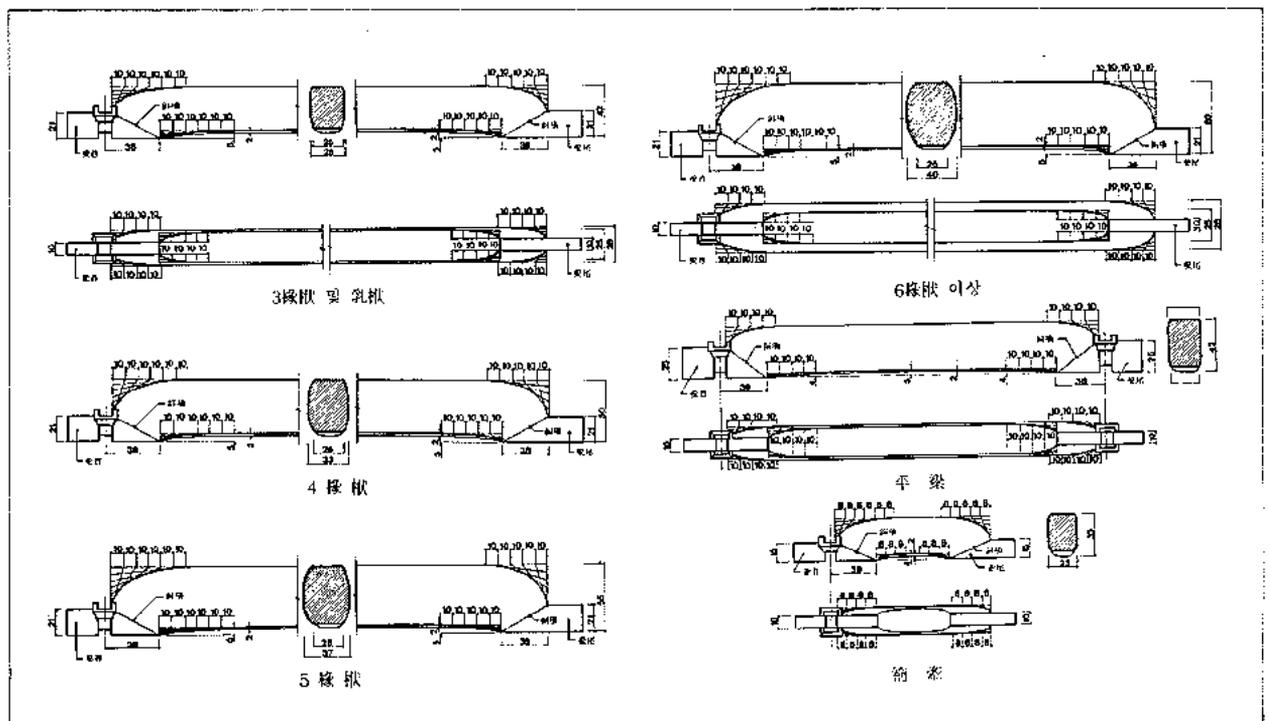
面에 榑椽版³⁸⁾을 설치한다. 月梁이 좁은 경우에는 상부에 繳背³⁹⁾를 더하고 下部의 兩面에는 兩頰을 붙이되, 보의 양 측면을 깎아내지 않도록 한다.

月梁⁴⁰⁾을 만드는 方法 :

明楸⁴¹⁾은 높이를 42分°으로 한다. 徹上明造⁴²⁾인 경우, 乳楸과 3椽楸는 높이를 42分°으로 하고, 4椽楸는 높이를 50分°, 5椽楸는 높이를 55分°, 6椽楸 이상은 높이를 60分°까지로 한다. 보머리(梁首⁴³⁾ - 鋪作⁴⁴⁾밖으로 보가 돌출한 부분을 말한다. - 는 보의 [단면] 크기와 관계없이 아래에서 높이 21分°이 되는 부분이다. 그 위쪽의 나머지 부분은 斜안쪽의 평평한 곳⁴⁴⁾으로부터 그 높이를 6等分하

여 6瓣卷殺하는데, 每 瓣의 길이는 10分°으로 한다. 보 下面의 중앙부는 6分°을 오목하게 한다. 料의 중심 아래에서 38分°이 되는 부분까지를 斜項⁴⁵⁾으로 한다. [이 때] 下部가 2출목인 경우에는 [斜項의] 길이를 66分°으로 한다. 斜項의 바깥으로 그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목하도록 6瓣卷殺하는데, 每 瓣의 길이는 10分°으로 한다. 6瓣卷殺가 끝나는 곳은 하부의 5分°을 오목하게 한다. [이 5分°중] 3分°은 깎아내고 2分°은 남겨서 琴面으로 한다. 또한 6瓣이 끝난 곳에서부터 보의 중심을 향해 다시 오목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높이 1分°을 더하여 오목한 선을 부드럽게 한다. 梁尾⁴⁶⁾ - [보가] 기둥에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 는 상

- 38) 보의 도리의 너비가 규정보다 좁은 경우 이들의 너비를 규정된 크기로 만들기 위해 덧대어 사용하는 얇은 판을 榑椽版이라 한다.
- 39) 보의 단면 높이가 작은 경우 그 상면에 덧대어 사용하는 부재이다<도.15>.
- 40) '月梁'은 앞에서 언급한 보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보의 가공 有無에 따른 명칭으로, 보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장식적인 처리를 한 것이다. 즉 보의 상면은 양단을 둥글게 깎아 중앙부가 위로 만곡된 형태로 하고, 하부는 반대로 중앙부를 깎아내어 위로 만곡된 형태로 한다<도.16>. 이와 같이 중앙부가 위로 만곡되어 초승달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月梁'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천장 위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草楸인 경우는 月梁으로 가공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는 明楸인 경우에만 月梁으로 가공한다. 즉 月梁은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 아래에 위치하는데, 이 때의 月梁은 천장의 하중을 부담할 뿐 상부의 하중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徹上明造)에 月梁은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 41)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보를 '明楸'이라 한다. 즉 천장을 가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천장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천장 아래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보를 明楸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明楸은 일반적으로 장식적인 처리를 한 月梁으로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草楸과 상대되는 개념의 명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明楸은 천장을 가설할 때, 그 아래에 노출되는 경우의 보만을 지칭하고 있다.
- 42) 실내에 천장(平梁 또는 平梁)을 설치하지 않아 보, 도리, 서까래 등의 상부구조가 완전히 노출되도록 한 것을 '徹上明造'라 하며, '徹上 露明造' 또는 '露明造'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연등천장'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43) 보의 양단을 '梁頭'라 한다. 梁頭는 다른 부재와의 결구를 위해 폭이 좁아지는데 이 부분을 '項'이라 한다. 梁頭는 '梁首'와 '梁尾'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梁首는 기둥 상부의 材楸와 결구되어 외부로 돌출하는 쪽을 말한다. 梁首의 반대쪽이 기둥에 삽입되는 경우(材楸와 결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 梁頭를 梁尾라 하여 梁首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높이는 21分°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 단부의 단면을 풀어 材材로 함으로써 材楸와의 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도.16>. 우리말의 '보머리'는 本首와 '梁頭'보다는 '梁首'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本首의 梁頭를 우리말로 '보머리'로 옮겨도 文義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본 번역문에서도 文義에 벗어나지 않는 한 原文의 '梁頭', '梁首'를 모두 '보머리'로 번역하였다.
- 44) 주두나 소로의 '주' 상면을 말한다.



<도.16> 각종 月梁

부의 볼록한 부분과 아래의 오목한 부분 모두 5瓣으로 卷殺한다. 나머지는 보머리를 만드는 방법과 같다.

보 아랫면은 너비를 25分°으로 한다⁴⁷⁾. 그 項 - 料口에 들어가는 부분 - 은 너비를 10分°으로 한다. 料口밖의 [보] 양면은 4瓣으로 卷殺하며 每瓣의 길이는 10分°으로 한다.

平梁⁴⁸⁾인 경우, 4椽·6椽위에서는 그 높이를 35分°으로 하고, 8椽 내지 10椽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42分°으로 한다. 보의 크기에 관계 없이 아래에서부터 높이 25分°까지를 [보머리로] 삼는다⁴⁹⁾. 上面의 볼록한 부분과 下面의 오목한 부분은 모두 4瓣으로 卷殺한다. [보의] 양쪽 머리는 [이와] 동일하게 [4瓣으로 卷殺]한다. 그 아래 第4瓣이 끝나는 곳은 4分°을 오목하게 하는데, 2分°을 제거하고 2分°을 남겨서⁵⁰⁾ 琴面을 만든다. 또한 第4瓣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보의 중심에 이르

기까지 다시 점차 볼록하게 하여 1分°을 더한다⁵¹⁾. 이 외에는 모두 月梁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⁵²⁾.

箭牽⁵³⁾인 경우에는 높이를 35分°으로 한다. [보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래에서부터 높이 15分°을 箭牽머리로 하며⁵⁴⁾, 상부는 料 아래에 이른다. 箭牽머리(牽首)의 상부는 6瓣으로 卷殺하며, 每瓣의 길이는 8分°으로 한다. 이하도 같다⁵⁵⁾. 箭牽 후미(牽尾)의 상부는 5瓣으로 [卷殺]한다. [箭牽] 下面의 오목한 부분은 前後를 각각 3瓣으로 卷殺한다. 斜項은 月梁을 만드는 방법과 같으며, 오목한 부분의 남기고 제거하는 방법은 平梁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실내가 徹上明造인 경우 보머리가 놓이는 곳에는 지붕물매(擧勢)⁵⁶⁾의 높낮이에 따라 [보머리] 아래에 駝峯⁵⁷⁾을 설치한다. 駝峯은 길이를 높이의 2배

45) 보를 料椽과 결구하거나 기둥에 끼우기 위해 보 단부의 단면용 足材로 줄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項'이라 하며, 項이 梁身과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경사진 선을 斜項이라 한다<도.16>.

46) 보가 料椽상부에서 결구되는 보머리의 반대측으로 보가 기둥에 삽입되는 부분이다. 이하 梁尾는 '보후미'라 번역한다<도.16>.

47) 여기에서는 보의 하부 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부의 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의 전체 폭은 높이의 2/3로 한다고 앞에서 규정하고 있다.

48) 여기에서의 平梁은 앞에서와는 달리 平梁을 月梁으로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49) 원문에서는 "不以大小從, 下高二十五分"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앞의 "梁首不以大小從, 下高二十一分"과 같이 보의 하부에서 높이 25分°까지를 보머리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16>. 이를 21分°의 誤記로 보는 경우, 뒤에 나오는 "餘料同月梁之制"라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梁思成은 이를 21分°이라 하고 있는데(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258, 大木作制度圖樣19),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50) 原文에는 "留一分"이라고 하였으나, 1分°으로 하는 경우에는 "去二分"과 합하여 4分°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의 "留一分"에서 "一分"은 "二分"의 誤記인 듯 하다. 따라서 본 번역문에서는 文義에 맞도록 2分°으로 고쳐 記載하였다<도.16>.

51) 따라서 중앙부분 오목한 부분의 전체 높이는 5分°이 된다<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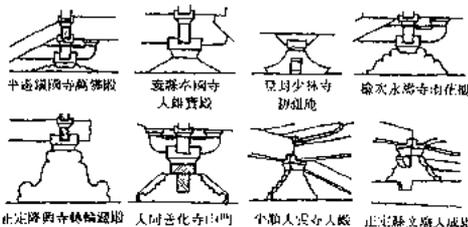
52) 이 문단으로 인하여 梁思成은 "천장의 유무와 노출에 관계 없이 平梁은 일률적으로 月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듯 하다(『전개서』, p.149). 그러나 原文의 <大木作制度圖樣>에는 平梁을 直梁형식으로 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또한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平梁의 규정은 平梁을 月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며, 앞서 보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기록한 平梁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平梁을 일률적으로 月梁으로 한다는 梁思成의 견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53) 여기에서는 箭牽을 月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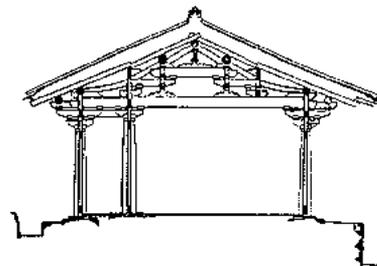
54) 원문에서는 "不以大小從, 下高二十五分"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平梁에서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앞의 "梁首不以大小從, 下高二十一分"과 같이 보의 하부에서 높이 15分°(주 1材)까지를 箭牽머리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바로 위에 연결되는 "上料料椽"라는 문장과의 뜻이 통하게 된다<도.16>. 梁思成은 여기에서도 箭牽머리의 높이를 21分°으로 圖示하고 있다(『전개서』, p.258).

55) 이하도 每瓣의 길이는 8分°이다<도.16>.

56) 지붕의 물매에 따라 도리의 높이를 설정하는 것을 '擧'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擧勢'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擧勢'가 우리말의 '지붕물매'에 매우 가까운 의미이므로 '지붕물매'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擧勢에 대해서는 뒤의 <擧折>條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도.17> 駝峯의 다양한 예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p.149)



<도.18> 鳳傳寺 極樂殿 중단면
(출처 :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p.225)

로 하고, 두께는 1材⁵⁸⁾로 한다. 材 아래의 兩肩⁵⁹⁾은 入瓣⁶⁰⁾ 또는 出瓣⁶¹⁾으로 하며, 혹은 양 어깨부분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고 兩頭⁶²⁾를 뾰족하게 한다. 보머리에서 替木이 없이는 부분에는 모두 隱料를 만들며, [보의] 양쪽 단부는 쇠두 혹은 切几頭⁶³⁾ - 切几頭는 보의 상부 모서리를 깎아서 1入瓣을 새긴다. - 로 하며, 令栱 혹은 櫺間⁶⁴⁾과 직교하여 결구한다.

실내에 平基⁶⁵⁾를 설치하는 경우⁶⁶⁾ - 平閣⁶⁷⁾을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에 [平基는] 大梁위에 설치한다. 平基위에는 다시 草栱을 두고, 乳栱위에도 역시 草栱을 두는데, [이들 草栱은] 모두 壓槽方⁶⁸⁾ 위에 위치한다. 壓槽方은 柱頭方⁶⁹⁾ 위에 위치한다. 이 草栱의 길이는 아래에 위치한 보의 길이와 같으며, [草栱의 양 끝은] 정확히 櫺檐方에서 끝나도록 한다. [건물의] 양 측면에서는 丁栱⁷⁰⁾을 설치하고, 丁栱위에 별도로 抹角栱⁷¹⁾을 두어 草栱과 교차하도록 한다.

角梁⁷²⁾ 아래에는 또 隱櫺角栱⁷³⁾을 설치하는데, [隱櫺角栱은] 明梁위에 위치하며 외부로는 櫺檐方, 내부로는 角後栱項에 이르도록 한다⁷⁴⁾. 길이는 2椽材에 斜長을 더한 것으로 한다.

櫺方頭⁷⁵⁾는 보 상면의 쇠두위에 설치하는데, 높이와 두께는 材와 동일하다. 앞쪽으로는 櫺檐方, 뒷쪽으로는 昂의 상면(昂背) 혹은 平基方⁷⁶⁾에 이르도록 한다. 鋪作이 없는 경우에는 托脚木⁷⁷⁾까지 이르도록 한다. 柱心線上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前後 모두 각각 출목에 따라 方, 栱과 더불어 직교하는데, 여기에 子廳을 파서 材의 상부를 누르도록 한다.

平基 상부에는 도리와 보에 맞추어 方木 및 矮柱⁷⁸⁾를 사용하여⁷⁹⁾ 적당하게 지탱함으로써 견고하고 고르게 하는데, 모두 草栱위에 위치한다. 明梁은 단지 平基의 하중을 받을 뿐이며, 草栱이 상부 지붕(屋蓋)의 하중을 받는다.

平基方⁸⁰⁾은 보의 상면에 위치하는데, 그 단면의

57) 보위에 보 또는 도리를 올려놓는 경우 이들 상하 수평재 사이의 높이차를 조절하면서 상부 수평재의 하중을 하부 수평재에 전달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를 말하는데, 아래에 위치한 보의 상면에 놓여 상부에 위치한 보의 보머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부재의 형태를 낙타등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駝峯'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清代에는 '花盤'이라고 불렀으며, 때로는 그 형태를 荷葉形으로 하기 때문에 '荷葉墩'이라고도 하였다. <도.17>은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駝峯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木 『營造法式』에서의 駝峯은 우리나라 건축에서의 花盤과 같은 부재로 보기 쉽다. 그러나 花盤은 “창방위 중간에 있어 주심도리 밑 장력을 받는 초새김한 받침”(張起仁, 『韓國建築大系Ⅳ-韓國建築辭典』, p.121, 서울:보성문화사, 1991) 또는 “상하가로계를 연결하는 장식화된 관부재이며 받침으로도 쓰인다.”(朴基善, 『韓國木造建築의 花盤에 관한 研究』, p.14,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3. 7.) 등으로 정의되고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駝峯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보 위에 花盤을 놓고 도리, 장력나 종보, 보아지 등을 받쳐 한 동자주”를 의미하는 ‘花盤童子(柱)’(張起仁, 『선계서』, p.123)가 駝峯과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花盤이나 花盤童子는 형태에 있어서 駝峯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차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존하는 우리나라 건축 중에서 木 『營造法式』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鳳林寺 願樂殿의 大梁위에 사용된 伏花盤만이 구조적인 측면이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駝峯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18>. 日本에서는 ‘駝峯’을 ‘鰐股’라 부르고 있다.

58) 즉 10分이다.

59) 駝峯과 같이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부재 상면의 양쪽 모서리 부분 반곡된 면을 ‘肩’이라 하는데, 우리말의 어깨에 해당하는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하 본고에서는 ‘어깨부분’이라는 말로 번역하도록 한다.

60) 부재 외부의 윤곽을 깎아 장식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외부로 볼록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연속된 곡선을 만들어 내부로는 뾰족하게 한 것을 ‘入瓣’이라 하며, 그 곡선 한 단을 ‘1入瓣’이라 한다. (1-2. <栱條의 註52> 및 <도.17> 참조)

61) 부재 외부의 윤곽을 깎아 장식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안으로 오목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연속된 곡선을 만들어 외부로는 뾰족하게 한 것을 ‘出瓣’이라 한다. (1-2. <栱條의 註52> 및 <도.17> 참조)

62) 駝峯에 있어서 아래쪽의 넓은 부분을 말한다.

63) 昂, 地栱(하인방) 등 수평재의 돌출된 머리 부분을 ‘入瓣’ 또는 ‘兩卷瓣’으로 처리한 경우, 이 머리부분을 ‘切几頭’라 한다.

64) 櫺間은 도리 아래에 도리방향으로 놓여 이웃한 蜀柱(童子柱 또는 童子臺)나 駝峯을 연결시켜 가구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櫺間은 각 도리칸에 모두 설치하는 경우와 한 칸 건너 하나씩 설치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童子나 臺工 사이를 건너치르는 ‘뚝장혀’ 또는 ‘뚝장방’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櫺間에 대해서는 뒤의 <侏儒柱> 항목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65) 방형단면의 角材를 이용하여 正方形, 長方形 또는 多角形으로 격자를 짜고, 이 위를 관개로 덮고 여기에 단청 등으로 장식한 천장을 平基라 하는데, 격자를 구성한 모양이 마둑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또한 平基와 비슷한 것으로 ‘平閣’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형의 격자가 平基에 비해 매우 작다는 차이를 보일 뿐 平基와 뚜렷히 구분되는 차이는 없다. 清代에는 平基로 된 장육 ‘天花’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건축의 ‘우물천장’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물천장은 平基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66) 여기에서는 앞에서 徹上明造로 하는 경우와 상반되게 천장을 가설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67) 앞의 註65) 참조.

68) 大梁殿堂의 鋪作위 柱心線上에 횡방향(도리방향)으로 설치하여 草栱을 받고 도리방향의 기둥선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를 ‘壓槽方’이라 한다.<도.10>.(1-6. <總鋪作次序>條의 <도.7~11> 참조)

69) 1-6. <總鋪作次序>條의 註54.55) 및 <도.7~11> 참조.

70) ‘丁栱’은 건물의 측면 外陳部에 사용되는 보의 일종으로, 보의 한쪽은 건물 측면 外陳柱上的 鋪作위에 놓이고(外陳柱위에 직접 놓이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쪽은 櫺檐위에 놓인다. 평면상 櫺檐과 결구되는 부분이 ‘丁’字型을 이루기 때문에 ‘丁栱’이라 하는 것이다. 淸式의 ‘順爬梁’과 비슷하며, 우리의 ‘衝樑’에 해당하는 부재로 볼 수 있다.

71) 건물의 모서리에서 추녀(角梁)와 직각을 이루도록 놓여 추녀의 후미를 받고, 건물 모서리의 가구를 결속시켜 보강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보의 일종으로 淸式에서는 ‘抹角梁’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의 ‘귀잡이보’와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다.

크기는 材와 같고 길이는 간살(間廣)을 따르도록 한다. 때 架의 아래에는 平基方 하나씩을 얹는다. 平圍의 구성도 이와 같다. 또 架를 따라서 椽(81)서 까래를 얹고 遮版(82)으로 덮는다. 이 서까래는 殿宇인 경우에 높이를 2寸5分(83), 폭을 1寸2分으로 하며, 기타 건물에서는 높이를 2寸2分, 폭을 1寸2分으로 한다. 이 部材의 단면이 작은 경우에는 적당히 加減한다. 絞井口(84)는 모두 補間을 따른다. 縱橫의 分布는 정방형으로 한다. 峻脚(85)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격자안 상부에 版을 깔고 장식한다. 平圍인 경우에는 峻脚椽(86)을 사용하는데, 그 단면의 크기는 모두 平圍椽(87)과 같게 한다.

이상 本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의 단면 크기를 정리하여 <표.1>에 나타내었다.

<表.1> 『營造法式』의 각종 보에 대한 단면 규정

보의 종류	椽架	鋪作	보의 형식 및 노출 여부		
			商梁(?)	草款	明椽
殿椽	3椽架				42分°
	4椽架	4~8鋪作	42分°	45分°	50分°
	5椽架				56分°
	6椽架	4~8鋪作	60分°	60分°	최대 60分°
	7椽架				
8椽架					
乳椽	大梁과 마주 대하는 위치	大梁과 동일한 높이			42分°
	3椽架	4.5鋪作	36分°	30分°	
	6鋪作 이상	42分°	42分°		
	2椽架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御梁	1椽架	4~8 出跳	30分°	左에 혼합	35分°
	2椽架	不出跳	21分°이하	右에 혼합	
小梁	2椽架	4.5鋪作	30分°	규정 없음	4椽·6椽 이상 : 35分°
		6鋪作 이상	36分°	규정 없음	8椽·10椽 이상 : 42分°
廳堂梁椽	3椽架	-	30分°	-	-
	4椽架	-	36分°이하	-	-
	5椽架	-	-	-	-
기타 건물	서까래의 架數에 따라 加減				

- 72) 팔작이나 우진각지붕으로 된 건물에 있어서 건물 모서리에 45°방향으로 경사지게 걸어 사용하는 보의 일종으로 '陽馬'라고도 한다. 角梁은 두개를 아래 위로 중첩시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의 큰 것을 '大角梁', 위의 큰 것을 '子角梁'이라 한다. 角梁은 우리나라의 '후너'에 해당하며, 大角梁과 子角梁은 각각 우리나라의 '후너'와 '사래'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또한 角梁에는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를 비롯한 角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의 <陽馬>條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73) 外陳隅柱와 內陳隅柱 사이의 明梁 위, 大角梁 아래에 위치하며, 角梁과 중첩시켜 사용하는 草椽의 일종이다.
- 74) "內至角後椽項"이라는 문장에 대해 梁思成은 "이 의미는 불명확한데, 오류가 있었던지 않을 빠뜨렸는지 의문이다."라고 하였다(梁思成, 『전개서』, p.152).
- 75) 托脚에서 좌두위에 좌두와 평행하게 놓인 부재로 檼檼方과 각종 素方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이다. 把頭絞項造와 斜口跳를 제외한 모든 鋪作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부재중의 하나이다. 정확한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1-6. <總鋪作次序>條의 <도.7~11>을 참조.
- 76) 뒤의 註(80) 참조.
- 77) 托脚은 상하의 도리 사이에 경사지게 놓여 도리 사이를 서로 결속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부재이다. 그런데 이 托脚은 後代로 내려올수록 점차 단면이 줄어들어 그 구조적 기능이 감소하는 변화를 겪는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風停寺 極樂殿에서 이러한 托脚의 수법이 보이고 있어<도.18>, 고려시대의 건축과 당시 중국건축 사이의 관계성이 주목된다.
- 78) 여기에서 矮柱는 보위에 놓여 상부의 보나 도리를 받는 짧은 기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童子梁'이나 '童子柱'를 말하는 것이다.
- 79) 原文의 '敦木忝'에서 '木忝'은 字典에 보이지 않는 글자로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문맥상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80) 明椽 상부에 놓여 平基를 받는 방형의 부재이다. 정확한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1-2. <栱>條의 <도.1>을 참조.
- 81) 여기에서는 서까래가 아니라 平基方을 사용하여 만든 커다란 격자 속에 다시 조그마한 격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 縱橫으로 배열하는 방형단면의 부재, 즉 平基椽를 말하는 것이다.
- 82) 平基椽위에 깔아 놓는 版을 말한다.
- 83) 여기의 分은 상대치수가 아닌 절대치수 단위이다.
- 84) 梁思成은 "'井口'는 椽을 사용하여 平基方과 더불어 구성되는 격자이다. '絞'는 동사로 削이 平基方과 서로 교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營造法式註釋卷上』, p.153). 그러나 絞井口는 平基方에 의하여 매 칸마다 平基椽을 길기 위해 구성되는 커다란 격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될 때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이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85) 平基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86) 平圍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 平圍를 받기 위해 경사지게 놓는 방형단면의 부재이다.
- 87) 平圍를 구성하기 위해 격자형으로 구성하는 방형단면의 부재이다.

2. 고인돌의 건축기법과 배경사상

가. 고인돌의 배산임수 배치

고인돌은 지금부터 약 2000~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생활하였던 고대인들의 유물로서 강화도를 비롯한 전국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인돌들은 대부분이 당초에 건립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만큼 이 유물을 분석함으로써 고대인들의 생활상이나 사상을 알 수 있다. 고인돌의 크기나 형태 등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부분도 확인하게 된다.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들의 배치상태를 분석해 보면 이들 고인돌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고인돌은 대부분이 약간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다 보도록 배산임수의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인돌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이나 개천 등의 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지세에서의 고인돌의 공간구성 방법은 고인의 매장 공간의 위치를 높은 쪽에, 그리고 후손들이 제사지내는 공간은 낮은 쪽에 배치된 것이 공통적이다. 즉 고인돌의 배치는 경사지의 고저에 의하여 상하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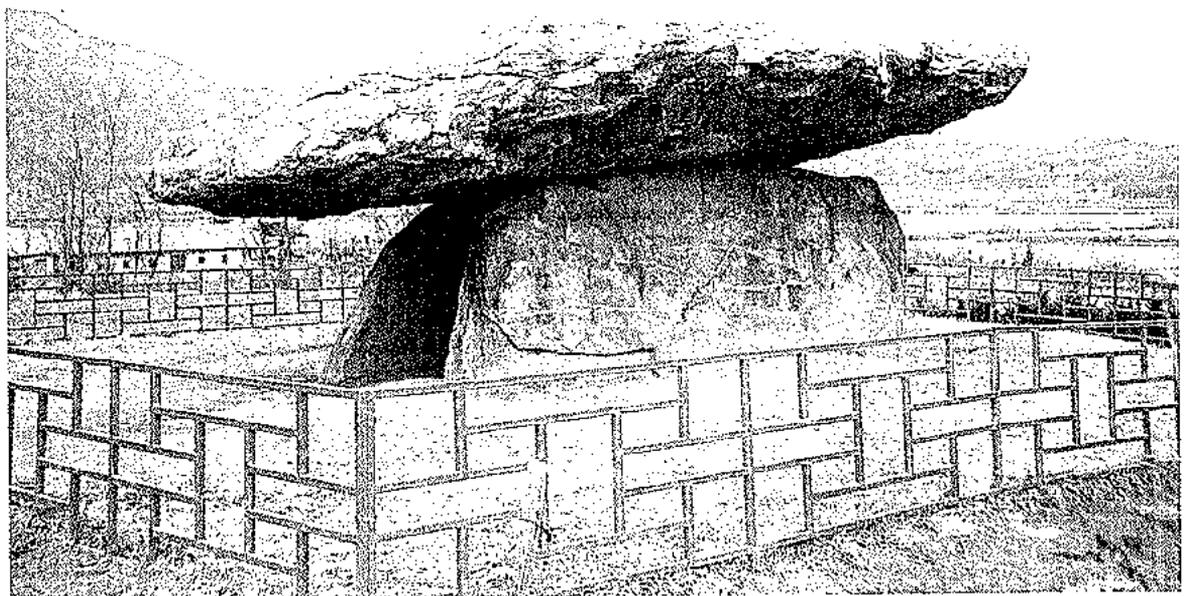
고인돌시대의 생활방식에 있어서 가부장제도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상좌에 모시게 되며, 그의 자손들은 낮은 자리에 함께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족간의 위계질서에 의한 공간의 배치방법은 묘지의 공간에 있어서도 자연히 고인의 시신은 높은 자리에 매장하게 되며 그의 후손들은 낮은 공간에서 장례지내게 되는 이른바 상하식 배치방법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건축(3)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고인돌

朴時翼 / 도봉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by Park Shi-ik



상하식 배치의 다른 큰 장점은 고인을 보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경사지에 앉을 때에는 몸은 높은 곳에 그리고 다리는 낮은 쪽을 향하여 뻗으며 편안한 자세를 갖게 되며 이때 시선은 자연히 낮은 지세쪽을 향하게 되어 이른바 배산임수의 좌향을 하게 된다. 즉 위계질서에 의한 상하식 배치방법은 고인의 신체적 편안성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개인적 신분을 높여주며 동시에 편안한 앉을 자리를 제공하는 합리적 배치방법이다.

고인들의 배치방법에서 분석되는 또다른 의미로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하식 배치방법은 남향식 배치방법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남향식 배치의 특징은 태양의 따뜻한 빛을 보다 많이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경사지에 있어서 지면의 높이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우에는 시신을 북쪽에 두어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태양빛과 위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지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세가 남쪽이 높을 경우에는 시신을 남향하기 위해서 북쪽에 안치하게 되면 북쪽의 지면이 낮기 때문에 남쪽의 후손들이 고인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장례를 지내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상을 숭상하지 못하는 형태를 이루어 옳지 못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경사지에 있어서 고인들의 배치방식은 지면의 고저에 의한 배산임수의 배치가 이상적이며 남향식 배치방법은 그다지 이용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인들의 배치는 고인의 신분을 높이고 편안하게 모시는 동시에 고인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배산임수의 배치를 전통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과 후손과의 관계가 상하의 위계적인 경우에는 고인을 높게 그리고 평안하게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관습이며 그 결과 고인들의 배치방법은 고인들이 높은 지대에서 낮은 쪽을 향하여 배치하게 된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인들은 고인에 대한 존경심과 또한 고인을 편안하게 모시려는 목적으로 상하식 배치를 하게 되었으며 상하식 배치는 배산임수의 배치의 기본 원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고인들은 기능상 매장공간과 제사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죽은 사람을 보다 공경스럽게 우러러 보기 위해서는 매장공간을 높은쪽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방

법이라 해석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인들의 배치방법을 분석해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면축(面軸)배치 : 경사지에서 능고선 평행으로 시신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고인들의 내려다 보는 중심축은 능고선에 직교한다.

풍수지리에서 능선의 경사지에는 크게 면과 배로 구분하는데 면이라 함은 산의 전면을 말하며 배는 산의 뒷면을 말한다. 면축배치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산의 면에 시신을 횡적 중심축을 일치하여 배산임수로 배치한 방법을 말한다.

②용축(龍軸)배치 : 산의 능선 중심축에 시신의 중심축을 일치시켜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풍수에서 산의 능선은 용(龍)이라 한다. 용의 중심에서 시신의 횡적 축이 일치하게 배치하는 방법이며 현재까지 내려오는 표지의 이상적인 배치방법이다.

나. 고인들 구조의 음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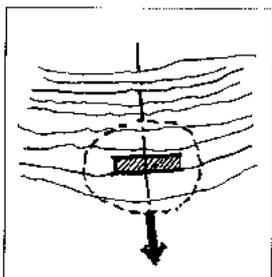
고인들의 구조적 특징에 음양이론을 적용하여 고인들의 상징성을 분석할 수 있다.

고인들이 지상에 노출된 부분은 4개의 받침돌과 1개의 덮개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형태를 건물에 비유하며 4개의 받침돌은 건물의 4면 벽체에, 그리고 덮개돌은 지붕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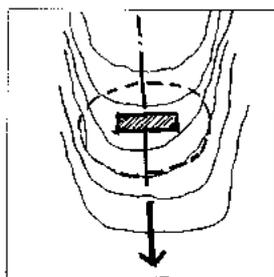
음양의 이론은 상대적인 두가지의 대상을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은 음으로 그리고 바탕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양으로 각각 구분한다. 그러므로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나무에 있어서도 뿌리는 음이며 가지는 양이 된다.

이와 같이 고인들에 있어서도 받침돌은 하부(下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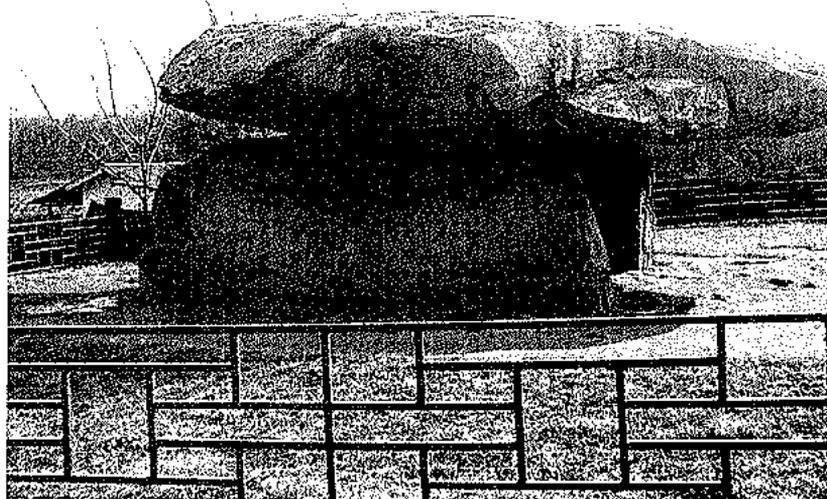


①면축(面軸)배치



②용축(龍軸)배치

그림 2-3 고인들 배치의 종류



에 있어서 바탕이 되므로 음이며 덮개들은 상부(上部)에 있어서 양이다.

고인들의 상부와 하부를 크기로 비교하면 상부의 덮개들이 하부의 받침돌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단일 석재로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부와 상부의 음양적 비교에 있어서 음보다는 양이 압도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음보다는 양이 항상 주도적이다. 그러나 만약에 덮개들이 없거나 벽면에 비하여 매우 작을 때에는 음의 부분이 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음이 양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음 위주의 체계를 뜻함은 물론이다.

고인들에 있어서는 덮개들이 양으로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 위주의 사상이 지배적이며 음은 세력이 약하게 되어 양에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고인들사대의 사상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비중에 있어서는 하늘을 크게 섬기며 땅은 하늘에 지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는 남자가 위주가 되고 여자는 권한이 빈약하고 남성우위의 사상이 지배적임을 뜻한다.

실제의 생활에 있어서는 현실보다는 내세(來世)에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또한 땀 흘려 노동하는 것보다는 권위를 지나치게 숭상하였고 현실보다는 이상주의가 팽배한 것을 뜻한다. 또한 문무(文武)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치(文治) 위주가 되어 문약(文弱)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을 뜻하고 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체보다는 정신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

이상에 분석된 바와 같이 고인들의 구조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음보다는 양이 압도적으로 큰

구분	위치	음양	천지	남녀	시간	생활	현실 이상	文武	정신 육체
덮개들	上	양	天	남	내세	권위	이상	文	정신
받침돌	下	음	地	여	현세	노동	현실	武	육체

표 2-2 고인들의 음양분석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근거는 고인들의 구조에 있어서 덮개들이 받침돌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기 때문이다.

다. 하늘로 향하는 방향성

고인들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묘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묘지가 있지만 고인들과 같은 형태는 오직 한국 이외는 거의 없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땅에서 태어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땅 위주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한줌의 흙이 되며 묘지는 사람이 흙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공간이 된다. 이와같이 죽음의 공간을 『땅』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고인들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죽음의 개념은 이러한 땅 위주의 죽음과는 다르다. 고인들의 형태에 대한 상징성의 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고인들에 나타난 죽음의 세계는 땅보다는 하늘을 죽음의 세계로 숭배하고 있다.

즉 죽음이란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것이 고인들 구조의 특징이 된다.

고인들에 있어서 커다란 덮개들은 바로 하늘을 뜻하며 고인의 영혼을 의미한다.

고인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올려 보내기 위해서는 커다란 덮개들을 높이 메달아야 한다. 그리고 덮개들이 크고 무거울수록 영혼은 하늘나라에 쉽게 그리고 빨리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영혼을 하늘나라에 보내지 않고 땅 속에서 편안히 쉬게 하기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흙이나 여러 조각의 돌더미로 눌러두기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의 죽음을 영혼과 연관해서 묘지를 구성한 역사적인 예는 고인들 이외에도 이집트의 피라밋을 말할 수 있다.

피라밋 역시 고인들과 거의 같은 시대의 묘지로서 거대한 석재를 지상에 높이 축조한 목적은 영혼의 계림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피라밋의 거대한 석조는 영혼의 불멸을 뜻하듯이 고인들 역시 영혼의 불멸을 뜻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형태에서의 차이는 고인들은 상부가 크게 되어 있으나 피라밋은 하부가 크게 되어 있다. 피라밋의 하부가 큰 의미는 영혼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 즉 현실을 중요시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인들은 상부가 크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내세에 영원히 살 것을 뜻하여서 피라밋과 고인들의 영혼에 대한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의 능선을 따라서 점차 높이 올라가며 산의 정상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고인들에 나



타난 고대인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고인들은 모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세워졌으며 특히 산의 능성 즉 용을 중심축으로하여 세워졌다. 후손의 입장에서 장래를 치루는 공간은 고인들보다 낮은 쪽에 서서 고인들을 높이 우러러보도록 배치 되어 있다.

이것은 고인의 영혼이 하늘에 머물러서 거주하기도 하며 때로는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여 하늘을 영혼의 공간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 고인들의 공간배치에서 배산임수의 구조는 고인의 영혼을 하늘에 모시는 과정과 또한 영혼이 하늘로 향하는 등선 계획에 있어서도 매우 적합한 구조임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고인들의 커다란 덮개들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 종교적 공간

고인들은 묘지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설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후손들이 친지들과 더불어 고인을 위해 명복을 비는 과정은 매장시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인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장례날에 거행되며 상례의 기간은 길지 않다. 짧은 기간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는 묘지의 형태도 간단해야 한다.

그러나 고인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거대한 덮개들의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은 통하여 작업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장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축조공사를 거행했을 이유는 단순한 장례를 위해서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있어서와 같이 고인의 영혼과 후손과의 사이에 성립된 영혼의 관계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고인의 영혼적인 분제와 후손과의 관계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분된다.

마. 고인들의 사상적 배경

고인들 자체가 바로 무덤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무덤은 사람의 죽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서 고인들은 바로 죽음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따르는 의식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을 통한 자료의 해석에서 당시의 사회적 제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한국의 고인들 유적으로부터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성격 및 사상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석묘의 사상적인 분석에 나타나는 고대인의 생활은 모두 자연과 더불어서 영위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당시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자연에 대한 숭배사상으로부터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귀신숭배, 태양숭배, 산악·산신숭배, 조상숭배 등이 그러한 실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간생명의 출발지가 자연이며 또한 인간의 영원한

공간도 자연인 까닭으로, 자연은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관념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공통된 사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에 나타난 자연숭배의 사상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지석묘 시대에도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지석묘는 원시생활에 있어서 세계 여러 곳의 종교 건축물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어서 지석묘에 나타난 원시건축의 형성과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형식은 신의 주거라는 개념에 근거를 둔 신전으로, 신전이나 신의 실제적인 또는 상징적인 저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종교에서는 신상을 산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신전을 사람의 주거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그러하고, 이집트의 신전도 같은 생각에서 발전된 것이며, 동부아시아의 신전도 그 근원이 동일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형식은 고단(高壇 : High Place)의 개념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자연신인 하늘 또는 태양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제사하는 자가 신과 더불어 더 가까이 교통하기 위해서 높고 조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언덕 또는 산마루를 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높은 곳이 없는 평지에서는 흙이나 벽돌 또는 석재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큰 산을 쌓아 올렸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Ziggurats), 마야(Maya)의 피라미드 등이 적절한 사례이다.

셋째형식은 분묘식 신전으로 성자의 사체 또는 신체 위에 신전을 만든 것이다. 고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왕·영웅의 사체 위에 높은 토총을 쌓아 올려서 추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이 성자 또는 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불교의 탑파(Stupas)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형식은 가장 발달된 형식으로 회당(Meeting Place)의 형식인 것이다. 이것은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고대의 신비종교는 이 형식의 종교건축을 만들었으며, 유대인의 시나고그(Synagogue)도 같은 형식이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로마의 바실리카(Basilica) 건축을 이용하여 이같은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교회건축을 형성하였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생활양식도 발전되고 종교사상도 복잡성을 띠게 되었으며, 그 건축형식도 기본개념에다 서로 다른 형식을 더하게 되어 두 개 또는 세 개의 형식을 혼합한 종교건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시생활에 있어서 분묘는 단순한 사자의 거소일 뿐만 아니라 신과의 연결체로서 해석되어 종교적인 공간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지식묘는 이러한 종교적 공간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지식묘는 그 건립연도가 신석기 시대로서 BC. 2~3세기 또는 BC. 4세기이며, 이 시대는 아직까지 외래사상이 도입되지 않은 시대인 만큼 이 지식묘의 사상적인 분석은 본격적인 풍수지리설이 적용된 후의 사상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 지식묘들이 건립된 목적과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들의 사상을 추측하게 되는 바, 이들 지식묘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 「지식묘의 상징에 대한 분석」과 같이 요약된다.

이상에서 밝힌 고인들의 종교적인 내용은 고인들에

는 고인의 영혼이 존재하며 이 영혼과 후손들과는 상호간에 영적 교환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인들의 영혼은 산신이나 하느님의 세계와도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므로 고인들은 신의 공간이며 고인을 위한 기념지이며 동시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종교적인 공간이다.

분류	학자	상징성
1	尹張燮	①神의 住居(House of God) ②自然神에 대한 祭祀處(High Place) ③墳墓式 神殿으로 塔婆(Stupas)의 原形 ④彫拜者들의 會堂(Meeting Place)
2	黃相基	①死者 기념지 ②祭天의 의식장소
3	朴學在	①墳墓 및 祭壇(支石墓) ②太陽神의 상징 및 祭祀處(선돌) ③太陽神의 상징, 戰鬪의 기념비(列石群碑) ④神에게 儀式, 死者에게 追悼 ⑤祭壇 및 천체관측소(觀星群石柱)
4	金載元 尹武炳	①墳墓 ②祭壇

표 2-4 지식묘 상징에 대한 분석

3. 고인들과 전통건축과의 관계

고인들의 구조는 내부에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주변에는 바위로 벽을 4면에 들렀으며, 또한 덮개돌로 지붕을 만들어 완전히 건축을 이루고 있다.

고인들의 위치는 앞으막한 경사지에 배산임수의 배치를 하고 있고, 더욱이 산의 용에 그 맥을 일치하고 있어서 풍수지리의 이론과도 부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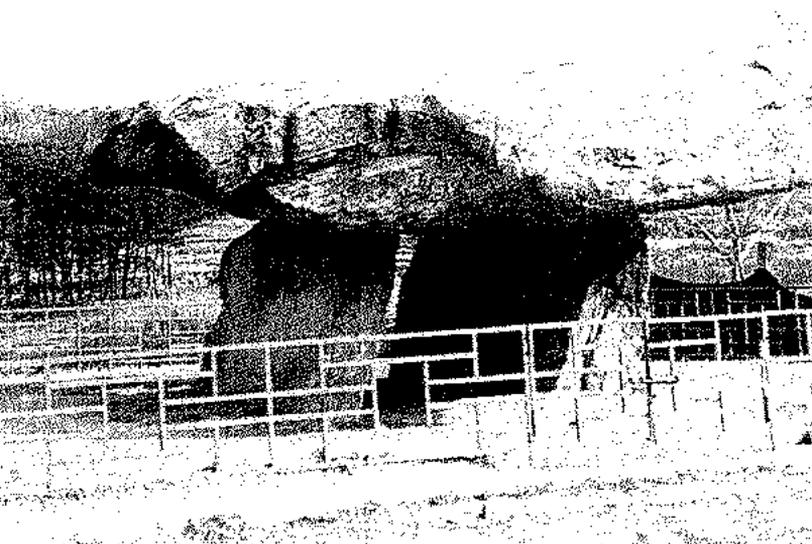
고인들의 형태에 있어서는 벽에 비하여 지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초가집이나 기와집 등의 한국 전통적인 건물의 양식과도 기본적인 분위기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인들에 있어서 덮개돌이 받침돌보다 길게 뻗어 나온 형태는 기와집이나 초가집에서 지붕의 처마가 길게 뻗어 나온 형태와 동일한 성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인들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듯이, 최초까지도 집에는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도 일치하고 있다.

부엌이나 대문, 마루, 안방 등 각종의 공간에 고사를 지내는 풍습도 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만큼 그 개념은 고인들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다.

고인들이 원시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맥이 건물의 배치방법이나 형태로서 현재까지 일부나마 전해지고 있다.

고인들이 세계의 독창적인 유물이듯이 한국의 문화도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건축, 건축인 그리고 컴퓨터

Architecture, Architect and Computer

朴贊遠 / 건축사사무소 한국조형
by Park Chan-Won

(1)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는 가고 또 온다.

수급과 지출의 반복은 항상 힘겨운 한 해를 정리하게 한다. 간소화라는 핑계로 언하장, 메모달력도 그냥 지나쳤다.

그나마, 업무의 전산화를 지표로 삼고 우리 서식만이라도 마무리지어 한결 손쉽게 업무처리 된 것이 94년도의 결실이라 할까?

사실, 이제 99%의 완성을 보아 실용화가 되었지만 이미 8개월 전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실용화 하기에는 불편이 따랐다. 그래서, 얼마전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한국 Data Base사와

협의를 하여 한글 Data Base인 자료관리 2.5를 우리 업무에 알맞게 수정하여 완결판을 만든 것이다.

물론, 우리 회원들이 쓰면서 문제점 및 보안점을 지적하여 알려 주겠지만, 다 완성된 뒤 느끼는 감정은 중학교 2학년때, “학생과학”이라는 책자를 보고 렌즈 하나 사다가 카메라를 어설피게 만

든 적이 있었다. 그 멋있고(?) 저렴한 카메라로 여동생을 찍어 지문 문은 인화된 사진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느끼던 심정과 똑 같았다.

몇일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중, 원하는 회원들에게 배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기본 프로그램인 한글 Data Base는 그 개발회사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컴퓨터 프로그램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할인된 가격이나마(정품도 10만원도 안 되는 염가이지만) 우리 회원들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 대열에 우리 한국인들이 앞장서야 될거라 생각하면서...

(2)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현재 하드웨어로써 필요한 기종은 AT(286) 이상이면 되고 CAD처럼 하드 디스크 용량이나 마우스, 타블렛 등의 구차스런 주변기기는 전혀 필요없다. 프린터는 잉크젯 이상을 쓰는 것이 선 곳(서식작성) 기능을 보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한국 Data Base사의 자료관리 2.5(우리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맞게끔 최근 개발한 것을 본 협회 홍보부 및 우리 인천시 협회에 비치중)만 넣고 “서식1”이라는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는 간편한 프로그램이다. 기능을 요약하면 자료 입력은 일반 컴퓨터 학원에서 가르키는 O.A 과정 중, 영문 Data Base와 거의 같아 사용시 어려움이 없고, 그동안 다른 워드프로세서로 만든 것과는 달리 Data Base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

한번의 자료 입력으로 원하는 서식마다(사용중인 서식을 작성하여 보니 50여종에 이름) 출력이 가능하며 사무실 명칭의 고무판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용도별 등, 원하는 항목별 분류가 되고, 원하는 기간중의 면적 집계가 되며 원하는 순서별로 나열도 되는 것은 물론 원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건축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서기번호: □□-□-□□□□

최대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건축물 건설을 허가합니다. □연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건 축 주	1 성 명	2 주 소	3 주 소
	4 성 명	5 번 호	6 계 호
	7 시 구 읍 명	8 주 소	

내 지 소 인

9 면 적	10 지 역	11 차	12 계 호
13 면 적 (㎡)	14 주 소	15 차	16 주 소

규 모

17 연면적	18 연면적	19 연면적	20 연면적	21 연면적	22 연면적
292.06 ㎡	2082.27 ㎡	58.41 ㎡	278.01 ㎡	22.15 ㎡	

23 주 소

24 차	25 차	26 차	27 차	28 차	29 차	30 차

31 기 승 시 의 특 인

32 일 연 지 의 내 용

33 기 승 시 의 특 인	34 기 승 시 의 특 인	35 기 승 시 의 특 인	36 기 승 시 의 특 인	37 기 승 시 의 특 인	38 기 승 시 의 특 인	39 기 승 시 의 특 인

면 적 합 계

일련번호	건축주성명	도서신고	허가NO	허가일	연면적
900001	박희철	90.01.08	11	90.01.23	256.5
900002	배수용	90.01.10	24	90.01.20	241.56
900003	김병호	90.01.19	33	90.02.01	659.07
900004	안희준	90.01.19	12	90.01.29	938.66
900005	김선옥	90.01.16	44	90.01.20	664.4
900006	양승철	90.01.31	142	90.05.07	1467.99
900007	이승재	90.02.12	44	90.02.15	179.8
900008	김상길		69	90.02.16	494.4
900009	김기수	90.02.10	128	90.02.13	532.8
900010	유지환	90.02.12	42	90.02.15	184.18
900011	이희용	90.02.12	56	90.02.28	135.185
900012	만두기	90.02.16	93	90.03.05	494.82
900013	산기현	90.02.23	192	90.02.26	264.48
900014	최영진	90.02.24	294	90.03.22	120.22
900015	이방훈	90.02.26	207	90.02.27	222.51
900016	김시용	90.02.28	261	90.03.06	511.8
계					7368.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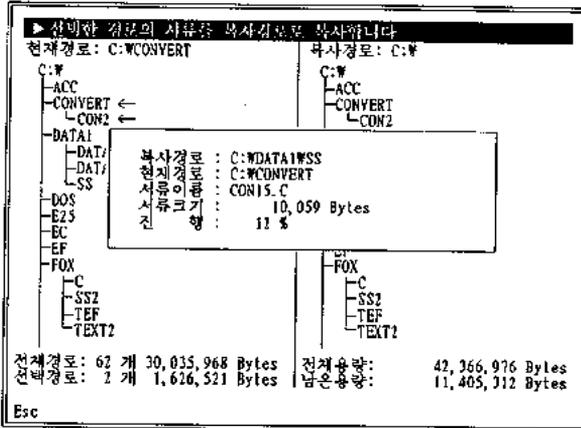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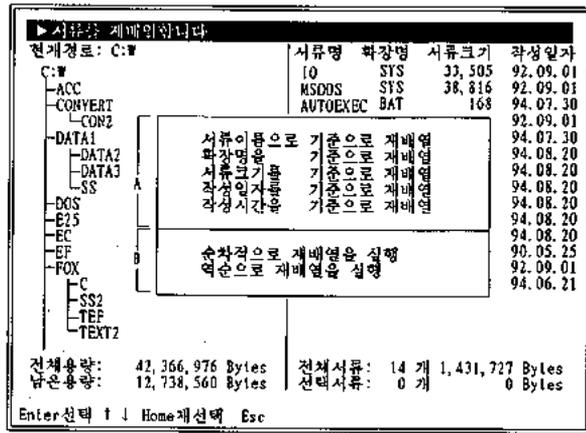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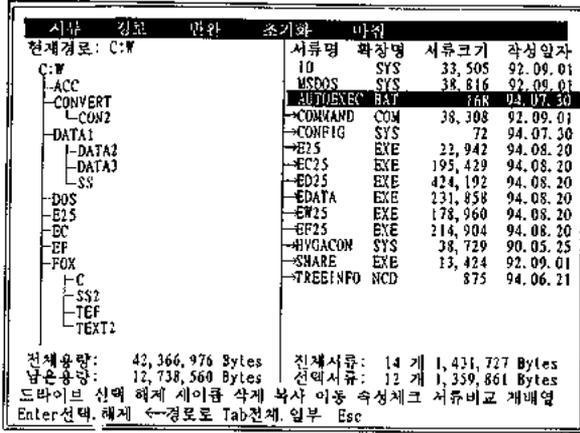
서울지역 92, 93년도 집계

일련번호	대 자 위 치	허가일	건폐율
920048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9, 18호 61-17호	91.10.14	
9200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도 191-24호	92.09.04	
92005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5-10호	91.11.04	82.45
930021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4-30	93.02.20	
93004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4번지	93.09.08	
93004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126	94.02.28	
93004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19	93.10.15	54.24
931038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88-57		

프로젝트정리모음

프로젝트코드	건축주성명	감리자	착공일	대지면적	주차대수
940001	정무명		94.05.23	230.9	2
940002	김동근			412.4	5
940003	최병호			1048	
940004	문용호			1295	5
940005	권태안 외 1인		94.09.12	370.87	5
940006	전명열 외 1인	박찬원	94.08.29	624.8	
940007	나한중 외 25인			664.8	24
940008	학교법인명서학원			1265.201	1
940009	김영수 외 8인	박찬원	95.01.00	664.8	18
940010	주용조 외 1인	박찬원	94.11.12	707.7	
940012	주봉환	박찬원	94.12.16	694	
940013	박찬호			544.0	
940014	강우신				
940015	상우신				

구 분	면적 (㎡)	구 분	면적 (㎡)	구 분	면적 (㎡)	구 분	면적 (㎡)	구 분	면적 (㎡)
33 구 분	371.59	34 구 분	320.60	35 구 분	249.49	36 구 분	289.63	37 구 분	289.63
38 구 분	271.70	39 구 분	116.10	40 구 분	111.80	41 구 분	169.19	42 구 분	180.30
43 구 분	2082.27	44 구 분		45 구 분		46 구 분		47 구 분	
48 구 분		49 구 분		50 구 분		51 구 분		52 구 분	
53 구 분		54 구 분		55 구 분		56 구 분		57 구 분	
58 구 분		59 구 분		60 구 분		61 구 분		62 구 분	
63 구 분		64 구 분		65 구 분		66 구 분		67 구 분	
68 구 분		69 구 분		70 구 분		71 구 분		72 구 분	
73 구 분		74 구 분		75 구 분		76 구 분		77 구 분	
78 구 분		79 구 분		80 구 분		81 구 분		82 구 분	
83 구 분		84 구 분		85 구 분		86 구 분		87 구 분	
88 구 분		89 구 분		90 구 분		91 구 분		92 구 분	
93 구 분		94 구 분		95 구 분		96 구 분		97 구 분	
98 구 분		99 구 분		100 구 분		101 구 분		102 구 분	
103 구 분		104 구 분		105 구 분		106 구 분		107 구 분	
108 구 분		109 구 분		110 구 분		111 구 분		112 구 분	
113 구 분		114 구 분		115 구 분		116 구 분		117 구 분	
118 구 분		119 구 분		120 구 분		121 구 분		122 구 분	
123 구 분		124 구 분		125 구 분		126 구 분		127 구 분	
128 구 분		129 구 분		130 구 분		131 구 분		132 구 분	
133 구 분		134 구 분		135 구 분		136 구 분		137 구 분	
138 구 분		139 구 분		140 구 분		141 구 분		142 구 분	
143 구 분		144 구 분		145 구 분		146 구 분		147 구 분	
148 구 분		149 구 분		150 구 분		151 구 분		152 구 분	
153 구 분		154 구 분		155 구 분		156 구 분		157 구 분	
158 구 분		159 구 분		160 구 분		161 구 분		162 구 분	
163 구 분		164 구 분		165 구 분		166 구 분		167 구 분	
168 구 분		169 구 분		170 구 분		171 구 분		172 구 분	
173 구 분		174 구 분		175 구 분		176 구 분		177 구 분	
178 구 분		179 구 분		180 구 분		181 구 분		182 구 분	
183 구 분		184 구 분		185 구 분		186 구 분		187 구 분	
188 구 분		189 구 분		190 구 분		191 구 분		192 구 분	
193 구 분		194 구 분		195 구 분		196 구 분		197 구 분	
198 구 분		199 구 분		200 구 분		201 구 분		202 구 분	
203 구 분		204 구 분		205 구 분		206 구 분		207 구 분	
208 구 분		209 구 분		210 구 분		211 구 분		212 구 분	
213 구 분		214 구 분		215 구 분		216 구 분		217 구 분	
218 구 분		219 구 분		220 구 분		221 구 분		222 구 분	
223 구 분		224 구 분		225 구 분		226 구 분		227 구 분	
228 구 분		229 구 분		230 구 분		231 구 분		232 구 분	
233 구 분		234 구 분		235 구 분		236 구 분		237 구 분	
238 구 분		239 구 분		240 구 분		241 구 분		242 구 분	
243 구 분		244 구 분		245 구 분		246 구 분		247 구 분	
248 구 분		249 구 분		250 구 분		251 구 분		252 구 분	
253 구 분		254 구 분		255 구 분		256 구 분		257 구 분	
258 구 분		259 구 분		260 구 분		261 구 분		262 구 분	
263 구 분		264 구 분		265 구 분		266 구 분		267 구 분	
268 구 분		269 구 분		270 구 분		271 구 분		272 구 분	
273 구 분		274 구 분		275 구 분		276 구 분		277 구 분	
278 구 분		279 구 분		280 구 분		281 구 분		282 구 분	
283 구 분		284 구 분		285 구 분		286 구 분		287 구 분	
288 구 분		289 구 분		290 구 분		291 구 분		292 구 분	
293 구 분		294 구 분		295 구 분		296 구 분		297 구 분	
298 구 분		299 구 분		300 구 분		301 구 분		302 구 분	
303 구 분		304 구 분		305 구 분		306 구 분		307 구 분	
308 구 분		309 구 분		310 구 분		311 구 분		312 구 분	
313 구 분		314 구 분		315 구 분		316 구 분		317 구 분	
318 구 분		319 구 분		320 구 분		321 구 분		322 구 분	
323 구 분		324 구 분		325 구 분		326 구 분		327 구 분	
328 구 분		329 구 분		330 구 분		331 구 분		332 구 분	
333 구 분		334 구 분		335 구 분		336 구 분		337 구 분	
338 구 분		339 구 분		340 구 분		341 구 분		342 구 분	
343 구 분		344 구 분		345 구 분		346 구 분		347 구 분	
348 구 분		349 구 분		350 구 분		351 구 분		352 구 분	
353 구 분		354 구 분		355 구 분		356 구 분		357 구 분	
358 구 분		359 구 분		360 구 분		361 구 분		362 구 분	
363 구 분		364 구 분		365 구 분		366 구 분		367 구 분	
368 구 분		369 구 분		370 구 분		371 구 분		372 구 분	
373 구 분		374 구 분		375 구 분		376 구 분		377 구 분	
378 구 분		379 구 분		380 구 분		381 구 분		382 구 분	
383 구 분		384 구 분		385 구 분		386 구 분		387 구 분	
388 구 분		389 구 분		390 구 분		391 구 분		392 구 분	
393 구 분		394 구 분		395 구 분		396 구 분		397 구 분	
398 구 분		399 구 분		400 구 분		401 구 분		402 구 분	
403 구 분		404 구 분		405 구 분		406 구 분		407 구 분	
408 구 분		409 구 분		410 구 분		411 구 분		412 구 분	
413 구 분		414 구 분		415 구 분		416 구 분		417 구 분	
418 구 분		419 구 분		420 구 분		421 구 분		422 구 분	
423 구 분		424 구 분		425 구 분		426 구 분		427 구 분	
428 구 분		429 구 분		430 구 분		431 구 분		432 구 분	
433 구 분		434 구 분		435 구 분		436 구 분		437 구 분	
438 구 분		439 구 분		440 구 분		441 구 분		442 구 분	
443 구 분		444 구 분		445 구 분		446 구 분		447 구 분	
448 구 분		449 구 분		450 구 분		451 구 분		452 구 분	
453 구 분		454 구 분		455 구 분		456 구 분		457 구 분	
458 구 분		459 구 분		460 구 분		461 구 분		462 구 분	
463 구 분		464 구 분		465 구 분		466 구 분		467 구 분	
468 구 분		469 구 분		470 구 분		471 구 분		472 구 분	
473 구 분		474 구 분		475 구 분		476 구 분		477 구 분	
478 구 분		479 구 분		480 구 분		481 구 분		482 구 분	
483 구 분		484 구 분		485 구 분		486 구 분		487 구 분	
488 구 분		489 구 분		490 구 분		491 구 분		492 구 분	
493 구 분		494 구 분		495 구 분		496 구 분		497 구 분	
498 구 분		499 구 분		500 구 분		501 구 분		502 구 분	
503 구 분		504 구 분		505 구 분		506 구 분		507 구 분	
508 구 분		509 구 분		510 구 분		511 구 분		512 구 분	
513 구 분		514 구 분		515 구 분		516 구 분		517 구 분	
518 구 분		519 구 분		520 구 분		521 구 분		522 구 분	
523 구 분		524 구 분		525 구 분					



설명서(메뉴얼)만 보고도 국민학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지만 한국 Data Base사의 직원이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본인이 개발한 서식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부할 예정(본협회 홍보부 및 인천건축사협회 비치중)이며 기본 프로그램인 한글 Data Base는 단체 구입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제작 회사인 대표측과 협의 되었다.

참고로 본 사무소는 이 제품을 판매 및 홍보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고, 우리 업무에 개발, 활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 여러 회원들에게 알려드리는데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단체로 필요하면 프로그램의

원고모집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월간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최근 1년 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 ☆ 회원 갤러리(그림, 사진, 조각 등)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7-8504(직), 581-5711~4(교) FAX : 586-8823



부산 사하구 신청사

Pusan Saha-gu Hall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발전하는 경제추세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2천년대 서부산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낙동강권의 중심도시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공시설을 수용하고 지역의 Land Mark로서 구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대민봉사의 질향상과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신청사 건립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했다.

이 설계경기에서는 총 11개 작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신설계(정태복)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작으로는 신도시 설계감리(박찬실)안이, 가작으로는 부원종합건축(정성규)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이번 현상설계 경기의 심사과정, 심사평과 함께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 건축 개요

- 위치 : 사하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9,760㎡(9,000坪)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공용의 청사부지
- 사업비 : 319억(추정)
- 사업기간 : 95. 1~98. 12

□ 추진경위

- 94. 8. 20 : 심사위원 구성(12명)
- 94. 9. 15 : 현상 공모 공고
- 94. 9. 28 : 응모자 접수마감(40명)
- 94. 9. 29 : 현장 설명
- 94.10. 5 : 응모자 자격사유 확인(결격자 없음)
- 94.12. 9 : 심사위원 사전모임 개최
- 94.12. 19 : 작품제출 접수마감(11건)

□ 심사결과

- 일시 : 94. 12. 22(목)10 : 00~15 : 30
- 장소 : 사하구청 본관4층 민방위교육장
- 입선작 내용
 - ▷ 당선작: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3 - 14번지 (주)일신설계사무소 정태복
 - ▷ 우수작: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신도시 설계감리(주) 박찬실
 - ▷ 가 작: 부산직할시 사하구 당리동 325 - 18번지 부원종합건축사사무소 정성규

□ 심사방법

- 선정방법: 투표 및 채점
- 심사단계별구분:
 - 1단계 ▷탈락작품 5점 선정(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작품 탈락)
 - 2단계 ▷탈락작품 3점 선정(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작품 탈락)
 - 3단계 ▷가작 선정

4단계 ▷당선작 선정(최다 득표순으로 하되,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

- ※1단계 심사후 잔여작품(6작품) 사전 설명기회부여
- 심사과정 임회위원 2명 선출

□ 시상 및 전시

- 시상
 - 일시 : 94. 12. 28 11 : 00
 - 장소 : 구청장실
 - 시상내용
 - 당선작1점 : 상패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자로 지정
 - 우수작1점 : 상패 및 시상금 700만원 수여
 - 가작1점 : 상패 및 시상금 300만원 수여
- 전시
 - 일시 : 94. 12. 27~12. 30(4일간)
 - 시간 : 09 : 00~17 : 00
 - 장소 : 사하구청 본관1층 민원실
 - 전시내용 : 출품된 작품 전부(입선작 표시)

□ 사전 심사위원 명단공개

- 위원장 : 부구청장(회의 진행)
- 학계(전문직 대학교수) : 5명
- 전문인 단체(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직할시지부):1명
- 사하구 의회(의원) : 2명
- 사하구 건축위원회 위원:1명
- 공무원:2명

□ 심사위원회 위원 사전모임 개최

- 일시 : 94. 12. 9
- 목적 :▷심사위원 사전 현장 답사
 - ▷심사 과정 및 방법 토의
- 주요 결정 사항
 - 심사 당일 응모 신청자가 작품설계에 대한 사전 설명기회 부여
 - 사전 설명 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 가능

□심사는 투표를 1,2단계 무기명, 3,4단계 기명으로 진행

□심사 결과 및 과정 공개

- 입선작은 사하구 계시관 및 부산시보 게재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사지 게재
- 건축사지 게재후 기타건축관련 전문지의 게재요구가 있을 경우 게재
- 심사결과 및 과정(심사평 포함)을 공고 기간내 열람 공개

□기대효과

-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사전 현장 답사로 주변여건 등을 파악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
- 참가자에게 작품설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가의 설계 의도 파악
- 심사결과및 과정의 공개로 투명성보장으로 현재까지 여타 현상설계 경기의 오해 및 잡음을 불식, 새로운 현상 공모의 모델 제공 효과.

□심사 진행 현황

- 제1단계 1차투표:5개 작품 탈락
 - 탈락작품 번호:C,K,L,H,J

구분	B	C	F	H	J	K	L	M	O	R	S
득표	4	11	1	6	6	9	8	3	2	3	2
순위		1		4	4	2	3				

- 제2단계 1차투표:3개 탈락작품
 - 탈락작품 번호:R,M,B

구분	B	F	M	O	R	S
득표	6	5	6	5	8	3
순위	2		2		1	

- 제3단계 1차투표:가작 선정
 - 가작 작품번호:F

구분	F	O	S
득표	6	1	4
순위	1		

- 제4단계 1차투표:당선작 및 우수작 선정
 - 당선작 작품번호:S
 - 우수작 작품번호:O

구분	O	S
득표	5	6
순위	2	1

□심사평(유길준/동아대학교 교수)

사하구 신청사 계획설계(안) 현상공모(94.9.15 공고, 94.12.19. 접수마감, 94.12.22. 심사)는 부산시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사하구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현 청사의 협소함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하구 신청

동 산 26-3의 약 9,000평의 자연녹지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본 현상공모는 그 과정과 심사에 있어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바, 즉 심사위원 사전공개, 심사위원 사전협의회 개최, 건축가의 작품설명기회 부여, 입선작 선정시 기명식 투표방법 채택 등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정회한 심사를 기대하며 채택된 것이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투표권을 갖지 않은 위원장(부구청장)과 11명의 심사위원(교수 6명, 구의원 2명, 건축사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과정은 총 11작품의 출품작 중에서 1차로 5작품의 탈락대상 작품을 투표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작품을 탈락시킨 후 나머지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가의 설계설명을 청취하였으며(각 10분간), 이후 입선작 3점을 선정하는 2단계 심사에 이어 각각 1점을 뽑는 3단계 심사를 거친 후 당선작을 뽑는 총 4단계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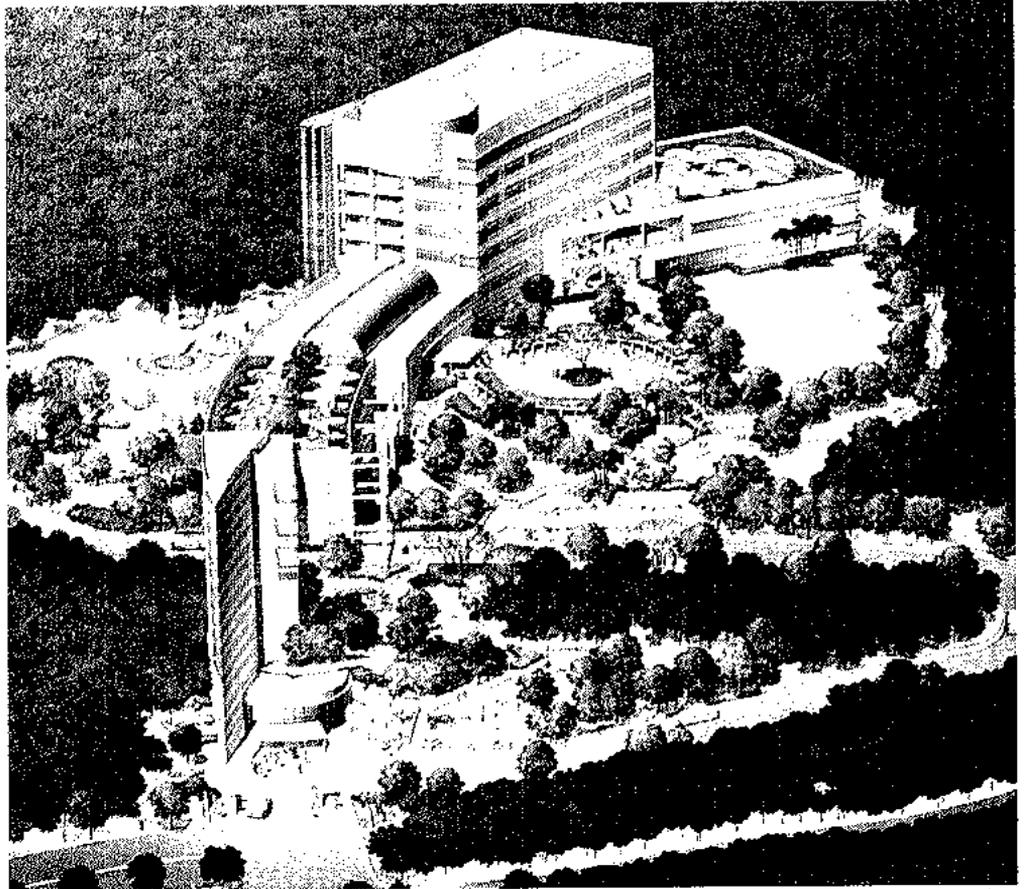
당선작인 (주)일신설계건축사사무소(정태복)의 안은 공간구성에 있어 예술적 창작성을 갖는 참신성이 돋보였으며, 민원인의 접근성에 우선권을 두는 등 기존 관공서 건물이 갖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려 한 점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청사 입구 부분의 외부공간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지는 점과 건물형태의 날카로움, 그리고 일부평면계획상의 문제 등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점으로 지적되었다.

우수작은 신도시설계감리주식회사(박찬실)의 안으로 진입부 경사면을 수변공간으로 처리하고 관공서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형태구성 등이 평가 되었으며, 다만 청사출입구부분이 협소한 점과 평면계획상의 기능적인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가작은 부원종합건축사사무소(정성규)의 안으로 기능적으로 잘 짜여진 평면계획과 최대한 확보된 주차공간, 그리고 정돈된 입면을 갖는 전통적 관공서 건물의 전형으로 평가되었으나 보차분리의 미흡함과 지나치게 권위적 구성으로서 참신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총괄적으로는 11개 출품작 대부분이 상당한 수준의 작품으로 주어진 대지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형특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훌륭한 작품을 제안한 건축가들의 노력과 능력에 심사위원 일동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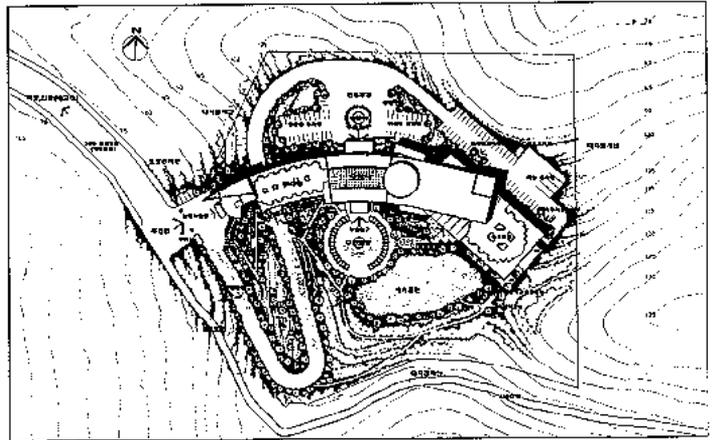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현 경기설계에서 시상제도의 분제로 당선작은 본 설계계약자로 지정됨으로 예외로 한다 하여도 지나치게 적은 입선작 작가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선작이 실시설계과정에서 각계의 적절한 자문을 받아 건축가 자신의 설계의도의 충분한 반영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훌륭한 건축을 이루어 줄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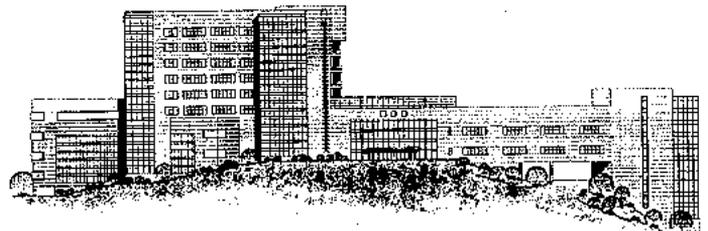
조감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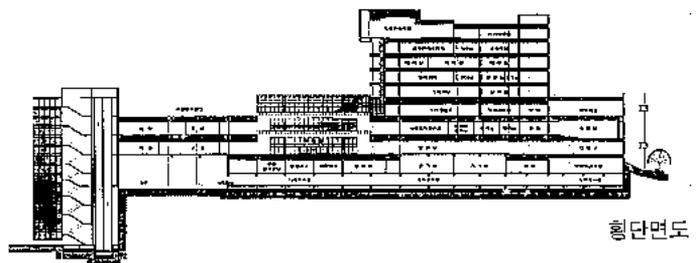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산 26-3일원
 대지면적 / 29,760.00㎡
 건축면적 / 4,220.90㎡
 연면적 / 23,483.70㎡
 간폐율 / 14.18%
 용적률 / 57.65%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북측면도



평단면도

시 강당을 이용하는 이동동선간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층별로 공간용도를 구분한다.
 차량동선을 S자의 도로로 접근시켜 보차를 분리한다.
 경사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바로 진입시켜 접근을 쉽게 한다.
 부지 내 자연보존수림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확보한다.

4. 외부공간계획

- 진입공간
 - 수직이동동선체계
 - 개방된 계단실과 EV홀의 시각적, 상징적 효과
 - 야간의 빛 투사로 지역 LANDMARK역할
 - 자연지형에 순응한 건물형태를 조망하여 진입

전면광장

- 차량 주출입동선 및 주차를 위한 서비스 공간
- 앞마당으로서의 심리적 기능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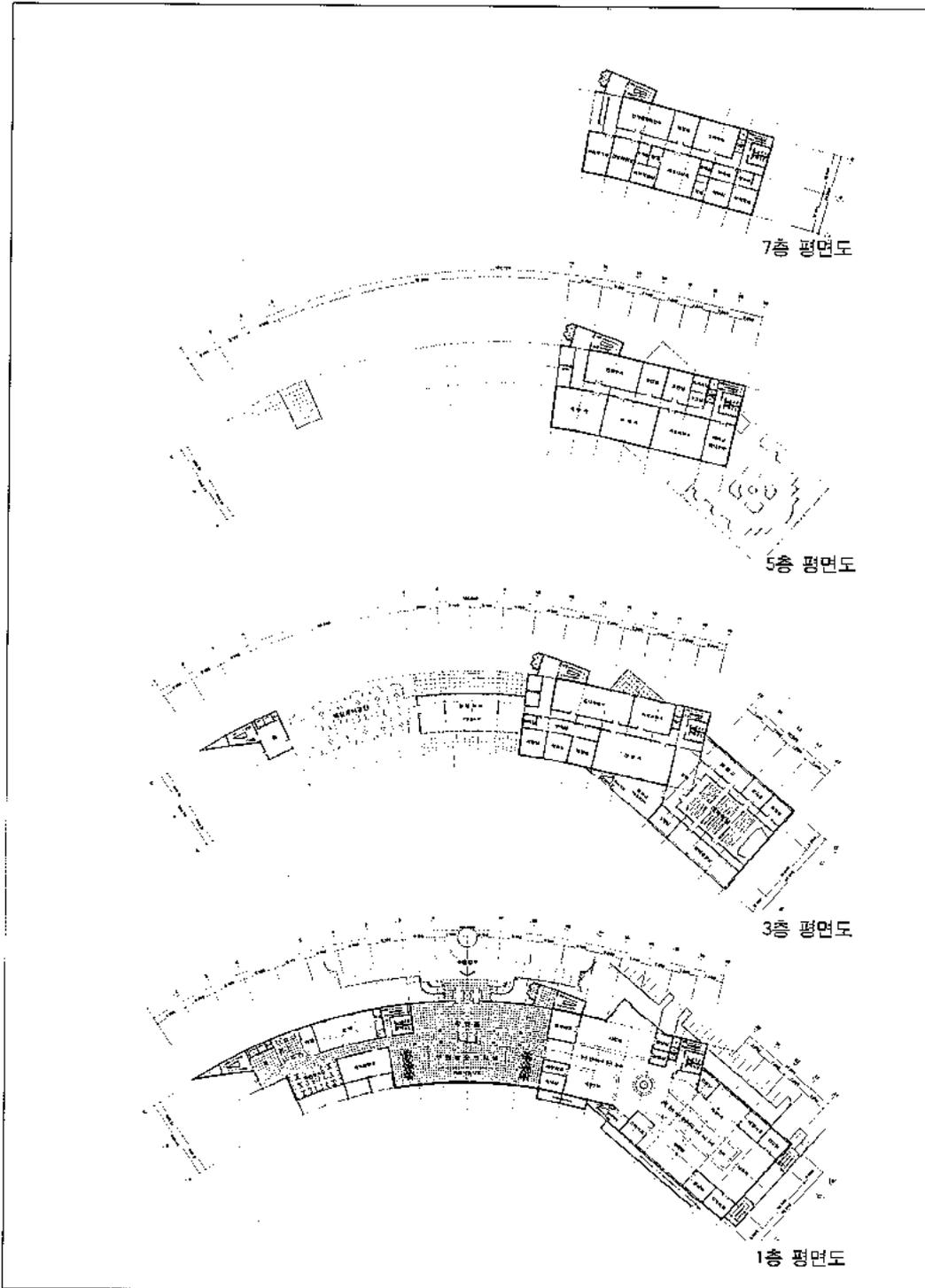
• 휴게공간

- 구민 및 공무원의 휴식공간
- 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유도
 - 문화적 계획: 전시회, 야외극, 음악발표회, 강연회
 - 축제적 계획: 구민행사, 각종 콘서트, 연회
 - 광고 활동: 구청 캠페인 전시
- 스포츠 기능(테니스코트 등)의 수용

5. 내부공간계획

• 기능구분

- 민원업무부분
 - 구청의 중심기능으로 담당하여 편리성과 친밀성 그리고 개방감을 부여한다.
- 의회 부분
 - 구민의 의견수렴기관으로서 일 반의회 업무부분과 집회용의 의 장을 확보한다.
- 행정사무부분
 - 직제에 의한 공간을 산출하고 장래업무변화의 가변성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 후생복지부분
 - 직원을 주대상으로 하여 업무부 분과 교차되지 않게 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의 배려로 환경의 질적향상에 기여한다.
- 특수업무부분
 - 방재, 보안 관계 등을 고려한다.



1. 토지이용계획의 주안점

토지이용계획은 한정된 범위의 토지공간을 합리적이고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계획에서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경사지의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토목량을 최소화한다.
 인접도에서 뿐 아니라 가시권내에 있는 각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양호한 건물배치를 한다.

경사지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성하여 이용자 및 차량의 접근이 양호하도록 계획한다.
 가용지의 제한으로 시설의 성격과 이용시설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집약적이고 효과적인 배치를 한다.

2. 공간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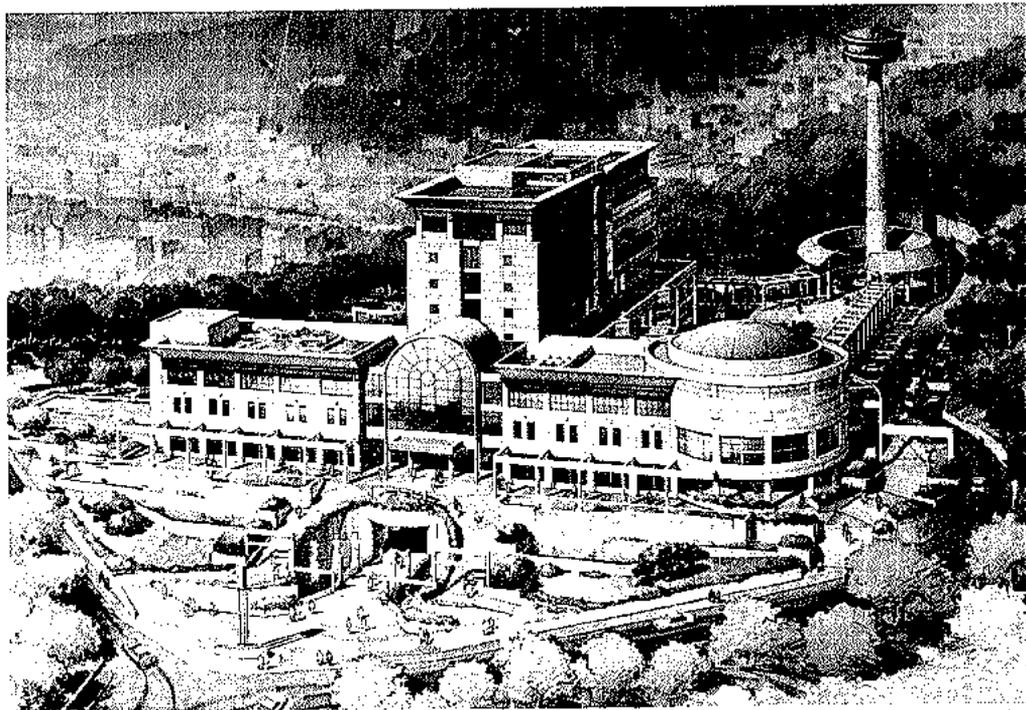
공간구성계획: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간감의 체험
 -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경직된 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흥미롭고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 공간을 기승전결의 문학적 흐름

과 같이 머릿공간~이음공간~여유공간~쓰임공간으로 잇는다.

- 머릿공간: 진입부 수직 이동장치로 고저차를 극복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 이음공간: 연결복도 주변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기능을 둔다.
- 여유공간: 갑자기 텅빈공간. 하늘과 산이 보이고 허한 마당이 있어 긴장과 상념이 교차하는 절정의 장을 마련한다.

3. 동선체계

인원동선, 공무원동선 그리고 행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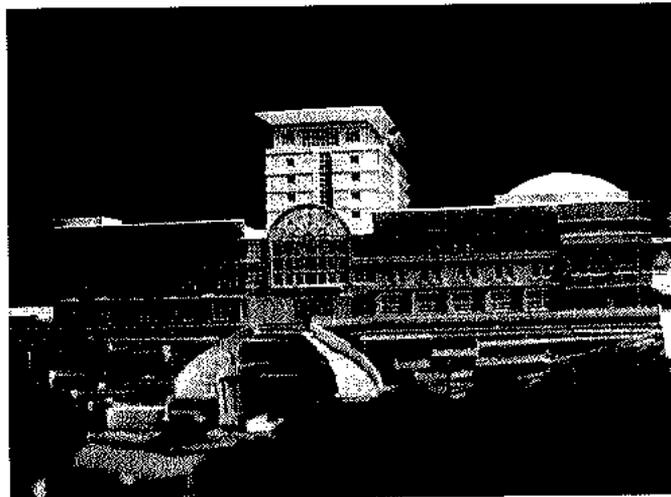
우수작

종합건축 신도시설계 감리 (주)
(박찬실, 양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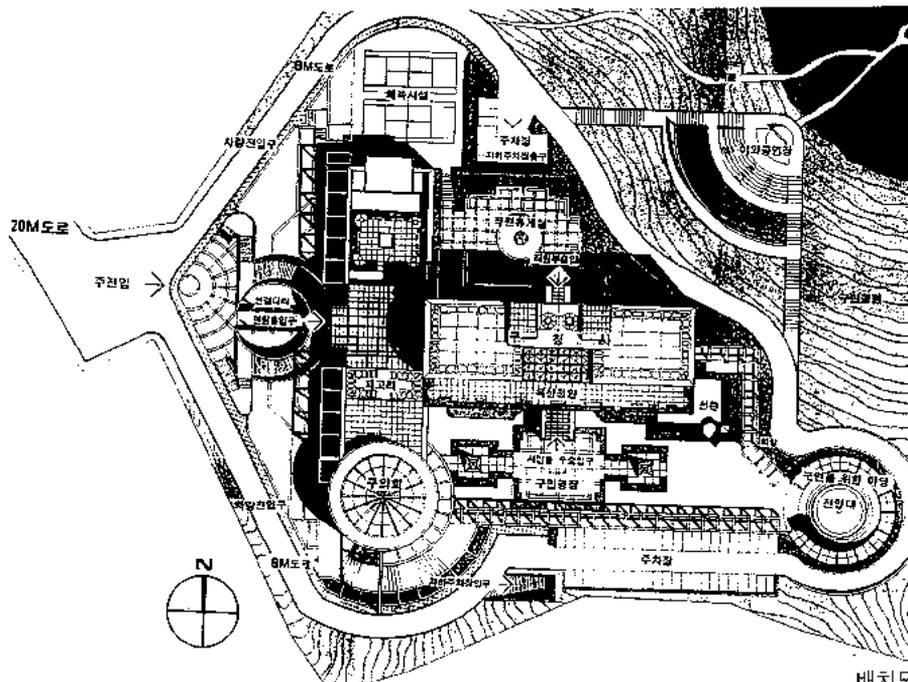
대지위치 /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산 26-2번지 일원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구 공공의
청사부지

대지면적 / 29,760 m²
건축면적 / 4,147.22m²
연면적 / 20,594.75m²
건폐율 / 13.93%
용적률 / 7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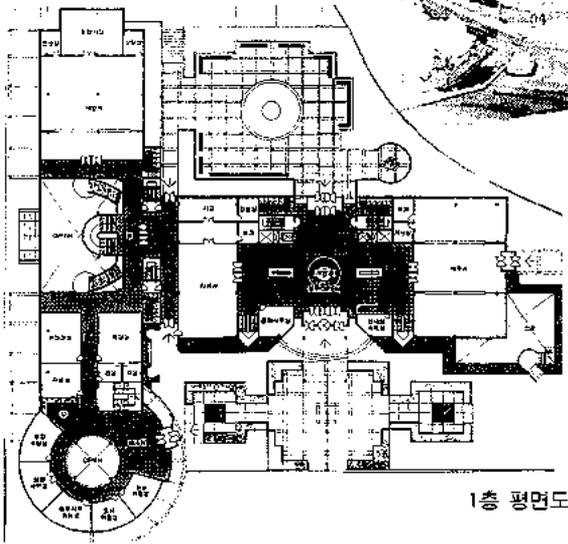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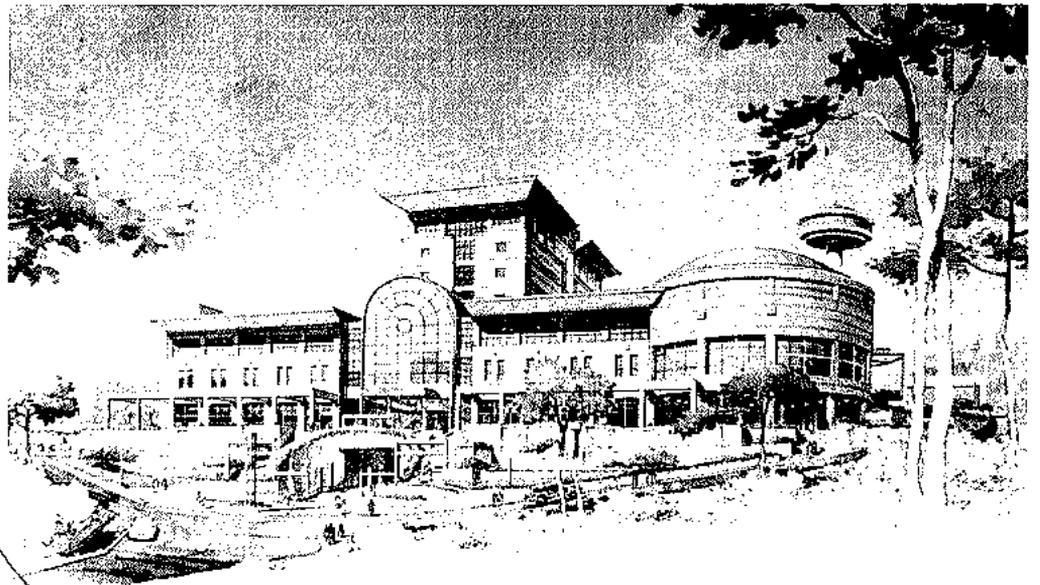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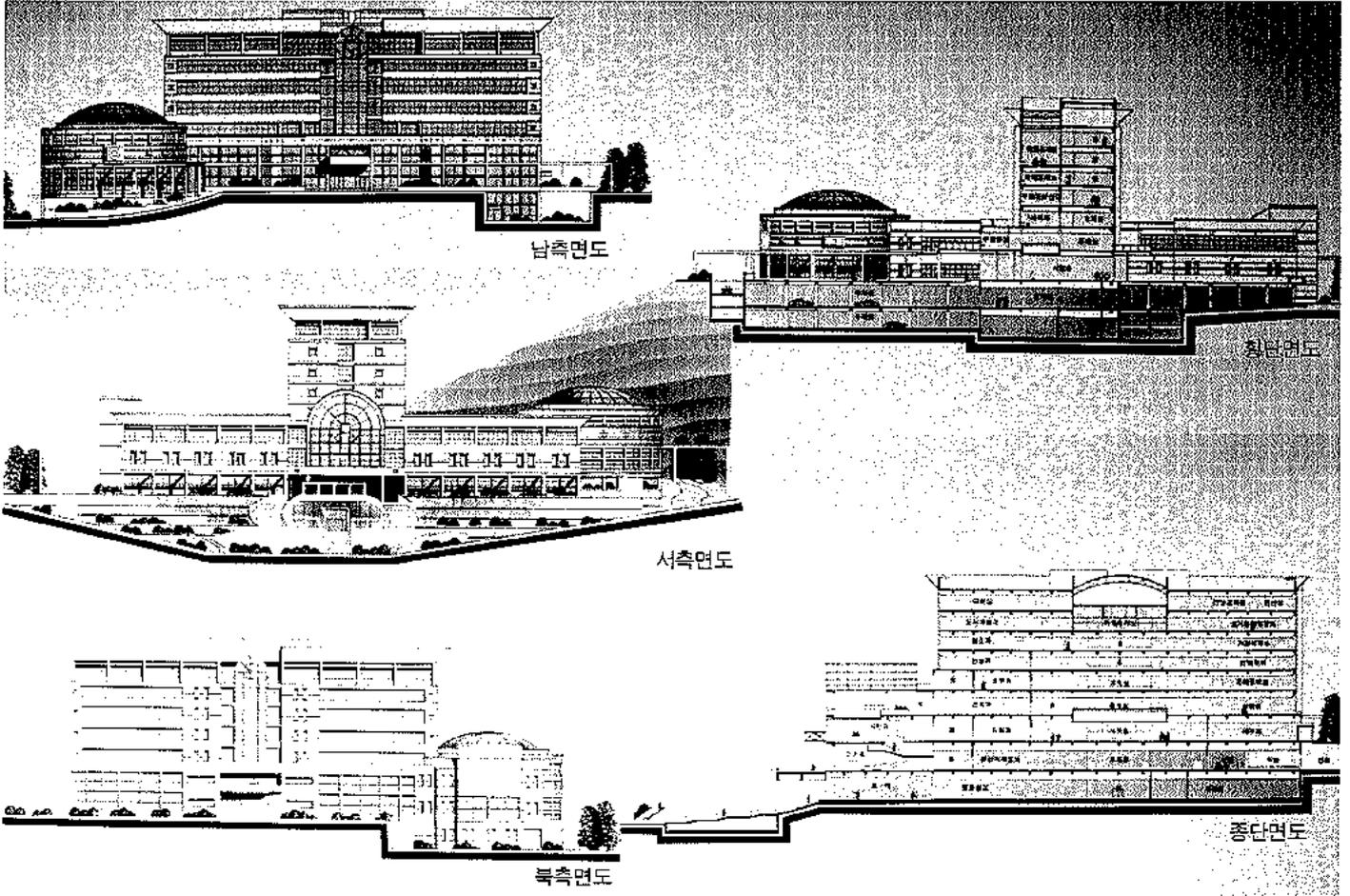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외부 마감 / 화강석 베너구이, 흑두기, 켈리
목충유리



모형도



배치도



투시도

■ 배치개념, 계획

- 본청사는 부지의 환경계획을 우선 고려 자연속에 공원화된 공간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배치 계획
- 건축물배치는 부지의 지형을 고려 정면성을 통해 약간 뒤로 후퇴하여 조경적 위계성을 구성 민원홀 통해 정사로 이어지는 보행자축 구성
- 외부공간을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한

- 한 이용 가능한 부합된 이미지 고려
- 전정 - 건물 - 후정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수용 연구
- 개방된 시야 확보
- 사면의 중요성과 실내에서 외부공간의 수렴대 조망
- 대지와 건물과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위해 동선의 흐름 연결
- 주차장 진입을 보차분리 우선
- 지하주차장으로 빠르게 주차시킴



투시도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본관

Chung Ang University Second Campus

중앙대학교에서는 안성 제2캠퍼스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대학건물의 임의성을 탈피, 자율성을 증대하고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1월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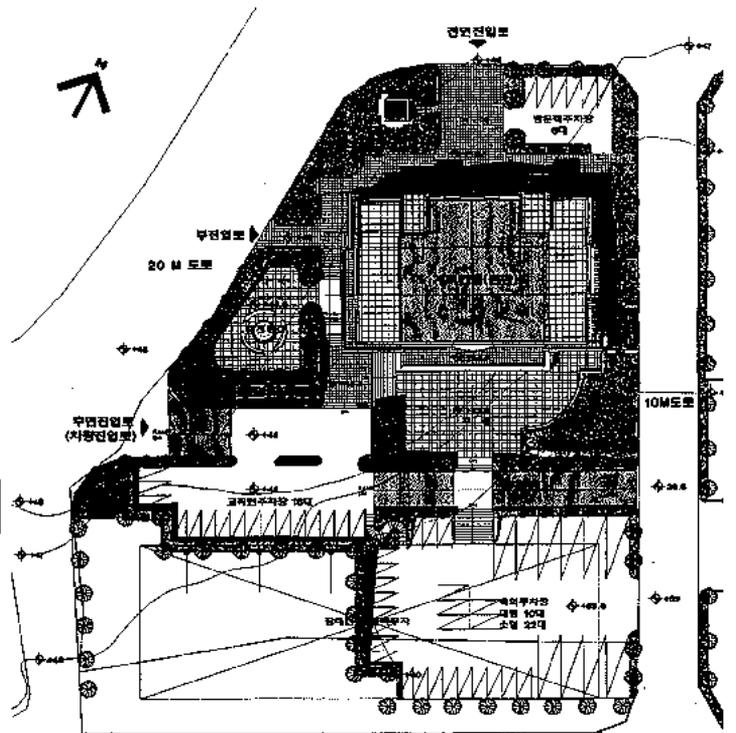
이번 현상설계경기에는 총 5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예지·인건축(박희성)안이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한전건축(김수학)안이, 가작으로는 종합건축사무소(한철)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당선작

예지·인건축(박희성)

위치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산 40-1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내
 대지면적 / 6,611.60㎡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결장
 고시지역내 교육용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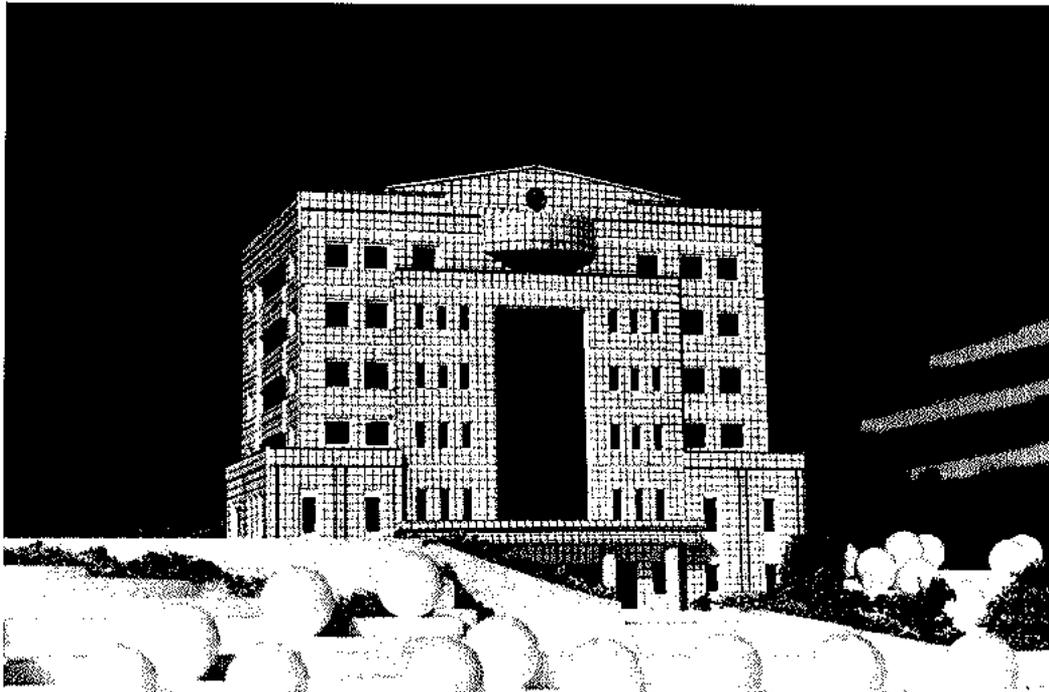
건축면적 / 1,019.20㎡
 연면적 / 4,927.0㎡
 건폐율 / 15.44%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베조+철골 트러스
 외장미감 / 휘강석바너구이+컬러복층유리+
 커튼월
 계획담당 / 이기환, 윤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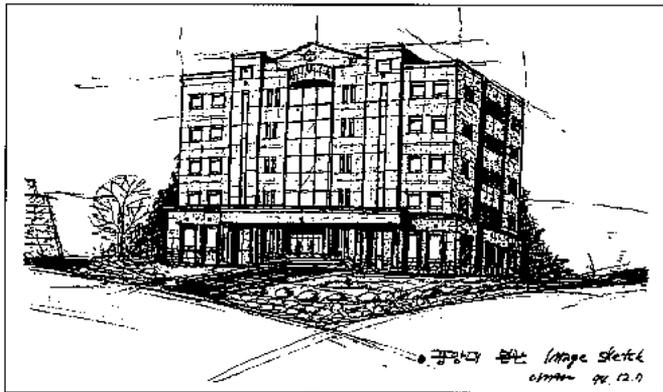
■ 계획의 목표

- 상징성
 - 대학본관의 미래지향적 이미지 표상화
 - 대지조건에 따른 전·후면에 정면성 부여
 - 캠퍼스내 건물군에서의 중심성 및 장소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 효율성
 - 건축공간 활용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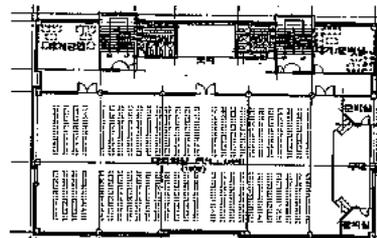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지형이용
- 명료한 동선체계구성과 용이한 접근성 확보
- 경제성
 - 관리 및 운용의 편리성 및 용이성 확보
 -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물 및 설비계획
- 확장성
 - 장래 증축계획을 고려한 토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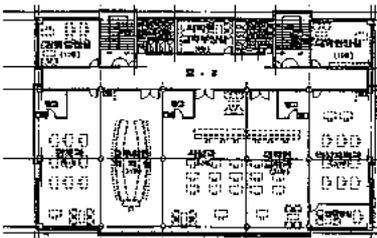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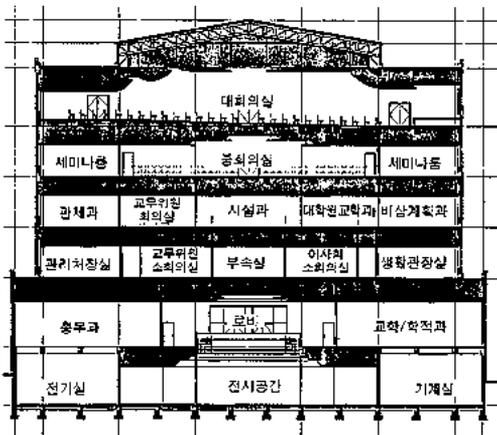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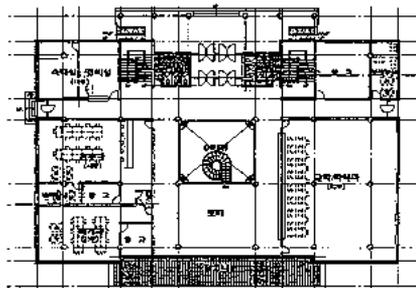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황단면도



1층 평면도

■ 평면계획

-기본계획

- 대학본관의 기능을 수용하는 평면계획으로 공간의 융통성(Flexibility)을 확보하여 시설변경에 따른 건축공간의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구성
-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을 고려한 여유있는 휴게 및 로비공간과 복도폭을 고려
- 집중코어(Core)계획으로 수직동선의 간결화와 내부공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
- 에너지 절약에 따른 남향배치계획을 우선하며 각각 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평동선의 명료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계단실 및 남녀화장실의 분리계획으로 피난계획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경제적인 구조 Span계획으로 기둥 및 보의 단면설계에 유리하도록 계획

■ 단면계획

-기본개념

- 학생이용률이 높은 시설공간을 1층 저층부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여유 있는 로비공간과 층고를 높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실내환경의 쾌적성 및 조명계획을 반영한 층고 및 천장고를 반영
- 본관의 주요기능 학생이용기능, 관리사무기능, 회의기능을 구분하여 각 기능에 부합되는 단면계획을 고려

■ 입면계획

-기본개념

- 대학본관 건물로서의 이미지(Image)를 창출
- 현대적 조형감과 전통건축기법을 이용한 입면계획으로 캠퍼스내의 상징성 및 명소성(Land Mark)을 갖도록 계획
- 건물의 안정감과 휴먼스케일(Human Scale)에 적합한 기단 저층부를 구성
- 외장재로는 화강석재와 컬러복층유리사용으로 본관건물로서의 고품위와 중후미 그리고 친밀감을 갖도록 계획
- Mass의 중첩과 커튼월유리에서 학교발전을 형상화시키는 상승감과 경쾌한 이미지 연출

용 효율의 극대화
 • 지하층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전 시공간 및 향후 확장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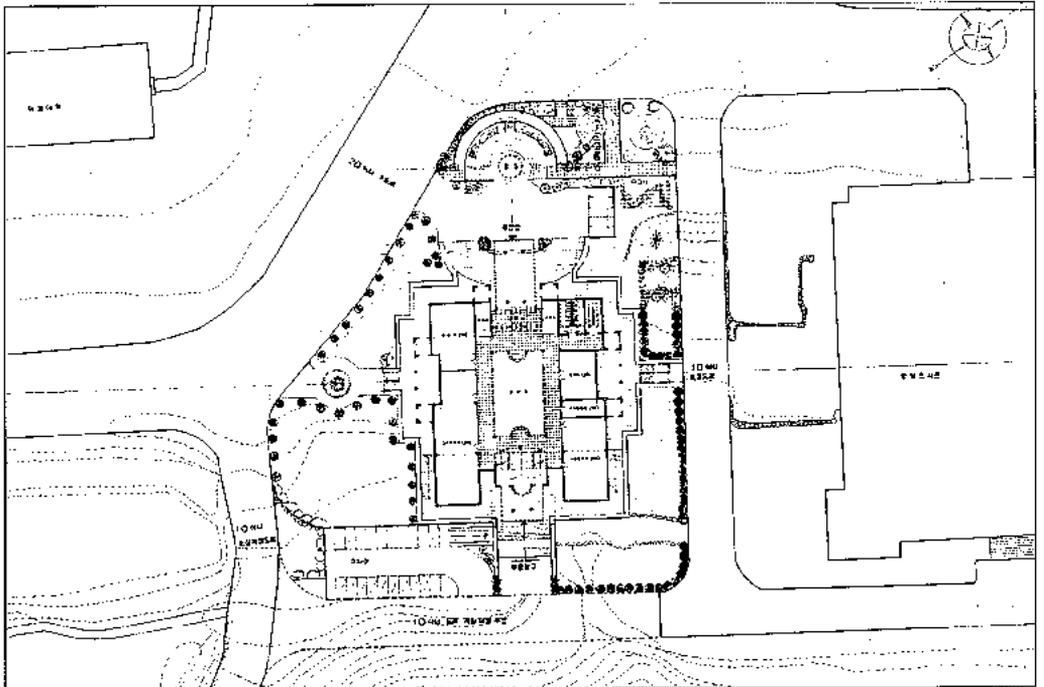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 계획부지가 갖는 캠퍼스축(Campus Axis)에 적용하고 건물

전, 후면에 정면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 건물주변에 옥외휴식공간과 Open Space제공으로 내지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
 • 후면 선근광장과 주차장에 적절한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배치
 • 향후 연구시설의 수평적 증축을

고려하여 후면 유보지를 확보
 -동선계획
 • 전, 후면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런 접근성 유도
 • 보차분리의 원칙에 따라 차량의 진입과 통행인의 동선분리를 고려
 • 후면에서의 부진입과 도서관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



투시도



배치도

우수작

**한전건축 (김수화) +
도심환경건축(윤여욱)**

위치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신 40-1 외
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8,300㎡
건축면적 / 1,358.68㎡
연면적 / 958.69㎡
건폐율 / 6.36%
용적률 / 56.63%
규모 / 지하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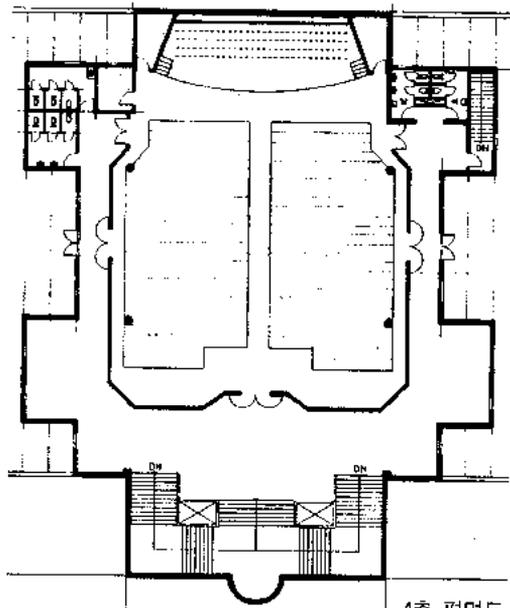
■ 평면계획

- 평면계획의 요점
- 교직원 및 학생편의 시설로서의 기능 유지
- 신뢰감 있는 분위기 조성
- 학생과 직원과의 의사소통
- 업무수행에 편리한 평면기능 유지
- 업무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계획(미래 대학의 기능)
- 실벌고유 기능
- 교무 : 학생과 직원과의 직접 대화 소통, 휴식 공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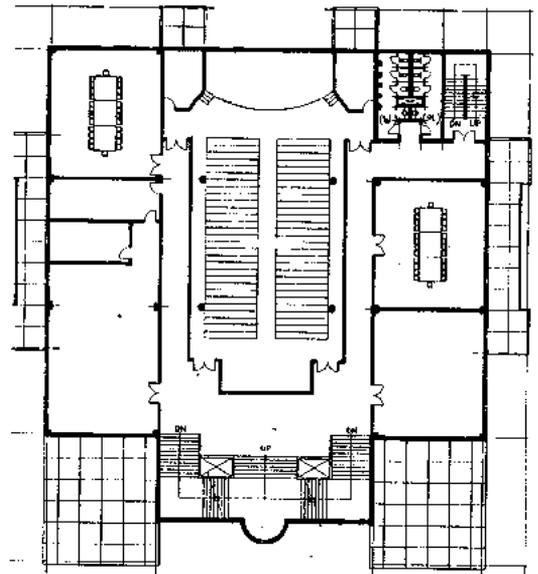
- 학무과 : 학사업무 극대화 및 전후 좌우의 동선 고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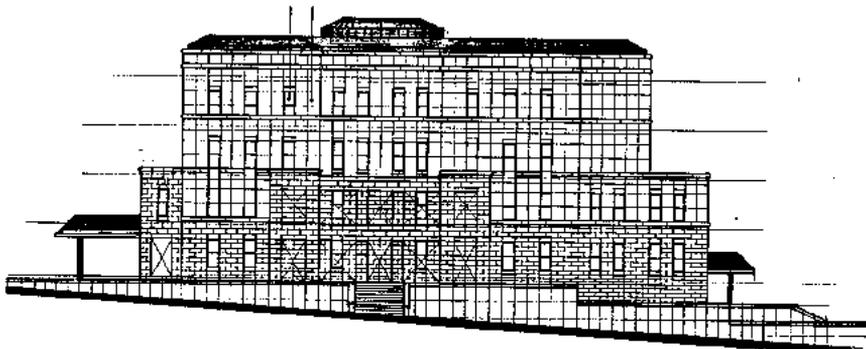
- 디자인 요소
- 대학 본부로서의 이미지 부각
- 현대적 감각과 장중한 품격 유지
-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있는 계획
- 중압감·위화감을 주는 디자인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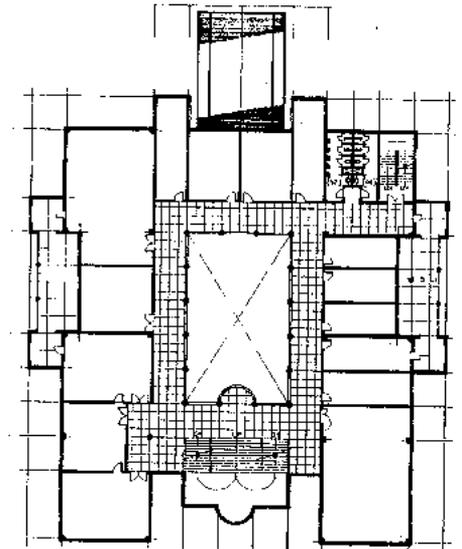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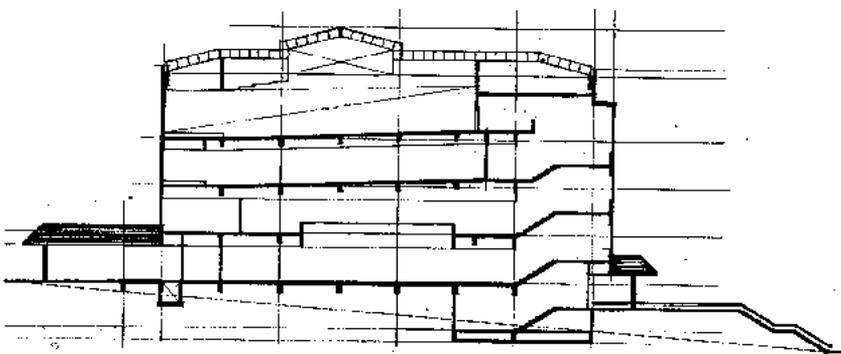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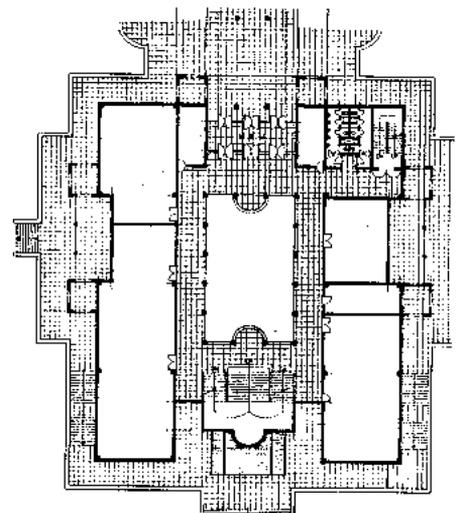
사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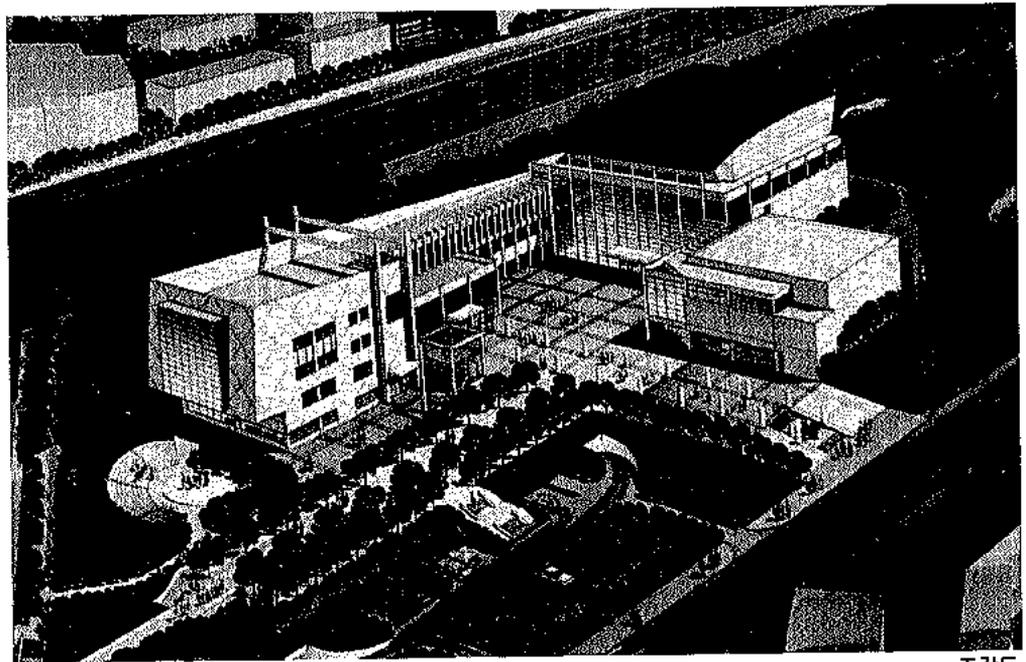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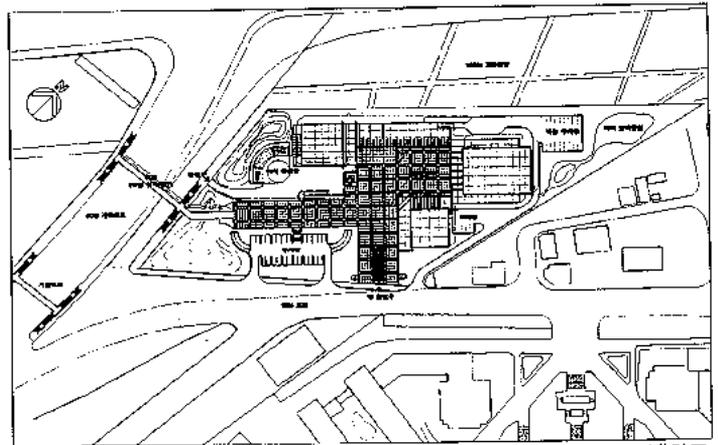


조감도

부산시 금정구 문화회관

Pusan Kūmjōng-gu Culture Center

부산시에서는 2천년대 국제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고양, 대중화함으로써 지역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 현상설계를 실시, (주)일신설계종합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종합건축 건창안이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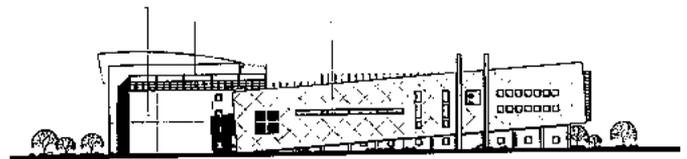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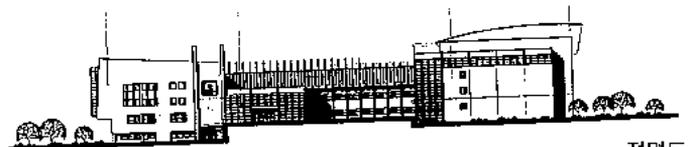
당선작

(주)일신설계종합건축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481
 대지면적 / 15,603㎡
 건축면적 / 3,748.74㎡
 건폐율 / 24%
 용적률 / 52.3%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요외장 / 화강석+알루미늄 복합페널



배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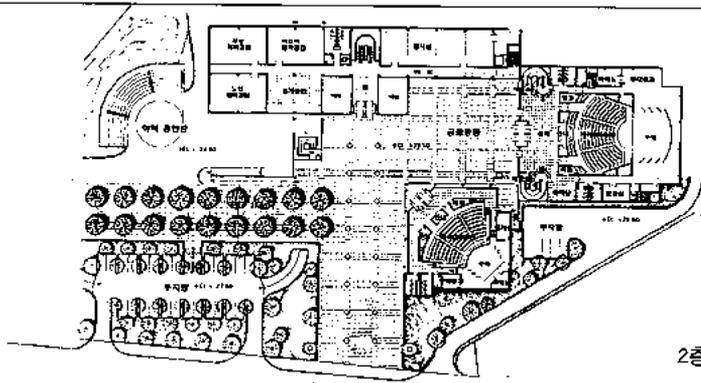
기본방향

- 문화복지에 기여
문화예술의 생활화, 순수예술의 대중화, 대중예술의 공유를 통한 창조적인 문화생활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환경의 제공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이 즐거움과 함께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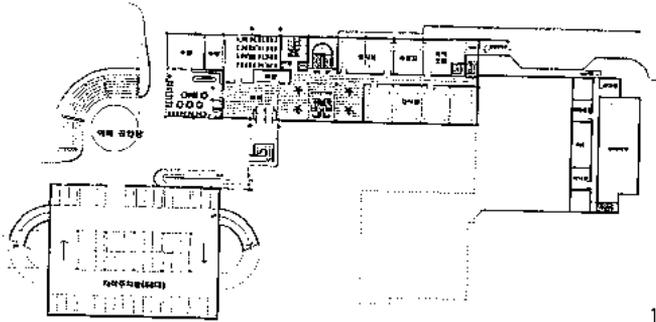
- 육과 취미활동을 촉진시키고, 폭 넓은 전개를 통한 문화적 발전을 도모한다.
- 지원환경의 조성
주기능이 매력있고 개성있는 환경을 지니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기능을 제공한다.

도입기능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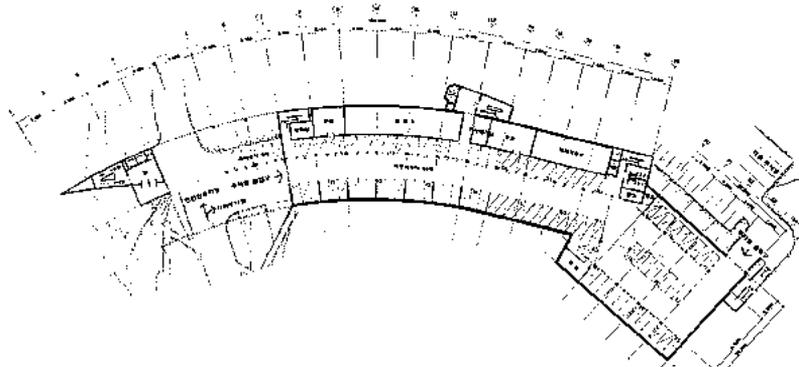
- 공연기능
연구공연, 교육공연, 공모공연 등의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교육생)들에 의한 실험적 성격이 강한 공연을 수용한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공연을 수용하기 위해 대강당과 소강당을 둔다.
- 전시기능
문화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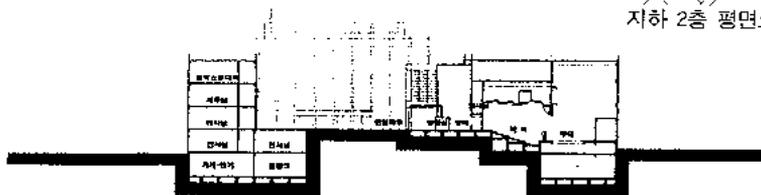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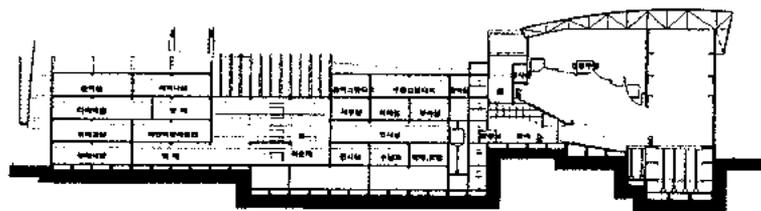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자하 2층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다양한 조형예술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능으로서, 외래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문화회관내 교육, 최미활동 성과물도 전시할 수 있다. 전시내용, 규모, 성격에 따라 전시공간,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정가능하도록 한다.

- 생활문화기능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여러 방면의 세미나와 공간을 마련하여 대중들의 이해와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취미교실, 스튜디오, 자료관, 다목적 홀 등을 통해 실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공간구성계획

- 공간위계(Hierarchy)
 - 公的→公私的→私的공간의 위계
 - 진입→이끔→쓰임공간의 위계
 - 동적→정적공간의 연계
 - Sub-Main Flow의 구분

• 광장계획

- 광장은 남은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유발하는 지역사회와 문화회관의 다용도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 광장은 높이:안길이가 1:2정도에서 에워싸인 것을 느끼며, 입구 쪽이 작아질수록 폐쇄감을 강하게 느낀다.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4,521호, 1995년 2월 2일 공포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중 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시행령 개정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축사와 작물재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의 편의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마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색채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색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 및 제69조)

나. 도시계획구역밖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를 건축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400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조)

다. 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축사에 대하여도 조경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축사에 대하여는 식수 등 조경의무를 면제함(령 제27조)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사목중 “색채”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 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사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모양 및 색채에”를 각각 “모양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년2월18일 공포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유

날로 심하여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연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고 그 면적도 연면적의 20퍼센트이내로 상향조정함(령 제1조의2).

나. 종전에는 기존의 시설물의 용도를 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하의 시설물의 용도를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령 제6조).

다. 시설물의 인근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이하에서 주차대수 100대이하 까지로 상향조정하되, 시설물에 인접한 대지나 시설물과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부지가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규모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이하로 함(령 제7조).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 또는 전시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8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70퍼센트

제2조의2중 "서울특별시상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상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상·직할시장"을 "특별시상·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

1.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위락시설
 - 나. 판매시설
 - 다. 숙박시설
 - 라.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다)
2. 당해 시설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11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1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제14조제1항중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설치

비용의 2분의 1"을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되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외시설물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 4860호, 1995년 1월 5일 공포

◆ 제안이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어음할인료지급 기한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기타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

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자중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자가 당해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원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엔지니어링활동 및 설계의 위탁을 추가하고,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건설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6항).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구입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12조).

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어음교부시에 지급하도록 하되, 어음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하는 때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의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함(안 제16조제2항).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보. 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소요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준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 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체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4922호, 1995년 1월 5일 제정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제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이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정점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체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지관리업"이라 함은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

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의 통보)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조치등

제14조(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

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①관리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보수조치등) ①관리주체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구조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판정된 때에는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보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 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시공자가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유지관리업자는 그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이행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업의 등록 등) ①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1. 건설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면허,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보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그가 시공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②유지관리업자(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상호,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유지관리업자는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등)유지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등록의 취소등)건설부장관은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킨 때
-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4.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휴업한 때
- 5. 제2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월이내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23조(행정처분시의 유지관리업의 계속)유지관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전에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24조(지도, 감독)①유지관리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사무소(주사무소 및 현장사무소를 말한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설물유지관리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시설안전기술공단

제25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①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의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동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정관)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재원)①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외의 자(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 4. 차관 및 차입금
-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정밀안전진단
-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 개발, 지도 및 보급
-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4.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건설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제30조(지도, 감독)①건설부장관은 공단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공단이 아닌 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시설물유지관리에산의 확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①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②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공단의 임 직원·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무부처의 장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영위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게을리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게을리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한 자 또는 위반을 요구한 설계용역 발주자

제42조(부실시공등에 대한 벌칙특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법·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자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미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등)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

립동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대한적용례)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안전점검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 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공제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 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제1항에 제7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 제6차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

1. 제6차 아시아건축사협회의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가 1994년 12월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웨스틴 필리핀 프라자 호텔 세부회의실(Cebu Room)에서 열렸다. 15개 회원국중 1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가국은 중국(ASC), 말레이시아(PAM), 타일랜드(ASA), 인디아(IA), 일본(JIA), 스리랑카(SLIA), 파키스탄(IAP), 대한민국(KIRA), 방글라데시(IAB), 홍콩(HKIK), 인도네시아(IAI), 싱가포르(SIA), 그리고 주최국인 필리핀(UAP)이었고 몽고(UMA)는 사실상 대표단이 왔으나 교육위원회 회의는 들어오지 않았고(언어 소통 때문에) 마카오는 교육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도착하였다.

그리고 UIA를 대표하여 히삼(Dato Dr. Hisham Albakri)씨가 첫 Session에 배석하여 UIA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위원회 조인숙 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백경국 위원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2)

The 6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ACA-6)

趙仁淑 + 白敬國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by Cho In-Suk & Paek Kyeong-Kuk

2. 제6차 아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 회의에서 토론된 주요 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과 같다.

- (1) 1994년 학생 잼보리대회 개최(Student's Jamboree)
- (2) 제1회 학생건축작품전(Student's Competition)
- (3) 아시아지역 건축학교 현황자료(Data On Asian Schools)
- (4) 각 회원국의 교육위원회 활동보고서 표준양식(Standard Format For...)
- (5) UIA와의 협력에 관한 토론(Cooperation with UIA)
- (6)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내의 건축학교 학장단 협의회 결성에 관한 제안
- (7) 회원국 상호간의 주요건축물 및 건축학과 방문 기회의 활성화
- (8) 건축사의 실무 훈련
- (9)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회고 및 미래의 목표
- (10) 차가 건축교육위원회 의장 및 간사국 선출

3. 각 의제별 토의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필리핀 건축사협회(UAP)는 마닐라에서 개최될 학생잼보리대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고했다. 학생잼보리대회에는 국외에서는 20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국내 필리핀학생은 80명이 참가를 하였다. 또한 학생잼보리대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사항과 준비내용 등을 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일에 파키스탄(IAP) 및 필리핀(UAP)이 협력하여 기틀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남훈 학생과 미국 Southern California 대학에 유학중인 김덕원 학생이 대회에 참가 하였다.
- (2) 제1회 학생작품전에서는 단 5개국에서만 참가를 하였다. 즉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이었다. 더 많은 학생을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품주제와 조건을 12개월 이전에 각 회원국에 미리 주어져야 한다는데 각 회원국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므로 ACA주최국은 주제 및 조건을 1년전에 제출하여 ACA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JIA)은 특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작품이 학생작품인 만큼 참가 학생들에게 참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감동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IIA)는 각 회원국의 특유한 조건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학생작품전의 효율성을 위해 각 회원국 자체의 국내 건축전 주제와 조건이 아시아 건축학생작품전의 조건과 동일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우리측(KIRA)에서 전달하였다.

(필리핀 학생들 공동작품이 수장작으로 결정되었다)
 (3)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그동안 홍콩(HKIA)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회원국의 건축목록 표준양식을 준비하였고, 이것을 우선 참고자료로 하여 보완하기로 했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회원국내의 건축학교 수가 최소 300개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은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의 내용을 기재하고 또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하여 1개월내에 의장 P. KASI에게 보내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ASC)은 건축과 대학이 54개가 있고, 필리핀은 24개 대학이 있다고 한다.

(4) 1995년 이후부터는 회원국의 교육위원회(ACAE) 보고서는 표준양식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가 열리기 3개월전에 ACAE의장에게 보내도록 하여 그것을 근거로 회의개최전에 책자가 만들어져 배포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5) 이번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중요한 의제중 하나는 UIA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의견수렴이었다. UIA를 대표하여 Dr. Dato Hisham은 UIA가 전문인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실행위원회(Working Group)를 결성했음을 ACAE에 알려왔다. 그는 건축교육현장 제정에 관한 UIA보고서 및 건축교육에 관한 UIA 조사보고서를 준비했다는 것과 UIA가 건축교육에 관한 특별기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UIA와의 협력에 대해 토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

①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정보교환을 위해 UIA와 협력을 하고 또 건축교육과 전문인 훈련에 관한 UIA의 제도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건축교육에 대해 UIA가 건축교육현장 형식 작성을 하는데 있어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

③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현의장 혹은 전(前)의장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를 대표하여 초대되었을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건축교육에 관한 UIA소위원회나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6) 필리핀(UAP)은 아시아의 건축학교 학장단을 참석 시킨 가운데 '아시아의 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이란 주제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PICC)에서 12월 14일에 회의를 주재했다. 필리핀은 다른 회원국과 달리 벌써 건축 대학 학장단협의회(CODHASP)란 것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대학 상호간에 연락망 정보교환등을 위한 조직

을 구성하고 있었다.

건축교육위원회(ACAE)에서의 입장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에서 건축과 대학교학장단을 결성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동의했으나 그것을 조직화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방법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토의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① 건축학교 학장단 회의는 건축교육위원회(ACAE)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체제하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런 기본방향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조직망(Networking)

b. 건축학교들의 학사일정과 정보 수집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on Schools of Architecture Curriculum)

c. 교수와 학생의 상호교류에 대한 협력

(Collaboration on Faculty and Student Exchange)

d.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

이 제안에 대해서 건축교육위원회(ACAE)에서는 필리핀(UAP)이 대표가 되어 파키스탄(IAP), 중국(ASC), 일본(JIA), 인도네시아(IAI), 방글라데시(IAB), 스리랑카(SLIA)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 보완을 하면서 교육위원회(ACAE) 의장에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7) 인도(IIA)는 각 회원국의 건축사들이 상호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인도(IIA)는 이것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8) 싱가포르(SIA)에서는 건축과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것을 접하게 되는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건축사 교육훈련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의하였다. 각 지역의 간사국은 싱가포르(SIA)에서 마련한 틀에 맞추어 미리 각 지역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 회의시 보고하기로 했다.

(9) 건축교육위원회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와 ABAE의 역사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1986년이래 정식 건축교육위원회(ACAE)로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온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 동안 한 일은 다음과 같다.

① 각 회원국간의 건축교육에 관한 정보교환

② 학생재보리 주최(올해로 다섯번째)

③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주최 국제학생 작품전 시작

④ 각 회원국의 건축학교 기초자료의 조사로 데이타베이스 구축

⑤ 건축교육에 관한 책자 출판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미래지향적인 효과를 위해 건축교육위원회를 다음 3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제의했다.

분 야	구 성
a. 건축교육분야 (학교에서의 교육)	- 건축학교 학장단 협의회 - 학생쟁반리대회 - 학생건축작품전
b. 전문화된 훈련과 개발 (졸업한 후의 교육)	- 건축교육위원회
c. 지속적인 전문화의 개발 (건축사로 등록된 이후)	- 건축교육위원회

앞으로는 건축교육위원회(ACAЕ)를 위의 b,c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10) 다음 1995~6년 건축교육위원회(ACAЕ)의 의장에는 스리랑카(SLIA) Lakshman Alwis씨가 추대되었다. 그리고 지역별 간사국으로는 남아시아 지역은 방글라데시(IAB), 동남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SIA), 동아시아지역은 대한민국(KIRA)이 봉사하기로 했다. (11) 그동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온 의장 피카시(PKas)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시했고 그가 임기를 마쳤지만 자문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으며 임기가 끝났다고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요청했다. 임기가 끝난 의장 역시 차후 회의를 대비하여 지침서나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주는 등 계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최국인 필리핀(UAA)에게 교육위원회 및 쉐보리대회, 무엇보다도 아시아지역 건축학교 학장단회의를 열게 해 준 점에 감사했고, 학생건축상을 주재해 준 점에 대해 올란다 교수(Yolanda) 및 조교 빅토리아노(Victoriano)에게 특별히 감사했다.

□ 아시아 건축대학 학장단 회의

(주제:아시아 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

12월14일 필리핀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장단 회의에 필자는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ACAЕ주최측의 특별배려로 KIRA를 대표하여 참관인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필리핀(UAP)에서는 이미 건축대학 학장단 모임(CODHASP)이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ACAЕ참가국의 교수진들이 모여 "아시아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주제발표 및 각 주제별 분과토의를 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CODHASIA)결성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의례에 이어 필리핀의 산토토마스 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인 올란다 레이스(Yolanda D.Reyes)의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네차례의 주제발표 및 각 주제별 분과토의로 열기를 띠우다 보니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예정시간보다 한시간이나 지나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ACAЕ보고서에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모임의 주요목적은

- 1) 조직망 구축
- 2) 건축대학들의 자료수집
- 3) 교수 및 학생들간의 교류 및 협력
- 4) 연구협력 등을 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다.

주제발표(Paper Presentations)중 중요한 부분들만 소

개를 한다.

1. 교수 및 학생들의 교환제도(Exchange Programs for Faculty & Students)

서울포럼 김진애 박사의 책에 소개되어 국내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전 MIT대학 교수였던 터너 리(Turney F.Le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는 교환제도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관심사가 같아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었다.

○ 첫째는 방법론으로 어떤 종류의 교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학생교환

- 캠퍼스 밖에서의 특별프로그램(예, 지역간의 교류, 도시와 지방의 교류, 해외 교류 등) - 캠퍼스안의 특별프로그램(계절 워크샵)
-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을 위한 진학 프로그램

• 교수교환

- 1대1로 교환하여 같은 과목을 지도하는 방법
- 참관인 자격으로 강의 견학
- 공동 또는 협동 및 비교 연구

○ 둘째 목적과 결과가 분명해야만 한다

-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알리고
- 특별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 조직 및 공동체 수립
- 지도방법의 교환
- 연구등에 있어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결과만이 성공의 길이다.

○ 마지막으로 교환제도 수립에 앞서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은

-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년간 몇명 또는 특별기간에 몇명)
- 몇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과정을 택할 것인가?
- 참가하려면 어떤 학문적인 성과가 필요한가?
- 언어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유창해야 하는가?
- 기간은 한학기 또는 1년으로 할 것인가?
- 학사일정의 상충은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 숙소문제
- 학생들의 등록금
- 기타 경비(여행, 식비, 교재, 공과금, 의료보험 등)
- 학생이 대상국의 문화등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 학년진급은 인정할 것인가? 등이다.

2. 건축과 교수진의 역량개발의 문제점(Faculty Development)

아우구스티누스 다르마완(Augustinus M.S.Darmawan/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 Indonesia)

다르마완 교수(Vice Rector)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교수진들의 역량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 발표하였다.

○ 첫째, 승급의 문제점에 대해(Promotion Problems)

• 연구

선생(Lecturer)들이 연구보다 가르치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성과가 부족하여 교수(Professor)가 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뿐 아니라 연구능력이 점점 저하된다. 이는 정부조차 건축설계 분야를 연구분야라고 생각지 않는데에도 원인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 지역사회봉사

대학에서 마련한 일을 수행하므로 승급요건중 하나인 지역사회봉사가 가능한데 현실적인 면에서 볼때 그런 프로젝트를 해 보아야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 한편 대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캠퍼스밖에서 지역사회에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 경우에는 승급요건에 해당이 안된다. 건축이 응용학문이므로 교수들은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자칫 교수들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된다.

• 봉급 및 연구비

봉급이 낮고 연구비 또한 충분하지 않으니 가르치는데 충실하지 못하게 되며 자꾸 밖에서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

• 과중한 행정업무

강의외에 Vice Rector라든지, 학과장 등등의 행정업무에 매달라다보니 가르치는데 전념하기가 어렵다.

○ 두번째:건축과 내에서의 승급에 관하여

다르마완 교수가 제작하고 있는 대학의 건축학과에는 전임이상이 36명(정교수 1명(Professor), 교수 8명(Lecturer), 조교수 27명(Assistants), 시간강사가 60명 제작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90%는 밖에서 일을 하고 규칙에는 전임이 된후 2년이상 되면 승급이 가능하나 사실상 교수들의 50% 정도가 3년이상 되어야 간신히 승급이 되며 30%정도는 6년 이상이나 직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승급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따른다.

○ 마지막으로 교수역량 개발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실무훈련이라든지 연구비 보조, 타대학과의 협동, 외국어교육, 정기적인 모임, 그리고 특별시상제도등의 대학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과 교환교수제, 연구, 저술, 강연회, 학생작품 품평회 그리고 분야별 연구강의 등의 건축학과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의 예를 들었다.

승급하는데 필요한 점수에 이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학위가 중요하며, 강의외에 저술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3.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망(SA Search Network)

카우살 바쉬르 아마드(Prof Kausar Bashir Ahmad NED-DCET Karachi, Pakistan) 이 주제는 파키스탄 라호르의 반달(Professor Vandal)학장이 아마드 학장을 대신하여 발표하였다. 실현가능한 조직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내용들을 단계별로 접근한 연구조사 보고였다.

○ 첫째, 건축이라는 직업 및 건축교육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 내용은 "건축교육"이 주제이며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모로코에 이르기까지의 30개국 140학교를 대상으로 조직망 조사(networking survey)에 의거한 것인데, 연구자가 아가 카재단(The Aga Khan Trust for Culture, Geneva)에

발표했던 연구 조사보고서를 특별히 이번 확장모임용으로 발췌, 재편집한 것이라 했다.

○ 둘째, SA Search를 수립함으로써 정말 의미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조직망 전략에 대한 제안 이는 뉴스레터, 교수교환, 학생여행장려금, 또는 저널(학생저널, 교수저널, 연구저널)등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 셋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건축교육 및 실무에 대한 case study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연구자가 ARCASIA 발표용 보고서를 만드는데 A지역 부의장이 재정지원을 한 것이었다.

4.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s)에 대해

베냐민 타야바스(Dr. Benjamin Taybas, President,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Manila, Philippines)의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각 발표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필자는 교환제도(Change Programs for Faculty & Students)를 주제로 하는 workshop에 참석하였다. 터니 리 교수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토의되었다. 이것이 실현가능해지려면 우선 각국의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언어분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Design Studio교류를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경제상태가 전혀 다른 나라끼리 교환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토의되었고 토의가 끝난 후 각 그룹의 토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직망(Academic Networking)소그룹은 각국 건축학교의 자료 및 정보교환의 방법으로 우편이나 FAX, 또는 brochure교환 등을 제시했고 이들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일종의 짐버리형태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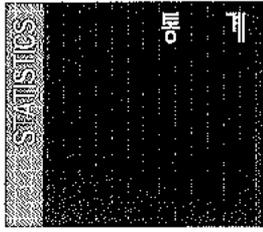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소그룹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점과 장차의 전산망을 통한 연구협력 및 공동집필의 가능성 등의 토의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필자는 한국의 건축교육 현실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없었음이 매우 안타까웠었다.

우리 국제위원회내에 교수님이 위원으로 몇 분 계시지만 협회의 보조로 회의참석을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회원이 대표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개업 건축사가 아니라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확장회의에 대비하여 우리 협회가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3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나마 참석할 수 있었기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회의 내용을 그나마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진짜 교육관계자가 참석하게 된다면 더 나은 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995년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6백3십6만7천1백77㎡보다 11.1% (7십만4천2백77㎡) 증가한 7백7만1천4백5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 누계 6백3십6만7천1백77㎡보다 11.1

% (7십만4천2백77㎡) 증가한 7백7만1천4백54㎡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2월분 1천5백5십2만3천2백39㎡ 보다 54.4% (8백4십5만1천7백85㎡) 감소한 7백7만1천4백54㎡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상태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609,544	924,733	315,189	51.7%
	인천	182,472	469,739	287,267	157.4%
	광주	179,304	554,145	374,841	209.1%
	대전	136,520	239,720	103,200	75.6%
	경기	1,391,451	1,534,878	143,427	10.3%
	충북	228,113	585,926	357,813	156.9%
	충남	248,777	265,665	16,888	6.8%
	경북	476,721	591,389	114,668	24.1%
감소지역	부산	914,441	428,742	(485,699)	-53.1%
	대구	464,666	261,005	(203,661)	-43.8%
	강원	210,583	145,609	(64,974)	-30.9%
	전북	310,716	200,580	(110,136)	-35.4%
	전남	180,946	152,838	(28,108)	-15.5%
	경남	767,618	679,888	(87,730)	-11.4%
	제주	65,305	36,597	(28,708)	-44.0%
합 계	6,367,177	7,071,454	704,277	11.1%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상태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2월분	1월분	증 감	비율(%)
단독주택	585,596	622,269	36,673	6.3%
다세대주택	309,043	225,563	(83,480)	-27.0%
연립주택	287,425	94,232	(193,193)	-67.2%
아파트	7,766,601	2,605,538	(5,161,063)	-66.5%
근린생활시설	1,734,396	1,185,617	(548,779)	-31.6%
종교시설	134,117	65,660	(68,457)	-51.0%
의료시설	163,852	86,115	(77,737)	-47.4%
교육연구시설	445,162	204,370	(240,792)	-54.1%
업무시설	565,503	139,059	(426,444)	-75.4%
숙박시설	245,586	133,044	(112,542)	-45.8%
공장	1,629,714	968,881	(660,833)	-40.5%
기타	1,656,244	741,106	(915,138)	-55.3%
계	15,523,239	7,071,454	(8,451,785)	-54.4%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구 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286	3,324	766,291	2,406	2,461	622,269	(880)	(863)	(144,022)	-18.8%	
다세대주택	521	566	247,093	510	539	225,563	(11)	(27)	(21,530)	-8.7%	
연립주택	58	76	93,493	74	82	94,232	16	6	739	0.8%	
아파트	93	270	1,316,868	115	408	2,605,538	22	138	1,288,670	97.9%	
근린생활지역	2,917	2,988	1,258,305	2,272	2,372	1,185,617	(645)	(616)	(72,688)	-5.8%	
종교시설	93	112	99,240	67	81	65,660	(26)	(31)	(33,580)	-33.8%	
의료시설	18	23	86,394	20	20	86,115	2	(3)	(279)	-0.3%	
교육연구시설	82	106	181,483	82	92	204,370	0	(14)	22,887	12.6%	
업무시설	68	82	172,771	60	61	139,059	(8)	(21)	(33,712)	-19.5%	
숙박시설	110	112	99,593	114	121	133,044	4	9	33,451	33.6%	
공장	603	917	800,223	630	956	968,881	27	39	168,658	21.1%	
기타	1,012	1,395	1,245,423	770	933	741,106	(242)	(462)	(504,317)	-40.5%	
합 계	8,861	9,971	6,367,177	7,120	8,126	7,071,454	(1,741)	(1,845)	704,277	11.1%	(-)미이너스

용도별 현황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2,032	2,079	578,871	365	373	42,112	9	9	1,286	2,406	2,461	622,269
다세대주택	440	466	224,877	67	70	367	3	3	319	510	539	225,563
연립주택	70	78	94,191	1	1	15	3	3	26	74	82	94,232
아파트	110	400	2,578,813	5	8	26,725	0	0	0	115	408	2,605,538
근린생활시설	1,955	2,033	1,065,074	261	282	72,399	56	57	48,144	2,272	2,372	1,185,617
종교시설	43	50	43,380	22	29	17,499	2	2	4,781	67	81	65,660
의료시설	9	9	75,527	9	9	7,221	2	2	3,367	20	20	86,115
교육연구시설	25	34	130,535	45	46	60,265	12	12	13,570	82	92	204,370
업무시설	33	34	91,374	16	16	22,674	11	11	25,011	60	61	139,059
숙박시설	93	99	117,137	18	18	5,727	3	4	10,180	114	121	133,044
공장	414	658	631,592	196	278	316,565	20	20	20,724	630	956	968,881
기타	559	706	576,127	181	196	116,447	30	31	48,532	770	933	741,106
합계	5,783	6,646	6,207,498	1,186	1,326	688,016	151	154	175,940	7,120	8,126	7,071,454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179	1,204	609,544	979	990	924,733	(200)	(214)	315,189	51.7%	
부산	725	749	914,441	683	752	428,742	(42)	3	(485,699)	-53.1%	
대구	1,008	1,133	464,866	826	842	261,005	(182)	(291)	(203,661)	-43.8%	
인천	293	300	182,472	253	264	469,739	(40)	(36)	287,267	157.4%	
광주	244	282	179,304	203	315	554,145	(41)	33	374,841	209.1%	
대전	277	289	136,520	139	168	239,720	(138)	(121)	103,200	75.6%	
경기	1,580	1,805	1,391,451	1,343	1,542	1,534,878	(237)	(263)	143,427	10.3%	
강원	449	508	210,583	339	359	145,609	(110)	(149)	(64,974)	-30.9%	
충북	526	605	228,113	412	522	585,926	(114)	(83)	357,813	156.9%	
충남	345	381	248,777	226	264	265,665	(119)	(117)	16,888	6.8%	
전북	262	307	310,716	55	67	200,580	(207)	(240)	(110,136)	-35.4%	
전남	389	497	180,946	229	274	152,838	(160)	(223)	(28,108)	-15.5%	
경북	525	714	476,721	624	848	591,389	99	134	114,668	24.1%	
경남	882	1,015	767,618	690	797	679,888	(192)	(218)	(87,730)	-11.4%	
제주	177	182	65,305	119	122	36,597	(58)	(60)	(28,708)	-44.0%	
합계	8,861	9,971	6,367,177	7,120	8,126	7,071,454	(1,741)	(1,845)	704,277	11.1%	(=비네스)

지역별 현황

구분 건축사회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932	941	886,696	47	49	38,037	0	0	0	979	990	924,733
부산	579	639	383,861	84	92	25,644	20	21	19,237	683	752	428,742
대구	401	407	208,651	417	427	33,756	8	8	18,598	826	842	261,005
인천	204	215	426,363	31	31	18,213	18	18	25,163	253	264	469,739
광주	159	265	529,792	42	48	20,997	2	2	3,356	203	315	554,145
대전	92	121	216,675	13	13	4,998	34	34	18,047	139	168	239,720
경기	1,230	1,418	1,428,004	90	101	84,590	23	23	22,284	1,343	1,542	1,534,878
강원	266	284	124,471	69	71	19,790	4	4	1,348	339	359	145,609
충북	349	429	511,627	54	84	63,459	9	9	10,840	412	522	585,926
충남	172	201	191,896	49	58	69,042	5	5	4,727	226	264	265,665
전북	42	54	181,124	10	10	2,479	3	3	16,977	55	67	200,580
전남	173	207	131,018	45	55	18,659	11	12	3,161	229	274	152,838
경북	530	739	500,860	89	103	79,127	5	6	11,402	624	848	591,389
경남	560	629	451,419	121	159	207,669	9	9	20,800	690	797	679,888
제주	94	97	35,041	25	25	1,556	0	0	0	119	122	36,597
합계	5,783	6,646	6,207,498	1,186	1,326	688,016	151	154	175,940	7,120	8,126	7,071,454

2회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제2회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2월14일에 개최되어, 협회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건축사회 소속 지역건축사회 신설 승인의 건
 - 경남지역 건축사회 소속으로 하동(남해) 지역 건축사회 신설은 승인하되, 지역건축사회 명칭은 건축사회에 위임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변경 승인의 건
 -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충남건축사회 소속 대전지역건축사회를 보령지역건축사회로, 경북건축사회 소속 점촌지역건축사회를 문경건축사회로, 달성지역건축사회를 칠곡지역건축사회로, 경남건축사회 소속 충무지역건축사회를 통영지역건축사회로, 거제지역건축사회를 거제시 건축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정예판공비의 직책별 사용한도 비율을 삭제하는 회계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정결정 승인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재건축진단회계 일시차입 승인과 건(추가상정안건)
 - 재건축진단회계의 세입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임의적립금에서 2백5십2만원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년도에 세입즉시 반환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출연요청에 대한 협의
 - 부회장이 건설교통부와 좀 더 접촉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진단업무 수입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협의
 - 협회의 94년도와 95년 2월 현재의 진단업무 수입현황과 아울러 95년 2월15일 현재 타기관의 진단업무 수입건수, 22개 구청별 재건축사업승인 건수 등을 조사한 후 차기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이사회 광경

'94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합격자, 소양 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협회강당에서 94년도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합격자 481명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우리협회 건축사시험위원회 김택성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사무처장의 협회 소개와 회원 가입 안내가 있는 후에, 합격자 전원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이 교부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축사법 제28조 1항 2호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조항' 위험 판결

앞으로 건축사들이 업무범위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무소등록이 취소되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건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정지 및 등록취소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건축사회 최영석회원(대전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소송과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취소 토록한 현행 「건축사법 제28조 1항 2호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건축사와 같은 전문지식과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경우도 업무범위를 넘는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95년도 각 시도 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 개최



부산건축사회 총회광경

95년도 각 시도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2월10일 경북건축사회를 필두로 서울건축사회를 제외하고 2월 한달동안 개최되었다. 지난 2월 28일까지 개최된 각 건축사회별 부의사항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22(수) 10:00
- 개최장소: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493명중 218명
- 의결사항:
 - 94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대의원 개선의 건(12명) -집행부에 위임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2.27(월) 10:00
- 개최장소: 대구파크호텔 1층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328명중 223명 참석
- 의결내용:
 - 94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16(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인천건축사회 소재 건물 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166명중 85명
- 의결사항:
 - 9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4년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감리지도반운영 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도서검토제 폐지 결정의 건

-시행일: 1995.2.17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28(화) 10:00
- 개최장소: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34명중 100명
- 의결사항:
 - 94회계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수정승인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2.21(화) 10:30
- 개최장소: 대덕 롯데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139명중 105명
- 의결사항:
 - 1994년도 수지예산 결산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강원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2.22(수) 10:00
- 개최장소: 춘천 세종호텔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86명중 45명
- 의결내용:
 - 199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협회창립 30주년 및 건축학회 강원도지부 창립50주년 기념사업 공동 시행의 건 -건축학회에서 발간하는 설계작품집에 게재 희망회원은 적극 참여토록 홍보키로 결의

경기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2.27(월) 오전10시
- 개최장소: 수원 브라운관광호텔 1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436명중 153명 참석
- 의결내용:
 - 94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제1차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충청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23(목) 10:30~12:00
- 개최장소: 청주 명암관광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91명중 62명
- 의결내용:
 - 제27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4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충청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21(화) 21:00
- 개최장소: 공주관광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78명중 47명
- 의결내용:

- 9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전라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10(금) 10:30
- 개최장소: 전주 목원예식장(죽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94명중 77명
- 의결내용:
 - 1994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1994년도 수지결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

전라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28(화) 12:00
- 개최장소: 광주 추선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55명중 36명
- 의결내용:
 - 94년도 수지예산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경상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24(금) 11:00
- 개최장소: 경주 풍요드 호텔 에머랄드 홀
- 참석인원: 재적회원 121명중 95명
- 의결내용:
 - 94년도 회계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통과
 - 95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수정후 통과

경상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2.27(월) 10:30
- 개최장소: 경남건축사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273명중 177명
- 의결내용:
 - 9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제1차 추경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지역건축사회장 선출의 건 -하동지역건축사회 조태희회장 선출
 - 대의원 개선의 건 -안병석 · 안병한 선출

제주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5. 2. 17(금) 16:15
- 개최장소: 제주 하니관광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46명중 29명
- 의결내용:
 - 1994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원안통과
 - 공사감리미 예탁 시행지침 개선(안) 승인의 건 -일부 수정하여 임원에 위임

'95건축사자격(면허)시험 설계 과정 예시제 폐지

건설교통부는 오는 95년부터 건축사자격(면허)시험에 있어서의 설계과제 사전예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설계과제 예시제 폐지는 기존의 시험방식이 건축설계과제의 예시제로 인해 특정과제 암기위주의 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설계능력이 부족한 건축사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번 설계과제 예시제 폐지는 설계능력 평가위주의 2차 시험 실시 및 설계과제 예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건축사 면허 및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패션위원회의 쇄신 방안 확정정보에 따라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사법을 개정('95.1.5)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 1월24일에 있었던 건축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95년 시험부터는 당일 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건축사회 명칭 변경

우리 협회는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건축사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건축사회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충 남	대전지역건축사회 (대전시, 보령군, 청양군)	보령지역건축사회 (보령시, 청양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대전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보령시'로)
경 북	철원지역건축사회 (철원시, 문경군, 예천군)	문경지역건축사회 (문경시, 예천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철원시와 문경군이 통합되어 '문경시'로)
	달성지역건축사회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지역건축사회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일부 편입으로 달성을 칠곡으로)
경 남	충무지역건축사회 (충무시, 통영군, 고성군)	통영지역건축사회 (통영시, 고성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통영시'로)
	거제지역건축사회 (거제군, 광송포시)	거제시건축사회 (거제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거제군과 광송포시가 통합되어 '거제시'로)

서울건축사회, 건축조례집 발간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회원들의 편

의를 도모하고자 서울시 22개 구청 조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축조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조례집은 한페이지를 양분하여 좌측에는 22개 구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조례를 수록하고, 우측에는 해당구 명칭을 명시하였으며 하단에 해당구만의 내용을 수록하여 보는 이로부터 하여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건축사회, 신입회원 교육 실시



교육광경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2월 17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부산건축사회관 12층(다목적 홀)에서 94년도 신입회원 교육 및 리셉션을 가졌다. 시종 화기애해한 분위기속에서 거행된 이날 교육에서 신입회원 68명중 48명이 참석했

며 강사로는 이종관(본협회이사), 김성일(부산광역시 건축과장), 허경원(부산 건축사회 자문위원), 이종생(한국경영 컨설팅 대표)가 참석하였다.

경기건축사회, 건축사회관 건립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최계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사회관이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에 기공식을 마친 건축사회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3,506.40㎡)규모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건립되며, 경기건축사회 오성윤회원(수원 오성윤 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설계를 맡았다. 한편

경기건축사회관 1,6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5층은 업무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조감도

대한건축학회, 철근콘크리트 극한강도 설계법 기술강좌 실시

대한건축학회는 오는 3월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사당동 건축회관에서 1994년에 개정된 철근콘크리트 극한강도 설계법에 관한 기술강좌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강좌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극한강도 설계법(USD)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강도 콘크리트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준비, 새로운 벽체 설계법 개념, 극한강도 설계법에 따른 콘크리트 시공 및 품질관리, 프리스트레스트 설계법, 내진설계에 관한 공극증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포럼', '96 '동경 세계도시 박람회' 참여

'21세기 도시의 비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96년 3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되는 '96 '동경 세계도시 박람회'에 도시건축 기획업체인 '서울포럼'(대표 김진애)이 서울시 전시관 출품업체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포럼'의 전시기획안에 따르면 「감(感)과 촉(觸), 2천만 월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풍요로운 축복을」이라는 내용으로 오는 6월까지 기본설계를 확정된 후 전시관 제작을 마치고 올해말에 전시물을 동경으로 옮겨, 내년 1~2월에 전시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포럼」은 이밖에도 1백60㎡ 규모의 전시실에 「서울 전통기차」와 「서울 투어 쇼윈도», 「서울 24시 탐험», 「서울 역사의 무궁한 생명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물들을 제작할 예정이다.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말레 비전시티』 설계

말레이시아 팔라롱푸르 중심부에 위치하게 될 대규모 복합컴플렉스 「비전시티」가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주)대우가 지난해 말 턴키베이스로 수주한 것으로 1998년말 완공을 목표로 말레이시아의 2천년대 비전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면적 10만5천평에 돛형식의 오락센터를 중심으로 침탑형식의 고층 건물 3동으로 구성되며, 설계비는 3억40만 달러로 추정되는 총 공사비의 5%선인 1천5백만달러(한화 120억원)로 국내 건축설계수주사상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계수주는 국내 건축설계업의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국내 건축설계업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44페이지 참조>



모형도

건미준, 『재개발, 재건축토론회』 개최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건미준)』은 지난 2월16일 오후 2시에 동승동 홍사단 강당에서 『재개발, 재건축 1995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김진애씨(서울포럼 대표)는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의 개발이주의와 공공의 개발 방임주의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도시관리의 생산성저하, 주택배분의 안정성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는 철저한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건미준이 제시한 정책은 잉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시키고 주민에게는 일정 인센티브만 허용하여 개발이 입체적, 복합적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련법규를 개선(용적률은 총량 규제하고 건폐율 규정은 폐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상설계공모

원주시는 근로자들에게 종합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상설계를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

- 건물명 : 근로자 종합복지관
- 건립위치 : 원주시 우산동 411-10번지
- 대지규모 : 9,782㎡(약 2,959평)
- 건립규모 : 약 2,000평(지하 1층, 지상 5층)
- 응모 신청기간 : 1995. 3. 7~3. 17 18:00까지
- 응모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사용인감제 1부
- 접수처 : 원주시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T: (0371)41-2313)
- 현장설명 일시 : 1995. 3. 20 15:00
- 현장설명 장소 : 원주시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 작품제출 기간 : 1995. 5. 20 18:00
- 당선작 발표 : 1995. 5월중(개별통지)
- 시상 : 당선작(1점)-실시설계, 공사감리 특전부여 우수작(1점)-상금 1,000만원 가작(2점)-상금 점당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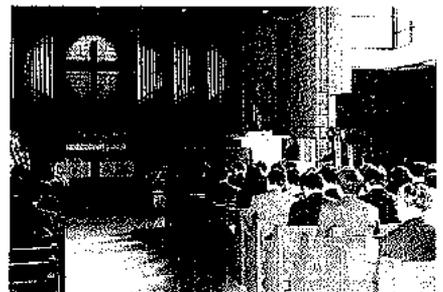
서울 이관영회원, 제주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 계획』 발간

서울 이관영회원(한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제주도 남제군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종합정비계획』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은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아 건물 및 성문의 복원, 전통취락의 보존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읍민속마을의 원형보존과 지역주민 생활여건의 개선, 관광환경의 조성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의 부록에는 성곽보존 현황사진, 국가지정문화재 5가옥 실측도면 및 가옥배치도(성곽내·외)가 수록되어 있다.



김정수 교수, 10주기 추모식 거행

故 金正秀 선생(1919~1985)의 10주기 추모식이 지난 2월 18일 연세대 루스 체펠에서 유족과 친지, 제자, 그리고 많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구 건축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인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거목으로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고인이 생전에 남긴 연구논문과 작품들은 오늘날 후배 건축인들에게 값지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한편 초평 선생의 생애를 추모하는 추모문집 발간작업이 10주기 추모준비 위원회에 의해 진행중이며 뜻있는 분의 많은 원고투고를 바란다. (보내실 곳 : 연희건축사사무소 02-322-8456)



추모식 광경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도시건축연구소(소장이규성)는 지난 2년간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최근 『장제촌』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장제촌』은 중국과 연변 조선족 주거실태에 대한 최초의 현장 연구서로서 건축학 관련 연구자 및 건축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3월4일(토)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연구보고회(오후2시)와 출판기념회(오후4시)를 갖기도 했다.